

청소년 비행상담

집필 : 김 성 이
강 지 원
구 본 용
황 순 길

기획 및 편집진

총	괄	오	익	수
		남	상	인
기획책임		박	경	애
기	획	최	은	영
		함	영	훈
편집책임		박	경	애
		김	진	숙
		맹	영	진
편	집	함	영	훈
		안	희	정
		최	은	영
		김	현	주
		강	재	연
		이	인	화
편집보조				

발 간 사

청소년상담은 아직 젊은 분야입니다.

젊다고 하기보다는 어리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런지도 모르는 그런 분야입니다. 성인상담이나 아동상담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 분야가 바로 청소년상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의 독특한 측면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두드러지게 이론화하고 실천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은 아직도 본궤도에 이르러 있는 상태가 못됩니다. 전세계의 상담학계의 현실이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청소년상담의 개척자로 최일선에서 이론과 실천 분야를 다같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청소년대화의광장에서 청소년상담에 관한 열 권의 책자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의 교육 훈련이나 학문 연구에 다같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책자는 원래 청소년상담원 연수 교재로 구상한 것입니다. 연수 교재로 개발된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청소년상담 분야는 물론 상담 전반에 걸쳐서도 상당히 크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간한 청소년상담 분야의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발달상담 : 박아청, 김혜숙, 김창대
2. 청소년 학업상담 : 김형태, 오익수, 김원중, 김동일
3. 청소년 진로상담 : 장대운, 김충기, 박경애, 김진희
4. 청소년 성격상담 : 임승권, 김정희, 김병석
5. 청소년 비행상담 : 김성이, 강지원, 구본용, 황순길
6. 청소년 약물상담 : 주왕기, 김경빈, 이숙영, 맹영진
7. 청소년 개인상담 : 이혜성, 이재창, 금명자, 박경애
8. 청소년 가족상담 : 이옥주, 김유숙, 김용태
9. 청소년 집단상담 : 홍경자, 김태호, 남상인, 오익수
10. 청소년상담 슈퍼비전 : 박재황, 김계현, 노안영, 김진숙

이상 열 권의 책자를 집필해 주신 모든 저자님들의 수고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9월이 지나서야 원고 청탁을 하고 11월말까지 원고를 마감해 달라는 무리함을 인내하고 집필을 마쳐주신 그 수고에 감사와 감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필 기간중 큰 일을 당하시고도 원고를 마치느라고 거의 건강을 잃을 뻔한 강지원 검사님의 노고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열 권의 교재가 나오기까지 오익수 박사님을 비롯한 교재 개발팀의 박경애 박사님, 김진숙 박사님, 맹영진 박사님 그리고 함영훈, 안희정, 최은영, 김현주, 강재연 선생님과 이인화 씨의 정성어린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휴일을 이 책의 완성을 위해 다 바친 그분들의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희생, 땀, 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기에 청소년상담의 앞날에는 밝고 힘찬 전진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널리 그리고 많이 읽히고 또 읽혀서 청소년상담의 밑거름이 되는 열 권의 교재 아니 최선의 양서가 될 것을 믿어봅니다. 감사합니다.

1996. 12

원장 朴 性 洙

서 문

청소년을 생각하면 비행이란 단어가 생각날 만큼 청소년과 비행이 마치 불가분의 관계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 청소년의 비행은 부모, 교육자는 물론 상담가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비행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비행이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청소년 상담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비행 상담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개론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행은 그 원인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행위 유형들로 서로 중복되어 있다. 또한 비행으로 규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도 사회의 가치 기준에 따라,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행위가 일어난 상황에 따라, 목적과 관심의 초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비행을 이해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도 학문적 성격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개론서를 제작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 책은 일곱 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비행의 개념과 원인 및 상담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였고, 우리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요 비행 유형의 양적 실태를 정리하고, 그 발생 원인과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통해 초심자들에게 비행 청소년 상담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정책을 제언하였고, 상담자들에게 법과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 책의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저자들의 의도가 반영되었다.

첫째, 이 책에서는 새롭고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보다는 독자들에게 비행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비행 상담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담 전략들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둘째, 청소년 상담가들에게 비행의 구체적인 실태, 특히 비행의 유형별 원인과 대처 방안을 제공하고, 나아가 실제적인 상담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비행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상담의 과정과 전략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셋째, 청소년 상담가들에게 우리 나라에서 비행 청소년들과 관련된 법규와 관련 기

관들의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상담 과정에서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비행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상담자들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조력 체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이 집필자들의 부족한 능력 그리고 짧은 제작 기간으로 인해 전공 영역이 각기 다른 복수의 집필자들의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작되다 보니 각 장의 기술 형태의 상이성과 내용 중복성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집필자들의 의도를 가급적이면 가감 없이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인 내용의 전개가 무리가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장의 통합과 독특성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 책이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상담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저자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많은 충고를 주시기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청소년대화의광장 박성수 원장이 보내 주신 지극한 격려와 끊임없는 조언에 감사드리며, 집필 내용의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신 청소년대화의광장 상담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특히 이 책이 서로 다른 집필자들에 의해 제작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맞추고, 내용을 편집하며, 때로는 필자들 간의 논의를 위해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주는 등 온갖 꾀은 일을 웃음을 잃지 않고 도와준 청소년대화의광장의 최은영 선생님의 노고에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 또한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을 위해 묵묵히 보조해 주신 이미숙, 유현실 선생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 분들의 헌신적이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의 출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끝으로 청소년 상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전문 상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재를 집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신 문화체육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1996년 12월 著者 謹識

목 차

제1장 청소년 비행의 개념	21
1. 비행의 개념	23
2. 청소년 비행의 의미	25
3. 비행 청소년의 의미	26
제2장 청소년 비행의 원인	29
1. 사회학적 설명	31
1.1 아노미적 관점	31
1.2 사회통제적 관점	33
1.3 비행 문화적 관점	34
2. 심리학적 설명	39
2.1 정신 분석적 관점	39
2.2 인지 이론적 관점	41
2.2.1 지능 이론	41
2.2.2 도덕성 추론 이론	42
2.3 사회 심리 이론	43
2.3.1 사회 학습 이론	43
2.3.2 사회 정보 처리 모형	45
2.4 정체성과 인상관리 이론	47
2.4.1 정체성 유지와 비행	47
2.4.2 자기로부터 도피로서의 비행	49
3. 가족학적 설명	51
3.1 가족구조와 기능	51
3.1.1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 비행	51

목 차

3.1.2	부부 관계 및 가족 체계의 특성과 청소년 비행	52
3.1.3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가정의 구체적 환경 요인	53
3.2	양육 방식과 비행화 과정	53
3.3	비행에 영향을 주는 양육 방식	56
3.3.1	훈육	56
3.3.2	바람직한 행동의 육성	60
3.3.3	관찰과 감독	62
3.3.4	문제 관리 능력의 육성	63
3.3.5	양육 방식과 비행과의 관계	64
4.	청소년 비행 원인에 대한 종합적 이해	65
4.1	우리 나라 청소년 비행 형성 및 유지 요인	65
4.1.1	가족 환경	65
4.1.2	학교 환경	67
4.1.3	동료 관계	69
4.1.4	개인적 특성	71
4.2	청소년 비행 원인의 종합적 관계	77
제3장	청소년 비행의 양적 실태	79
1.	청소년 행위 특성에 따른 비행 유형	81
2.	청소년 비행의 현황 : 공식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85
2.1	총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구성 현황	86
2.2	연령별 현황	86
2.3	유형별 현황	87
2.4	성별 현황	88
2.5	교육 정도별 현황	88
2.6	가족 관계별 현황	89
2.7	범행 동기별 현황	89
2.8	전과별 현황	91
2.9	공범 관계별 현황	91
2.10	학생 비행 - 학생 범죄의 연도별 현황	92
2.11	학생 비행 - 학생 범죄의 유형별 현황	92

1. 가출	97
1.1 청소년 가출의 정의	97
1.2 청소년 가출의 원인	98
1.2.1 개인적 요인	98
1.2.2 가정적 요인	99
1.2.3 사회적 요인	101
1.3 청소년 가출의 실태	102
1.4 청소년 가출의 대책	103
2. 자살	105
2.1 청소년 자살의 정의	105
2.2 청소년 자살의 원인	106
2.2.1 사회학적 접근	106
2.2.2 정신 분석적 접근	106
2.2.3 인지 이론적 접근	107
2.2.4 Baumeister의 통합적 접근 :	
‘자기로부터의 도피로서의 자살’	108
2.3 청소년 자살의 실태	109
2.3.1 양적 실태	109
2.3.2 질적 분석	113
2.4 자살의 예방과 대처 방안	113
2.4.1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113
2.4.2 자살의 예측 변인	114
2.4.3 청소년들의 자살 경고 신호	114
2.4.4 대처 방안	115
2.5 부언	116
3. 도벽	116
3.1 청소년 도벽의 정의	116
3.2 청소년 도벽의 원인	117
3.3 청소년 도벽의 실태	117
3.3.1 양적 실태	117
3.3.2 질적 분석	118

3.4 예방 및 대처 방안	119
4. 갈취	119
4.1 청소년 갈취의 정의	119
4.2 청소년 갈취의 원인	120
4.2.1 가정 및 사회적 원인	120
4.2.2 또래 환경적 원인	120
4.3 청소년 갈취의 실태	120
4.3.1 양적 실태	120
4.3.2 질적 분석	121
4.4 예방 및 대처 방안	121
5. 폭력	122
5.1 청소년 폭력의 정의	122
5.2 청소년 폭력의 원인 및 동기	123
5.2.1 개인적 원인	123
5.2.2 가족 구조의 변화	123
5.2.3 과대 경쟁과 입시 교육 위주의 학교 교육	124
5.2.4 향락, 쾌락 추구적인 사회 구조	124
5.3 청소년 폭력의 실태	125
5.3.1 양적 분석	125
5.3.2 질적 분석	126
5.4 예방 및 대처 방안	128
5.4.1 아동 초기의 양육에 초점을 둔 부모 교육과 예비 부모의 상담	128
5.4.2 학령기의 부모 교육과 교사 교육	128
5.4.3 현대 사회의 성격에 적합한 도덕 및 가치 교육의 강화	129
6. 불량 서클	131
6.1 청소년 불량 서클의 정의	131
6.2 원인	133
6.2.1 가정 환경적 원인	133
6.2.2 또래 환경적 원인	134
6.2.3 청소년 불량 서클의 실태	134

6.3 예방 및 대처 방안	138
7. 청소년 성 비행 -성 폭력을 중심으로-	138
7.1 청소년 성 비행의 정의	138
7.2 청소년 성 비행의 원인	139
7.2.1 발달적 원인	139
7.2.2 가정적 원인	140
7.2.3 학교 및 사회 환경적 원인	140
7.3 청소년 성 폭력의 실태	142
7.3.1 양적 실태	142
7.3.2 질적 분석	143
7.4 예방 및 대처 방안	145
7.4.1 개인적 차원의 예방책	145
7.4.2 법적, 제도적 차원	146
7.4.3 교육적,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	146
8. 오락벽	147
8.1 청소년 오락벽의 정의	147
8.2 청소년 오락벽의 원인	148
8.2.1 심리적 원인	148
8.2.2 가정적 원인	149
8.2.3 사회적 원인	149
8.3 청소년 오락벽의 실태	150
8.3.1 양적 실태	150
8.3.2 질적 분석	153
8.4 예방 및 대처 방안	154
8.4.1 가정적 차원	154
8.4.2 학교 · 사회적 차원	155
9. 학업 비행	156
9.1 청소년 학업 비행의 정의	156
9.2 청소년 학업 비행의 원인	156
9.3 청소년 학업 비행의 실태	157
9.3.1 양적 실태	157
9.3.2 질적 분석	158

9.4 예방 및 대처 방안	159
10. 가족 폭력	160
10.1 청소년 가족 폭력의 정의	160
10.2 청소년 가족 폭력의 원인 및 동기	161
10.3 청소년 가족 폭력의 실태	163
10.3.1 양적 분석	163
10.3.2 질적 분석	166
10.4 예방 및 대처 방안	166
제5장 비행 청소년 상담	169
1.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171
2. 비행자의 심리적 특성과 주요 상담 과제	172
2.1 사회적 비행	173
2.1.1 특성	173
2.1.2 주요 상담 과제	174
2.2 성격적 비행	175
2.2.1 특성	175
2.2.2 주요 상담 과제	176
2.3 신경증적인 비행	178
2.3.1 특성	178
2.3.2 주요 상담 과제	180
2.4 정신병적 기질적 비행	180
2.4.1 특성	180
2.4.2 주요 상담 과제	181
3. 상담 개입 전략	182
3.1 비행 청소년 평가	182
3.2 사회적 도덕성 발달의 지연	183
3.3 왜곡된 인지적 특성	186
3.4 사회적 기술의 결핍	188
3.5 분노 혹은 좌절감의 관리	188
3.6 기타	190

4. 일반적인 상담 방법	190
4.1 부모 및 가족상담	190
4.2 개인 상담시 고려 사항	192
제6장 비행 청소년 상담 사례	201
1. 성 폭력 사례	203
1.1 사례 개요	203
1.1.1 내담자 소개	203
1.1.2 의뢰 과정	204
1.1.3 제시된 문제(문제력)	204
1.1.4 가족 관계	204
1.2 문제 평가 및 상담 계획	205
1.2.1 문제 평가 과정	205
1.2.2 문제 평가 내용	205
1.2.3 목표 설정 및 계약	205
1.3 상담 과정	206
1.4 평가 및 상담 후 상황	215
1.4.1 내담자의 평가	215
1.4.2 상담자의 평가	215
2. 절도 사례	216
2.1 사례 개요	216
2.1.1 내담자 소개	216
2.1.2 의뢰 과정	216
2.1.3 제시된 문제	216
2.1.4 가족 관계	216
2.2 문제 평가 및 목표 설정	217
2.2.1 문제 평가	217
2.2.2 심리 검사	218
2.2.3 상담 목표	219
2.3 상담 과정	219
2.3.1 상담 전반기	219
2.3.2 상담 중반기	221
2.3.3 상담 후반기	223

2.4 평가	225
3. 비행 청소년들의 가치 재정립을 위한 단기 집단 치료 사례	225
3.1 집단의 구성과 치료 계획	225
3.1.1 집단의 구성	225
3.1.2 문제의 원인	226
3.2 치료 계획	227
3.3 집단 단기 치료의 실제	228
3.3.1 시청각 교육	228
3.3.2 나눔	229
3.3.3 성장 곡선 그리기	231
3.3.4 가치관 경매	232
3.3.5 역할극	233
3.3.6 등산	233
3.3.7 수료식	234
3.4 프로그램 평가	234
4. 등교 거부 사례	235
4.1 사례 개요	235
4.1.1 가족 구성	235
4.1.2 문제 행동과 발생 과정	235
4.2 문제 평가 및 상담 계획	235
4.3 상담 과정	237
5. 도벽 사례	244
5.1 사례 개요	244
5.1.1 내담자 소개	244
5.1.2 의뢰 과정	245
5.1.3 제시된 문제	245
5.1.4 가족 관계	245
5.2 가족 체계 특성에 대한 평가 및 상담 계획	246
5.2.1 부부의 결혼	246
5.2.2 결혼 생활 및 가정 내 사건	246
5.2.3 의사 소통 유형	246
5.2.4 상담 계획	247

5.3 상담 과정	247
5.3.1 초기 접촉 및 계약 단계	247
5.3.2 절정 및 혼돈 단계	248
5.3.3 통합 및 종결	249
5.4 종합 및 평가	250
6. 자살 사례	250
6.1 내담자 기본자료	250
6.1.1 내담자 인적 사항	250
6.1.2 내담자의 가족사	251
6.2 상담 문제와 배경	252
6.2.1 접수 문제	252
6.3 상담의 방향 및 과정	254
6.3.1 문제 진단	254
6.3.2 상담 목표	254
6.3.3 상담 전략	255
6.4 상담 과정	256
6.4.1 초기 상담	256
6.4.2 중기 상담	258
6.4.3 중-후기 상담	261
7. 폭력 사례	264
7.1 내담자 기본자료	264
7.1.1 내담자 인적사항	264
7.1.2 내방 경위	265
7.1.3 호소 문제	265
7.1.4 인상 및 행동 관찰	266
7.1.5 가족 사항	267
7.2 상담 문제 및 상담의 목표	268
7.2.1 상담자가 생각한 내담자 문제 행동의 발생 과정	268
7.3 상담 목표 및 전략	271
7.3.1 상담 목표	271
7.3.2 상담 과정과 전략	271
7.4 상담 과정 요약	272
8. 사례에 대한 제언	279

9. 사례를 통해서 본 비행 청소년 상담의 유의점	281
-----------------------------------	-----

제7장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1. 정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현황 분석	285
1.1 경찰청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285
1.1.1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목적	285
1.1.2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근거법	285
1.1.3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추진 방향	285
1.1.4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 및 서비스 전달 체계	286
1.2 법무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287
1.2.1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목적	287
1.2.2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근거법	288
1.2.3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추진 방향	288
1.2.4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 및 서비스 전달 체계	289
1.3 교육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292
1.3.1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목적	292
1.3.2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근거법	293
1.3.3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추진 방향	293
1.3.4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 및 서비스 전달 체계	293
1.4 보건복지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295
1.4.1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목적	295
1.4.2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근거법	295
1.4.3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추진 방향	295
1.4.4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 및 서비스 전달 체계	296
1.5 문화체육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299
1.5.1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목적	299
1.5.2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근거법	299
1.5.3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추진 방향	299
1.5.4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 및 서비스 전달 체계	300
2.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개선 방안	301
2.1 가정 교육 강화 측면	302
2.1.1 가정 복지 정책 및 상담 체제 강화	302
2.1.2 부모 교육 강화	303

2.2 학교 상담 강화 측면	303
2.2.1 학교 환경 및 징계 절차 개선	303
2.2.2 학교 상담실 확충 및 기능 강화	304
2.3 사회적 예방 및 상담 활동 강화 측면	304
2.3.1 지역 사회 내 비행 실태 진단	305
2.3.2 유해 환경 정화 및 감시 체제 강화	305
2.3.3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 강화	305
2.4 국가 제도의 개선 측면	306
2.4.1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 보완	306
2.4.2 상담 명령제 도입	306
2.4.3 보호 관찰 제도의 개선	307
2.4.4 사회 재적응을 위한 half-way house 설립	307
참고문헌	308
부록 1. 비행 청소년의 법적 처리 절차	323
부록 2. 청소년에 대한 경찰청과 법무부 정책	337

표 목 차

<표 3-1> 청소년 비행 유형	82
<표 3-2> 총범죄 대비 소년범죄 구성 현황	86
<표 3-3> 연령별 현황	87
<표 3-4> 유형별 현황	87
<표 3-5> 성별 현황	88
<표 3-6> 교육 정도별 현황	88
<표 3-7> 가족 관계별 현황	89
<표 3-8> 동기별 현황	90
<표 3-9> 전과별 현황	91
<표 3-10> 공범 관계별 현황	92
<표 3-11> 학생 범죄의 연도별 현황	92
<표 3-12> 학생 범죄의 유형별 현황	93
<표 4-1> 학생 가출 실태 현황	103
<표 4-2> 청소년의 5대 사인 순위	109
<표 4-3> 자살 생각의 빈도	110
<표 4-4> 성별 자살자 수	111
<표 4-5>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상황	111
<표 4-6> 자살 생각에 대한 대처 행동	112
<표 4-7> 자살의 예측 변인	114
<표 4-8> 청소년들의 자살 경고 신호	114
<표 4-9> 청소년들의 폭력 피해 실태	125
<표 4-10> 전자 오락의 시간 및 빈도	150
<표 4-11> 선호하는 전자 오락 프로그램 (전자 오락실의 경우)	151
<표 4-12> 선호하는 전자 오락 프로그램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152
<표 5-1> 비행 원인 유형별 비행 주요 원인 및 주요 상담 과제	182
<표 6-1> 집단원 소개	225

그림 목차

<그림 2-1>	A Schematic of Berkowitz's(1993) theory of aggression	46
<그림 2-2>	자기로부터 도피로서의 비행	50
<그림 2-3>	Family contributions to delinquent behavior : a proposed developmental	56
<그림 2-4>	Escaration in a typical incident resulting in injury to a child	58
<그림 2-5>	전체 비행의 인과적 경로 모형	78
<그림 2-6>	비행 경로의 가설적 모형	78
<그림 5-1>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 과정	172

청소년 비행의 개념

1. 비행의 개념
2. 청소년 비행의 의미
3. 비행 청소년의 의미

1. 비행의 개념

사회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대체로 3가지의 유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사회 문화 속에 내재된 가치 규범에 의해서 전적으로 수용될 수 있거나 적어도 특정상황에서 수용될 수 있는 행동들을 의미하며, 둘째 유형은 독특하거나 특별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무질서를 초래하지는 않는 행동들을 의미하고, 셋째 유형은 일탈 정도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나, 혐오감 혹은 분노나 복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말한다(Binder, 1987).

그러나 어떤 행동을 사회가 수용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법률적 제재를 가해야하는 행동으로 볼 것인지, 또한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행동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특정 문화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화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때는 우리나라 가정 혹은 학교에서 자녀나 학생들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행동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오히려 장려되기도 하였다. 또한 농촌에서 청소년들이 ‘참외서리’를 한다던가 ‘가축서리’를 하는 것도 일종의 애교스러운(?) 행동으로 이해되어 온 경향도 있었다. 학생들이 무임 승차를 하고 무전 여행을 하는 행동들은 오히려 이들 집단에서는 일종의 용감한 행동으로 불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행동들조차 법률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비행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가치 규범에서 일탈된 행동을 비행이라 지칭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일탈된 행동으로 보느냐, 혹은 그러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인내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회의 문화나 법규정 또는 관습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비행의 정의**는 무척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의 여러 가지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가르키며, 법률적으로 보면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를 가르키며, 도덕적 차원에서는 도덕적 규범을 어긴 것을 가르키며, 교육적 차원에서는 교육 기관의 규칙을 위반한 것을 가르키며(박성수 1995), 정신 건강의 차원에서는 정신 건강의 진단 분류기준에 의해 이상 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동을 가르킨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이란 일정한 잣대에 비추어 일탈된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비행을 판정하는 잣대는 학문적 관점에 따라서 또는 사회적 시각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에서 보든 비행은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손상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입히게 되는 경우 이는 사회의 통념적 잣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비행은 행위의 내용 뿐만 아니라 행위의 지속성의 여부에 따라 구별되기도 한다. Weiner(1982)는 행위의 지속성과 빈도의 차원에서 비행을 4가지 유형으로 구별한 바 있다. 즉 비행이란 단발적 비행 행위(single delinquent acts)를 가르키기도 하고, 다양한 비행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으키는 행위(a single episode of multifil delinquent acts)를 가르키기도 하고, 간헐적이긴 하지만 반복적인 비행 행위(occasional but repetitive delinquent acts)를 가르키기도 하며, 지속적인 비행 행위(a continually delinquent way of life)를 가르키기도 한다.

따라서 비행은 행위의 내용과 빈도에 따라 정의될 필요가 있다. 박성수(1995)는 비행의 빈도와 비행의 심각성, 법률적 차원에서 비행을 가르키는 말이 지닌 의미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첫째로 비행이란 단 한 가지의 행위를 가르킬 수도 있고, 복잡하게 얽힌 여러 가지 종류의 행위로 구성된 한 가지의 사건일 수도 있다. 또한 일생 동안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행동을 가르킬 수도 있고, 일생 동안 단 한 번 행한 잘못일 수도 있다. 둘째로는 비행이란 살인, 강도, 폭행과 같이 심한 범죄 행위를 가리킬 수도 있고, 동시에 '참외서리' 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치마를 들추는 '아이스케이프'와 같은 가벼운 문제 행동을 가르킬 수도 있다. 음주, 흡연, 데이트 등과 같이 성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즉 강도, 살인, 절도 등 그 피해가 심각한 강력 범죄 행위에서부터 유해한 장소 출입, 무질서한 행동, 방랑벽 등 사소한 위반행위는 물론 과잉 농담, 과다 노출, 불량한 복장 등 경미한 일탈 행동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한 행동을 가르킨다. 민하영(1992)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대인 비행(패싸움, 흥기 소지, 폭행, 공갈 협박, 금품 탈취, 강도, 강간), 대불 비행(방화, 절도, 공공기물 파괴, 등 록금 유용 등), 약물 사용(대마초 흡연, 환각제 또는 본드 사용, 마약 사용 등), 지위 비행(무단 결석, 가출, 음주, 유흥장 출입, 흡연, 음란물 경험, 성 경험 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 중에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법적제재는 물론 비행 청소년으로 쉽게 낙인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특별히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쉽게 행하는 행동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가 비행을 논의하는 주된 관점은 그 행동을 통제하거나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상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불안한 내담자나, 가정으로 돌려보내져야 하는 비행 청소년, 사회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 사회 질서 위반자들을 볼 때 이들이 보이는 행동은 통제되거나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비행이란 법률의 저촉 여부를 불문하고 공동의 가치 체계를 침범 또는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통 범죄라고 불리는 행위를 비롯하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도덕적, 관습적 기준으로부터 이탈된 행위를 의미하며, 자신과 타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청소년 비행의 의미

2. 청소년 비행의 의미

청소년 비행이란 청소년들에 의해서 행해진 비행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이란 청소년의 행동 중에 어떤 일정한 가치의 잣대에 비추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 비행을 논의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가치의 잣대는 성인 비행을 판단하는 잣대에 비해 도덕적, 교육적 기준이 강조된다.

청소년 비행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법률의 위반 뿐만 아니라 공공의 사회적 가치를 침범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하는 부도덕 행위까지도 포함하며(정문성, 1992), 특히 청소년들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중요한 비행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에는 성인 비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들보다 더욱 다양한 행동들이 내포된다.

특히 성인의 경우에 비행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비행으로 규정되는 비행 유형이 청소년들의 지위 비행이다. 즉 성인들에게는 허용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에게는 금지된 행동, 즉 비디오방,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의 출입, 흡연, 음주, 성과 관련된 행동, 어른에 대한 불경스러움 등이 비행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덕성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행

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청소년 비행을 정의하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청소년기에 비행을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 그 자체가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개인적 발달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한두 가지의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행동들은 어떤 경우에 파격의 멋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비행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청소년 비행을 여러 갈래로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다.

3. 비행 청소년의 의미

비행 청소년이란, 비행을 한 청소년들 가운데 현저하게 나타나는 비행 관련 특성 때문에 정상적인 청소년과 구별하여 생각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이란 비행 행위를 되풀이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비행 행위의 여러 특성을 지닌 청소년을 가리킨다. 또한 정상적인 생활과 문화적으로 규범적인 행동양식에서 벗어나서 사회 전체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청소년을 가리킨다(박성수, 1995).

한편 **법률적 의미**(소년법 제4조)에서 보면 비행 청소년을 행위의 유형과 연령에 따라 범죄 소년, 촉범 소년, 우범 소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범죄 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형사 책임을 져야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촉범 소년이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또한 우범 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 낭비, 부녀 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형법 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 보호법에서는 비행 청소년을 불량 행위(일명 풍기사범)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량 행위 소년은 음주, 깃연, 싸움을 하거나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 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

게 하는 소년을 지칭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비행 청소년이란 법규를 위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물론 앞으로 그럴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라 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비행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앞서서 언급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의 비행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이란 명칭은 현재 혹은 앞으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발달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정도의 행동을 빈번하게 하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행 청소년으로 구별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성격 발달, 학업 발달, 생애발달 등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정서, 인지, 대인관계, 과제 수행 등의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신체적, 기질적, 환경적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을 이해하려면 비행을 비행의 원인들과 관련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비행 청소년의 의미

청소년 비행의 원인

1. 사회학적 설명
2. 심리학적 설명
3. 가족학적 설명
4. 청소년 비행 원인에 대한 종합적 이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밝히려는 접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상호 작용적(interactional), 개별적(individualistic) 그리고 환경적(environmental) 측면을 포함한 사회 현상으로서의 일탈과 비행 행위는 인간의 내·외적 성질(internal and external property) 양자의 산물로 인식된다(Sadoff, 1978; Earls, 1979). 그러나 비행을 정의하거나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청소년 비행이 어느 정도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 보거나, 누구를 비행자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의 특성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의 비행 원인을 밝히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앞에서 비행은 통제되거나 변화되어야 할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어떤 행동과 그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양식과의 관계는 그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이해는 특정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이러한 틀들은 하나의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해와 설명 그리고 이론들은 어떤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상담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고찰하고 이러한 이론으로부터 상담의 방법들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론적 관점은 크게 네 가지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개인 지향 이론으로서 비행의 궁극적인 원인을 한 개인의 내적 속성으로 환원시키려는 관점이다. 둘째는, 사회 구조 지향 이론으로서 사회·문화적 특성을 비행의 원인으로 간주하려는 관점이다. 셋째는, 사회과정 지향이론이다. 여기에서는 사회·문화 속에서 개인의 학습에 강조를 둔다. 즉 첫째와 둘째 관점을 함께 수용하려는 관점이다. 넷째는, 사회 반응 이론이다. 이는 개인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반응의 속성이 비행을 제조해 낸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대체로 사회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가족학적 관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비행의 원인을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가족학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비행을 촉발시키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밝히고 있으며,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비행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밝혀 주고 있다. 또한 가족학은 주로 비행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 환경에 초점을 두어 비행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 범죄나 비행 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은 비행과 일탈 행위를 비행에 대한 개별의 설명들을 단순히 개념화하기보다는 비행 행위를 통합되고 지속적인 과정(integrated, sequential process)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Fagan & Jones, 1984). 이러한 통합된 이론적 모형은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에 관련된 변수들을 확대통합하여 현재화된 비행의 유형에 다수의 인과적 경로(multiple causal paths)를 고려하는 하나의 설명적인 패러다임을 통해 비행 원인을 통합하려는 시도이다(이윤호, 1991). 따라서 비행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들 각각 입장에서 밝혀 주고 있는 비행의 원인을 살펴 보고, 각각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비행의 인과적 모형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1. 사회학적 설명

1.1 아노미적 관점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학의 제 이론 중 문화 전달 이론과 함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노미(anomie)** 이론은 Durkheim에 의해 시작되었고, Merton에 의해 일탈 행위에 대한 일반이론으로 정립되었다.

아노미 이론은 현대 사회가 농업에 기반을 둔 전통 사회에서 고도의 분업화된 산업 사회로 변하게 됨에 따라서, 사회적 연대가 약화된 사회로 변화한다는 Durkheim의 통찰에 기초하여 발달되었다.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는 것은 생산 구조의 분업화다. 생산구조의 분업화는 다양하게 분업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친밀하고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도록 하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통의 규칙(합의된 규칙), 합의된 이해의 체계(합의된 삶의 가치관)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 구조가 분업화된 사회는 점차 각 부분 간의 불협조(imperfect coordination)가 늘어나고, **사회 연대(social solidarity)**가 약화되며, 사회 계급간의 갈등이 증폭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사회 해체화의 경향이 발생하고 사회 체계의 각 부분의 관계를 규제하는 공동의 규칙이 붕괴되간다. 이러한 상태, 즉 **무규범(nomlessness)** 혹은 **규칙 붕괴(deregulation)**의 상태를 아노미라 한다(Durkheim, 1950). 흔히 현대 사회를 가치관의 혼란 시대라하며 이러한 혼란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라고 보는 관점은 이 시각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인간은 생리적 욕구(physical need)와 사회적 욕구(social need), 도덕적 욕구(moral need)를 지니고 있다. 생리적 욕구는 유기체적 욕구에 의해 자동적으로 규제된다. 그러나 사회적 욕구는 외적 규제 수단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는데, 사회 규범이 도덕적 욕구에 작용하여 사회적 욕구를 규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도덕적 힘**이다. 사회의 도덕적인 힘은 사회 정의(사회적 합의된 가치 기준에 의한 분배)가 실현될 경우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규범이 와해된 경우(아노미 상태)에는 인간의 사회적 욕망을 규제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도덕적 규제 수단은 경제적 불황이나 권력과 부가 급증하는

경우에도 파괴된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열망(aspiration)은 증가하거나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도덕적 규제 수단이 약화되어 사회 구성원들의 자살 등의 일탈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편 Merton은 사회의 **규범적 통제력**의 부재가 아노미 또는 무규범 상태를 이끈다는 Durkeim의 개념을 버리고 **구조 기능주의**의 이론을 배경으로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제도화된 수단' 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 긴장이 생기고, 이러한 긴장이 아노미를 초래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가 문화적 가치에 너무나 큰 비중을 두는 반면에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소수의 인구에게만 제한되어 있을 때 높은 일탈 또는 범죄율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가치의 체계가 무엇보다도 모든 성원에게 공통 **문화 목표**를 강조하면서 사회 구조가 상당한 부분의 성원들에게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는 인정된 양식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폐쇄시킨 경우에 일탈 행동은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Merton의 문화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는 긴장 이론가들에 의해 기대와 열망 간의 심리적 격차로 계승되었으며, 기회 인지 이론가들에 의해 심리적인 기회 제약 인지로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아노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학교에서 낮은 학업 성취도와 학생 비행은 매우 큰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고(김선남, 1994), 학생들이 공부압력을 크게 받을수록 지위 비행, 가출, 성 비행 등을 많이 범하고 최초 범행 시기도 빨랐다(김준호, 1990). 학교 성적의 불량이나 공부압력은 청소년들의 열망과 기대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 즉 우리 나라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에서의 좋은 성적이 좋은 대학의 진학을 보장하고, 좋은 대학의 진학은 사회적 성공을 보장한다는 등식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의 입학은 제한된 학생들에게만 주어 진다. 즉 문화적 목표(좋은 성적, 좋은 학교 입학, 사회적 성공)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된 청소년들에게만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적 목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성적 불량 학생이나 공부 압력을 많이 받고는 있으나 사회적 가치를 성취할 수 없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되어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화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는 실망감이 개인에게 불안과 불만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불안과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제도의 결핍은 개인에게 좌절감을 갖게 하여 결국 일탈 행동을 하도록 한다.

1. 사회학적 설명

1.2. 사회통제적 관점

사회 통제적 관점에서는 비행을 사회의 규범을 어긴 행위로 규정한다. ‘사람들이 왜 규정을 어기는가’라는 전통적인 질문 대신에 “왜 사람들은 규범을 따르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사회 통제 이론**에서는 일탈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동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왜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적 행동에 동조하는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Hirschi(1969)는 이러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명제로 답하였다. 즉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가 약해졌거나 끊어졌을 때 비행이 발생한다”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성악설에서 출발한 이 이론은 개인들에게는 규범을 어기고 싶은 충동들을 누구나 지니고 있으나, 사회 통제의 결과 사회와 유대를 지닌 개인은 사회의 규범을 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개인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그 개인은 거의 자동적으로 규범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앞서 Merton의 아노미 이론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Merton은 어떠한 특수한 계층(하층)의 사람들에게는 사회가 구조적인 긴장을 행사하여 그 결과 비행을 하도록 한다고 주장하는데, Hirschi는 역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하는 긴장은 없으며 오히려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요인만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모든 인간은 범죄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irschi, 1969 ; Conklin, 1981 ; Shoemaker, 1984). 이러한 가정과 더불어 이들은 비행은 현재 작용하고 있는 사회 통제 기제의 결함이나 부재의 결과이고, 또한 우리사회에는 항상 **관습적 신념과 규범**(conventional beliefs and norms)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Hirschi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우리 사회의 관습적 요소에 **애착**을 지니고(attachment), **관습적인 신념**을 가지며(belies), **관습적인 행동에 전념**하고(commitment), 그리고 관습적인 일에 **관여**함으로써(invovement) 관습적인 사회에 결속되고 유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이윤호, 1991)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비행 행위란 그 행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신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행 행위를 금하

는 효과적인 신념의 부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행 청소년들은 그들이 비행에 필요한 어떤 규범을 그들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비행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억제하는 그러한 규범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범의 부재나 부족 현상은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사회 제도에 대한 그들의 애착(attachment)과 관계 있다고 주장한다(Hirschi, 1969). 또한 비행은 관습적인 행동에 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과 관련되며, 준법 생활에 자신을 구속하려는 경향, 사회 규범이 규정하는 신념의 내면화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1.3 비행 문화적 관점

비행에 대한 연구가 비행 문화론적 시각에서 시도되기 시작한 것은 Cohen(1955)의 “비행 소년 : 갱의 문화(Delinquent Boys : The Culture of the Gang)”가 발간되면서였다. 그는 이 책에서 청소년 비행은 하위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을 제기하면서 청소년 비행을 갱 비행에서 볼 수 있듯이 집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역설하였다. **비행 문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비행은 비행의 전통을 유지하는 특정 집단의 잘 통합된 생활 양식을 뜻한다. 이러한 집단의 생활 양식은 내용적으로 ‘비공리적이고 악의적이며 반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하위 문화에서의 비행은 어떤 가치있는 대상을 소유한다는 합리적이고 공리적인 동기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비행 그 자체가 일종의 명예나 용감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강한 결속력을 지닌 자신들의 집단 이외에 어떤 성원들에 대해서도 일종에 반항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비행 문화의 어떤 측면들이 비행을 촉발하게 될까? Miller는 비행 문화의 구성원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비행 문화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에 의하면 비행 문화의 구성원들은 중상 계층의 구성원들과 독특한 관심의 초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관심의 초점은 구성원들이 지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혹은 관심 분야라 할 수 있는데, 그는 비행 문화 구성원들의 관심의 초점을 **사고(trouble)**, **강인(toughness)**, **영악함(smartness)**, **자극(exitement)**, **자유(autonomy)** 등 6가지로 들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사고’란 사직당국이나 기관에 의해서 환영받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제 행위와 여건을 말하는데, 중산층의 경우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업적에 의해 평가 받는데 반해 비행 문화 집단에서는 사고, 말썽 피우는가, 피우지 않는가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것이다. 즉 사고를 친다는 것은 그들 집단 내에서 지위를 얻게 되는 주요한 기준이 되며, 이들은 준범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준범 의식에서가 아니라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범범 행위를 삼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강인’이란 육체적인 힘, 용감성, 대담성, 운동 기술, 남자다움을 중시하는 것으로 하층 소년들의 이러한 경향은 여자가 지배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영악함’은 남을 잘 속이는 반면에 자신은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최소 한도의 머리를 사용하고 최소 한도의 육체적인 노력으로 재화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영악함은 거칠음이나 폭력에 의존함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위의 강인과 모순되지만 모두 하층의 관심의 초점이라고 하였다. ‘자극’이란 드릴, 모험 및 권태감을 모면하는 데 대한 관심이다. 하층인들은 권태감의 해소를 위하여 흥분을 추구하기 위해 도박, 음주 및 마약 사용 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운명’은 그들의 인생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소에 의해 지배된다고 강하게 믿는 경향을 의미하며, ‘자율’은 하층인들의 사회 계층의 위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간섭과 명령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잠재 의식적인 반발의 한 형태로, 어느 누구도 자신을 간섭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싶은 희망을 의미한다. 비행 문화 구성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자신들의 주요 가치 체계에 내면화시킴으로써 이들이 비행을 자연스럽게 저지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비행 문화는 어떻게 형성·유지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Cohe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의 가정에서 성장해 온 아이들은 계급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가정이나 이웃의 율타리를 벗어나 여러 상이한 가정 출신의 아이들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적응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학교는 그 사회의 중산층의 가치 규범을 요구하고, 따라서 사회에서의 직업적 성공을 위하여 지금 당장의 욕구 충족을 억제하고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 지도에 임하게 된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이웃에서 동료와의 우애, 즉각적인 욕구 충족, 감정에의 의존 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면화해 온 노동자 계급 가정 출신의 청소년들은 중산층의 생활 규범이 지배하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

게 된다. 이들은 학교 성적이나 품행면에서 좋게 평가받기가 어려워져 자존심을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자라온 환경이 비슷하여 학교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아들끼리 갱집단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자존심을 공동으로 방어하는 수단으로 비행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비행 문화는 첫째, 그 구성원들에 박탈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범과 기법을 제공하고, 둘째,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중상층 규범에 보복할 기회를 주며, 셋째, 그들이 자라온 문화 속에서 배운 남성다움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기반 등을 제공함으로써 집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Cloward와 Ohlin(1960)은 첫째, 대도시 하층 계급 지역의 남아아들 사이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비행 하위 문화의 규범**이 왜 생겨나고 지속되며 둘째, 여러 상이한 비행 하위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구조적 조건들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비행이 일어나는 사회 구조적 조건으로 Cloward와 Ohlin은 직업 세계에서 성공에 대한 열망과 그것을 성취하려는 수단 간의 괴리를 들고 있다. 다시 말해 하층 계층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통요되는 문화적 목표를 내면화하고 있는 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합법적 수단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그들의 열망을 낮게 조절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심한 좌절감을 겪게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비행 행위 문화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좌절감을 경험했다는 사실 자체가 비행으로 나가게됨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합법적 수단을 통한 욕구 충족이 배제됨과 동시에 불법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때 비로소 비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행 문화는 불법적 수단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전문적 절도와 같은 도구적이고 안정적 형태의 '**범죄적 하위 문화**', 폭력 행위를 드러내는 '**갈등적 하위 문화**', 그리고 상습적 약물 복용자 등에서 보듯이 합법적 수단과 불법적 수단 모두에서 차단되어 나타나는 '**은둔적 하위 문화**'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제시한 문화 목표 성취의 좌절이 비행을 유발한다는 Merton의 입장에서 좌절감이 비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이 잘 조직되고 통합된 갱 집단보다는 '유동적이고 느슨한 친구 집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Phillipson, 1971) 앞서 제기된 비행 문화론적 설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Matzda(1964)는 전통적인 청소년 비행 하위 문화론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사회 통제라는 변수를 끌어들었다.

기존의 비행 문화론적 입장에서는 비행 집단(갱 집단)은 비행 경향의 가치를 중심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고 그 집단 구성원들은 그 가치를 완전히 내면화하고 있으며, 비행 집단의 가치는 인습적 문화와 차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가치는 비행 집단에게만 내면화된 가치는 아니다. 따라서 비행 하위 문화는 전체 사회의 문화적 분위기와 분리되어 대립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화 요소들과 상호 침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Matzda(1964)는 비행 청소년들은 관습과 범죄적 가치의 틈새에 존재하면서 각각의 규준에 대응하고 범죄에의 결정과 참여를 유보한 채 표류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의 도덕적 구속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해방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비행을 일으킬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표류 상황이 곧바로 비행을 일으킬 충분 조건이 아니고 실제 비행이 일어나려면 몇 가지 단계와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절망과 좌절감의 분위기에 휩싸인 청소년들이 청소년 하위 문화속에서 ‘동료들과의 교섭 과정’을 통해 범행을 정당화하는 중성화 전략을 터득하고 비행의 결정적 계기인 범행 의지를 굳힘으로써 비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행 문화론의 또 다른 설명은 청소년들이 차별 접촉론이다. 일탈을 연구하는 사회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청소년 비행은 집단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비행 행위들은 동료들과 같이 범하고 대부분이 비행자는 비행 친구를 가지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비행 친구와의 관계 대한 설명은 크게 2 방향이다. 즉 하나는 비행을 하였기 때문에 비행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Gleuck과 Gleuck, 1957), 다른 하나는 청소년이 나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비행을 한다는 것이다(Eynon과 Reckless, 1961 ; Liska, 1969 ; Hepburn, 1976).

차별 접촉이론에서는 일탈 행동도 동조 행동과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양식화된 행동(culturally patterned behavior)이란 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지역의 문화를 학습하여 그것을 내면화하여 동조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이 일탈자가 되는 것도 자기 주위의 문화 양식을 습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시인학적 설명

Sutherland의 차별 접촉 이론은 일탈 지역을 사회 해체가 아닌 차별적으로 조직된(differentially organized) 것으로 개념화 한다. 그는 일탈 지역에서 일어난 행동을 관습적 질서로부터 일탈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 자체의 통합의 견지에서 개념화하였고, 이러한 비관습적 규범의 가치가 대대로 계승되는 사회적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의 차별 접촉 이론은 한 마디로 비행은 학습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일탈적 사회화가 일어나는 사회 심리학적 과정을 다음과 같은 9가지의 명제로 설명하고 있다.

- (1) 일탈은 학습된다. 즉 일탈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생물학적 원리에 의한 심리학적 특성의 결과도 아니다. 다른 일상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일탈 행동도 학습된다.
- (2)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의사 소통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 (3) 일탈 행동의 학습은 주로 친밀한 개인적 집단내에서 일어난다.
- (4) 일탈 행동이 학습될 때, 기술, 동기, 충동, 합리화, 그리고 태도의 구체적 방향을 포함한다.
- (5) 동기와 충동의 구체적 방향은 법규범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어떤 사회는 법률은 지켜야 할 것으로 정의하는 사람들로 환경이 조성되고 어떤 사회에서는 법규의 위반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에 의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 (6) 어떠한 사람이 일탈자가 되는 것은 법 규범(관습적 규범)의 위반에 대한 긍정적인 정의가 부정적인 정의를 능가했기 때문이다.
- (7) 차별 접촉은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법규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의와의 접촉이 각 측면에서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8) 범위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의와 접촉을 통한 일탈 행동의 학습과정은 다른 행위의 학습과정과 똑 같다.
- (9) 일탈 행동은 사회의 일반적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지만, 일반적 욕구나 가치로서 일탈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 하면 비일탈적 행동도 동일한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비행의 원인을 첫째로 개인에 대한 사회의 통제력 약화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는 관습적인 사회에 대한 유대의 약화 혹은 문화 목표 성취의 차단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왜 비행을 하게 하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즉 사회의 통제력 부족이나 사회 구조의 불공정성만으로는 인간 행동의 특정내용이나 형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심리학적 설명

비행 하위 문화론적 입장에서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개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동료 집단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마저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청소년들은 동료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은 관습적인 성인과 학교와 같은 관습적인 기관이나 제도 등도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이 처음에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설명할 수 없으며 또한 동일한 사회 속에서 어떤 구성원은 비행을 저지르고 또 다른 구성원들은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학적 관점을 보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리학적 관점이다.

2. 심리학적 설명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 인지, 정서, 그리고 정신 병리를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 이론들은 전통적으로 청소년 비행을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비행에 대한 사회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는 사회학적 입장과는 달리 비행자의 개인 내적 특성에 초점을 둔 심리학적 입장은 비행자에 대한 상담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1 정신 분석적 관점

Freud가 인간의 기본적인 추동(drive)의 정신 에너지인 Eros와 Thanatos의 존재를 발표한 이래 인간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측면은 본능의 한 부분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Thanatos의 개념을 발달시키기 전에 프로이드는 인간의 파괴적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좌절-공격 이론**을 제기했다. 즉 긍정적인 에너지(Eros)의 표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신분석의 입장에서는 비행을 이드(id)에 의해 야기된 **반사회적 충동**을 자아(ego)와 초자아(superego)가 통제하지

못함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드의 반사회적 충동들은 외디푸스 콤플렉스로 대표되는 근친 상간에 대한 욕구와 그 욕구에 대한 죄책감 및 벌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유래된다고 한다(Freud, 1961).

한편 즉각적인 욕구 충족(immediate gratification)을 지연하는 능력과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터득해야 할 향문기에 이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Alexander와 Healy, 1935). 즉 즉각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과 현실적인 상황을 적절히 고려할 수 없는 특성이 비행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Lavik(1969)는 비행자들의 미래 조망 능력의 결함이 만족을 유보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초기의 많은 연구들은 자기 보고 측정법(Marohn, Offer, & Ostrov, 1971)과, Rorschach를 통한 투사법을(Curtiss, Feczko, & Marohn, 1979)을 사용하여 비행자들의 충동성을 문제삼아 왔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들은 비행과 충동성 혹은 욕구 지연 능력과의 관계가 없음을 밝혀(Saunders, Reppucci, & Sarata, 1973), 비행과 충동성 혹은 만족 지연 능력과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였다(Quay, 1987).

Halleck(1971)은 청소년들은 억압받고 있다는 느낌(feeling of oppression)과 무력감(powerlessness)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흥분을 유발하고, 자신들의 숨씨를 시험해 볼 수 있고, 물질적인 이득도 생길 수 있는 비행이나 범죄를 시도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Farley와 Sewell(1976)도 비행 청소년들이 자극 추구에 대한 과도한 욕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보호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Farley & Farley, 1972). 즉 Zuckerman(Zuckerman, Kolin, Price, & Zoob, 1964)의 감각 추구 척도(Sensation Seeking Scale ; SSS)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소녀들과 낮은 점수를 얻은 소녀들의 수감 행동을 조사한 결과, 높은 점수를 얻은 소녀들이 수용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탈출시도를 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원인에 대한 정신 분석적 입장은 초기 발달 단계에서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으로 인해 억압된 갈등을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정하고 있다.

Samenow(1984)에 의하면 범죄자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사고 방식이라 한다. 사고 방식이나 사고 과정에서의 결함에 의해 범죄나 비행이 유발된다고 생각하는 인지 이론들은 정보 처리 과정(information processing)에서의 결함과 비합리성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광배, 1995). 인지이론적 관점에서 비행과 관련된 근본적인 개인 심리적 특성으로 지능 발달과 도덕성 발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2.1 지능 이론

비행 청소년들과 범죄인들은 일반 청소년, 일반 성인들보다 IQ가 평균적으로 8-10 정도 낮다(Hirschi and Hingelang, 1977 ; Rutter and Giller, 1983 ; Wilson and Herrnstein, 1985 ; Quay, 1987 ; Binder, 1988) 그런데 지능에서 나타나는 범죄인과 일반인의 차이는 주로 언어성 IQ에서의 차이이고 동작성 IQ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Quay, 1987 ; Wilson and Herrnstein, 1985). 따라서 범죄인들의 언어성 IQ는 그들의 동작성 IQ 보다 열등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범죄인들의 뇌의 좌반구(left hemispherer)에 결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Hare and Mcpherson, 1984 ; Raine, 1993). 왜냐하면 뇌의 좌반구는 언어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설에 대하여 범죄인들 중에 경찰에 체포되어 범죄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이유를 통해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Moffitt와 Silva(1988)에 의하면 경찰에 의해 체포된 범죄인들과 경찰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비행을 많이 범했다고 스스로 자기보고한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 집단간의 IQ가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지능이 낮은 사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설명은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학교 교육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따라서 성인이 된후에 직업이나 사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범죄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행동 장애를 보이는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도 또래의 정상아들보다 낮은 지능을 보인다는 것이다. 심지어 3세 아동들에서도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낮은 IQ를 보인다

고 한다(Richman, Stevenson, and Graham, 1982). 따라서 지능과 범죄의 관계는 교육이나 사회 제도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본질적인 원인에 대하여 Farrington(1991)은 추상적인 사고(Abstract thinking)의 능력을, Quay(1978)는 영아시의 양육의 질을 각각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2.2.2 도덕성 추론 이론

도덕성 추론 이론이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Kohlberg(1976)는 도덕성 추론 능력이 6개월의 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전인습적 단계(Pre-conventional stage)'라 불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4세부터 8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이시기의 도덕성 판단은 개인주의적, 이기적인 경향을 띄는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인습적 단계(conventional stage)'로 불리우는데 이때는 사회적인 식견이 확대되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특히 이 단계의 후반부(네 번째 단계)에서는 양심의 발달이 이루어져 자신의 사회적, 관습적 의무 및 책임을 수용하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다(박광배, 1995). 비행 혹은 범죄와 관련하여 Kohlberg(1976)는 전인습적 단계에서 인습적 단계로 발달해가는 과정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비행 청소년들은 전인습적 단계의 도덕성 발달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비행을 범하지 않는 일반 청소년들은 인습적 단계의 도덕성 발달 수준으로 성장해간다는 것이다. Kohlberg의 이 관점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지되었다(Chandler와 Moran, 1990 ; Henggeler, 1989 ; Thornton, 1988).

범죄자와 비행 청소년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도덕성 발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학자는 거의 없지만 도덕성 발달 수준과 비행 혹은 범죄 행위에 관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범죄 행동을 설명하는 특성으로 적합성에 대한 의의가 제기된다. 즉 Kohlberg의 도덕성의 발달이 근본적으로 지능 발달과 같은 인지 발달을 의미하기 때문에 IQ가 비행과 관련된다는 것 이외의 또 다른 설명변인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범죄나 비행을 도덕성의 미숙으로 설명하는 것은 순환논리로 무의미하며, 범죄행위와 미숙성의 인과 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 대상이 범죄자로 적발된 사람들에게 한하고 있다는 점들이 이들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되고 있다(박광배, 1995).

한편 도덕성 추론 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이 이론이 도덕성 추

론 과정에서 인지적 과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도덕성의 다양한 차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조덕성의 정의적 측면이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지적으로 높은 도덕적 주장이라 할지라도 타인이 처한 곤경에 대해서 정서적인 관심이 부재된 상태에서는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없다(Arbuthnot, Gordon, and Jurkovic, 1987). 일반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관련된다(Chandler, 1973).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는 타인의 행동의 의미와 그 행동의 의도를 잘못해석하는 경향을 낳게 된다. 이 자기 중심적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타인에 대한 **역할 수용(role-taking)**과 **조망 수용(perspective-taking)**이다. Rotenberg(1974)는 비행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하여 **인지적 역할 수용 능력**에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정의적 역할 수용 능력**, 즉 **공감(empathy)능력**에서 차이가 보인다고하여, 도덕성 추론 과정에 개입하는 정의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행 청소년들의 도덕 판단 능력에 작용하는 인지적 측면 못지 않게 타인에게 보일 수 있는 정서적 측면의 개입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2.3 사회 심리 이론

비행이나 범죄를 설명하는 사회 심리 이론 중 대표적인 것은 Bandura(1986)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과 **사회정보처리모형(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odel)**이다. 고전적인 학습이론인 조건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학습을 강조한 반면에 사회학습이론은 '**대리학습(vicarious learning)**' 혹은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이라고 불리우는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이 습득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에 사회 정보 처리 모형은 범죄자들이 사회적인 자극에 대한 정보 처리 양상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박광배, 1995).

2.3.1 사회학습이론

Bandura(1973, 1983)는 공격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내적 추동(drives)을 배제한 인지적 사회학습이론을 발달시켜 왔다. 그에 따르면 공격행동의 주된 원인은 그 행동이 가져다 줄 긍정적 결과라는 것이다. 행동 결과가 어떤 보상을 주게 될 것인지는 삶의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학습한다. 따라서 혐오적 자극이 제시된 경우라도 사람들이 공격 행동을 하는 것은 이미 사전에 그와 같은 자극에 대해 공격하는 행동을 학습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습된 내용들은 개인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 역시 그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좌절이나 부정적인 감정, 혹은 분노조차도 개인의 학습의 역사와 현재의 환경에 따라 독특한 행동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Davitz(1952)의 연구 결과가 시사한 바 있다. 즉 Davitz는 좌절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훈련받은 아이는 협동적으로 훈련받은 아이보다 더욱 공격적이었다는 것이다.

사회 학습 이론에서는 고전 학습이론과는 달리 관찰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Bandura(1977)에 의하면 관찰학습은 네 가지 상호 관련된 과정을 필요로 한다. 즉 (1)본보기 인물(Model)의 행동에 대한 주의(attention), (2)관찰된 행동에 대한 기억, (3)기억된 행동에 대한 모방, (4)모방 행동에 대한 강화(reinforcement) 등이 존재하면 관찰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범죄행위나 비행은 관찰과 모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하위 문화, 연예인과 같이 상징화된 본보기 인물 등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 학습 이론의 입장에서는 TV나 영화 등의 폭력물이 청소년 비행이나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1982)에 의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중매체를 통해 폭력 장면을 보는 청소년들은 폭력 배우들을 모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모델링에 대한 실험실 연구는 배우가 공격행동의 결과로 어떠한 보상을 얻거나, 그 행위의 합법성은 청중들의 공격행동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것이다(Tedesch와 Felson, 1994).

연구 결과들은 첫째, TV나 영화의 폭력장면이 비행을 유발할 수 있고, 둘째, 이러한 폭력물의 악영향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나타나며, 셋째, 특히 이미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행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Friendrich-Cofer and Huston, 1986 ; Huesmann et al., 1987 ; 박광배, 1995).

그러나 사회학습이론에 의한 비행과 범죄에 대한 설명은 이들 연구들이 대부분 공격행동, 그것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실험실에서 얻어진 결과에 기초하였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의 범죄행위와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더우기 비행이 공격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이러한 의문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 Glueck와 Glueck(1950)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들은 공격적인 부류와 비공격적이고 퇴행적인 부류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회학습이론은 공격성이 중요한 특성을 지닌 범죄나 비행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한 이론이나 그밖의 비공격적 비행(마약 남용, 거짓말, 사기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박광배, 1995).

2.3.2 사회 정보 처리 모형

Dodge와 Crick(1990)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정보처리 양상의 연쇄적 다섯단계를 상정한다(박광배, 1995). 이들에 의하면 연쇄적 다섯 단계의 구성 요소는 (1)지각과 습득(encoding), (2)해석(interpretation), (3)반응 모색(response search), (4)반응 결정(response decision), (5)반응 실행(enactment)이며, 다섯 개의 정보처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편파가 개입하는 경우 공격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폭력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자극을 좀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그 의미도 공격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지닌다는 것이다. 결국 동일한 사회적 자극이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다르게 지각, 해석되고 그에 따라서 다른 반응 양상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동료의 행동을 더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Dodge와 Newman, 1981),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수동적이거나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양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Dodge, 1986), 특히 이러한 경향은 위급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더 심화된다고 한다(Dodge와 Somberg,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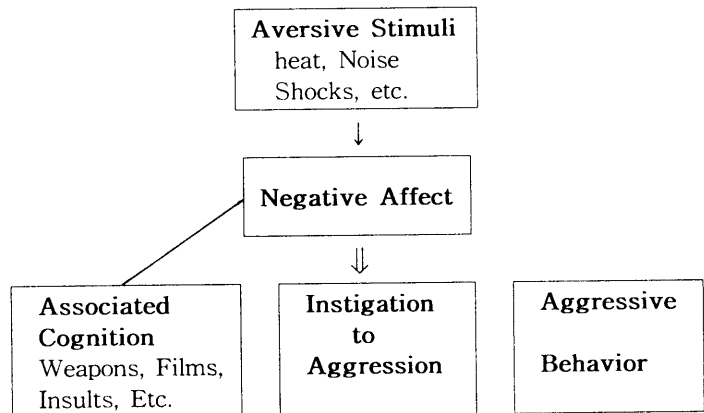
Dodge(1990)에 의하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질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선제 공격형(proactive aggressive)'이라고 불리우고 또 다른 부류는 '반응 공격형(reactive)'이라고 불리운다. 선제 공격형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냉정한 감정과 이성적인 계산에 의해 도구적인 공격행동(instrumental aggression)을 보이는 유형이고, 반응 공격형은 감정적이고 흥분된 상태에서 공격행동을 보이는 유형이다. 이 두 가지 부류는 앞서 기술한 다섯 가지 정보처리단계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결함을 가진다고 하는데,

특히 반응 공격형이 부적응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된다고 한다. 어린 아동의 경우 반응 공격형은 일반적으로 또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선제 공격형은 오히려 리더쉽과 유머를 겸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선제 공격형은 때때로 동료집단으로부터 정의로운 행동으로 평가된다고 한다(박광배, 1995).

반응 공격행동의 유발과정에 대한 설명은 Berkowitz(1993)에 의해 좌절과 그러한 상황에서의 정서적 경험 그리고 이에 대한 행동 경험 등이 공격 행동을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공격-좌절의 이론으로 발전되었다.

<그림 2-1>에 의하면 사람들은 혐오적인 자극(혹은 혐오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이 때 사람들이 이러한 자극과 관련해서 이미 지니고 있는 인지적 특성들이 감정을 증폭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개인의 인지 상태에 의해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되고 이러한 감정상태와 인지상태는 공격행동을 선동한다는 것이다. 공격행동이 선동되었을 때 공격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내·외적 요인이 없는 경우 공격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공격행동은 혐오자극(혐오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공격행동을 유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혐오스러운 자극을 경험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



<그림 2-1> A Schematic of Berkowitz's(1993) theory of aggression

키는 독특한 정보처리과정을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비행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4 정체성과 인상관리 이론

2.4.1 정체성 유지와 비행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정체성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정체성은 자신과 타인, 사회에 의해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사회 정체성과 인상관리이론**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비행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과정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타나는 도구적 행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타인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어떤 평가(정체성 혹은 인상)를 얻기 위하여 자기를 제시하는 방법을 개발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비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석재, 1996).

어떤 행위자가 행위자 자신에 대해 타인이 갖는 인상을 조작하는 것을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라 하며,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어떠한 사람인 것으로 인상을 형성하도록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Goffman, 1959 ; Schlenker, 1980 ; Tedeschi, 1981). Tedeschi (1981)에 따르면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체성(즉 인상)은 타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이 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힘이 있거나 매력이 있게 보이려는 것은 힘과 매력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체성은 **도구적 가치**(instrument values)를 지닌다.

대인관계에서 인상관리 노력은 자기 제시적(self-presentation) 행위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타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승인과 애정을 얻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사회적 힘을 얻거나 과시하기 위함이다(Tedeschi, 1989). 이렇게 타인에게 자신의 특정 인상을 드러내 보일 때, 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안정된 자기 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에 의존적인 자기 정체성이다. 안정된 사회정체성이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정체성과 자신의 삶을 통해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기를 포함한다. 반면, **상황 의존적 자기 정체성**은 가식적이며 전략적이다. 대인관계에서 특정의 목적을 취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보이는 폭력은 자신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즉,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타인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손상당하는 경우, 보복으로 타인을 폭행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아 주기를 기대한다. 즉 타인이 행위자 자신을 매력적이고, 호감이 있고, 유능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아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요구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동기화된(Baumeister, 1982). 그러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일 뿐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거나(Jellison & Gentry, 1978), 자기를 비평하고 자기의 취약점이나 의존성을 드러내면서 타인의 도움을 가정하기도 한다(Jones & Pittman, 1982).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취하려는 정체성은 매우 가변적일 수 있다.

인상관리이론의 맥락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자신의 자긍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 또한 손상된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 폭력이나 비행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Jankowski(1991)는 범죄집단이 폭력을 사용하는 이유를 자기 비하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Renzetti(1992)는 낮은 자긍심에서 나오는 질투와 소유욕이 범죄의 원인이라 하였다. 낮은 자긍심이 폭력을 유발시키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여 자기 자긍심을 높이려 하기 때문이다. 폭력은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높은 자긍심이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Myers, 1980). 즉 높은 자긍심에 대한 위협을 받을 때, 사람들은 공격적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사람들이 하향적으로 자신을 평가하지는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자기 평가와 관련하여 두 가설이 있다. 하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한 한 극대화하고 고양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예, Schlenker, 1980). 다른 하나는 자신에 대해 일관된 평가를 유지하려 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것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예, Swann, 1987). 이들 두 가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위협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고

이는 공격적 행위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남자는 여자보다 자긍심이 높고(Harter, 1993) 공격적이라는 사실은 높은 자긍심이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주장과 일치한다.

한편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도 있다. 인상 관리 이론가들은 공격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고 제안하였다(Felson, 1978 ; Toch, 1969). 성 폭행의 경우도 이러한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 Groth, Burgess와 Holmstrom(1977)은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성 폭행은 남성이 여성에 대한 우월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자들은 성 관계를 요구하고 여자가 이를 거절할 때, 남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손상됐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성 폭행을 초래할 수 있다.

비행은 타인으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거부되기보다는 그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승인을 받으려는 동기가 있다(Crowne & Marlowe, 1964). 승인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어, 타인의 승인을 통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공격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 타인의 승인에 대한 욕구가 낮은 사람은 승인욕구가 높은 사람에 비해 공격적 행위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더 민감하게 행동한다.

2.4.2 자기로부터 도피로서의 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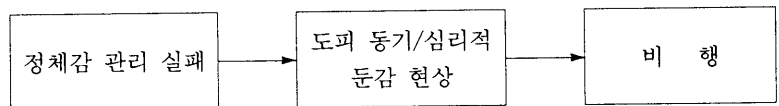
이상에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행이 유발됨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에게 있어 안정된 자기 정체성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현실적인 부담감은 (1)학교공부와 대학 입시준비에 대한 압박관념, (2)친구와 이성관계, (3)사춘기를 겪으면서 느끼는 불안과 고통, (4)성격과 외모, (5)공부에 대한 부모의 성화, (6)자녀를 통해 사회상승을 기대하거나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부모의 기대감 등이 있다. 특히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이러한 자기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충동으로부터 실제 도피를 실행하는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의 청소년 비행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나타나는 도피행위로서의 청소년 비행을 살펴 보겠다. 도피행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다음의 여러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다. 즉, 자신과 타인의 안전, 건강, 미래에 대해 둔감하다. 자

신과 타인의 안전에 대해 둔감해지는 경우에 성 폭력, 학교 폭력과 기타 범죄로 나타나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행동으로서 흡연, 음주, 약물이용이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통해 대화방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경향도 보인다.

Baumeister(1991)는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도피하려는 동기를 다음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고 망각해 버리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중립적으로 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인식했을 때, 무능하고, 불쾌하고, 애정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자신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잊어버리려는 동기에서 도피가 나타난다. 둘째,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부담이며 스트레스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동기가 생겨난다. 셋째, 어떤 일에 자신을 몰입시킴으로서 어떤 환상을 가지려는 것이다. 종교적인 경험을 갖거나 명상 등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피를 통하여 현실적인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로부터의 도피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은 (1)충동성, (2)정서의 억압, (3)억제력의 상실, (4)축소된 정신 과정, (5)비이성적, 환상적, 일관성이 없는 사고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청소년 비행의 결정요인과 매개 변인 및 정체성 관리의 실패 결과 등 이상 세 변인 간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 2-2>와 같이 요약하여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2-2> 자기로부터 도피로서의 비행

성 폭력, 학교 폭력, 흡연, 음주, 약물 이용 등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심리과정은 현실적인 자기를 망각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최근 학교 폭력과 관련된 한 가해자는 폭력을 사용하게 된 동기로 그냥 이유 없이 당시 피해자가 미웠다고 고백하였다(청소년대화의광장, 1996). 이렇듯이 자신의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서 일탈 행동들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심리과정으로서 자기로부터의 도피를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비행 청소년 지도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자신

들에게 자신의 삶의 의미와 행동에 대한 책임감의 회복시켜 주는 일이다(이석재, 1966).

3. 가족학적 설명

3. 가족학적 설명

가족학(Family Science, Famology)은 가족과 가족 내에서의 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최근 미국에서 가족관련 전공 분야들(가정학의 가족 관계학 분야, 가족 자원 관리 분야, 가족 상담 분야, 가족 지향적인 여성학 분야 등)이 결합해서 가족 생활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생긴 관점이다.

3.1 가족구조와 기능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가족 요인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족 구조의 특성으로는 결손 가족과 빈곤 가족, 계부모 가족 등이 주로 연구되었는데 이 요인은 이론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공식 통계에서도 범죄자의 대부분과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에 밀집되고 결손가족의 출신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류층 이상의 가족과 양친 가족을 모두 두고 있는 가족의 청소년들도 비행이나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고, 자기 보고식의 연구 결과들이 가족의 빈곤이나 부모의 결손이 청소년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 있다는 결과가 일관성 있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최규련, 1996).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행의 원인으로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기능적 측면으로 돌리게 하였다. 가족의 기능적 측면, 즉 부모-자녀 관계, 부부 관계의 질, 가족 체계 특성 등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질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구조기능적 측면에서 비행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 부부 관계의 특성 및 가족 체계의 특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3.1.1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 비행

부모의 훈육 방식과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도와 애착 및 의사 소통,

부모의 감독 등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방식이 정당하고 일관성이 있고 애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인 태도, 모순되고 비일관적인 태도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조장한다(김선애, 1994 ; 장선경, 김주희, 1989).

부모와의 친밀도와 의사소통의 결여, 부모의 관심과 감독의 부족은 청소년 자녀의 비행행위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기대와 규범에 둔감해지고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 시키지 못함으로써, 비행에 대한 **내적 통제력**을 갖지 못하고, 아울러 **외적 통제**(예, 부모의 감독)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김선애, 1994 ; 김윤희, 1989).

비행과 관련된 훈육 방식은 어머니의 영향보다는 아버지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즉 아버지가 아들을 거부하거나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때(김경화, 1989),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좋지 않은 경우에 청소년 자녀의 비행은 증가한다(Bandura & Walters, 1963 ; 민하영, 1992).

3.1.2 부부 관계 및 가족 체계의 특성과 청소년 비행

부부 간의 불화가 청소년 비행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준호, 1990 ; 김선애, 1994). 이러한 이유는 부부의 불화는 가족체계의 긴장 유발과 불만 요인으로 기능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부부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 야기되는 불편감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통제** 혹은 지나친 무관심, 공격적인 의사소통의 원인이 된다.

가족체계의 기능성은 흔히 Olson팀이 개발한 응집성과 적응성으로 구분되는데, Olson 등의 연구에서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양극단을 보이는 가족체계가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은 가족체계의 응집력과 적응성이 모두 낮은 경우에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고,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을 때** 청소년 비행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민하영, 1992 ; 김윤희 ; 1989).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자녀들의 자아 존중감, 우울, 의사소통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을 때 자녀는 높은 자아 존중감과 낮은 우울을 보이며, 의사소통을 잘 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여 심리적 적응을 잘한다(김진희, 1989 ; 전귀연, 최

보가, 1995a ; 이금옥, 박옥임, 이경주, 1994). 따라서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성은 청소년들의 비행과 역의 상관을 보이고 심리적 적응과는 정적 상관을 보인다.

3. 가족학적 설명

3.1.3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가정의 구체적 환경 요인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가정의 환경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부모의 구타, 부모의 편애, 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완고함, 부모의 재혼, 부모의 부정, 부모의 음주, 경제 문제, 많은 용돈, 비행행위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적 태도, 아버지의 낮은 직업지위와 교육수준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가출의 원인으로 부모의 구타, 부모의 편애, 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완고함, 부모의 재혼 등(청소년개발원, 1992)이 제기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흡연에는 많은 용돈, 씨클 가입, 부모의 방임적 태도 등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가족의 구조 기능적인 특성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상관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구조 기능적 특성이 왜 청소년들의 비행을 촉발시키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논의는 남아 있게 된다.

3.2 양육 방식과 비행화 과정

사회 학습 이론에서 보면 부적응행동 또는 비행 행동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의 상당한 부분은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과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 진다. 사회적 맥락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으로 작용하는 곳이 가정이다. 가정은 인간이 사회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 기관이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사회 학습의 기관이기도 하다. 특히 출생 이후에서 시작하여 인격이 형성되는 발달 과정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 가정이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간의 상호 작용은 행동의 형성, 증강, 약화, 소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출생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강화, 벌, 무시 등과 같은 반응에 따라서 자녀들은 제각각 다른 행동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또한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특정의 행동을 습득하게도 된다. 실제로 가족간의 상호 작용, 즉 가족성원이 보이는 언어적이고 비언어적 행동은 가족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항상 영향을 주고 있다(Hetherington, Stouwie & Ridberg, 1971 ; Rotter, 1954).

인간은 좋은 행동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도 학습한다. 따라서 부모가 청소년과 어떤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냐에 따라서 비행이나 다른 부적응 행동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 대체로 반사회적인 행동은 부적절한 사회 학습 과정의 부산물이다(Santrock, 1983).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람직한 행동을 배우게 되는 것과 같이 잘못된 학습의 결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도 습득하게 된다.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은 대부분의 경우 유아기 내지 아동기에 학습되며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습득되는 것이어서 아동기의 행동과 높은 관련이 있다. 특히 극단적인 유형의 공격적인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사이에서 연속성이 높다. 이는 반사회적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비교적 일찍 학습되고 훈련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물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아동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례는 많지 않다(Loeber, 1982 ; Loeber & Dishon, 1983 ; Olweus, 1979).

반사회적 행동들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적절한 사회적, 직업적, 학업적인 기술의 획득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Snyder와 Patterson, 1987).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Pulkinen, 1983 ; West & Farrington, 1977), 학교에서 교사들로부터 게으르거나 문제 학생으로 평가되는 아이들(Farrington, 1979 ; Mitchell & Rosa, 1981)은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비행을 저질러 본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들은 청소년기에 다양한 유형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들이 어린 시절부터 학습이 되어 온 것임을 밝혀주는 결과들이다. 사회적 기술과 직업적 기술, 또는 학업적 기술 등에서의 결핍된 아동들은 불손한 태도, 빗나간 마음 혹은 공격성 등에 의해 예상되어 지지만, 이러한 아동에게는 규준적이고 정상적인 사회화 매체와 접촉할 기회가 점차 제거되어 버림으로써 이탈의 훈련 과정이 더욱 확장된다(Elliott, Huizinga & Ageton, 1982 ; Wilson & Herrnstein, 1985).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의 양육 배경은 청소년들의 비행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아동들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을 적절하게 배울 수

없을 때 청소년들은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가정에서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겪지 못한 어린이들은 청소년기에 일탈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가정에서의 사회학습과정이 실패하여 비행에 접근하게 되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Snyder와 Patterson(1987)은 아래와 같은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그림 2-3). 제1단계는 아동기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사회학습과정으로 인하여 아동기에 거짓말이나 싸움, 불순종 같은 사소한 반사회적 행동을 습득하는 단계이다. 아동은 사람을 대하는 대인 관계의 기술과 공부나 과제를 처리하는 작업적 기술이 세련되지 못하고 서툴다(Dishon, Loeber, Stiuthamer-Loeber & Patterson, 1984; Freedman, Rosenthal, Donahue & Mcfall, 1978). 아동이 반사회적이고 부적절한 기술 등을 습득하면 반사회적 행동을 학습하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 간다. 제2단계는 아동이 동료들이나 성인들에 의해 거부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학업과 작업적 기술의 곤란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습득한 아동의 강압적이고 서툰 **대인관계양식**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타인들로부터 배척받는 경험을 하는 아동은 이 방면에서의 기술들을 세련되게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도 제공 받지 못하게 된다(Snyder, 1977).

‘정상적’인 동료에게서 배척받은 아동은 자신과 행동양식이 같은 동료와 어울리게 되고 생활에 필요한 기술이 역시 세련되지 못하고 강압적인 동료들 틈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게 되고 수행하며 연마해 나간다. 비슷한 특성을 가진 동료들과 서로 끌리고 어울리게 되는 ‘hemophily’의 경향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비규범적인 동료를 친구로 선택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요인이다(Kandel,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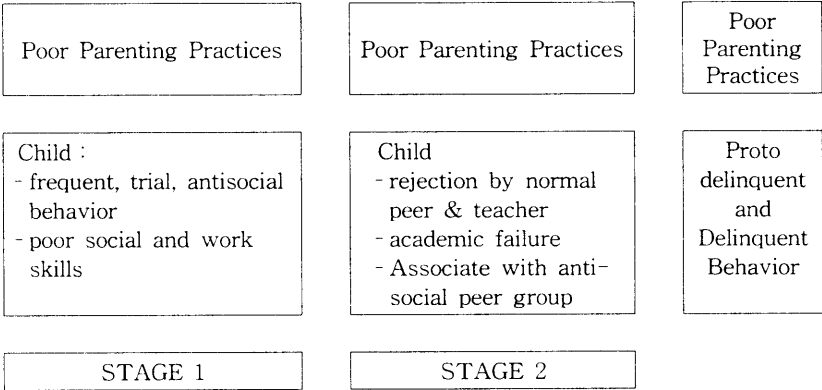
아동이 가정 환경 내에서 서툴고 역기능적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고 일탈행동을 보이는 동료를 사귀에 따라 반사회적인 행동은 점차 증가하고 다양해지며 심각해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의 많은 부분이 가정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이 단계에서도 가족은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지도와 훈육을 통해 아동이 어울리는 동료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동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두 단계에서 부모-아동과 동료-아동의 영향은 상호적이다. 반사회적이거나 비행을 보이는 아동은 그의 환경의 부산물일 수 있으며 동시에 환경의 설계자일 수도 있다.

그림 2-3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지

3. 가족학적 설명

제2장
정소년
비행의 원인

도 감독을 할 수 없게 되고 자녀의 비행을 예방할 수 없게 된다. 부모는 비행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고 자녀가 비행을 하는가에 주의하여야 하며 지도 감독을 통해 적절한 중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나쁜 친구와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상적인 친구와 사귀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비행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막아 주어야 한다. 부모의 지도, 감독에 의한 비행의 간접적인 예방은 비행 행동의 발달에 동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 더욱 효과가 있다(Kandel, Kessler & Margules, 1978).



〈그림 2-3〉 Family contributions to delinquent behavior : a proposed developmental

3.3 비행에 영향을 주는 양육 방식

청소년 비행에 관련된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 형태와 특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으나 이를 보다 단순화하여 정리하기 위하여 훈육, 바람직한 행동의 양성, 갈등과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부모-자녀 간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어 제시하였다(박성수, 1995). 양육 방식과 비행과의 관련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각각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이들 변인들간의 상호 작용을 요약하였다.

3.3.1 훈육(Disipline)

훈육(discipline)이란 옳지 못한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옳지 못한 행동이 이루어진 뒤에는 교육적으

로 지도하여 올바른 생활 습관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여러 측면의 가치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박성수, 1995). 가정에서 훈육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자녀의 연령과 성격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여러 가지 훈육의 유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Snyder & Patterson, 1987 ; Stanfield, 1966). 첫째, 특정한 행동에 대해 옳지 못하다거나 반사회적이라고 정확히 정의하고 이름을 붙여서 지적해 주어야 한다. 둘째, 시간과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 행동을 찾아 내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방법을 일관성 있고 조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한번의 시도로 행동이 습득되는 경우도 무척 드물지만 일단 습관화된 행동이 단 한 번의 지도로 변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형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일관성 있는 강화를 주어야 한다. 실제로 일관성 있고 반복적으로 자녀의 행동에 대해 교육적 지도를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부모의 훈육 방식은 대개가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이며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Deur & Parke, 1970). 일례로 부모는 자녀가 울면서 조르거나 성질을 부릴 때 즉흥적으로 그 요구에 반응해 줌으로써 무심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강화를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 비행은 부모들로부터 많은 강화를 받고 있으며 문제 아동의 부모는 정상아동의 부모보다 일탈 행동에 정적 강화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진바 있다(Snyder, 1977). 이는 훈육이 확고한 원칙에 따라 변덕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준다. 만약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고치려고 시도했다가 포기를 하거나 즉흥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정적 강화를 준다면 그 행동은 처음보다 더욱 나빠지고 강력해질 수 있으며 더욱 교정하기가 어려워진다(Patterson & Gullion,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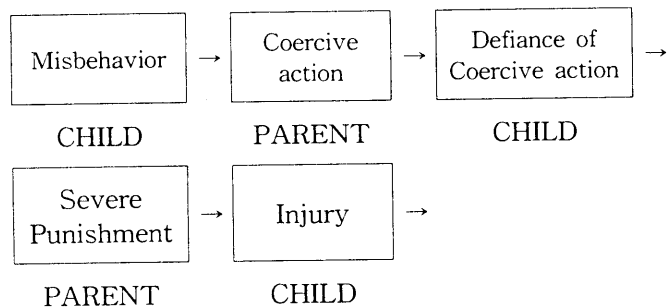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아동의 가족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훈육 방식은 다음과 같이 극단적 경향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Snyder & Patterson, 1987).

첫째, 비행아동이나 청소년의 부모는 지나치게 처벌적인 경우가 많다. 지나치게 처벌적인 훈육 방식은 학습의 메카니즘을 전복시켜 혼란을 느끼게하며 의도와는 반대되는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는 부모는 문제 행동이라고 규정짓는 행동이 지나치게 많다. 이런 특성을 가진 부모는 언제나 처벌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된

제2장
정소년
비행의 원인

특정 행동에 대해 효과적인 처벌도 할 수 없게된다. 명령이 많고 그 방식이 서투르며 자주 위협을 한다. 비난을 일삼으며 책임질 수 없는 말로 자녀를 속이기도 한다. 이런 부모들은 위협하지 않고 때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일관성 있게 자녀를 꾸짖는 방법을 모른다. 훈육은 처벌하지 않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방식일 때 더욱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항상 처벌한 행동을 찾기 위해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이러한 부모는 때로는 무심코 자녀의 일탈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훈육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기도 한다(Coleman, 1971 ; Patterson & Gullion, 1971). 부모가 지나치게 처벌적이면 모든 가족 성원의 상호작용양식도 공격적이고 위압적인 경우가 많다.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한 가족 성원이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 다른 성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은 또 다른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점점 더 강하고 거친 행동들이 오고 가게 한다. 이런 양식은 어느 한 쪽이 그 양식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된다.

부모의 지나친 처벌은 자녀들의 행동을 더욱 반항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만들고 이러한 행동은 부모의 더욱 심각한 행동을 유발시키며 결국에는 자녀들이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2-4>과 같다.



<그림 2-4> Escaration in a typical incident resulting in injury to a child

둘째, 비행 아동의 부모는 지나치게 허용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부모는 자녀가 도둑질을 하거나 싸우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확증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의 자녀가 나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 반신 반의한다. 만약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별로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이런 경우 훈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의도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모, 특히 아버지는 자녀에게 벌을 주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만약 벌을 주더라도 별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해방 이후 서양 교육 사상이 우리 나라에 도입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를 존중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육관도 형성되고 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욕구를 자제하고 통제하는 행동 습관을 배울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들이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되면 취학 이후 집단 생활의 적응이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극단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처벌적이거나 허용적인 훈육 방식은 모두 일괄적이지 않고 교육적이지 않다는 공통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적절한 훈육을 받지 않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동했거나 지나치게 억압적인 방식으로 훈육받는 자녀는 지나치게 쾌락 추구적이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억압적이어서 그 어느 쪽도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훈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모는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잘못된 행동을 규정해 주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발견하여 지양하고 반응해 주어 훈육을 통해 자녀가 생활에 필요한 여러 측면의 행동습관과 가치를 습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Hanson, Henggeler, Haefele & Haefele & Rodick, 1984). 훈육의 방식은 부드러워야 하며 동시에 확고해야 한다. 훈육은 변덕스럽거나 일관성이 없어도 안 되며 느슨하거나 태만하지도 않아야 하며 동시에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엄해서도 안 된다. 청소년 비행은 신체적 처벌이 심할수록 증가하며 훈육의 공평성이 결여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Button, 1973). 그러므로 신체적 처벌과 위협으로 훈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부모의 훈육 방법이 서툴고 변덕스러운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녀의 비행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 서툴고 거친 방식으로 훈육을 하여 무심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에 강화를 주며 훈육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모델로 보여 줌으로써 부모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훈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동료들에게 배척당하게 하며 점차 정상적 동료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반사회적인 동료와 가까워지게 하여 비행 행동의 발달이 강화되도록 할 수 있다.

3. 기조학적 설명

3.3.2 바람직한 행동의 육성

훈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약화 내지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 부모 노릇하기란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고 증강시켜 나가도록 교육적 지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바람직한 행동의 육성, 또는 적극적 부모노릇하기(positive parenting)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도덕적으로 올바르며 정서적으로 성숙한 행동 특징을 학습하도록 자녀들을 의도적 또는 무의도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녀가 생활에 필요한 대인 관계 기술, 공부하는 기술, 일괄 활동에 관한 기술을 성공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길러 나가고 여러 가치와 행동의 기준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돌보아 주며 격려하는 경우, 비행이나 부적응 행동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자녀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바람직한 행동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최초로 배워간다. 자녀에게는 부모와의 상호 작용 그 자체가 이러한 특성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일차적인 경험 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이러한 특성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배워 나갈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자녀가 부모에게서 이러한 특성을 모방할 수 있도록 직접 시연해 보여 주는 모델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 되며, 이러한 특성이 발현되었을 때는 적절한 관심과 지지로 강화를 주어 바람직한 행동들이 유지, 발전될 수 있게 해야 한다(Snyder, 1977).

자녀가 바람직한 행동을 길러 나가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어떤 교육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결과 대체로 일치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결과들을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박성수, 1995).

첫째, 부모는 올바른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Dishon, Loeber, Stouthamer-Loeber & Patterson, 1984). 바람직한 행동을 정확히 규정하고 “어떤 장면, 어떤 일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침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나 지침은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하며 부모 자신의 행동 역시 이러한 규정이나 지침과 일치해야 한다. 규정이나 지침은 너무 강압적이어서는 안되며 자녀의 연령과 사고의 수준 등의 능력을 고려해서 그 능력의 한도 내에서 선택의 자유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일관성 있고 적극적인 피드 백을 주어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 기준은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무

비판적인 관심과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환경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발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육성하고자 할 때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직접 경험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Davison & Neale, 1986). 이런 연구들은 인간 중심 이론에서 무조건적 존중이나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행동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겠다. 부모가 자녀를 거부하는 환경에서 자녀는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해 나가기 어렵다. 특히 자녀가 바람직한 행동을 배워 나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중요하다. 비행 소년과 정상적인 소년을 비교해 볼 때, 정상적인 소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에게서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많은 반면에 대다수의 비행소년들은 아버지로부터 거부를 당했다고 느끼고 어머니로부터만 사랑을 받은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경향이 있다(Andry, 1962). 아버지가 자녀를 거부하거나 여러 다른 이유로 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 나가지 못하면 어머니는 가정 교육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자녀에 대한 애정의 표현에서도 독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청소년기의 자녀들 특히 소년들은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어머니의 역할 모델에 의존하며 남성성에 관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소년들은 바람직한 남성상에 관한 자아개념을 형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반항을 하거나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이 용기와 독립성, 남성다움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Coleman, 1971). 이와 같은 맥락에서 Seigman(1966)은 아동기에 아버지가 집을 떠나 있었다면, 특히 남자 아이의 경우는 청소년기에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Gold & Petronio, 1980). 셋째, 바람직한 행동특성은 가족 간의 대화 양식이 지지적일 때 더욱 촉진되며 부모와 여가 활동을 같이 하고 즐기는 가운데 더욱 발달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나누며 여가 활동을 같이 할 때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에 관한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는 동안 부모와 자녀는 서로가 타인에 대한 강화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집단의 상호 작용 양식에 관한 연구들은 비행자의 가족은 지지적인 의사 소통 양식보다 방어적인 의사 소통 양식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Alexander, 1973). 방어적인 의사 소통 양식이란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이거나간에 타인을 벌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는 체계는 성원들의 서로 평가적이고 통제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우월

감을 가지고 서로를 지배하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체계는 성원들의 성장을 해치는 특성이 있으며 비생산적이고 부적응적인 체계이다. 붕괴되어 가고 있는 가족이나 청소년이 문제를 나타내는 가족의 의사 소통 양식은 방어적인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지지적인 의사 소통 양식은 성원들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공감적 이해를 보이는 양식으로서 성원들이 진실한 정보를 추구하고 제공하며 자발적인 문제 해결을 보이고 성원들간에 분명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체계는 불안도가 낮고 건강하며 생산적이고 적응적이다. 정상적인 가족은 지지적 의사 소통 양식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가정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한 자녀는 뒤이어 접하게 되는 동료 집단에서 정상적인 동료들에 의해 수용되는 경험을 하고 학교에서도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정에서 기본적인 기술을 학습한 아동은 숙련된 행동과 가치를 습득한 동료와 사귀어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사귀는 동안 사회적 규범에 맞는 행동을 발달시켜 나가고 세련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이런 기술을 학습하지 못했거나 잘못 학습하였다면 그 아동은 규범적인 사회 행동이 학습된 사람들에게 의해 거부당하게 되고 후속적으로 정상적인 사회 학습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일탈된 동료와 접촉할 기회는 쉽게 제공되기 때문에 옳바르지 못한 행동과 가치를 습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반사회적 행동 내지 비행 행동은 계속적으로 조장된다.

3.3.3 관찰과 감독

관찰과 감독이란 자녀의 동료들과의 관계, 자유 시간의 활용, 가정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곳 등에 관하여 부모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Snyder & Patterson, 1987).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과정, 주말과 여유 시간을 보내는 방법,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 자녀에게 제한된 장소 등에 관하여 분명한 의사 소통을 필요로 한다. 즉 관찰과 감독이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금지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녀들은 나이가 많아 지면서 대인 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다양해진다. 따라서 이들은 부모가 가르키고자 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배우게 된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지도 감독하는냐는 자녀가 청소년기에 보일 수 있는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부모의 감독은 자녀가 9~10세가 될 때 보일 수 있는 비행의 빈도와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시기에 적절하지 못한 부모의 감독은 가정에서의 싸움, 거짓말, 도벽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Strouthamer-Loeber, Patterson, & Loeber, 1983), 자녀들이 학교에서 보이는 부정직, 어리석은 행동, 무단결석 등의 부적응 행동과 관련된다(Wilson, 1980).

부모의 감독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비행 청소년과 정상적인 청소년들 부모의 자녀 감독 기술(monitoring skill)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즉 비행 청소년 부모의 감독 기술은 정상적인 부모의 그것에 비해 부적절하였다. 부모의 감독은 훈육과 바람직한 행동의 육성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양육 방식에 기초가 될 것이다.

3.3.4 문제 관리 능력의 육성

바람직한 행동 특성에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차원이 좌절, 스트레스, 위기 같은 것을 적절하게 다루어 나가서 문제 상황을 잘 넘길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복잡한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박성수, 1995).

부적응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문제 관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욕구 좌절과 갈등, 그리고 압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당면한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양식에 따라 적응여부가 결정된다. 실패나 좌절을 경험해도 이를 하나의 학습기회나 수련 기회로 생각하여 인내력을 배양할 때 그 실패나 좌절은 다른 유형의 어려움에도 지혜롭게 대처하여 자아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차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을 하나의 도전으로 간주하고 이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태도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가 더욱 강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정에서 위기나 문제 대응력을 학습하고 연습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거나 비효율적인 문제 대응 양식을 습득했다면 아동과 청소년은 좌절과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게되며 결국 반사회적 행동을 발달시켜 나간다. 각 가족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공동의 문제, 부모 간의 문제, 자녀와 부모의 문제, 가족 성원 각각의 문제 등에 부딪힌다. 동시에 가족은 가족 내에서 뿐 아

나라 가족 외부에서도 언제나 많은 위기나 좌절 또는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이는 실직, 이혼 같은 주요 위기일 수도 있고 사소한 일상의 다툼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관리 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 성원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양식을 보고 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문제 관리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 성원들이 **문제 해결의 기술**과 **대처전략**을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녀들이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학습하고 연마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야 한다 (Freedman, Rosenthal, Donahue, Schlundt & McFall, 1978 ; Rutter, 1971 ; Santrock, 1983). 문제 해결의 과정이란 문제를 정확히 지각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이에 따른 몇 가지 대안을 찾고 이 대안들이 각각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를 추론해 본 다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해결책을 선택해 가는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을 밟을 것이다. 가족 성원의 문제 대응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않다면 가족 내의 갈등이 적정한 시간에 해결되지 않고 미해결의 상태로 오래 지속되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녀의 비행 행동을 촉진하게 된다. 첫째, 미해결된 문제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는 기왕에 학습한 숙련된 행동도 와해시키게 된다. 부모가 스트레스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흥분되어 있으면 부모 노릇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가족 성원이 문제 해결이 기술이 서투르면 가족 내에 스트레스와 흥분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갈등과 논쟁, 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가정에서 공격 가능성이 높게 된다. 셋째, 가정은 아동이 문제 해결의 기술을 관찰하고 연습하는 최초의 장이다. 가정에서 이런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델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주면 아동은 대인 관계, 학교 생활, 일에서의 문제 해결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3.3.5 양육 방식과 비행과의 관계

앞에서 비행과 관련된 가족 변인을 네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변인과 비행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이 종합적으로 비행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인 일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일반적으로 이들 네 가지 변인들 간의 상호상관 계수는 대체로 .14(감독과 문제 해결)에서 .73(훈육과 바람직한 행동 육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각 변인들이 비행을 설명하는 완전한 독립 변인은 아니지만 이들이 함께 비행을 설명할 경우 그 설명 가능

성은 좀 더 정확해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독과 훈육이 개별적인 변인으로서는 비행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atterson & Bank, 1985).

이들 가족변인들이 다변인 조합으로 비행을 설명할 때 한 가지의 변인에 비해 비행이나 반 사회적 행동 설명하는 정도가 훨씬 높았다. Lober와 Dishon(1983)은 한 개의 가족 변인이 비행을 예언하는 능력을 20%정도 증가시켜 주는 반면에 다변인의 경우에는 50~70%를 상승시켜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각의 변인들이 독립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들 변인들 모두 상승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을 시사해 준다.

4. 청소년 비행 원인에 대한 종합적 이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사회학적, 심리학적 또한 가족학적 입장에서 고찰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한 비행이 지속되는 과정들을 살펴 보고 비행과 관련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4.1. 우리 나라 청소년 비행 형성 및 유지 요인

기질적인 비행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으나 비행 행동은 구체적인 관찰이나 모방에 의해서 습득되고, 그것이 구조적인 환경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 비행 행동을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요인으로서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또래 집단의 요인의 특징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4.1.1. 가족 환경

비행 청소년의 가족 환경의 특징은 많은 비행 청소년 연구에서 논의되었다(박성수, 1991 ; 원호택, 1991 ; Button, 1973 ; Farrington, 1989 ; Robin, 1966 ; Sutherland and Cressy, 1975 ; Weiner, 1982) 이들이 지적하는 비행 청소년의 가족 환경의 특징은 첫째,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결함, 혹은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 또는 부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적절히 양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행 청소년의 가정

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거부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비난이나 무시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원호택, 1991). 비행 청소년들은 아동 초기에는 거절당할 가능성이 많으며 아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결과로 비행 청소년들은 타인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권리를 존중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의 존재를 알아 주기만 한다면, 타인의 비난을 받더라도 비행 집단에 참여하게 된다.

둘째, 부모의 도덕적 결함, 성격적 특징으로 인하여 자녀를 적절히 훈육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혹은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과 방법이 부적절하여 훈육을 무기력화시키기도 한다. 부모에 의해서 적절하고 엄격하게 훈육을 받은 아동 지도 센터의 환자 중에서 9%만이 성인으로서 사회병질자로 판단되었고, 지나치게 관대하게 훈육 받았거나 전혀 훈육을 받지 않은 아동은 29%가 성인으로서 사회병질자로 판단되었으며, 한쪽 부모 혹은 양쪽부모에 의해서 전혀 훈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32%가 사회병질자로 판단되었다(Robin, 1966).

자녀들을 훈육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거나 훈육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훈육을 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비행적인 행동에 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욕, 멸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적절하지 못한 훈육은 훈육이 전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비행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Weiner, 1982). 혹은 부모가 훈육의 공정성이 상실할 때, 동일한 비행 행동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는 억제하나 다른 경우에는 강화하는 등 비일관적으로 행동할 때, 청소년의 비행은 강화될 수 있다(Button, 1973). 또한 부모님들이 사회적인 가치를 강제적 폭력적으로 습득시킴으로서 건전한 가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 반항심을 가지게 하여 비행 행동을 강화 유도시킬 수 있다.

셋째, 부모가 자녀들에게 적합하고 긍정적인 삶의 행동 방식을 습득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적합하지 못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조장한다. 부모가 심리적인 장애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가지지 않는 그런 가정의 청소년들 중에는 16~18% 정도의 청소년들만이 심리적인 장애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나타낸 반면 부모가 체포, 구금, 혹은 부가 만성적인 실직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런 가정의 청소년 중 32~36%가 후에 정신병적 성격 장애로 진단되었다(Robin, 1966).

비행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의 충동적인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제약하지 않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

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에 따라 아동들 역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운전 법규를 무시한다든지, 혹은 세금을 속이는 것 등을 하면서 그것들이 수용될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청소년들은 법과 질서에 대해서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을 습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건전한 가치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부모가 자녀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능력을 습득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들은 문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일시적으로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원호택, 1991).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적절히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문화에서 소외되어 결국은 비행 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박성수, 1992).

4.1.2 학교 환경

학교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Hirschi, 1969 ; Hindelang, 1973 ; Krohn and Massey, 1980 ; Wiatrowski et al, 1981)에 의하면, 학교는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청소년 비행의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끼친다. 첫째, 사회통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관습적 가치를 적절하게 내면화시키지 못하여 또래 비행자와 접촉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청소년의 비행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둘째, 학교에서의 실패가 비행 친구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행적 가치의 학습을 가능케 하는 곳일 수 있다. 셋째, 학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청소년 비행을 유지시킬 수 있다.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학교의 영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가 청소년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사회통제이론에서 잘 설명되는 데, Hirschi(1969)는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자와 제도에 대한 전념이 사회 통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이때 전념이란 성원들이 교육, 직업 등 기존의 관습적인 행위에 투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전념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학습 성적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전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학업 성

취, 즉 성적으로 볼 수 있는 데,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 비행을 저지른다고 해도 성적인 높은 학생들에 비해서 앓을 것이 적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사회적 통제의 다른 요소는 사회적 유대이다. 교사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 공부나 학교 활동에 대한 참여 등도 비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학생들이 교사와 가까울수록, 공부 등에 학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비행학생이 될 가능성은 적어진다. 반면, 교사와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공부 등의 학교 활동에 소극적일수록 비행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는 전체적으로 중고등 학교의 비행 유형 모두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학교에 애착이 적을 수록 비행을 많이 저지른다(김준호, 1993).

둘째, 학교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행 문화에 접촉할 기회를 증가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차별접촉이론에서 주장되는 데, 차별접촉이론은 청소년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타인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비행을 학습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에서의 성취해야 할 과업에 실패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학교 문화에서 소외되어 비행 집단과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비행을 학습시킨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비행 문화와의 접촉은 비행 행동 목록을 습득하게 하고, 비행 문화를 긍정적으로 정의하게 하여 비행을 수용할만한 행위로 스스로 규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학 진학의 압력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공부에 대한 압력이 청소년의 가출과 무단 결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김준호, 1989) 청소년들에게 부모와 교사로부터 공부에 대한 많은 압력이 주어질 때, 집은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며, 학교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기 때문에 가출이나 무단 결석이 많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행 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공부에 대한 압력을 음주, 흡연, 또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 장소 출입 등과 같은 금지된 행동을 통해서 해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비행 문화에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져 청소년 비행화를 촉진한다고 한다.

셋째, 학교에서의 상호적 대인 관계는 청소년 비행 행동을 지속화하고 반복시킨다. 이는 낙인이라는 개념으로 잘 설명되어지는 데, 낙인 이론에 따르면, 대인 관계에서의 상호 작용은 한 개인의 정체감, 행동에 지대한 역할을 준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대인 관계는 한 번이라도 비행을 저지른 학생들을 좋지 못한 학생, 비행학생들로 대하게 될 수

있다. 이는 비행 청소년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청소년이 비행자라고 낙인되면, 그는 비행적 정체감을 가지게 되며, 그러한 낙인은 그 사람의 주지위가 된다.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개인적인 특성이나 사회적 특성은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특성이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일단 한 사람이 비행자로 낙인되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격리되며, 결국에는 관습적인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게 되고 비행 문화에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하여 비행 행동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4.1.3. 동료 관계

청소년 범죄자들의 공범 비율을 살펴 보면, 해마다 다르지만, 1970년에 29.6%, 1975년 34%, 1980년에 39.4%, 1985년에 43.1%, 1990년에 43.9%로 증가하고 있다(대검찰청 범죄 분석 70년, 75년, 80년, 85년, 90년 자료의 재구성; 김준호, 1993 재인용). 소년 범죄의 공범이 대부분 친구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친구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년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공식적인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의 지위 비행까지 포함한다면, 청소년들의 공범률은 더욱 더 커진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비행이 친구 집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볼 때, 비행 청소년의 친구 집단의 특성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친구관계는 비행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즉 친구 관계를 통해 비행 청소년은 비행 행동의 모방, 관찰하게 하여 비행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별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청소년들이 비행성향을 가진 청소년들과 접촉하면서 비행 가치와 비행 행동을 습득하게 되어 비행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쉽게 비행 하위 문화와 접촉하게 되는 데,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가출하거나, 학교를 결석한다든지 하는 가벼운 일탈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이 학교, 가정, 사회에 의해서 적절히 개입되지 못하는 경우에 비행 문화에 고착될 수 있게 된다.

둘째,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비행 행동이 지속되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초기 사회화 기관인 가정과 학교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하여 제대로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지 못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다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 비행이 더욱 심화된다. 친

구 집단은 비행 행동을 상호 간에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데 집단 비행을 통해서 죄의식을 나누어가질 수 있으며,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 최소한으로 동료들로부터라도 사회적, 도덕적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비행 행동을 통해서 집단 의식을 가지게 되어 소속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겠다.

특별히 사회적 비행에서는 또래 혹은 친구 집단이 청소년 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이는 반사회적 행위 기준을 부여하는 하위 문화에서의 멤버십과 연관하여 비행 하위 문화에서는 위법 행위를 성공적으로 한 경우 특권을 부여하고 위법 행위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거부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비행 친구 집단은 청소년 비행을 억제하려는 부모나 학교의 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저항기에 있는 청소년은 가족관계보다는 친구 관계로부터 더 많은 만족을 추구하고 부모의 기대보다는 친구의 요구가 더 우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같이 활동하는 시간면에서도 부모보다는 친구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 결과적으로 부모나 학교가 사회적 문화를 학습시키고 비행 행동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편, 비행 청소년간의 친구 관계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부모나 교사가 비행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행 청소년 간의 친구 관계에 대한 심층 연구는 이들의 친구에 대한 태도는 친구에 대한 필요도는 높지만, 친구에 대한 애착도는 낮다고 한다. 즉 이들은 비행 청소년과의 친구 관계에서, 비행 정도가 높을수록, 친구와 같이 다님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크지만, 상호 간의 신뢰와 존경을 나타내는 애착은 낮다고 한다. 비행 청소년 간의 애착도, 일반 청소년 간의 애착도, 비행 청소년과 일반 소년간의 애착도에 대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김준호, 1993), 일반 청소년 간의 애착도가 비행 청소년 간의 애착도보다 더 높은 반면, 일반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 가지는 애착도는 매우 낮고, 비행 청소년이 일반 친구에 대한 애착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행 청소년들이 성실한 청소년들을 친구로 사귀려는 열망이 강함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비행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구 필요도가 일반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 친구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높다는 것은 곧 비행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을 친구로 두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성장 초기부터(초등학교) 때부터 비행 친구들과

어울리는 비행 청소년들 중의 일부는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발견된다. 또한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이런 생활을 박차고 나간 친구에 대해 한층 더 존경과 애정을 하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친구들을 사귀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혼자 남게 될 때의 외로움 등으로 인해 비행 친구들과 계속 접촉을 유지하지만, 애정과 애착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한다는 것이다. 비행 청소년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단지 부담 없이 같이 어울려 놀면서 재미를 추구하고 집에 늦게 들어갈 수 있는 친구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성실한 친구들과 같이 다닐 때, 열등감을 느끼고, 성실한 친구를 정말로 필요로 할 때, 대부분 곁에 없기 때문에 성실한 친구보다는 비행 청소년을 친구로 택할 수 있다고 한다(김준호, 1993).

비행 청소년 간의 친구 관계에 있어서 매우 높은 친밀도, 의리 등을 보이는 경우 자신들의 가장 친한 친구로 비행 친구를 드는 데 비행 친구들은 다시 만났을 때 재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행 친구들이 자신들에게 보여 준 따뜻함, 위로 등으로 인하여 비행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 비행을 하자는 유혹을 받을 것 같지만, 반대로 그들이 비행을 청산하도록 돕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친구 문화를 변화시킴으로써 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4.1.4 개인적 특성

1) 자아 개념

비행 청소년의 자아 개념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다(원호택, 1991 ; 이석재, 1996). 비행 청소년들은 자기에 대한 만족 및 수용 정도가 낮아 자신을 못났고, 열등하며, 쓸모없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으며 자기가정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낮다.

이와 같은 낮은 자아개념은 비행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제 행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 하는 경향이 있다

자아개념이 비행을 유발하는 이유는 대체로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열등감을 지닌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의 긍정적 정체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행 행위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자아의 손상감을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행 행위를 사용하기도 하고 셋째로는 우울감을 표현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즉 높은 자괴심이 위협받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월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Myers, 1980 ; Felson, 1978 ; Toch, 1969). 이처럼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특히 타인들로 부터 긍정적 평가와 승인을 받으려는 동기(Crowne & Marlowe, 1964)로 인해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아 개념이 비행 행위를 유발하는 경향은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집단 문화 속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즉 비행이 명예를 회복하거나 위신을 세워줄 수 있는 비행 하위 문화가 청소년들 집단속에 존재할 때 자존감과 관련된 비행이 나타나게 된다.

2) 감정 및 욕구의 표현 능력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충분히 경험하거나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어한다. 또한 타인과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비행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반복적으로 좌절된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이들의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간과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비행 청소년들의 이런 욕구와 감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좌절되어 의식되거나 언어화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부인되거나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 자신들의 긍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욕구가 억압되었을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분노, 반항, 좌절 등의 부정적인 감정 역시 쉽게 표출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분노, 반항, 복수심만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비행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은 그러한 감정의 표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청소년들도 있다.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자신이나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듯이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무관심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감정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일부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 감정 등을 인식하기는 하

나 그런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 그러한 감정이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기보다는 상황이나 사회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와 같이 욕구나 감정에 휩싸여 저지르는 비행을 신경증적 비행이라고 한다(Weiner, 1982). 신경증적 비행은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무의식적 관심의 비행의 형태로 표출된 행동이다. 부모나 교사나 동료들에게 주목과 관심을 받거나 보복을 하기위해서 훔치는 것,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는 것, 오토바이 폭주 등의 행위들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자신들의 욕구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실패되었을 때, 조력요청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비행 행위를 할 수 있다(Weiner, 1982).

3) 관계 형성 능력

비행 청소년들의 많은 경우는 삶의 초기 과정에서 부모에게 심각한 정도의 거절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박탈당한다든지, 혹은 부모나 의미있는 타자의 상실로 인한 외상 경험으로 인해 타인과의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의 배려와 양육을 거의 기대하지 않거나(Weiner, 1982), 타인의 배려와 양육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두려워 할 수 있거나 소극적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도움의 요청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하여 비행 청소년들은 상담의 과정에서 타인들이 자신들을 정말로 염려하거나 돌본다는 것을 쉽게 믿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비행 청소년들은 권위적인 인물과 관계 형성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초기에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소속감과 친밀감을 경험하여 기본적으로 대인 관계에서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Empey, 1969 ; Friedman, Mann & Friedman, 1975 ; Quay, 1979), 이 후의 아동 후기나 청소년기에 부모의 지나치게 엄격하고 처벌적인 훈육으로 인하여 권위적인 인물에 대해 무조건적인 불신과 반항을 하게 되어 권위있는 인물과 관계형성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반복적인 비행 과정에서 부모, 교사, 교정 기관 관련자들로 부터의 많은 차별 대우, 인격적 멸시, 신체적 폭행, 여러 차례 경찰, 검찰, 교정관계자들의 접촉에서 자주 속는 경험 등을 통해 권위 인물에 대한 불신이나 적개심을 발전시킨다고 하겠다.

비행 청소년들의 이러한 특성은 적절한 교육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권위있는 성인들의 도움의 기회를 거부케 하여 자신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방해한다.

4) 행동 및 성격의 특징

비행 청소년들의 심리, 행동의 특징을 찾으려는 연구들은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Eyesenck(1964, 1970), Button(1963) 등은 범죄행동과 관련하여 비행 청소년들의 내적 외적 행동특징은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Mitchel(1968)과 Hindelang(1972)은 비행 청소년의 행동특징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비행 청소년 간에 비교적 공통적인 행동특징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 청소년들은 충동적이다. 비행 청소년들 중에 많은 청소년들은 생리적인 특징이나 정서적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주의 산만,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며, 자주 움직여야 하며, 쉽게 흥분하고 적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비행을 하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아동기의 과잉행동장애 및 주의력 결핍장애(Cantwell, 1980), 품행 장애, 낮은 지능(Healy와 Bronner, IQ 80-90) 등을 겪었던 아동들이 많다. 또한 비행 청소년들은 각성 수준이 낮아서 자극을 찾게 되며, 적은 양의 술로 중추 신경계의 억압이 완화되면 비행을 쉽게 일으킨다고 한다(Eysenck, 1964, 1970).

비행 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비행 청소년들이 충동 조절 능력 및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비행 청소년들은 평소에는 공격적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에게 그의 억제 수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촉발 자극이 주어지면, 심한 공격적 행동이 나타남을 보고하였고, 경미한 폭력범보다 극단적인 폭력 범죄에게서 이러한 성격특징이 더 많이 관찰됨을 보고하였다.

둘째, 비행 청소년들은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 이들은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침해하는 것에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죄의식을 경험하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셋째, 이들은 삶이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장기적인 조망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Jenkins, 1960; Schalling, 1978). 이들은 자신의 폭력의 결과가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넷째, 비행 청소년의 경우 대체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새로운 생활 궤도에 진입하여 새로운 가치관과 기존의 가치의 혼재, 갈등, 그 해결 과정에서의 갈등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데, 시간의 활용, 귀가 시간, 학업, 진로, 놀이 부분에서의 혼란 등을 나타낸다. 예컨대, 이전까지는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한 학습을 최고의 가치로 경험하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들과의 인간적인 만남, 재미 있는 생활의 추구 등으로 가치가 변화될 수 있다.

5)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

비행 청소년들은 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비행 집단은 일반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문제를 겪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비행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대인 관계, 가정, 이성 관계, 신체적인 건강과 용모, 가치관, 가정 경제 영역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원호택, 1991).

비행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있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군다'와 같은 **정서 완화적 대처** 및 '그 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누군가와 이야기한다.'와 같은 **사회적 지지 추구의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원호택, 1991)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직면하여 대처하려는 경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비행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주요 생활 영역-가정, 학교, 친구-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비행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활 규칙, 귀가 시간, 생활 예절, 친구문제 등의 영역에서 잦은 불화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데,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비행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학습 스트레스(김준호외 1990),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갈등, 친구들과의 경쟁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이런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낙인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비행 청소년들은 친구의 비행 유혹에 대한 거절 및 주장 능력, 친구들과 잔여시간, 여가시간을 적합하게 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게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기술들을 교육하고 습득시킬 필요가 있다.

6) 희망감 상실

비행 청소년들은 좌절감을 지니고 있다. 대체로 많은 연구들은 부정적 자아 개념 혹은 낮은 자아 존중감과 비행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낮은 자아 존중감이나 부정적 자아 개념은 좌절 경험으로부터 형성된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좌절을 경험하였을 경향이 높다.

비행 청소년들이 좌절을 자주 경험했을 것이라는 점은 사회학적 설명에서도 시사하고 있다. 즉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열망하고 있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수단이 제약되었을 때 그 사회에서 비행이 일어난다는 사회 학적 설명에서 비행 청소년들의 이러한 경향을 시사받을 수 있다.

또한 공격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좌절을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의 공격 행동이 늘어 난다고 하였다. 즉 지속적인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은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각하고 이로 인해 사회 규범이 인정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없다는 무망감을 지니고 있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나라에서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 사이에서 비행이 많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부여되는 높은 기대와 자신들이 그러한 기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망감은 이들로부터 현실을 도피하게(Baumeister, 1991)하고 책임 없는 행동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비행을 유발시킨다고 볼 수 있다.

7) 인지 능력의 발달 장애

비행 청소년들의 특성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개인적 특성이 지능과 도덕성 발달이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비행 청소년들이나 범죄인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지능이 낮다(Rutter & Giller, 1983). 이들이 지능이 낮아 교육 기회가 낮기 때문에 비행 행위를 쉽게 보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요인 보다 낮은 지능 자체가 비행의 본질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Farrington, 1991 ; Quay, 1978). 지능과 더불어 비행 청소년들의 인지 발달 측면에서의 특성은 도덕성 발달과 관련된다. 즉 비행 청소년들은 도덕적 판단 수준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경향을 띠며,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욕구가 적으며,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전인습 단계에 도덕 발달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이들의 양심이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한 결과를 반영한다.

4. 청소년 비행 원인에 대한 종합적 이해

4.2. 청소년 비행 원인의 종합적 관계

앞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회학적, 심리학적, 가족학적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사회 구조 혹은 체제의 변화와 비행을 요구하는 하위 문화가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는 변화된 사회 구성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비행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행을 하지 않는 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회학적 관점은 사회 구조의 변화나 비행 하위 문화가 사람들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변화가 비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즉 이 입장에서는 사회 변화가 개인들의 기대 목표를 상승시키나 이를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가 제한적이라는 면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욕구 좌절과 이러한 좌절을 적절히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비행 혹은 일탈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좌절감이 언제나 비행을 유발시킬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여기서 좌절감이 비행을 유발시키는 것은 개인의 독특한 사회화 과정과 깊게 관련된다. 즉 사회화 과정에서 무엇을 학습하였는가 하는 문제다.

한편 비행의 하위 문화 이론은 사회 가치의 동조화 현상과 같다. 즉 집단 구성원들과 동질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때 이들은 비행 집단의 규범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여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학적 설명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변화가 비행 행위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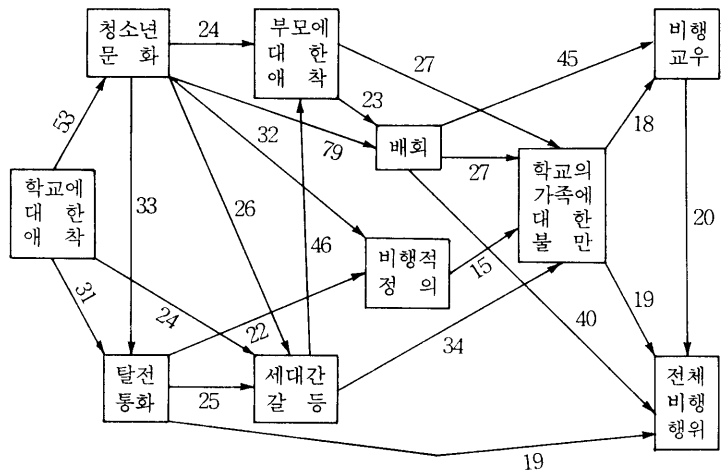
비행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은 주로 비행을 하는 개인의 특성을 밝혀 주고 있다. 즉 비행 청소년들의 독특한 내적 특성을 중심으로 비행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왜 청소년들이 비행과 관련된 독특한 내적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비행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비행 청소년들이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입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가족학적 입장에서는 가족의 구조 체계의 구조기능적 특성이 청소년

제2장
청소년
비행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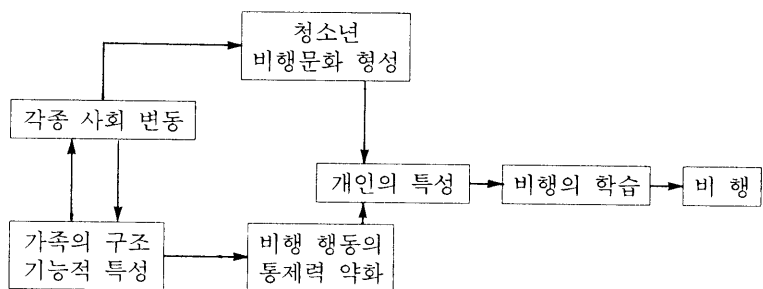
자녀의 비행 원인이 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입장도 결국은 사회학적 설명과 마찬가지로 가족 환경이 자녀들의 비행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환경이 자녀의 내적 특성을 어떻게 변화시켜 비행을 하게 하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비행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입장에서 주장하는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관련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운호(1991)는 비행의 인과적 경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2-5〉 전체 비행의 인과적 경로 모형

그러나 이러한 모형에서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거나 혹은 기질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개인 변인이 비행 행동의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빠져 있다. 따라서 비행 원인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행 경로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6〉 비행 경로의 가설적 모형

청소년 비행의 양적 실태

1. 청소년 행위 특성에 따른 비행 유형
2. 청소년 비행의 현황

1. 청소년 행위 특성에 따른 비행 유형

비행이 잘못된 행동(misbehavior)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된 행동이 비행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비행에 속하는 행동은 시대적 차이,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비행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행위자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다(정우식, 1986; 한국카운슬러협회, 1987). 예를 들면, 한 연령대에는 수용되는 행동이 나중에 다른 연령대에는 반사회적 경향의 지표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남자에게는 별로 문제되지 않으나 특히 여자에게는 비행으로 규정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으며, 60년대의 비행이었던 것이 시대 변화에 따라 규범도 변화하여 90년대에는 비행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행을 정의내리기는 매우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음으로 인해, 청소년 비행은 학자마다, 연구마다 각기 다양하게 정의되었고 청소년 비행에 관한 많은 자료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용이하게 정의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 범죄만을 다른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어렵고도 동시에 필요하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밝히기 위한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고 객관적인 비행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성혜, 1995). 그러나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청소년 비행의 규정을 근본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청소년 비행의 구체적 행위는 아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 비행 행위 간에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행위자의 특성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청소년 비행은 학자마다 다소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을 **행동의 경중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Sanders (1981)는 살인이나 강간, 강도, 폭행 등의 강력 범죄와 주거침입 절도 등의 재산 범죄를 중한 범죄로, 사소한 절도나 폭행을 형법위반 행위로, 가출이나 무단 결석, 음주, 흡연,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출입을 지

제3장
청소년 비행의
양적 실태

위 비행으로 보았다. 유혜영(1987)은 지위 비행에 가출, 컨닝, 유흥업소 출입, 학생 금지 영화 관람, 음란 비디오, 집안 물건 매매나 저당, 호신 용 또는 무기 소지, 혼성 캠핑, 이성과의 밤샘 데이트 등을 포함시키고,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기, 고의로 파손하기, 남의 자전거 훔쳐 타기, 구타, 위협, 상처 내기, 이성과의 성 관계는 범법 행위로 분류한 바 있

〈표 3-1〉 청소년 비행 유형

남정자(1990)	심응철(1992)	남재봉(1992)	이정현(1993)	김선남(1994)
- 폭력비행 - *타인에 대한 시비 *금품갈취 *타인구타 *아동구타 *훔기소지	- 폭력비행 - *폭력서클가입 *폭행 *공갈이나 협박 *패싸움 *훔기소지 *공공기물파괴	- 폭력비행 - *부모구타, 위협 *학생, 미성년자 구타, 위협 *어른, 타인구타 *패싸움 *훔기소지	- 대인비행 - *패싸움 *훔기소지 *폭력서클가입 *강간 *폭행 *금품갈취 *훔기로 타인 상해 *강도 *공갈이나 협박	- 폭력비행 - *패싸움 *공공기물파괴 *협박 *금품갈취 *타인물건파손
- 쾌락비행 - *여성희롱 *혼성캠핑 *남녀혼숙 *이성과의 성 관계 *이성과 성 관계 *사창가 출입	- 성비행 - *강간 *음란전화 *남녀혼숙 *사창가 출입 *음란비디오 관람 *길가는 여성 희롱 *음란서적읽기	- 성비행 - *매춘 *강압적 성 관계 또는 시도	- 성비행 - *이성과의 혼숙 *이성과의 성 관계 *음화 및 음란 서적 소지 *음란비디오 관람	- 성비행 - *강간 *여성희롱 *이성과 성 관계
- 가출비행 - *무단결석 *가출 *학교로의 부모 호출		- 질서비행 - *여성희롱 *음란비디오 *음란전화 *무임승차 *공공장소에서 소란 *노름 *컨닝 *무단결석	- 공공질서비행 - *컨닝 *부모에 대한 반항 *선생님에 대한 반항 *무단결석 *돈내기 도박 *가출 *음주 *흡연	- 반항적비행 - *무단가출 *부모에게 반항 *선생 또는 윗 어른에게 대들기 - 학업비행 - *컨닝 *등록금유용 *무단결석
- 반항비행 - *등록금 유용 *근신경고처분 *정학 또는 퇴학 *아버지 구타 *어머니 구타 *선생님 구타				

〈표 3-1〉 계속

1. 청소년 행위
특성에 따른
비행 유형

남정자(1990)	심응철(1992)	남재봉(1992)	이정현(1993)	김선남(1994)
-지위비행- *늦은 귀가 *흡연 *음주 *노름 *주먹싸움 *컨닝 *음란비디오보기 *음란서적 읽기 *미성년자 불가 영화관람 *술집출입	-지위비행- *무단결석 *부모에게 반항 *부모에게 거짓 말하기 *무단가출 *흡연 *음주, 술집, 출입 *컨닝 *당구장 출입 *관람불가극장 출입 *디스코장 출입	-지위비행- *담배 *술집에서 음주 *술집이외에서 음주 *디스코장 출입 *당구장 출입 *관람불가극장 출입 *무단가출	-지위비행- *디스코장출입 *다방이나 당구장출입 *관람불가극장 출입	-지위비행- *담배 *술 *디스코, 다방, 술집, 당구장 출입 *노름 *음란비디오 보기 *음란 서적읽기
-약물비행- *본드, 신나사용 *환각제 사용 *마리화나 흡연 *희로뽕 사용	-약물비행- *환각제나 본드 사용	-마약비행- *대마초, 환각제, 본드흡입	-약물비행- *환각제나 본드 사용 *대마초 흡연	
-재산비행- *만원이상 물건 절도 *상점물건 훔침	-재산비행- *타인물건파손 *주거침입절도 *금품갈취 *돈내기 도박 *만원미만 절도	-재산비행- *장물-매매나 보관 *손괴-가족성원 물품 고의적 파손 -학교물품 고 의적 파손 -타인물건 고 의적 파손 *절도-음식, 물건 대금지불안함 -가족의 돈이나 물품 훔치기 -학교에서타인의 돈, 물품훔치기 -만원이하 훔치기 -만원이상 훔치기 -타인의 집 침입 절도	-재산비행- *등록금 전용 *공공기물파괴 *사기 *주거침입절도 *만원이상절도 *만원미만절도	

다. 노성호(1992)는 비행을 문제 행동(지위 비행으로 혼용하고 있음)과 범죄로 나누었다. 여기서 문제 행동이란 음주, 흡연, 당구장, 디스코장 출입, 가출, 무단 결석 등이 포함되고 범죄에는 폭행, 패싸움, 금품 갈취, 본드, 환각제 흡입, 흥기 소지, 절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류보다 보편적인 것은 유형별로 분류하는 경우이다. 심영희(1987)는 청소년 비행을 재산 비행, 폭력 비행, 의도적 반항, 은둔 비행 등 4가지로 보았고, 김준호, 이성식(1987)은 지위 비행, 대인 비행, 재산 비행, 공공질서 비행, 성 비행 등 5가지로 분류했다. 노성호의 다른 연구(1986)에서는 대인 비행, 재산 비행, 공공질서 비행, 피해자 없는 비행, 지위 비행, 약물 사용 비행 등 6영역으로, 남정자(1990)는 지위 비행, 폭력 비행, 쾌락 비행, 가출 비행, 반항 비행, 약물 비행, 재산 비행 등 7영역으로 나누었다. 남재봉(1992)은 지위 비행, 폭력 비행, 질서 비행, 피해자 없는 재산 비행, 성 비행, 지위 비행, 공공질서 비행으로, 김선남(1994)은 지위 비행, 학업 비행, 반항적 비행, 폭력 비행, 성 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분류에서 각 유형에 속하는 행동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폭력 싸움 가입, 강간 폭행, 금품 갈취, 흥기로 타인에게 상처 입히기, 강도, 공갈이나 협박이 폭력 비행 또는 대인 비행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등록금 전용,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 훔치기, 만원 이상의 절도, 만원 미만의 절도, 공공 기물 파괴, 사기, 협박은 재산 비행으로 보기도 하며, 이중 등록금 유용을 학업 비행으로, 공공 기물 파괴를 폭력 비행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환각제나 본드, 대마초 흡연을 약물 사용 비행으로 보고 디스코장 출입, 관람 불가 극장 출입, 다방이나 당구장 출입을 지위 비행으로 보는 경향은 지배적이다. 이성과의 혼숙, 이성과의 성 관계, 음화 및 음란 서적 소지, 음란 비디오 관람은 성 비행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연구자에 따라서 쾌락 비행으로 칭하거나 음란 서적, 음란 비디오 보기를 지위 비행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쾨닝, 부모와 선생님에 대한 반항, 무단 결석, 돈내기 도박, 가출, 음주, 흡연은 지위 비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특히 무단 결석, 부모나 교사에 대한 반항을 반항 비행으로, 무단 결석 및 쾨닝, 등록금 유용을 학업 비행으로 보기도 하는 등, 이에 대한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이 청소년 범죄에 속하는 행동과 미성년자라는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보통 범죄라 불리우는 행위를 비롯하여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정당한 사유 없는 가정 이탈, 불량 교우, 유해한 장소 출입, 상습적 타락, 구박, 성 행위 그리고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적성을

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김영모, 1981) 다루고자 한다.

2. 청소년 비행의

현황 : 공식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2. 청소년 비행의 현황 : 공식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실제로 비행을 한 청소년 가운데 경찰서나 관계기관에 입건된 사람은 약간에 불과하며 이들 중에서도 재판에까지 회부되는 숫자는 그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록으로 남지 않는 숨은 비행의 수는 공식적인 비행으로 기록된 경우보다 10배 내지 15배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3년 이래 공식적으로 집계된 현재까지의 20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전체 범죄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범죄 발생 건수의 10% 미만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형법범 중에서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양적으로도 뚜렷한 증가현상은 없지만, 경찰에 단속된 청소년의 각종 지위 비행과 환각 물질 사용 등의 소년 풍기 사범은 증가 추세가 심화되고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질적인 측면에서 흉포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에서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상습화, 집단화, 저연령화 현상과 더불어 중류 생활 가정층 출신 소년들의 범죄 증가, 재한 소년에 의한 범죄화, 교통 사고로 인한 과실 범죄의 증가 등의 현상이 보인다. 청소년 범죄의 특성과 추세를 감안할 때, 국가 사회의 긴급한 대응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본 장에서는 공식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청소년 범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공식 통계 자료는 주로 대검찰청에서 발생하는 범죄 분석을 참고로 하였다. 광의의 청소년 비행에는 청소년 범죄를 비롯해 청소년의 지위 비행까지 포함되나, 본절에서는 공식 통계에 의존해 다루는 청소년 비행은 엄밀히 말해 청소년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 지위 비행에 대한 공식 통계는 잡히지 않고 부분적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 기관에 의해 적발된 청소년 범죄에 준한 경향임을

먼저 밝힌다. 이후의 내용에서 언급하는 청소년 범죄란 1988. 12. 31. 개정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 행위를 말하며, 동 제3호에 정한 우범(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정당한 이유없는 가정 이탈, 불량 교제 등 그 자체로는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범죄백서, 1994 ; 95)는 것을 밝힌다.

청소년 비행의 현황과 추세를 통계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2.1 총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구성 현황

<표 3-2>에 의하면 최근 총 범죄의 절대 수치는 증가한 반면, 청소년 범죄의 절대 수치는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총 범죄 중 청소년 범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소년범의 증가 현황은 성인 범죄에 비하여 증가율이 낮고 구성비도 감소 추세에 있다.

〈표 3-2〉 총범죄 대비 소년범죄 구성 현황 (단위 : 명,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총범죄	1,402,217 (100)	1,540,914 (109.9)	1,542,035 (110.0)	1,738,952 (124.0)	1,831,833 (130.6)
소년 범죄	105,567 (100)	102,537 (97.1)	99,301 (94.1)	110,604 (104.8)	108,342 (102.6)
구성비(%)	7.5	6.7	6.4	6.4	5.9

* 자료 : 대검찰청

2.2 연령별 현황

<표 3-3>에서 소년 범죄자의 연령별 추이를 보면 18~19세의 연령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14세 미만의 경우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5세 이하의 범죄 소년은 1990년 17.3%이던 것이 1994년에는 26.3%로 9.0% 높아진 반면, 18~19세의 청소년 비행은 1990년 51.0%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4년에 39.2%로 낮아져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를 우려할 만한 조짐이 보인다.

〈표 3-3〉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 도	소년범죄자		14세 미만		14 - 15세		16 - 17세		18 - 19세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1990	105,567	100	1,972	1.9	16,280	15.4	32,248	31.7	53,887	51.0
1991	102,537	100	2,108	2.1	16,759	16.3	31,925	31.1	51,745	50.5
1992	99,301	100	2,200	2.2	18,482	18.6	31,022	31.2	47,597	47.9
1993	110,604	100	2,307	2.1	23,290	21.1	37,176	33.6	47,831	43.2
1994	108,342	100	3,000	2.8	25,424	23.5	37,418	34.5	42,500	39.2

* 자료 : 대검찰청

2. 청소년 비행의

현황 : 공식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2.3 유형별 현황

〈표 3-4〉에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 보면 폭력 범죄, 재산범죄, 강력 범죄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폭력 범죄는 재산범죄에 비해 절대 수치에서 넘어서고 있으나 1990년에 비하여 1994년에는 감소된 상태이며 재산범죄는 1990년에 비하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소년범죄가 흉폭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약물 사범이 1990년, 1,965명에 비해 1994년에는 3,545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표 3-4〉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1990	1991	1992	1993	1994
계	105,567 (100)	102,537 (97.1)	99,301 (94.1)	110,604 (104.8)	108,342 (102.6)
강 력 범	6,261 (100)	3,568 (57.0)	3,324 (53.1)	4,662 (74.5)	6,942 (110.9)
폭 력 범	49,088 (100)	41,337 (84.2)	36,622 (74.6)	40,380 (82.3)	45,140 (92.0)
재 산 범	25,255 (100)	25,611 (101.4)	26,073 (103.2)	28,099 (111.3)	31,824 (126.0)
약물사범	1,965 (100)	328 (16.7)	3,306 (168.2)	4,020 (204.6)	3,545 (180.4)
기 타	22,998 (100)	31,693 (137.8)	22,976 (130.3)	33,443 (145.4)	20,891 (90.8)

* 자료 : 대검찰청

2.4 성별 현황

지난 몇 해 동안 청소년 범죄자를 성별로 살펴 보면 남자의 경우 절대 수치에서 증감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체 소년범 중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 여자의 경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4년에 남자 소년범은 101,625명으로 93.8%, 여자 소년범이 6,717명으로 6.2%인 바, 1990년에 비해 남자 소년범의 비율이 2.1% 낮아진 반면, 여자 소년범의 비율은 2.1% 높아졌다.

〈표 3-5〉 성별 현황 (단위 : 명)

연 도	계		남 자		여 자		여자소년범 구성비(B/A)
	인원(A)	지수	인원(B)	지수	인원(B)	지수	
1990	105,567	100	101,255	95.9	4,312	4.1	4.3
1991	102,537	100	98,102	95.7	4,435	4.3	4.5
1992	99,301	100	94,386	95.1	4,915	4.9	5.2
1993	110,604	100	104,263	94.3	6,340	5.7	6.1
1994	108,342	100	101,625	93.8	6,717	6.2	6.7

* 자료 : 대검찰청

2.5 교육 정도별 현황

1994년도 소년 범죄자의 교육 정도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56.4%

〈표 3-6〉 교육 정도별 현황 (단위 : 명)

연 도	계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 타
1990	105,567 (100)	353 (0.3)	4,946 (4.7)	31,325 (29.7)	53,735 (50.9)	4,057 (3.8)	11,151 (10.6)
1991	102,537 (100)	327 (0.3)	4,571 (4.5)	30,260 (29.5)	54,270 (52.9)	3,708 (3.6)	9,401 (9.2)
1992	99,301 (100)	278 (0.3)	4,190 (4.2)	25,310 (25.5)	53,560 (53.9)	2,955 (3.0)	13,008 (13.1)
1993	110,604 (100)	164 (0.1)	3,807 (3.4)	34,097 (30.8)	60,392 (54.6)	2,905 (2.6)	9,239 (8.4)
1994	108,342 (100)	169 (0.2)	3,187 (2.9)	33,929 (31.3)	61,108 (56.4)	4,190 (3.9)	5,759 (5.3)

* 자료 : 대검찰청

제3장
정소년 비행의
양적 실태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주의가 11.7%, 취중(호기심)이 9.0%, 유흥비
충당이 8.7%의 순이다. 이는 그만큼 범죄의 동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 범죄를 예방, 치유하기 위해서 범죄 동기에 대한 철저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더우기 우연으로 발생하는 범행동기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
동적, 우발적, 이유도 모른체 일어나는 범죄가 많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 3-8〉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계		105,364 (100)	102,324 (100)	99,196 (100)	110,453 (100)	108,135 (100)
이 목	소 계	13,442 (12.8)	10,060 (9.8)	9,761 (9.8)	10,840 (9.8)	20,629 (19.1)
	생 활 비	1,965 (1.9)	1,675 (1.6)	1,571 (1.5)	1,651 (1.5)	1,967 (1.8)
	유흥비	8,992 (8.5)	6,149 (6.0)	6,023 (6.8)	7,464 (6.8)	9,432 (8.7)
	허영사치심	2,555 (2.4)	2,236 (2.2)	2,167 (2.2)	1,725 (1.6)	1,638 (1.5)
	기 타					7,595 (7.0)
사 행 심		2,755 (2.6)	1,909 (1.9)	1,597 (1.6)	1,633 (1.5)	1,036 (1.0)
원 한 분 노		3,872 (2.9)	3,012 (2.9)	2,091 (2.1)	1,897 (1.7)	1,756 (1.6)
취 중(호기심)		7,683 (7.3)	7,864 (7.7)	7,260 (7.3)	7,284 (6.6)	9,711 (9.0)
우 연		35,065 (33.3)	27,687 (27.1)	25,407 (25.6)	25,877 (23.4)	26,786 (24.8)
유 혹		1,852 (1.8)	2,081 (2.0)	1,790 (1.8)	2,961 (2.7)	1,251 (1.2)
가 정 불 화		151 (0.1)	149 (0.1)	129 (0.1)	136 (0.1)	135 (0.1)
부 주 의						12,725 (11.8)
현 실 불 만						973 (0.9)
기 타		40,544 (38.5)	49,562 (48.2)	51,161 (51.6)	59,825 (54.2)	33,133 (30.6)

* 자료 : 대검찰청

* 주 : 94년도 현황은 이목난의 '기타'와 '부주의', '현실 불만'이 범행 동기로 새
로 추가되었음.

이용난의 '기타'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외의 이목 목적 범행임.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실제 청소년 범죄의 동기는 어느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2. 청소년 비행의
현황 : 공식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2.8 전과별 현황

청소년 범죄의 전과별 현황을 보면 1994년의 경우 78.6%가 초범이고, 21.4%가 전과자이다. 청소년범의 재범율은 1990년 이후 1992년까지는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3년과 1994년도에는 청소년 범죄자 중 전과자가 21.4%로 1990년도의 22.4%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표 3-9〉 전과별 현황

(단위 : 명)

연 도	계	초 범	전 과			
			소 계	1 범	2 범	3 범
1990	105,567 (100)	81,896 (77.6)	23,671 (22.4)	13,040 (12.4)	5,446 (5.1)	5,185 (4.9)
1991	102,537 (100)	78,749 (76.8)	23,788 (23.2)	13,342 (13.0)	5,364 (5.2)	5,082 (5.0)
1992	99,301 (100)	75,203 (75.7)	24,098 (24.3)	13,534 (13.6)	1,650 (1.7)	8,914 (9.0)
1993	110,604 (100)	86,885 (78.6)	23,719 (21.4)	14,111 (12.8)	5,468 (4.9)	4,140 (3.7)
1994	108,342 (100)	85,127 (78.6)	23,215 (21.4)	13,758 (12.7)	5,792 (4.9)	3,665 (3.4)

* 자료 : 대검찰청

2.9 공범 관계별 현황

청소년 범죄자의 공범 관계는 공범이 있는 소년 범죄자 중 학교 동창관계가 27.2%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동네(고향)친구 15.3%, 군·직장 동료 2.3%, 친·인척이 1.1%의 순이다.

〈표 3-10〉 공범 관계별 현황

(단위 : 명)

년도	계	단독범	공 범 관 계							
			소 계	학 교 동 창	교도소 등동료	친 · 인척	동네(교 향)친구	애 인	군직장 동료	기 타
1994	108,342 (100)	42,508 (39.2)	65,834 (60.8)	29,454 (27.2)	117 (0.1)	1,198 (1.1)	16,531 (15.3)	256 (0.2)	2,450 (2.3)	15,828 (14.6)

* 자료 : 대검찰청

2.10 학생 비행 - 학생 범죄의 연도별 현황

학생 범죄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이며, 청소년 범죄 중 학생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90년도에 전체 소년범죄의 52.1%였던 학생 범죄가 1994년도에는 64.3%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학생층이 범죄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보호 관찰 대상자의 경우에서도 역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학생 대상의 비행 예방 교육과 비행 문화로부터의 단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3-11〉 학생 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연 도	전체 범죄 (A)	소 년 범 죄		학 생 범 죄	
		인 원(B)	구성비(B/A)	인 원(C)	구성비(C/B)
1990	1,402,417	105,567	7.5	55,026	52.1
1991	1,540,914	102,537	6.7	56,496	55.1
1992	1,542,035	99,301	6.4	57,057	57.5
1993	1,738,952	110,604	6.4	66,074	59.7
1994	1,831,833	108,342	5.9	69,611	64.3

* 자료 : 대검찰청

2.11 학생 비행 - 학생 범죄의 유형별 현황

1994년 학생 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폭력 사범이 3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절도 사범 24.9%, 흉악 사범 2.5%의 순이다. 1994년의 경우 흉악사범은 1,730명으로 1990년보다 43.2% 증가하였다.

〈표 3-12〉 학생 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폭력 사범		절도 사범		홍약사범		기 타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1990	55,026	100	23,727	43.1	12,275	22.3	1,208	2.2	17,816	32.4
1991	56,496	100	21,333	37.8	13,410	23.7	756	1.3	20,997	37.2
1992	57,057	100	20,336	35.6	14,085	24.7	822	1.4	21,814	38.2
1993	66,074	100	23,286	35.2	14,968	22.7	1,167	1.8	26,653	40.3
1994	69,611	100	25,143	36.1	17,307	24.9	1,730	2.5	25,431	36.5

* 자료 : 대검찰청

2. 청소년 비행의

현황 : 공식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이상, 공식 통계에 의한 청소년 범죄의 동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계로 확인된 범죄 청소년의 절대 수치는 최근 5년간 추이를 볼 때, 큰 변화의 폭을 보이지 않으나, 인구 1만명당 범죄 인원을 살펴보면 계속 증가하며, 아직 우려할 만한 사태는 아니지만, 전체 소년범 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범죄 행위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청소년 범죄의 특성으로 충동적, 우발적 행위, 또는 이유도 모르는 행위로 정리될 수 있으며, 편부모 가정 출신의 범죄 소년의 비율이 5년간 큰 변화가 없었고, 각 연도마다 편부모 가정 출신의 소년 범죄자 비율 역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비행 청소년 = 결손 가정 출신이라는 통념이 편견일 수 있다.

소년범의 비중이 높은 죄명도 강도, 강간, 절도 등으로 특히 강도나 절도가 전체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50% 전후에 머무는 수치이다. 1994년의 경우, 폭력 범죄는 줄었으나 **강력 범죄, 재산 범죄, 약물 사범**은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여서 청소년 범죄의 특성이 강력범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범죄 청소년 14~15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하여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를 우려할만한 조짐이 보인다.

청소년 범죄 중 **학생범**의 비율 역시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학생 대상의 비행 예방 교육의 필요성 및 비행 문화로부터 터의 단절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유형별 실태와 대책

1. 가 출
2. 자 살
3. 도 벽
4. 갈 취
5. 폭 력
6. 불량 서클
7. 청소년 성 비행
8. 오락 벽
9. 학업 비행
10. 가족 폭력

1. 가 출

1.1 청소년 가출의 정의

청소년기는 이성에 의한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강한 시기이다. 또한 과도기적 특성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느낄 만큼 성숙하지 못하기에 탈선적 행위가 일과성의 성격을 띠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 또는 보다 심각한 내용의 비행으로 이어지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출이라는 용어가 성인에게도 적용되지만 성인가출이 아닌 청소년의 가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출이란 정신적 갈등의 해결이나 생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족을 떠나 안주의 장소를 구하려는 일종의 도피 행위이다. 또는 '일반적으로 결혼이나 혈연적 관계로 맺어져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라는 집단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길을 걷는 상태'로 정의내릴 수 있다. 즉 가족이 가지는 순기능적 특성을 들어 사회 성원의 재충원 및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가족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므로 가출과 같은 이탈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가출은 자유를 구하려는 필연의 생산 과정 혹은 자립과 자아의 최초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비행과 연관지어지는 가출이 자유와 독립의 추구라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사회 질서의 파괴, 가족해체 및 범죄 등의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상의 개념을 중심으로 **가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해 보면 가출이란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나 해결을 위해 보호자의 승인 없이 최소한 하루 밤 이상 무단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충동적 혹은 계획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출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 및 과정 그리고 결과에 따라 가출의 사회적 의미가 달라지는 데 가출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것은 각각 시위성 가출, 도피성 가출 및 추출성 가출이다. 시위성 가출이란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신을 향한 가족원들의 관심 획득을 위주로 하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제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말한다.

반면 도피성 가출은 긴장 유발적인 가정 전체로부터의 탈출이나 거부를 지향하는 성격을 띠는 것으로 시위성 가출에 비해 보다 전면적, 적극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추출성 가출은 자신 스스로 집에서 나왔다고 보다는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가정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쫓겨나는 형식을 취해 가출을 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가출은 아이들에게는 새롭지만 유해한 환경에 접촉할 기회를 아무런 통제 없이 내어 주는 셈이 된다. 가출이 비행으로 인도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행을 매개하는 촉매제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청소년 가출의 원인

청소년 가출은 개인적 요인, 유해 환경 문제, 친구 문제, 학교 생활의 부적응, 가정에 대한 불만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출의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단순 충동 가출과 상습 가출로 나누어 가출의 원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YMCA, 1995). 단순 충동 가출은 시험지옥과 부모의 간섭으로부터의 도피가 주된 원인이고, 불량 친구의 선동으로 가출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가출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 생활의 하나가 되어 버린 상습 가출은 앞서 여러 요인이 중복적으로 얹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출의 원인은 가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가출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1.2.1 개인적 요인

비행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개인 지향주의적 이론의 근거는 범죄자 혹은 비행자가 일반인과는 개인적 성향에서 여러 가지로 엄연히 다르다고 보는 데 있다. 즉 비행자 혹은 가출자에게는 일반인과는 구분되는 심리적, 정신적 이상 혹은 부정적인 태도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연구는 가변적이고 동적인 인간의 행동 지각과 선택 과정을 집중 탐구할 필요가 있으며 보완적으로 정적인 범인성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부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1차적 책임이 자신의 행동 선택에 있으며, 2차적인 책임이 사회의

상황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우식(1986)은 유아 시절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여야 할 부모들이 일관되지 못한 훈육 태도라든가,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겪게 되는 인격 장애적 스트레스는 점진적으로 심화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의 결과로서 아이들은 특정한 유형의 심리적, 행위적 태도와 행동 특성을 지니게 되며, 더 나아가 자신의 미성숙한 기준과 판단으로 어떤 행위를 허용하고 어떤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가 혹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등의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정자(1973)는 가정을 이탈하는 아이들의 성격상의 징후를 다음과 같은 용어로 설명한다. 즉 방일성, 의지 부정성, 유약성, 충동성, 흥분성, 경조성, 우울성, 편집성, 자아 강력성, 자아 유연성, 괴리성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성격이나 자아감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비행이나 가출로 유도되지 않을 불리한 상황적 요인에 냉정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충동과 관련하여 전병재는 심적 에너지의 분배 상태에 따라 superego, ego, id 등으로 분류한 Freud의 분류법에 따라 심적 에너지가 id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충동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성격상의 징후에 따라 행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게 되며 그들은 그 태도에 기반하여 선택적 행동을 취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1.2.2 가정적 요인

가정적 요인이란 가족의 결함을 지칭하며 이러한 가족의 결함은 다시 크게 구조적 결함과 기능적 결함으로 나뉘어진다. 구조적 결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손가정을 칭하는 것인데 사별이나 이혼 혹은 그 밖의 사연으로 인해 부모 중의 한 분 또는 모두가 안 계시는 분열 상태 및 아예 결혼의 경험도 없는 편부모의 상황은 아이들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학교생활에서도 실패하게 만들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Roberts(1987)는 가출 청소년의 반 수 정도가 결손 가정 출신임을 지적하고 있고, Shellow(1967) 등의 연구도 가출 청소년과 비가출 청소년의 결손 가정 정도를 비교한 뒤, 가출 청소년의 48%가 결손 가정 출신인데 비해 비교 집단인 비가출 아동의 경우에는 단지 18%만이 결손 가정 출신임을 지적해 가출이 가족의 구조적 결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가족의 기능적 결합이란 가족이 물리적으로 정상 가족이든 결손 가정이든 간에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족의 기능을 분류하여 보면 크게 1)부부 간의 관계 2)형제 간의 관계 3)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부 간의 관계는 전통적인 한국 가족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남편 對 아내 우위성이 철저히 지켜져 왔다. 가부장의 권위와 어머니의 정서가 엄격함과 부드러운 조화 속에 자식에게 올바른 가정정서를 가르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가족의 역할과 위치가 바뀌어지면서 부부 간의 관계는 조화의 관계에서 갈등의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갈등 관계가 겉으로 표현화되어 자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나타날 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감정적인 동요 상태를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둘째, 형제 간의 관계란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형제 간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는 친구 간의 관계처럼 변화하였고, 더우기 아동 시절의 형제 관계에서 그러한 경향이 심화된 상태이다. Heim Ginott는 형제 간의 질투가 성서에도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태를 유발하기도 하는 점을 지적하는 데 아이의 성, 외관, 지능 및 소질 등에 대한 부모의 비교나 차별 대우적 태도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형제 간의 우애가 좋지 못하고 부모의 형제에 대한 애정이 차별화되고 있을 때 가족이 구성된 간의 애정 충족과 같은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이라는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애정과 자율의 두 축에 의해 구분되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양자의 결합 방식에 의해 민주형, 과보호형, 방임형, 권위형으로 세분된다. 아이에 대한 능력 이상의 기대는 그 개인의 개성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어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결과를 낳으며, 자식에 대한 무관심과 불간섭은 부모 자식간의 애정 결핍을 매개로 하여 상호 간의 의사 소통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권위주의적 태도는 자녀들을 정서 불안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매사에 소극적이고 산만한 성격의 소유자로 만들어 모든 것을 왜곡하여 보게 된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는 일관된 훈육 방법을 보여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Heim Ginott에 의하면 훈육이란 아이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을 때 한 번으로 끝나야지 반복될 경우엔

단지 잔소리로만 들리며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정의 결함은 구조적인 결함과 기능적인 결함으로 나뉘어지며 양자 간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만 구조적인 결함이 곧 기능적인 결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능적인 결함을 가진 가족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바로 비행이나 가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볼 때, 가출이나 비행으로 연결되는 연결망은 각각의 단계에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방어 기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을 때 비행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1.2.3 사회적 요인

아이들은 성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가족 이외의 사회 환경과 접촉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규율과 훈련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가족 이외의 사회 환경 중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적응력을 육성하여 주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여 주는 학교를 들 수 있다. 학교란 개인이 학습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규율과 규범을 획득하는 제2의 사회화의 장으로서 학교 생활은 새로운 사회 공동체의 성원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이해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다. 그런데 부모나 사회로부터 공부에 대한 압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거나 이러한 주위의 열망이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심리적 부담이나 부적응 혹은 아노미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부모나 주위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다른 유대 관계를 맺고자 하며 이러한 시도가 아이들로 하여금 가출이나 비행으로 빠지도록 한다.

가출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 가운데 친구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가출의 원인을 조사한 연구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 선도위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불량 친구가 가출의 원인이었다는 대답이 전체의 반 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청소년 후기의 자아 정체감 확립시기에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타인과 유대를 맺는 데 이때는 친구가 가장 손쉽고 부담 없는 준거 집단이자 행동의 모델이 된다. 이러한 자아 정체감의 확립 과정에서 모든 타인이 자기와의 교제나 사회적 상호 작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이들은 놀이를 통해 친근해지므로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격의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뜻이 맞으면 무슨 일이라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맹목적 친구 추종이라는 문제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이 떳떳하지 못할 경우에는 친구와 함께 하는 행동이 그것을 정당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3 청소년 가출의 실태

최근의 청소년 가출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거나 희망하는 공부나 취직,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한 욕구로 가출하는 자립지향적 가출보다는 환경 도피적, 무목적적 가정 탈출형이 늘어나고 있다. 즉,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갈등과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가출을 선택하거나 가출을 외박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여 청소년 특유의 모험심과 방랑적 기분, 새로운 체험에 대한 동경 심리로 가출을 하는 경우로 친구와 동반해서 가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출 충동이 들 때 생각해 본 가출 방법으로는 짐을 챙겨 들고 나가 어디론가 먼 곳으로 떠나야겠다(39.0%)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머지는 무작정 나간 다음에 하루 이틀쯤은 들어가지 않겠다(27.4%), 친구집이나 친척집을 찾아가겠다(18.1%), 집을 나가 취직을 하겠다(8.7%), 먼저 가출한 친구를 찾아가겠다(2.6%), 기타(4.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YMCA, 1991).

또한 전체 학생중 14.3%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MCA, 1991)

남학생	526/2675	19.7%
여학생	220/2532	8.7%
인문고	363/2194	16.5%
실업고	242/1020	23.7%
중학생	141/1998	7.1%
서울	245/2012	12.2%
지역	503/3220	15.6%

한편, 92년과 93년도 보호 관찰 대상자 총 6,601명에 대한 가출 경험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가출 경험자는 2,750명으로 전체의 41.7%를 차

지하였고, 가출 경험자 2,750명 중 1회의 가출 경험자가 21.8%(1,439명)로 가장 많고, 3회 이상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11.2%(738)나 되었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성호(1992)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생의 4.3%, 중학생의 13.8%, 고등학생의 18.0%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일반 청소년의 가출 경험은 비행 청소년과 비교하여 낮다.

95년과 96년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 학생 가출 실태 현황 (단위 : 명)

연도	비행 학생 수							조치 사항				
	합계	중 학교			고 등 학 교			합계	퇴학	정학	근신	기타
		계	남	여	계	남	여					
'95	10785	4660	1733	2927	6125	3176	2949	10754	1570	5104	2764	1316
'96	8125	3609	1482	2127	4516	2147	2369	8108	957	3457	2433	1261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의 가출에 대해 허용적이고, 한 번이라도 가출 충동을 느낀 청소년이 10명에 7~8명꼴이라는 조사 결과(YMCA, 1991)를 볼 때 청소년 가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 청소년 가출의 대책

가출 행동을 다루는 문제는 쉽지 않다. 왜냐 하면 가출 행동 자체는 일시적이지만 가출 행동은 장시간에 걸쳐 누적된 여러 교육 환경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하여 발생하는 교육병리이기 때문이다(권이중, 1991). 그리고 가출 행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가출의 대책이나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출의 대책**에 대해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관계**를 통한 치료 대책을 강조한다.

모든 가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데에 있기 때문에 치료 또한 인간 관계에 바탕을 둔 만남, 대화, 상담 등을 통하여 가정(부모와 형제 간의 관계), 학교(교사와 교우 간의 관계), 사회(기성 세대와 동료 집단 간의 관계)에서 능동적, 긍정적,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공부의 압박감, 비인간적 경쟁, 선발 체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가출 행동의 발생은 억압, 스트레스, 타율, 불안으로부터 일종의 해방감을 얻고자, 어느 면에서 충동적, 공격적 행동과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현상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적 세계는 누구나 잠재해 있는 데 기회가 주어지면 가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기는 자기 중심적 흑백 논리에 기초한 사고의 특성에 의하여 현실에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며 도피 현상으로 나타난다. 공상에서의 도피, 가정, 학교로부터의 도피로 수업 거부, 무단 결석, 가출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가출 학생 지도에서 억압하는 행동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셋째, 교육적, 임상적 수단으로서의 “사랑”이다.

청소년 문제나 가출 학생 지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은 “사랑”이다. 교사는 모든 학생을 긍정적인 애정으로 대함은 물론 벌할 경우에도 야단치는 것보다 칭찬, 격려와 다정한 눈길, 미소 등을 통해 잘못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책망, 부정적인 시각은 청소년들에게 낙인론이 적용되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사랑이 절대 필요하다. 이러한 사랑에는 진실과 적극성, 인간적인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시험 체제의 과감한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의 중학교 3학년의 수업은 고교 진학을 목표로한 준비 교육에, 고등학교 전학년 수업은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한 준비 교육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급 학교의 진학 시험을 대비한 준비 교육은 모든 교육 병리의 근원이며 문제이다. 장기간에 걸쳐 시험 긴장이 계속되면 인격도, 신체도 붕괴될 뿐만 아니라 이 긴장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과감한 시험 체제의 개선 없이는 건강한 청소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선안은 독일에서 Abitur 시험제도와 같이 대학 입학 학력고사 과목을 네과목 정도로 줄이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뷔페식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모든 학생이 개인의 적성,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공부하도록 한다.

다섯째, 학교 공부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이들이 개인의 진로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한다.

교육부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두어 운영하는 것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정상적인 교과 교육 운영이 요구된다.

우리 학교의 현실은 고학력 지향, 입시 체제에 편중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각 반에서 10~20여명을 위한 교육 과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변칙적인 운영과 교육을 둘러싼 내부적, 외부적 조건 때문에 교육의 본래 기능이 손상되고 청소년 일탈 행동이 파생된다. 대안으로는 입시과목은 적게 조정되고 선택 과목을 많이 개설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즐겁게 공부하도록 한다.

일곱째, 학교 교육 평가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우 다양한 사고와 판단, 추리, 창조력을 소유하여 잠재 능력도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암기 잘 하고 기억력이 뛰어난 학생만 인정받는 평가 제도는 문제가 많으므로 다양한 영역, 교과 의 평가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대안은 성적 평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집단 활동, 사회 봉사 등이 학생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진로 지도가 요구된다. 가출 요인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진로 지도를 올바로 하지 못한다에 있다. 개인의 적성, 재능, 흥미, 소질, 가정환경 그리고 학과를 고려하지 않은 진로 지도가 결국 가출 학생을 만들고 있다. 부모들의 진로 이해 부족과 불과 몇 분 만에 배짱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투기적 심리는 반드시 지양해야만 한다. 부모의 허영심과 일선 교사들의 실적주의적 진로 지도에서 탈피하여 자녀의 능력, 적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마치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처럼 진로지도에 임해야 한다.

가출 행동의 주원인은 가정, 학교 모두 원만하지 못한 인간 관계에서 발생되므로 학생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학교에서는 교사가 제자와의 좋은 인간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2. 자 살

2.1 청소년 자살의 정의

자살이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아동 후기 부터 노년기까지 거의 전생애에 걸쳐 나타나며, 특히 청소년기의 연령에서 가장 발생율이 높은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행위이다. 자살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므로 자살 행위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청소년 자살의 원인

2.2.1 사회학적 접근

자살이란 주제가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Durkheim으로부터였다. Durkheim은 그의 저서에서 자살의 원인이 개인보다는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여, 유럽 각국들과 미국에서의 자살률을 여러 사회학적인 변인들 상에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살률은 개인이 속한 사회에 통합된 정도에 반비례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개인이 사회에 통합되고 통제되는 정도에 따라 자살을 4가지 유형-이기적, 이타적, 가치 혼란적, 그리고 숙명론적인 자살-으로 구분하였다. 이기적 자살은 지나친 개인 주의, 혹은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통합 결과 야기된 자살을 말하며,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지나치게 통합된 나머지 자신보다도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로 자살하게 되는 것이며, 가치 혼란적 자살은 사회가 개인의 삶에 필요한 법규와 질서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보일 수 있는 것으로, 급작스런 사회 변동 기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숙명론적 자살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사회적 속박하에 개인의 삶이 종속되어 있어서 자포자기적으로 살아가는 노예나 포로, 원하지 않은 결혼에 얽매인 경우에 보이는 자살을 말한다.

Durkheim에 뒤이은 사회학자들의 연구는 인구 과밀, 이혼, 경기 침체와 같은 열악한 사회적 환경 조건, 사회 구조의 붕괴, 사회적 고립, 사회 병리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과 자살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자살 행위 간에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사회학적 연구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자살을 외적 요인에 입각해서 설명하려 했을 뿐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2.2 정신 분석적 접근

정신 분석가들은 자살 행위를 일으키는 개인 내적인 갈등과 무의식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Freud(1917)는 “사랑하는 대

상의 상실로 인해 생기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분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유지하고자 그를 동일시하게 되고, 동일시 결과 자신의 일부로 내재화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강렬한 공격성이 결국 자살로 이끌게 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런 견해는 자살을 “내부로 향해진 분노(anger turned inward)”로 개념화한 것인 반면, Hendrick(1940)과 Friendlander(1940)는 강한 자살 충동을 가진 환자들의 사례 연구에서 그들이 이상화한 내적 대상과 재결합하는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관찰하여 자살 행동에서 성욕적인 측면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Minninger(1966)는 “Man against Himself”라는 저서에서 자살 행위를 일으키는 기저의 정신역동적 동기를 3가지로 구분하였다. 죽이고자 하는 소망, 죽임을 당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죽고 싶은 소망이 바로 그것이다. **죽이고자 하는 소망**은 공격성, 비난, 규탄, 제거, 파멸, 복수 등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죽임을 당하고 싶은 소망**은 복종, 피가학성, 자기비난, 자기규탄으로 기술될 수 있고, **죽고 싶은 소망**은 절망, 공포, 피곤, 낙망, 고통 등으로 자살하는 것을 기술한다. Menninger는 세가지 동기가 모든 자살 행위에 관여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으나, 연구 결과 죽이고자 하는 소망과 죽임을 당하고 싶은 소망의 강도는 연령에 따라 감소하고, 죽고 싶은 소망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동기상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Farberow & Shneidman, 1976).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 정신 역동적 동기가 자살 행위에 관여되는 정도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모든 자살 행위에 분노와 적대감이 개입되어 있음을 함축한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자살에 대한 정신 역동적인 가설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전통적 정신분석적 견해에 입각한 연구들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구성 개념을 실증적으로 측정하지 못했으며, 대부분 사례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2.2.3 인지 이론적 접근

정신 병리를 겪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특히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증이 자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Klerman, 1987). 이에 대해 Beck(1967)은 우울증의 정서적인 증상보다는 인지적인 증상인 절망(hopelessness)이 자살과 가장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절망이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즉 자신이나 어느 누구도 불행이나 고통

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다(White, 1989). Beck의 이론이 우울증 환자 집단에서 보이는 자살 행위를 설명하는 데는 매우 적절하나, 우울증 이외의 임상 집단이나 비임상 집단에서 보이는 자살 행위를 설명하는 데는 불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자살에 대한 장기적인 스트레스 모델(Facobs, 1971)에서는 자살 행위를 오랫동안 지속된 심리적 고통의 결과로 보고 있다. 즉 자살을 “장기간의 가족 갈등 및 부정적인 생활 사건, 그에 대한 비효율적인 대처 기술, 점진적인 사회적 고립, 희망의 상실을 초래한 외상적 경험, 그리고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자살에 대한 위기 모델(Sarason & Sarason, 1984)은 자살을 갑작스런 실패나 좌절, 상실 경험에 대한 급성 반응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자살에 대한 장기적인 스트레스 모델에 따르면 절망은 우울증과 같은 만성적인 정신병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장기적인 위험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비임상 집단에서 급성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 자살 행위에는 장기적인 위험요인보다는 단기적인 위험 요인이 더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단기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특정한 정신 병리에 기인된 것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런 상실경험이나 실패와 같은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나 충동성을 들 수 있다.

2.2.4 Baumeister의 통합적 접근 : ‘자기로부터의 도피로서의 자살’

Baumeister(1991)는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피**”,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런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해서 그는 자살에 이르는 도피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a)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기대 수준은 높는데 비해 현실적인 상태는 그에 미치지 못할 때,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생기게 되고, (b)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생긴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자기 비난과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게 되며, (c)주의초점이 자기에게 돌려져서 고통스런 자기 지각이 더욱 첨예화되고 자신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d)그러한 결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초래된다. (e)개인은 이런 고통스런 생각과 감정을 없애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갈구하게 되어, “인지적 몰락(cognitive deconstruction)” 상태가 유발된다. 인지적 몰락이란 정신 기능의 협소화(mental narrowing)로서 모든 사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피

상적, 무가치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정신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는 자살을 저지하는 여러 가지 내적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기제가 되어, 결국 부정적으로 인식된 자신과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수단으로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이고 자기파괴적인 선택을 하게된다. 자기에 대한 고통스런 생각 및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충동결과로 초래된 인지적 몰락 상태는 자살 행위뿐만 아니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성적 방종, 충동적 과식 등 다양한 자기 파괴적 행위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Baumeister의 이론은 앞서 개관한 자살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를 포괄할 수 있다. 즉, 이 이론은 절망 요인,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요인, 그외 여러가지 단기적 위험 요인과 자살 간의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들이 설명될 수 있을 뿐더러 우울증 환자 집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 및 다양한 임상 집단에서 보이는 자살의 공통적인 기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3 청소년 자살의 실태

2.3.1 양적 실태

1) 청소년 사망자 중 자살의 비중

1990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 연보」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인 중 자살이 10대에서 4위, 20대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사인 중 자살이 9위인 것과 비교할 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살이 상당히 중요한 사망 원인임을 시사한다(체육청소년부,

〈표 4-2〉 청소년의 5대 사인 순위 (괄호안은 인구 10만명당 %)

연령	1위	2위	3위	4위	5위
1-9	불의의 사고 (37.9)	선천이상 (7.1)	각종암 (5.1)	폐렴 및 기관지염 (5.0)	수막염 (3.8)
10-19	불의의 사고 (25.6)	심장병 (8.0)	각종암 (6.6)	자살 (4.3)	폐렴 및 기관지염 (1.8)
20-29	불의의 사고 (55.5)	각종암 (12.5)	자살 (11.1)	심장병 (9.2)	뇌혈관질환 (3.3)

1992). 이재창은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의 비중이 이보다 높은 것

이라고 주장했는데, 자살 중의 많은 경우가 실제로는 사고사로 처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살은 유족들이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 실제로는 공식적인 통계치보다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다(청소년대화의광장, 1993).

2) 자살 시도 실태

청소년대화의광장(1993)에서 조사한 청소년 자살 행동 실태에 따르면,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5%의 청소년이 자살에 대해서 한번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청소년 중 약 20%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한달에 한 두번 이상 자살 생각을 하며, 특히 여자 중학생의 경우 19%의 학생들이 거의 매일같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며,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 자살 생각의 빈도

자살생각빈도	전 체	성 별		남 자			여 자		
		남	여	초등	중	고등	초등	중	고등
0번	15.4	16.6	8.9	33.7	26.5	12.0	39.0	24.1	1.7
1-2번	65.4	69.1	66.3	53.4	49.0	75.2	51.8	48.3	71.5
한달에 1-2번	11.3	7.2	15.3	11.0	14.3	5.4	4.5	8.6	18.1
거의 매일	7.9	7.2	9.6	1.9	10.2	7.5	4.81	19.0	8.6

그러나, 자살에 대한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자살을 실제로 기도했느냐 혹은 자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대화의광장 연구(1993)에 따르면, 중고생의 경우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이 5.2%-8.2%까지 되어 있어, 적어도 20명에 1명내지 12명에 1명 꼴로 자살을 기도한 경험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신민섭(1992)의 연구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정상 청소년의 18.7%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 시도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자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자살에 성공한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4-4>에서와 같이 남녀별 자살자 비율은 청소년의 경우 남자가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4-4〉 성별 자살자 수

(괄호안은 백분율)

연 도	11-20세		21-25세		계	
	남	여	남	여	남	여
1974	799	397	1,140	502	1,939(68.32)	899(31.68)
1975	943	509	1,341	635	2,284(66.63)	1,144(33.37)
1984	548	327	853	527	1,401(62.13)	854(37.87)
1985	605	331	888	479	1,493(64.83)	810(35.17)

3) 자살 충동이 이는 상황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열등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와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전체의 26.5%), 자살 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 요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초등학교의 경우 열등감이나 장래에 대한 걱정은 자살충동과 거의 관련이 없으며(0-2%), 중학생의 경우에도 이 요인이 10%를 상회하지 않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이 요인이 갑자기 증가한다(남자35%, 여자39.9%). 이런 경향은 나이가 들어갈 수록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장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자존심의 저하나 절망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연령이 낮은 청소년은 우울감이 자살의 중요한 요인이고, 나이가 들어

〈표 4-5〉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상황 (숫자는 백분율을 나타냄)

상 황	전체	성 별		남 자			여 자		
		남	여	초등	중	고등	초등	중	고등
학업성적 하락	12.2	8.7	14.8	14.9	8.2	7.8	15.2	3.4	16.8
공부스트레스	6.5	5.6	7.1	10.7	10.2	4.0	20.6	6.9	5.3
부모의 잔소리	21.7	20.5	20.4	30.9	28.6	17.2	22.0	25.9	19.2
동성친구와의 불화	2.4	0.8	3.0	-	-	1.0	6.6	1.7	2.6
이성친구와의 이별	2.7	4.6	1.0	-	6.1	5.1	2.4	-	1.0
선생님의 꾸중	0.9	0.8	0.5	1.9	0.1	0.7	2.1	-	0.3
열등감	15.4	14.8	19.5	-	-	19.9	-	10.3	24.1
장래에 대한 무희망	11.5	12.0	13.3	2.3	4.1	15.1	2.1	8.6	15.8
부모가 서로 싸울때	5.3	5.9	3.7	15.4	12.2	3.1	6.9	6.9	2.6
기 타	21.4	26.4	16.7	24.0	30.6	26.1	22.3	36.2	12.2

갈 수록 절망이란 인지적 요인이 자살에 작용하는 영향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신민섭, 1992 ; 박광배와 신민섭, 1991)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부모님께 잔소리를 들었을 때(21.7%)나, 학업 및 진학 문제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이는 것으로 보인다(청소년대화의광장, 1993). 부모로부터의 잔소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비중이 낮아진다. 공부 문제가 직접적인 자살 충동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전체의 18.7%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학업성적과 부모로부터의 잔소리, 열등감** 등의 요인들은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 4-5>의 기타항목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어느 특정한 한 상황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4) 자살 생각에 대한 대처 행동

청소년들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를 곧 잊어버림으로써 실제로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살의 방법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청소년대화의광장, 1993). 자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으로 생각되는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경우는 불과 4.7%밖에 안 되어,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6> 자살 생각에 대한 대처 행동

대 처 행 동	전 체	성 별	
		남	여
곧 잊는다	45.7	51.4	38.7
다른사람과 의논	4.7	1.8	6.9
왜 자살하는지 생각	19.8	15.3	23.6
자살방법 생각	12.8	11.3	16.3
자살 시도	1.8	2.3	1.5
기 타	15.2	17.9	13.1

5) 자살 생각의 의논 대상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청소년들은 전체의 50% 이상이 친구와 의논하는 것으로 보인다(청소년대화의광장, 19930). 선생님이나 부

모, 상담실을 찾겠다는 경우는 전체의 20%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는 데 기존의 상담 체계나 부모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청소년의 자살 문제는 또래 청소년들의 힘을 빌어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에게 친구가 자살하려는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처 방략을 교육함으로써 많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3.2 질적 분석

자살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Rohn et al, 1977). 특히 남자의 경우 그러하며, 자살한 여자의 경우는 2/3정도만 한 명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살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었고,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이 많았다.

지능이 보통이고, 완벽주의적이며, 자기 비난적이고, 조용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청소년도 흔히 자살하는 경우다. 이 두 집단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즉,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소년들이 자살할 위험이 높다.

2.4 자살의 예방과 대처 방안

2.4.1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일반적으로 자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 데 그중 첫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 장애가 있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상 장애자의 자살율이 일반인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정상인이다.

둘째,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살하지 않고,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자살한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신의 자살 생각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 주변에서 누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면 흔히들 그냥 지나치는 데, 사실은 바로 그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자살을 하는 사람은 경고 없이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견해이다. 대다수의 자살자들은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 경고를 한다.

넷째, 자살을 하는 사람은 정말 죽기를 원한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3%내지 5%정도만 정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자살 시도자의 1/3정도는 죽게 되면 죽고, 누구에게 발견되어 살게 되면 산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살 시도자의 2/3정도는 진실로는 죽기를 원하지 않고 다만 경고에 목적을 갖고 자살을 기도한다. 그래서 자살 기도자 중 2/3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사람은 자살 방법 자체도 구제가 가능한 방법을 택한다. 수면제를 복용한다든가 하여 실제 자살률은 1/8정도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이 사전에 보이는 경고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처하면 많은 예방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한 번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살 충동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번 자살 충동을 받았을 때 곧 잊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기분이 나아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은 자살 충동이 일었을 순간의 위기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2.4.2 자살의 예측 변인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따르면 <표 4-7>과 같은 요인들이 자살의 좋은 예측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4-7〉 자살의 예측 변인

1.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자살의 가장 좋은 예측자이다.
2. 이전의 자살 시도 경력도 좋은 예측 변인이다.
3. 심하게 우울했던 사람이 회복 단계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4.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 경우 자살율이 높다.

2.4.3 청소년들의 자살 경고 신호

대다수의 자살자들은 자살을 시사하는 단서를 남긴다. <표 4-8>은 청소년들의 자살 경고 신호에 대해 정리한 것인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 친구들이 이런 단서를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표 4-8〉 청소년들의 자살 경고 신호

1. 말 : “죽고 싶다”라든가 “내가 없어졌으면” 등의 자살과 관련된 말을 자주 한다.

2. 행동 변화 :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을 남에게 줌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무릅쓰고
 자주 사고를 내는 것
 심한 외로움이나 단조로움을 호소함
 지나치게 초조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한 행동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법 행위를 함
 우울증상 : 식욕과 수면 패턴의 변화
 갑작스런 성적의 저하
 주의 집중의 어려움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좋아하던 행동을 중단함
3. 상황적 요인 : 부모와의 대화에서의 어려움
 학교에서의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약물이나 알코올에의 탐닉 시작

2.4.4 대처 방안

먼저 **가정에서의 대처 방안**으로는 부모나 형제들이 자살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직접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살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것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살에 대한 대답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자세하게 그의 기분, 그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 구체적인 자살방법 등을 직접 물어 봐야 한다. 많은 경우 이런 대화는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자살 시도를 포기하게 한다. 만약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살에 대한 사고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전문 상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에서의 대처 방안**으로는 친구 또는 교우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들에게 앞에서 논의한 청소년 자살자들의 특징, 자살 신호, 자살 신호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또래 집단을 주위 친구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자살에 대하여 **사회와 언론**은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언론이 청소년 자살 사건을 보도한 1주일간 청소년 자살 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감염되

는 10대들의 모방 심리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 결과는 대중 매체가 청소년의 자살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그 자살이 마치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 즉 자살자가 희생자라는 태도나 동정적인 태도를 철저히 배제해야만 한다. 또한, 자살에 대해 인간 생명 존엄성의 포기라는 가치의 측면에서, 그리고 자살이란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2.5 부언

이상에서 밝힌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살 행동은 정신 질환적인 특성이라기 보다는 분노, 좌절, 충동성 등 심리적 갈등이나 정서적 요인에 의해 주로 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의 자살 시도는 현실 도피적인 충동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부분의 자살 기도자들은 자살에 대해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 주변 사람들에게 언급한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통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위기 개입으로 청소년 자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도 벽

3.1 청소년 도벽의 정의

도벽(Kleptomania)이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절도 이상을 의미하며, 비행 행위가 ‘중독적(addictive)’으로 일어남을 말한다. 즉,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loss of control)’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의학적으로는 ‘충동 조절 장애’의 일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3.2 청소년 도벽의 원인

청소년의 도벽이 형성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애정 결핍**을 들 수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기에서 발생하는 도벽의 대부분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애정 결핍이 주된 원인인 경우가 많다. 부모로부터의 따뜻한 보살핌이 부족한 경우, 아이는 외부로부터 무언가 대체물을 찾고자 한다. 이는 금전일 수도 있고, 또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절한 또래 관계가 형성하지 못한 어린 아동의 경우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유함으로써 부모의 사랑을 대신하고자 한다. 많은 청소년 도벽 관련 상담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 도벽의 뿌리에는 어릴 적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을 추적할 수 있다. 이들 청소년은 태아기에 **원치 않았던 자녀(unwanted child)**인 경우도 상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어릴 적 가족 내에서 소외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상담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소년 도벽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불우한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3.3 청소년 도벽의 실태

3.3.1 양적 실태

1996년 수원보호관찰소의 보고에 따르면, 1996년 1월 이후 10월 현재까지 수원보호관찰소에 접수된 보호 관찰 대상자 총 2,328명 중 절도 사범은 전체의 40.4%에 이르는 940 여명으로 전체 보호 관찰 대상자의 범죄 유형별 통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5년 검찰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131,886명 중 소년 절도범은 30,851명으로 전체의 23.5%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보호 관찰소의 보고 내용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단순 폭력 사범이 39.3%, 소년 교통 사범이 23.5%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인 청소년 중에서 도벽을 가지고 있는 비행 청소년의 비율에 대해서는 청소년대화의광장에서 실시한 청소년 소비 행동 관련 비행 연구(1995)에서 엿볼 수 있는 데, 용돈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약 10% 정도가 남의 돈을 한 번 이상 훔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중에 3번 이상 훔쳐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6명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훔치는 대상은 주로 부모나 형제, 친구 등 자신의 주변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28.4%가 부모로부터, 형제에서 훔치는 경우는 14.7%로 나타났다. 즉, 도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반수 정도는 집안 식구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의 월수입과의 관련성을 보면, 가정의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학생들이 200만원 미만인 학생들에 비해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댄다는 반응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100만원 미만의 학생들은 형이나 동생의 돈을 훔친다는 반응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들은 돈을 훔쳐서 또래와 유흥 비용으로 쓰거나(20.1%), 장신구, 옷 등을 구입하는 데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을 성별로 살펴 보면, 여자는 ‘동성 친구와 노는 데’에, 남자는 ‘컴퓨터와 전자 오락’을 하는 데 주로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3.3.2 절적 분석

한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도벽이 아닌, 범법자로 분류되는 보호 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절도 범죄의 특징을 살펴 보면, 단순 절도 등은 거의 없고 **다수가 공동으로** 행한 특수 절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만 하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절도 행위 자체의 발생은 여타 **일탈적인 생활 태도**, 즉 가출, 약물 남용, 폭력 행위 등과 관련이 높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지만,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결손 가정, 혹은 부모가 생존하지만 가출을 했다거나 제대로 양육할 능력이 없는 기능적 결손 가정, 혹은 보호자의 훈육 태도나 능력상의 문제가 청소년 절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 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사례를 살펴 보면, 이들의 절도 행위의 특징은 보호 관찰 중에도 절도 행위를 벌이는 등 도벽이 고착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이 본드나 가스를 흡입한 상태에서 남의 집을 침입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낮에 2~3명이 한 조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거나 창살을 뜯고 들어가 물건이나 돈을 훔쳐내온다.

청소년 절도범의 환경적 특성을 살펴 보면, **부모의 훈육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 자신이 스스로를 건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 도벽이 있는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로부터의 애정이

결핍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갈 취

이들 청소년들은 비행 문화에 완전히 젖고, 왜곡된 가치관과 비행 습성을 몸에 밴 경우가 많은데, 많은 교정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다른 청소년 비행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한번 도벽에 빠지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한다.

3.4 예방 및 대처 방안

도벽이 있는 청소년들은 가족사적인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거부받은 경험이 있고, 이 애정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도벽이 형성되며, 계속되는 절도로 인해 비뚤어진 가치체계는 도벽이 더욱 고착하게 만든다. 따라서, 수많은 교정 단체와 정신 병원, 상담 기관에서 도벽에 빠진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완전한 교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도벽은 사전에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벽의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청소년 비행보다도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따뜻하게 수용되는 경험**을 많이 가진 청소년들은 다른 곳에서 대리적으로 애정을 채울 필요가 없다. 도벽에 대한 상담 사례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일단 도벽에 빠진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부모가 아이를 포용해 주는 경험을 꾸준히 제공한다면 도벽도 상당 부분 교정될 수 있다(청소년대화의광장, 1995).

4. 갈 취

4.1 청소년 갈취의 정의

갈취란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타인의 금품을 빼앗는 행위를 의미한다. 청소년의 갈취 행위의 특성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이들 비행 청소년들은 많은 수가 직·간접적으로 불량서클에 가입해 있거나, 특정한 불량서클에 가입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패거리를 지어서 학교 주변이나 동네에서 학생들의 돈을 빼앗아 간다. 이들은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갈취나 치기배를 하기도 하지만, 불량서클의 사주를 받아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4.2 청소년 갈취의 원인

4.2.1 가정 및 사회적 원인

갈취 행위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대개 가정이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불우하다. 이들의 가정은 대개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며, 낮은 경제적 지위와 도덕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하루하루 경제적으로 삶을 꾸려나가기가 벅차며, 자녀들을 사회적 비행 행위로부터 보호하기에는 심리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분위기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적 및 경제적 박탈감이 심한 이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따뜻한 양육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사회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기 마련이며,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인 경우 사회적 및 경제적 박탈감을 보상하기 위하여 갈취나 강도와 같은 범죄 행위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4.2.2 또래 환경적 원인

갈취나 강도 등의 비행 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또하나의 원인으로는 또래 집단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또래 집단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주변에 불량한 친구들이 많은 경우 비행 행위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는, 갈취 행위가 대개 둘 내지 셋 정도가 무리를 지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불량 집단에 가입해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데, 자신이 특별히 갈취를 원하지 않더라도 비행을 저지르는 또래들과 어울리다보면, 자연스럽게 갈취와 같은 비행 행위에 접하게 되고 이런 행위에 대한 도덕적 의식도 약해지게 된다.

4.3 청소년 갈취의 실태

4.3.1 양적 실태

청소년대화의광장에서 실시한 청소년 비행 실태 연구(1995)에 따르면, 협박을 통해 남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반적인 청소년인 전체 응답자 중에서 5% 정도가 갈취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중에 남자는 약 10% 정도가, 여자는 2.5%가 폭력에 의해 돈을 빼앗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을 한달에 한 번 이상 하고 있는 남학생은 4.6%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의 경우, 25명에 한 명꼴로 상습적으로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4.3.2 질적 분석

먼저, 강도 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단순 강도보다는 특수 강도 또는 강도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획적이기보다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치기배 강도는 그 특성상 공범 관계를 수반하고 있으며, 폭력 서클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치기배 강도의 특징은 무모하리만치 충동적이며 때로는 폭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이전 비행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들은 비행을 저지르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밤에 길가는 술취한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길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붙여서 돈이나 금품을 털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 행위의 특성상 몇 명이 무리를 지어 치기배 강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비행 청소년의 가정 환경적 특성을 살펴 보면, 기타 비행 청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손 가정이거나 또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맞벌이로 자주 집을 비우거나 가족 간에 싸움이 잦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대개 낮은 편이다. 또한, 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하고 중퇴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유소의 주유원이나 상점의 배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들 비행 청소년은 대체로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등의 교정 단체에서의 생활을 성실히 하지만, 불량한 가정 환경 및 불안정한 취업 관계, 일탈적 생활태도로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한다.

4.4 예방 및 대처 방안

갈취나 치기배 강도는 상당히 저열한 수준의 비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가정적인 환경이 다른 비행 집단보다 훨씬 열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불량한 가정 환경에서 이들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충분한 취업 교육과 인성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5. 폭 력

5.1 청소년 폭력의 정의

폭력이란 좁은 의미로 보면 자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힘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는 육체적인 피해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지만, 실제로 폭력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되고 그 심리적인 영향이 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면 폭력이란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폭력의 광의적 정의는 자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무력, 언어적 공격, 혹은 집단적 소외(따돌림) 등의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심리적 혹은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학자인 Lewis A. Coser(1967)는 이러한 폭력을 사회적인 행위로 보고 **폭력의 세 가지 사회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성취 영역**으로서의 폭력이다. 어떤 범주의 개인들은 그들이 사회 구조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성취의 사다리에 합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어 있거나 범죄적이며 비합법적인 통로까지도 활용 못하게 꽉 막혀 있는 구조적 위치에 놓여 있다. 이때 폭력이 성취를 위한 다른 통로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한다. 청소년 폭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교 내에서 학업 성취의 통로가 모두 막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의존하는 것은 일반적일 수 있다. 공격적이 되고 폭력을 써야 자기의 정체감을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관심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위협 신호**로서의 폭력이다. 청소년들의 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급속히 증가한다면 이것은 청소년들의 심각한 적응 부재의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축매**로서의 기능을 한다. 청소년의 폭력은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비극적인 인상을 주고 도덕적으로 이들에 관심을 두게 하여 결국은 결속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축매로서 기능을 한다.

5.2. 청소년 폭력의 원인 및 동기

청소년들의 폭력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이 형성되는 원인 혹은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폭력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을 논의할 때 몇 가지 관련된 변인들이 고려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가정 변인으로서, 부모-자식 간의 관계와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사회적 변인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혼란, 청소년의 하위 문화와 성적 위주의 학교 교육, 그리고 유전적 혹은 생물학적 변인들이 흔히 고려되었다. 이중 가정 변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왜냐 하면, 다른 변인들이 열악하다고 해도 가정 변인에 의해 예방과 치유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가정 변인이 열악할 경우에는 다른 변인이 아무리 우호적이라도 비행 행동의 예방과 교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 폭력행동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구자순, 1995)

5.2.1 개인적 원인

폭력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공격적이며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관계는 **학습이나 모방의 효과**로 설명한다. 즉, 자신의 적개심과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고 그들이 보아 온 것은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개심과 분노가 평상시에 억압되어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정체성의 위기를 맞으며 과도기적 성격으로 불안, 적대감, 반항을 나타내기에 폭력은 이들이 도움을 청하는 하나의 울부짖음으로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기존 권위에 대한 거부와 반항적 행동으로 폭력이 이어진다. 부모와 교사의 가치관, 신념, 규제에 불만이 있으며 항상 갈등적으로 대립한다. 동료 학생들 특히, 학업이 우수한 학생이나 신체적으로 약한 학생들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5.2.2 가족 구조의 변화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다른 어떤 사회 제도보다도 청소년 안녕에 핵심적인 제도이었다. 그러나 1963년 이후 경제 성장으로 사회 구조 변화는 우리 가족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며 많은 갈등과 모순은 가져다 주고 있어서 가족은 더 이상 청소년의 안녕을 담당할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우리 사회에서 빈곤 가족층이 뚜렷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도시 저소득층 가족문제는 어느 계층보다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심각하다. 가족내 불평등, 부당함, 부모 자녀 간의 혹은 부부 간의 무관심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설상 가상으로 과도한 TV시청, 부적절한 비디오 시청 등은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신세대인 청소년과 기성 세대인 부모와의 가치관 대립으로 갈등이 있다. 어느 때보다도 부모, 자녀 간의 의사 소통방법, 감정 이입에 준하는 이해 방법, 민주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가족 안에서의 학대와 의사 소통의 부재로 인한 단절과 고립은 끊임없는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다. 협상이 불가능하고 서로 간에 들어 주려는 태도와 행동이 결여되어 있다.

5.2.3 과대 경쟁과 입시 교육 위주의 학교 교육

우리 사회의 학교 교육 풍토는 개인 능력의 우열이 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일류 학교의 합격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니 학교 교육이 획일적, 권위적, 비인간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장과 진로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를 때가 주로 학교 시험으로 압박을 받을 때라는 점을 주장한다.(서울 YMCA, 1995) 학교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드디어 학생들은 관심을 끌기 위하여 폭력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한번 '문제아', '나쁜 학생'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면 영락 없이 탈선자로 자아 개념을 정립해 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은 어루만져 주고 사정을 들어 줄 상담 제도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그 중요성조차도 감지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 학교 교육의 현 주소이다.

5.2.4 향락, 쾌락 추구적인 사회 구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향락, 쾌락 추구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인 유흥과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은 용돈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출입해서는 안 되는 유흥업소, 음란 비디오방, 노래방 등에 출입하게 되고 오락실, 만화방에 자유자재로 드나든다.(한국형사정책연구소, 1993)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동료 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하여 용돈을 충당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폭력을 위협과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5.3 청소년 폭력의 실태

5. 폭 력

5.3.1 양적 분석

국무총리 주재 전국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의 실태 조사에서, 전국 초, 중, 고교 재학생 61만 여명이 학교 폭력 집단에 의해 폭행이나 금품을 갈취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의 금품 피해액은 모두 16억 6,939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 고교 폭력 조직은 모두 1,039개이며 이중 외부 조직과 연계된 속칭 “일진회” 등의 조직 636개가 계속 활동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국 초, 중, 고교생 854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편싸움을 벌여 세력을 확장한 뒤 금품갈취를 일삼는 학교 폭력 조직은 중학 288개, 고교 448개, 중, 고교 남녀 혼성 조직 303개 등 모두 1,039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활동이 중지된 해체 조직은 403개로 조사됐다. 또 19만 6,782명의 학생이 22만 100번에 걸쳐 폭행 피해를 당했으며 42만 2,785명의 학생은 53만 427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 당하는 등 전체 학생의 7.2%에 달하는 61만 9,540명이 한 차례 이상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4-9〉 청소년들의 폭력 피해 실태

구 분	금품 피해			폭행 피해	
	학생수	횟 수	금액(천원)	학생수	횟 수
초등학교	93,432	110,549	236,751	43,738	54,413
중 학 교	252,190	330,381	954,351	103,829	111,476
고등학교	77,136	89,497	478,288	49,215	54,211
계	422,758	530,427	1,669,390	196,782	220,100

자료 : 중앙일보, 1995, 12월 3일자

청소년대화의광장에서 조사된 청소년 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전국의 1,6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9.8%, 9.5% 여학생의 5.3%, 2.5%가 선생님이나 부모 이외에 각각 친구, 선배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폭력을 행했던 경험도 전체 조사 대상 학생 중 42.2%가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폭력이 행해지는 장소로는 주로 교실이나 학교 주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주먹이나 손바닥 등으로 폭력을 행하거나 당한다고 응답을 하였다.

맞았을 때 학생들의 느낌은 화가 났다(29.1%), 죄송한 생각이 들었다(17.2%), 창피했다(15.8%)였고, 폭행을 행했을 때의 느낌은 별 느낌 없었다(14.9%), 미안했다(14.5%)였다.

맞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폭력이 일어날 만한 곳을 철저히 단속한다(14.7%), 인간 관계를 잘 맺도록 하는 교육을 시킨다(30.3%), 좋지 않는 감정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교육시킨다(30.3%)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고, 때리는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처 방법으로는 감정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교육시킨다(29.0%), 인간 관계를 잘 맺도록 하는 교육을 시킨다(27.9%), 폭력이 일어날 만한 장소를 철저히 단속한다(23.1%)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견해를 보면 66.1%가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난다고 응답하여 2/3 이상의 학생이 우리 사회에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52.7%와 14.3%의 학생이 학교와 동네에서 폭력이 일어난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2 질적 분석

청소년 폭력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청소년 대화의 광장에서는 폭력을 행사했던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들과 면접을 하였다. 결과 폭력을 행사했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폭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어떤 아이들이 때리는 아이들이 되고 맞는 아이들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들, 으스스대기 좋아하는 아이들, 잘 나가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는 아이들, 잘 노는 아이들, 선생님들이 포기한 아이들이 때리는 아이가 되고 약해 보인다, 앞 번호 아이들, 착하지 않다, 괜히 튀는 아이들, 비겁한 아이들-처음부터 말을 듣지 않고 맞서면 된다,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없는 아이들, 때리는 아이들과 어울리려고 괜히 까부는 애들이 맞는 아이들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둘째, 때리는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듣지 않아서’, ‘착하지 않아서’, ‘괜히 튀는 행동을 해서’라는 이유와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재미있어서’, ‘때려 두면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자기 말이 먹혀 들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자꾸 부추기면 안할 수 없어서’하는 이유들을 제시하였다.

맞는 아이들이 맞게 되는 이유는 ‘괜히 쳐다본다’, ‘빌려 달랄 때 빌

려 주지 않고 통명스럽게 ‘없어’한다’, ‘괜히 튼다’, ‘시키는 말을 듣지 않는다’, ‘운이 없다’ 등이었다. 이를 통해 때리는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생각으로 맞는 아이들을 판단하여 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아이가 맞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서 ‘운과 재수’를 제시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도 때리는 아이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때리고 맞는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처음부터 때리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돈이나 옷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잘 들어 주면 그냥 놔 두지만 말을 잘 듣다가도 가끔씩 반항하려고 할 때 ‘손을 봐 주기 위해’ 때리게 된다. ‘손을 봐 줘야’ 할 아이가 생기면 어디-화장실, 놀이터, 야산, 아파트 옥상, 골목길 등-로 오라고 한 후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여 같이 그 아이를 때리게 된다.

이들에 의하면 때리는 행동은 혼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뒤에서 받쳐 주는 친구들이나 형들이 항상 있어서 함께 행동한다. 그리고 때리고 나서는 얼마 동안 잘해 주고 보호해 주기도 하면서 맞은 사실을 교사나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한다.

넷째 때릴 때와 맞을 때 드는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때릴 때 ‘어떻게 하면 잘 때렸다 할까’, ‘너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해야 다음에는 말 잘 듣지’, ‘맞는 아이가 병신 같다’라고 대답하여 때리는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릴 때 드는 느낌은 ‘스릴 있다’, ‘재미 있다’, ‘짜진다’ 등으로 대답하여 때리는 행동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는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하여 맞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때린 행동에 대한 처벌의 효과와 처벌받을 때의 경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때리는 행동에 대하여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더 안 좋게 된다’라고 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처벌을 받으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반성을 하기도 하지만 처벌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들키지 않게 때려야겠다’, ‘이제 너희는 죽었다’는 생각이 들며 금방 처벌을 잊어버리고 또 때리게 된다고 한다.

여섯째, 때리는 아이들과 맞는 아이들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때리는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로 변화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스스로 때리는 것도 지겹고 돈 뺏는 것도 지겨워서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도 있으며, 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가 변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때리는 행동을 그만두려면 사귀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고 놀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맞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맞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물어 보자 ‘말 잘 듣고 착하게 지내면 된다’, ‘조용히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튀지 않으면 된다’, ‘힘을 키워야 한다’, ‘처음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몇 번 싸우다가 그냥 놔두게 되거나 친해진다’고 대답하였다. 또는 맞는 아이들이 오히려 때리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때리는 아이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5.4 예방 및 대처 방안

5.4.1 아동 초기의 양육에 초점을 둔 부모 교육과 예비 부모의 상담

아동이 생애의 초기에 한 사람의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할 과제는 자기가 어머니와 분리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이러한 과업을 성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 특히 어머니이다. 어머니 자신이 이 두 가지의 발달 과업을 충분할 정도로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 아동의 양육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 결과 아동은 지속적으로 좌절되어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이 되기 쉽다.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가 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부모 교육이다. 초기 몇 년 동안의 부모-자식 간의 관계와 그것이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 예비 부모들에 대한 부모 교육과 더불어 동시에 예비 부모들에 대한 개인 혹은 집단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들을 도와 주는 원리는 그들에 대한 일관된 수용, 칭찬, 격려, 그리고 인정 혹은 알아주기이다.

5.4.2 학령기의 부모 교육과 교사 교육

학교에 다니는 자녀 교육은 보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기술들을 포함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초기 아동기의 적응적인 자녀 양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적절한 보호, 지지와 함께 적절한 자율을 보장하는 일이 이 시기의 부모 교육 과정의 원리여야 한다.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애정과 지지를 얻지 못할 때, 비행 청소년과의 애착 행동이 발달한다는 관점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부모 교육은 가정 변인과 사회-환경 변인으로 야기되는 폭력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방법이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자긍심을 높이고, 감정의 표현을 촉진하고, 갈등을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또는 인간 관계의 기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5.4.3 현대 사회의 성격에 적합한 도덕 및 가치 교육의 강화

우리 나라 사회에서는 남편이 웬만큼 부인을 폭행하여도 그것이 가정의 일이라고 하여 경찰이 제재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렇게 **전근대적인 현상**은 부모가 자녀를 심하게 폭행을 하거나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폭행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관에 의한 언어적 폭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재평가하는 일은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 폭력의 모방 효과를 고려할 때도, 그 필요성이 절실히 된다. 이러한 폭력 행동을 제재할 입법 조치를 위한 노력이 진지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흥가 지대나 우범 지대에 대한 순찰이 강화되고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유흥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흥가 출입과 같은 단속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회관에 각종 시설과 교육 및 여가 선용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하고, 가난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려고 할 때는 재정적인 지원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뜻이 있으면 자기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인내와 성취를 권장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좌절의 극복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건전한 생애 발달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기술 학교의 확장을 통해서 그들이 대학 이외에서도 자기의 생애를 희망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담 활동 내지는 심리 교육이 필요하다. 폭력을 당하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 훈련,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감정 통제 훈련, 의사 표현 기술 훈련, 대인 관계 기술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4장
청소년 비행의
유형별 실태와
대책

- ① **공감 훈련** : 폭력을 행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신체 폭력이나 언어 폭력을 행했을 때 상대방이 겪게 되는 신체적/감정적인 손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감 훈련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감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② **감정 통제 훈련** : 폭력을 행하는 청소년들은 주로 부정적인 감정 특히 화가 나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충동적인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화나는 감정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③ **의사 표현 기술 훈련** :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황이나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면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당당하면서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의사 표현 기술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④ **대인 관계 기술 훈련** :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이해하는 통찰능력이 부족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스런 대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대인 관계 기술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⑤ **동료 상담자 훈련** : 청소년기는 부모나 교사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동료의 영향을 많이 받게되는 시기이다. 폭력을 행하는 청소년이 폭력을 그만두게 되는 주된 이유로서는 폭력을 멀리하는 친구를 의미 있는 타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일례이다. 감정 표현과 대인 관계 기술을 고루 갖춘 건전한 청소년을 많이 육성하는 것은 청소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⑥ **부모 교육 및 가족 치료** : 폭력을 행하는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특성은 폭력이 아닌 건전한 의사소통 방법을 본보기로 보여 주지 못하는 부모 또는 가족 체제 속에서 자라난 경우가 많다. 부모 교육 및 가족 치료 활동을 통해 건강한 부모와 가정을 많이 육성하는 것은 청소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6. 불량 서클

6.1 청소년 불량 서클의 정의

불량 서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량 서클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비행 집단(juvenile gang)**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범죄 사회학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 갱 집단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는 갱의 발생 원인, 갱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견해에 따라 학자들마다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초기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Thrasher(1927)는 갱을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는 비행 집단은 물론 일반 청소년의 불량 패거리까지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Cohen(1955)과 Cloward와 Ohlin(1960)은 분명한 비행 집단만을 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1950~60년대의 학자들은 아노미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갱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청소년 갱의 발생을 중산층규범에 대한 반발로 파악하기 때문에 갱을 중상층 청소년과는 대립적인 차원에서 파악한 것이라 볼 수 있다(김준호, 1995). 1970년대의 학자라고 볼 수 있는 Miller에 의하면, 청소년 갱은 하층 계급 문화의 소산에 불과한 것으로서 갱의 출현과 활동을 행위의 불법성보다는 하층 청소년들의 문화적 특성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Miller는 갱을 권위, 역할, 위계질서 등이 강조되는 조직화된 집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Yablosky는 이상과 같이 청소년 갱을 고도로 조직화된 집단으로 보기 보다는 준집단으로 보고 있다. 준집단이란 전혀 조직이 없는 군중과 조직화 정도가 높은 단체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는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빈번한 교체, 비영속적인 존재, 성원 상호간의 제한된 결집력, 규범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성원 간의 애매한 역할 규정 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Short와 Strodtbeck(1964) 역시 청소년갱을 응집적인 집단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비행 행위에 의해 간헐적으로 응집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Jansyn(1966)도 유사한 입장에서 청소년 갱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 비행 집단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요 논점이 되는 부분은 갱의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의 위법성과 조직화 정도라

고 볼 수 있다. 이 두가지 기준에 따라, 청소년 비행 집단의 정의는 '불법적인 행위를 체계적인 조직에 의해 행하는 집단'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불량한 행위를 일삼는 청소년의 느슨한 패거리'로 규정할 수도 있다.

김준호(1995)는 현재 우리 나라의 청소년 비행 집단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성인 범죄 조직과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불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비불법적인 불량 행위를 집단적으로 행하는 패거리 집단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가 한국 청소년 비행 집단을 이같이 파악하는 이유는 고도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집단만을 청소년 비행 집단으로 파악했을 경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약간 느슨한 조직 형태의 불량 집단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많은 강력 범죄들의 집단성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김준호는 비행 집단을 정의하는 기준으로서 통합성 정도, 조직화 정도, 반사회적 활동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청소년 비행 집단을 '패거리 집단', '불량 서클', '폭력 조직 하부'로 분류하였다(형사정책연구원, 1992).

첫번째 유형인 '패거리 집단'은 집단의 이름이나 명시적인 리더가 없는 경우이며, 핵심 성원의 연령도 주로 10대의 또래들이고, 조직화의 정도도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이들은 주요 활동은 주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울려 다니면서 놀 거리를 찾아 돌아 다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저지르는 비행이라는 것도 대개 유흥이 그 목적이며, 학생들을 상대로 갈취나 가스·본드 흡입 등의 비행을 저지르는 정도이다.

두 번째 유형인 '불량 서클'은 집단명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명시적인 리더가 존재하며, 핵심성원의 나이는 주로 10대이지만 서클에 따라서는 리더가 20대인 경우도 있으며, 조직화의 정도는 약간 이루어진 수준이다. 이들은 주로 근처의 적대적인 유사한 불량 서클과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집단명을 만들고 리더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조직화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 주변이나 동네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주요 비행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품 갈취 등의 비행을 저지른다. 학교 안이나 학교 주변, 집 근처를 근거지로 하는 이들은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행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번째 유형인 '폭력 조직 하부'는 청소년들이 성인들로 구성된 폭력 조직의 10대 행동 대원으로 가입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조직명이나 조직의 리더는 명확하게 존재하며, 핵심 성원들은 주로 20~30대

의 성인들이고,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에 가입해 있는 10대의 청소년들은 조직의 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단의 조직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며, 조직의 리더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 유형의 집단은 패거리 집단과는 달리 학생들을 상대로한 사소한 금품 갈취나 본드·가스 등의 약물복용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 상부 조직의 지시에 의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한 금품 갈취, 적대 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 등의 행동을 저지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소년 불량 서클이란 청소년 비행 집단의 한 유형으로서 이상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접근법은 비행 집단을 유형별로 분류한 사회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의 접근법은 청소년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 패거리 집단에서부터 집단적인 비행 활동이 시작되어 이것이 불량 서클의 가입으로 이어지고,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없을 경우에 불량 서클에 가입되었던 청소년은 나중에 성인 범죄 조직으로까지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6.2 원인

이 장에서는 불량 서클 형성의 원인보다는 청소년이 불량 서클에 가입하게 되는 원인을 밝혀보겠다.

6.2.1 가정 환경적 원인

많은 청소년 연구에 따르면, 가정적 요인은 청소년이 불량 서클에 가입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비행을 저지르게 되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1995 ; 형사정책연구원, 1992).

불량 서클에 가입한 경험이 청소년들의 가정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한쪽이든지 양쪽이든지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거나 이혼 및 별거 등으로 인한 **결손 가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형사정책연구원이 1991년에 행한 한국 청소년 비행 집단에 대한 판별 분석 연구에서도 드러났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비행 집단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보인 변인은 부모 생존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형사정책연구원, 1992).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양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은 불량 서클 등의 비행 집단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점이다.

6.2.2 또래 환경적 원인

불량 서클에 가입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또래 집단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대개 이들이 불량 서클에 가입하게 되는 경로는 친구의 소개로, 혹은 선배의 권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래 집단은 청소년들에게 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다. 즉,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들을 사귀므로 해서 청소년들은 비행으로의 직접적인 유혹을 받게 되고, 호기심에서 한 두 번 해본 것이 습관적인 비행으로 빠져 들게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나,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공부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일단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이 비행 친구들과 접촉하게 될 때, 실제적인 비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불량 서클의 가입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와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6.2.3 청소년 불량 서클의 실태

이 장에서는 청소년 불량 서클의 실태에 대한 양적 및 질적인 분석을 통합하여 비행조직의 특성과 비행 활동을 고찰하겠다. 여기서는 불량 서클의 특성과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김준호의 분류법에 따라 불량 서클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집단의 또다른 형태인 패거리 집단과 폭력 조직의 하부의 특성도 함께 고찰할 것이다¹⁾.

1) 조직의 특성

전체 성원수는 패거리의 경우 대부분 전체 성원이 10명 정도이며, 불량 서클의 경우 대략 30~50명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폭력 조직 하부에는 전체 성원의 수가 보통 100명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300명 이상의 성원들로 구성된 대규모의 조직도 있다고 한다.

비행 집단의 연령층은 이들의 위계 질서와 조직화 정도를 판별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데, 패거리 집단의 경우 성원들간의 연령차가 다섯살 이하로 비슷한 반면, 불량 서클의 경우 10살 정도의 연령차를 가진 성원들도 있고, 폭력 조직 하부에는 대부분의 성원들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지만, 지도층은 40~50대의 성인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청소년비행집단의 실태에 대한 자료는 형사정책연구원의 1992년 연구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한편, 청소년 비행 집단의 유형에 따라 성원들의 모임과 모임 장소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패거리 집단의 성원들은 특별하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지 않고, 거의 매일 친한 성원들과 동네의 놀이터나 공원에서 만나 무엇을 하며 놀 것인가를 결정하고 어울려 돌아 다니지만, 불량 서클의 성원들은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춘 **정기적인 모임**을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동네나 학교 주변의 장소에서 가지며 성원들은 가능하면 모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폭력 조직 하부의 성원들은 비슷한 나이의 성원들끼리는 거의 매일 시내에서 만나지만, 나이가 많은 선배들까지 참석하는 정기적인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정도 유흥업소나 음식점에서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끔씩 학교 운동장에서 만나 축구나 농구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형의 비행 집단 성원들은 패싸움이 벌어지는 비상시에는 서로 연락을 해서 급하게 성원들이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행 집단에 가입하는 이유는 비행 집단의 유형에 관계없이 친한 **친구나 선배의 권유**에 의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가입하지만, 집단별로 구체적인 가입의 이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패거리집단에서는 오락과 유흥이 주목적인데, 불량 서클의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에게 **기죽지 않기 위해** 서클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적대적인 서클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성원의 가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 조직 하부의 경우는 시내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모습이 부러워서 스스로 폭력 조직에 가입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고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불량 서클에 가입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 보면, **학교 생활과 가정생활에서의 부적응**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김준호, 1995).

친구나 선배들을 통해서 불량 서클에 가입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불량 서클의 신입 성원들의 출신은 주로 학교 후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실태 조사(1992)에 따르면, 불량 서클에서는 신입 성원으로 다니던 학교의 후배들을 충원하는 경우가 61.4%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동네의 후배들을 신입성원으로 충원하는 경우는 27.6%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체로 불량 서클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집단의 응집력은 거주지역다는 출신 학교가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량 서클에서 **응집력의 중요성**은 불량 서클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의리라는 것으로도 드러나는 데, 형사정책연구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행 집단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1.1%)이 불량 서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대담성(23.7%)과 싸움을 잘해야 한다(13.0%) 등은 의외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의 응집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불량 서클을 탈퇴하려는 경우 성원들의 반응을 보면, 전체의 44%가 ‘말로 설득하여 못 나가게 한다’거나 ‘절대 못나가게 한다’ 등으로 탈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싫어하지만 적절한 이유를 대면 보내 준다’고 대답한 경우도 31.8%로 나타났다. 즉, 집단의 단합을 강조하고, 성원들이 비행 행동을 많이 저지르는 집단일 수록 집단에서 탈퇴하는 성원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량 서클에서 서클명의 존재 유무와 리더의 존재는 집단의 조직화 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조사 대상의 76.9%의 비행 집단에서 명시적인 리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의 자격은 서클 가입의 필요 조건과 마찬가지로 의리가 중요하였다(26.3%). 그러나, 불량 서클의 경우 리더는 다른 적대적인 서클과 대적해야 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싸움을 더욱 잘해야 한다(29.8%)고 응답했다.

2) 활동

비행 집단의 규칙과 금지 사항은 각 집단의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와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패거리집단은 특별한 규칙이나 금지 사항이 없고 단지 후배가 선배 말을 잘 들어야 한다거나 배신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집단 탈퇴를 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행동 지침이 있으며, 본드·가스의 흡입은 오락적 차원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량 서클의 경우는 복종이나 배신, 탈퇴 등의 문제에 대하여 패거리 집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해 두는 경우가 많고, 서클에 따라서 본드 흡입이나 금품 갈취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무분별한 약물 남용이나 사소한 금품 갈취는 조직을 느슨하게 하고, 수사 기관에 조직의 비밀이 드러날 단서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며, 약물 남용하는 성원들이 많은 경우 다른 적대적 서클들에 의해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폭력 조직 하부의 경우에는 불량 서클의 경우와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절도나 금품 갈취 등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비행 집단에 의해 벌어지는 비행 활동을 살펴보면, 세 집단의 특성이 보다 두드러지는 데, 우선 패거리집단의 경우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

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활동의 주된 목적이 오락이기 때문에 약물 남용도 오락의 일종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하기도 하는데, 주로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이다. 불량 서클의 경우 마찬가지로 유흥을 목적으로 하지만, 서클의 명성을 유지하고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패 싸움을 자주 벌이고 학교 주변과 시내 등에서 금품 갈취를 주로 하는 집단이다.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폭력 집단’이란 주로 이들 불량 서클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학생들에게 주된 공포의 대상은 이들 불량 서클의 성원들이다. 이는 불량 서클 성원들의 비행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도 드러나는 데, 32.1%의 경우가 패 싸움을 주로 한다고 응답했고, 24.6%의 경우가 ‘뽕 뜯기’라고 불리는 금품 갈취를 하고, 절도나 약물 복용 등의 비행 행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폭력 조직 하부에서는 약물 사용이나 절도와 소매 치기와 같은 사소한 범죄는 선배들이 금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권과 관련된 패 싸움과 폭행과 같은 범죄 행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행 집단의 문제점은 이들이 집단 범죄, 특히 집단 패싸움이나, 이권과 관련된 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흥기를 소지하는 양상과 패싸움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패거리 집단은 흥기를 별로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가지고 다니더라도 위협용이나 과시용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불량 서클의 경우는 세가지 청소년 비행 집단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집단 폭력이 이루어지는 집단이다. 따라서, 패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흥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집단 성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 조직 하부의 경우에는 평소에 흥기를 업소의 은밀한 장소나 숙소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른 폭력 조직의 성원들이 구역을 침범해오는 경우에 꺼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소년 비행 집단 중에서 조직화의 정도가 중간정도인 불량 서클의 경우가 가장 패 싸움이 많고, 금품 갈취 등의 비행을 많이 저지르며, 대개의 성원들이 흥기를 늘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들은 학교 환경이나 사회에서 상당히 위험한 존재이며, 일반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6.3 예방 및 대처 방안

먼저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밖으로 돌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야 할 것이다.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배려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이들은 불량 집단에 노출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자생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불량 서클의 가입에 친구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부모와 교사들은 청소년들의 주변에 불량한 친구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이들이 일반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소년 경찰의 업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선도 정책을 활발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7. 청소년 성 비행²⁾ -성 폭력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성 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성 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고 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으나 여전히 성 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성 폭력 피해자 절반이 19세 이하의 청소년기 여성, 어린 아이이며, 전체 가해자의 20%가 19세 이하의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고, 윤간이나 가족 파괴범 등의 흉악 범죄의 50% 이상이 이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성 폭력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성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방안이 시급하다.

7.1 청소년 성 비행의 정의

성 폭력은 심리적, 사회 문화적, 법적, 인류학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2) 성비행은 성과 관련된 청소년비행을 의미한다. 성비행은 성폭력 등 물리적 행위를 동반하는 비행과 포르노물 접촉, 성관계 등 학교나 사회에서 금지하는 성과 관련된 비행으로 대략 나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주로 성폭력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정의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청소년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성 폭력을 다룰 것이다.

성 폭력은 다른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성적인 행위의 범위에 따라 성 폭력의 개념을 밝히려 한다. 어느 범위까지의 행위를 성적인 행위로 정의하느냐의 문제는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 가장 포괄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Faller(1988)의 경우, 성적 접촉 여부와 성 행위의 목적 및 다른 행위와의 연관성 등에 의해 일곱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즉, 접촉이 없는 성 폭력(성적 언동, 성기 노출, 나체 훑쳐보기), 성적인 접촉이 있는 성 폭력(신체를 만지거나 가해자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는 행위, 이물질이나 성기의 삽입), 피해자를 이용한 성적인 상행위, 그리고 약물 및 알코올 사용, 신체적 학대와 동시에 일어나는 성적 행위 등이 포함된다. 유사한 분류로서, Sgroi(1982)는 성 폭력의 유형을 성적 노출, 성적 괴롭힘, 성교, 그리고 강간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성적' 행위의 다양한 유형은 가해자의 성적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인 지각 여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제시될 수 있겠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성폭력상담소(1996)는 피해 유형을 크게 **강간과 성추행**으로 나누어, 강간에는 일반 강간, 특수 강간, 특수 강도 강간, 강간 치상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성 추행에는 강간 미수, 성 추행, 언어 추행,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7.2 청소년 성 비행의 원인

성 폭력의 원인은 피해자가 유발시켰다는 전통적인 견해, 성 폭력의 가해자에 초점을 맞추는 정신병리학적 견해, 여성학적인 견해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되기도 한다(조구이, 1992).

7.2.1 발달적 원인

이재창(1996)은 청소년기의 발달 심리적 특성 자체가 성 폭력의 잠재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청소년기는 생리적으로 성적인 충동이 가장 강한 시기이다. 신체적, 생리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성호르몬의 갑작스런 분비 증가**로 여러 가지 성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는 정신적 및 심리적 변화를 가져온다. 이 시기는 인지 능력과 도덕성의 발달도 질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성인의 역할이 유보된 상태로서 아동기와의 사이에서 자아정체의 위기

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심리적이고 발달적인 갈등을 경험하는 불안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성적인 충동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 성적인 욕구는 건전한 방향으로 분출되지 못하고 다양한 성 비행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7.2.2 가정적 원인

가정은 사회의 문화를 전달하는 기능, 가족을 보호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며,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을 양육하고 교육하며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산업 사회의 가정은 예절, 도덕, 습관, 정서 등의 **인간 교육과 인성 교육**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이란 자녀들에게 정서의 표현 방법,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며, 부모의 성 역할을 통해 적절한 성 의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곳이다. 그러나,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정,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교육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의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이들이 학교에서조차 적절한 성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기에 급증하는 성적 욕구는 무분별하게 발산될 수 있으며 이는 성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7.2.3 학교 및 사회 환경적 원인

청소년 성 폭력의 발생 원인을 사회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주로 여성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영애(1996)는 빈곤, 가족 간의 불화, 결손 가정, 맞벌이 가족 등의 개인적 환경 요인과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제도, 성 억압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 탐닉적인 이중적 성문화, 무차별적으로 양산되는 성의 상품화 등의 사회적 요인을 청소년 성 폭력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 원인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사회의 **이중적 성 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성 문화는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즉, 하나는 성이란 부끄러운 것이므로 멀리할수록 좋다는 유교전통을 중심으로 한 성 문화이며, 또 하나는 성을 통제 불가능한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성을 탐닉하는 비공식적인 성문화이다. 성 금기적 문화에서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신체적 변화에 관한 관심조차도 금기시하고 억압하고 있다. 그러나, 헬무트 켄틀러(1988)는 아이를 성적 백치아로 간주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문화는 성적 방종문화를 유도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성적 호기심을 부모에게서조차 불량한 것으로 취급당하면,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척처럼 행동한다. 부모의 시선을 피해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 성적 호기심을 충족해 가고 이것이 성적 탐닉, 방종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성의 상품화**를 들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은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청소년들이 즐겨 보는 스포츠 신문, 청소년 잡지, 만화, 비디오 등에서 등장하는 성은 상당히 왜곡되고 과장된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잘못된 성 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성 폭력에 대해서도 별다른 죄의식이나 범죄로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세 번째 성의 상품화와 관련하여 남성 중심의 성 문화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성 의식을 저해하고 있다. 성 상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언제나 성적 대상으로 전제되어 그려지는데, 이들은 마치 여성 스스로 남성을 유혹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성적 대상이 묘사됨으로써 현실에서 성 폭력으로 겪는 여성의 고통이나 파괴되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성 폭력은 상대방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폭력이다. 따라서, 인격적 관계가 수반되지 않은 성 의식이 지배하는 문화에서는 성 관계가 몸을 통한 상호적 의사 소통과 애정 표현으로 생각하는 문화라기보다는 성 관계는 남성의 일방적인 정복 행위로 보는, 즉 성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문화가 되기 쉽다.

셋째, 위에서 밝힌 원인들과 관련하여 현재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절한 **성 교육이 부재**한 것도 청소년 성폭행이 만연하는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 행해지는 성 교육은 사실상 임신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수준일 뿐이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 성에 관한 자정 능력을 키워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의 부재와 성에 대한 억압적 태도는 음성적인 성 문제를 더욱 야기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 교육을 포함한 적절한 인성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제의 **입시 위주 교육 제도**에도 성 폭력의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 청소년 성 비행

7.3. 청소년 성 폭력의 실태

7.3.1 양적 실태

전체 성 폭력 중 청소년 성 폭력의 비율을 살펴 보면, 1995년 전체 소년법 131,886명 중 단순 폭력범, 흉포 폭력범, 성 폭력범 등 폭력 사범의 합계는 모두 56,541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 청소년 성 폭력은 1,484명으로 전체 소년법 중의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지원, 1996). 그러나, 같은해 성인을 포함한 전체 성 폭력범 7,361명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사정책연구원(1989)의 성 폭력 실태연구의 결과와도 상당히 일치하는 데,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는 19.8%로 전체 성 폭력범 중 거의 20%의 경우가 10대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단 강간 범죄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청소년에 의해 자행되고 있고, 가족 면전 강간범도 청소년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대담성과 잔인성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의 성 폭력 대상이 또래 집단의 여학생이거나 자신의 가족, 친족 혹은 이웃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피해 건수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친족성 폭력 피해자의 80%가 20세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는 친부, 형제, 사촌, 기타 친인척이다. 그리고 이들 가해자의 21%가 10대 청소년이다. 또한, 전체 성 폭력 피해자의 50%가 20세 미만이라고 한다. 청소년에 의해 행해지는 성 폭력의 주된 피해자는 대개 또래의 여학생이거나 어린 아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성 폭력 실태와 관련하여 참고로 음란물의 접촉, 혼숙, 성교의 경험에 대한 양적 실태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성 비행은 성 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성 비행에 자주 노출된 청소년은 성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청소년대화의광장에서 실시한 비행 청소년 실태에 대한 연구(1995)에서 전체 조사 대상의 49.4%가 음란 서적이나 음란 비디오를 관람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들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데, 전체 남학생의 70.4%가 음란 서적이나 음란 비디오를 관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음란 서적이나 비디오를 거의 1주일에 한 번 이상 보는 경우가 남학생의 경우 15.7%, 여학생의 경우는 2.9%나 되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보면, 36.7%의

청소년들이 음란 비디오나 음란 서적에 접하는 행위를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7. 청소년 성 비행

한편, 남학생의 28.1%(중학생 12.3%, 고등학생 60%), 여학생의 11.9%가 이성과의 키스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 성교 경험은 남학생이 14.2%, 여학생은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22%에 달하는 학생들이 성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남자 고등학생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교를 한다는 응답자도 5%나 되었다. 혼숙에 대해서 남자의 13.8%, 여자의 8.9%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바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인식은 이성과의 키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44%가, 성교에 대해서는 33.2%가 각각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호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사창가 출입과 혼숙에 대해서는 각각 16.4%와 24.6%가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성 비행에 대한 이상의 실태를 종합해 보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신체적 성 접촉이나 성교, 성 관련 출판물 등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과 관련된 현상들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적, 발달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성 문제의 범람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7.3.2 질적 분석

1) 성 폭력의 동기, 장소, 시간

서울시보호관찰소에 수용되어 있는 성 비행 청소년들과의 면접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 비행의 동기는 어느 한 가지라고 단정짓기가 어렵고 성에 대한 호기심, 청소년 특유의 왕성한 성적 욕구, 음주 등 비행 가능한 주변 환경, 동기를 유발하는 대상자의 출현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성 비행 장소로는 가해자의 집, 피해자의 집, 친구 자취방, 술집, 야산, 교정, 회사 숙소, 커피숍 등 다양하고 특징적으로 두드러지는 장소는 없다고 한다. 다만 계획적이든지 우발적이든지 간에 비행 당시의 공간이 비행 장소로 선택될 만한지 여부는 주변에 방해 할만한 사람이 없다든가 적당한 비행 대상자가 있느냐와 같은 여건에 따른다.

비행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대는 성 행위 자체가 갖는 은폐성 때문에 낮보다는 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통행이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

이 잠자는 **심야**에 성 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청소년 성 범죄의 시간대를 분석해 보면, 사건의 대다수는 새벽 1시에서 2시 전후로 발생한다고 한다.

2) 성 폭력 피해자의 특성

계획적으로 비행하는 경우의 성 비행 피해자의 대다수는 평상시 가깝고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소녀가 대부분이고, 우발적으로 비행하는 경우의 피해자는 술집 주인, 종업원, 술 취한 여자, 데이트족 등 전혀 모르는 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연령은 계획적일 경우는 14~15세 정도로 어린 편인데, 이들이 쉽게 성 비행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가해자보다 적당히 어리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우발적일 경우는 다양하고 성인인 경우가 많았다.

성 폭력의 피해자가 어린 아이나 청소년 여성의 경우 일반 피해자보다 훨씬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될 가능성이 크다. 거의 대부분의 성 폭력 피해자들은 성 폭력으로 인해 상해(10%), 임신(12%), 성병 감염(1.3%) 등의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강간 쇼크 증후군으로 일컫는 우울, 불안, 수치, 죄책감, 순결 상실감, 남성 혐오, 대인기피, 때로는 정신 분열, 자살 기도, 가해자 살인 등의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 특히 성 폭력을 어린 시절 당했을 경우, 치명적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사춘기의 청소년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는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성 폭력 사실을 말하지 않고 홀로 감수하려고 든다. 그래서 더욱 더 깊은 좌절감에 빠져 방황하다가 본드 흡입, 가출 등의 비행 청소년이 되고 심지어는 매춘 여성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 성 폭력 피해자가 보여 주는 또다른 후유증으로는 **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와 성적인 부적응을 보이고 결혼 후에도 남편과의 성 관계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또다른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반대로 추행, 성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한 피해자의 경우 성의 탐닉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성적 가치를 포기하는 행위로서 '손상된 상품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3) 청소년 성 폭력 가해자의 특성

청소년 비행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성 비행 청소년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행 청소년의 연령은 만 18세 이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

다. 또한, 성 비행은 대개의 경우 2~3명의 공범이 존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결손 가정, 빈곤가정, 부도덕가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성 비행 청소년의 경우는 별다른 특징이 없이 평범한 가정이고 부모의 관심이 양호한 경우에도 비행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청소년 비행에 비해 성 비행자의 대부분은 무직인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비행 당시 학생이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절대 다수가 술과 담배를 하고 있지만, 가출이나 약물 남용과 같은 비행은 다른 비행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상의 특징들이 시사하는 점은 성 비행은 다른 비행과는 달리, 가정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과 같은 비행 청소년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발생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보통의 가정 출신인 청소년들도 음란물이나 음란 행위를 별다른 죄책감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성 비행은 전반적인 성 문화, 성 의식과 관련이 높으며, 사회적 및 교육적 대처 방안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성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7.4 예방 및 대처 방안

청소년 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예방책과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이 있을 수 있다.

7.4.1 개인적 차원의 예방책

먼저, 청소년 성 폭력의 주된 피해자인 여자 청소년들 스스로 성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성 폭행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은 다음과 같은데, 일반적인 성 폭력 예방책과 동일하다. 즉, 가해자의 집이나 청소년 자신의 집에서 주로 가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눈치를 챌 수 없을 때, 어두운 거리, 한적한 장소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나 감시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혼자 있을 때, 낯선 이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 폭력의 위험을 빨리 감지하여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성 폭력하려고 하는 이성의 행동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이성이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재빨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7.4.2 법적, 제도적 차원

청소년 성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최영애, 1996 ; 강지원, 1996 ; 이재창, 1996) 법률적 보완과 성 교육 전담 상담 교사 제도, 전담검사반 제도, 지역 네트워크, 학내 순찰 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대책 방안은 **성 폭력 신고 체계의 확립, 성 폭력 전문 기관의 확대, 성 폭력 전문 인력의 확보, 가해자의 재교육**이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성 폭력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 폭력의 신고를 받고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로부터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성 폭력 예방 교육, 성 폭력에 대한 연구까지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가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성 폭력범에 대하여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7.4.3 교육적,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

성 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성의 구조나 임신·피임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과 관련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자신의 성적 욕구 충동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성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상에게 잠재적 성 폭력 상황을 식별하고, 그런 상황을 저항 혹은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서 성 폭력이나 성 희롱의 유혹에서 적절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주장 훈련, 거절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성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개인, 가정, 교육 체제뿐만 아니라, 이런 체제를 둘러싼 **사회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언론 문화나 영상 문화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노력이 뒤따르면, 건전한 청소년 성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8. 오락벽

예전에는 학교 근처나 집 근처의 오락실에서 전자 오락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으나, 각종 게임기와 퍼스널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으로 청소년이 있는 집에는 대개 게임기 한두 대는 있기 마련이며, 집에서도 전자 오락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전자 오락에 빠져들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고학년이 되면서는 전자 오락에서 점차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그 중독의 대상이 전환되는 데, 소위 넷홀릭이라고도 불리는 통신 중독증 환자들은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오락벽은 학교 공부의 소홀, 생활 리듬의 파괴, 비현실적인 사고, 대인 관계에서의 고립 등 적지않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오락벽 중에서 전자 오락의 경우에 집중하여 고찰하겠다.

8.1 청소년 오락벽의 정의

먼저, 전자 오락의 오락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자 오락에는 놀이적, 게임적 성격이 있다. 우리들은 놀이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 학습, 기능의 습득, 카타르시스, 운동 등의 효과를 얻는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놀이들이 대개 비지시적이고 비평형적이고, 특별한 목표나 규칙이 없는 반면에, 전자 오락은 그 게임적 성격으로 인해 일정한 과제, 목표, 규칙, 경쟁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 오락은 상당한 인지 기능이 발달해야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게임적 성격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취감과 이를 통한 카타르시스는 청소년들이 전자 오락에 점차 몰입하게 되는 기초가 된다. 이같은 전자 오락의 특성은 전자 오락을 잘 활용한다면, 상당한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잘못 활용될 경우 상습적인 오락에의 탐닉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 오락이 문제시 되는 상황은 이것이 상습화될 경우이다. 즉, '전자 오락 중독증'이라는 꼬리표가 붙여질 경우이다. 심리적으로 중독(addiction)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loss of control)인데, 전자 오락을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 오락에의 탐닉으로 인해서 학업을 소홀히 한다든지, 오락 비용을 마

련하기 위해 도박이 있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정신 의학에서 취급하는 병적 도박(pathological gambling)³⁾과 흡사하다.

8.2 청소년 오락벽의 원인

8.2.1 심리적 원인

전자 오락에 심취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 보면,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혹은 단순히 적절한 놀거리가 없어서 전자 오락에 접하다 보니 어느 새 전자 오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학년에 가서 전자 오락 중독증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학업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 혹은 가족내의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으로 오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전자 오락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가능하게 한다. 현실에서는 표현되지 못하는 공격성이나 분노가 게임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고, 현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힘을 가상의 공간에서는 획득

3) 정신의학에서 규정하는 '병적도박'은 일종의 충동조절장애로서 다음과 같은 진단기준이 5개이상인 경우는 '병적도박'으로 진단내려질 수 있다(DSM-IV, 1994).

- ① 도박에 집착한다.
- ② 의도한 흥분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으로 도박할 필요를 느낀다.
- ③ 도박을 끊거나 줄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노력한다.
- ④ 도박을 못하면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 못한다.
- ⑤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이나 무력감·죄의식·불안·우울 등의 감정을 해소할 수단으로 도박을 한다.
- ⑥ 도박 후 전에 잃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하고, 반복해서 실패한다.
- ⑦ 도박에 개입된 정도를 감추기 위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 ⑧ 도박비용을 대기 위해 횡령, 위조 등의 비합법적인 방법도 서슴치 않는다.
- ⑨ 도박 때문에 중요한 인간관계, 직업, 교육기회 등을 희생하거나 잃는다.
- ⑩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파탄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댄다.

이를 통해 전자오락중독의 경우를 유추해보면, ①오락에 집착하는 경우, ②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오락에 몰두하는 경우, ②전자오락을 못하게 되면 안절부절하게 되는 경우, ④오락을 끊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⑤할일이 있는데도 오락을 하는 경우, ⑥오락 때문에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⑦오락 후에 전에 못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하고, ⑧반복해서 실패하는 경우, ⑨오락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 ⑩오락때문에 도박이 생긴 경우 등에 4-5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전자오락이 중독화되었다고 유추해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청소년에게 알맞은 진단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 이와같은 **환상세계의 체험**은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하며, 현실과의 간격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 따라서, 현실에서 왜소한 자아를 가진 사람일수록 가상의 게임 공간에 매력을 느끼며, 자신이 현실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공감이나 만족감을 얻게 된다. 전자 오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현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은 더욱 어렵게 되고, 전자 게임에서 성공감을 얻은 이는 다시 가상의 공간에 자신을 맡긴다.

8.2.2 가정적 원인

가족 역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자 오락에 빠지게 되는 청소년들의 가정은 상당수가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거나, 부모 간의 불화가 심하다. 부모에게서 자신이 수용되고 인정되는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게 된다. 그 **몰입 대상**은 또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전자 오락과 같이 가상의 세계가 되기도 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전자 오락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저학년의 경우 적절한 놀이거리를 찾지 못하여 전자 오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들이 이에 대하여 적절히 기타 교육적인 유희수단을 마련해 준다거나, 오락 충동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못하는 경우 저학년때의 무분별한 오락 습관이 그대로 오락 중독으로 빠지게 될 수 있다.

8.2.3 사회적 원인

전자 오락 중독은 운동이나 클럽 활동, 각종 취미 활동 등 여가 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유희 수단**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도 전자 오락 중독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오락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오락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와 학교는 전자 오락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의 성취감이 아니라 일상적인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욱 전자 오락에 탐닉하게 되는 것이다.

8.3 청소년 오락벽의 실태

8.3.1 양적 실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여가를 보내는 방법에서 차지하는 전자 오락의 비중은 매우 높다. 어느 청소년 연구(MBC '91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서 전자 오락은 남학생의 경우 3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 전자 오락의 상습성 여부

1992년 청소년대화의광장에서 실시한 청소년 전자 오락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자 오락을 일주일에 3~4번 이상하는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상습적으로 전자 오락을 하는 학생들은 대개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반 수 정도는 가끔 심심할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오락을 하지만, 약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전자 오락을 거의 매일,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2시간 이상을 해야하는 소위 전자 오락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22.2%의 응답자가 거의 매일 전자 오락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점차 전자 오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의 발달 특징 및 학업 부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락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는 비율이 조사 대상의 62.4%였는데, 그만둘 수 없었다는 비율이 33%, 그만두려고 결심했지만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약 18%나 되었다. 즉 이들은 이미 스스로

〈표 4-10〉 전자 오락의 시간 및 빈도

빈 도	전체	성 별		남 자			여 자		
		남	여	초등	중	고등	초등	중	고등
거의매일	9.7	16.1	2.3	12.5	22.2	16.3	1.2	-	3.2
일주일에 3-4번	10.9	18.6	2.0	23.1	16.7	17.1	1.2	3.8	1.8
일주일에 1-2번	13.6	19.1	7.3	10.6	16.7	23.1	6.0	3.8	8.8
이주에 1-2번	6.4	9.8	2.5	9.6	7.4	10.4	-	3.8	3.2
한달에 1-2번	10.9	9.8	12.1	10.6	7.4	10.0	7.1	13.2	13.8
거의 하지 않는다	26.6	14.9	40.1	16.3	16.7	13.9	41.7	37.7	40.1
전혀 하지 않는다	16.8	6.8	28.2	12.5	7.4	4.4	35.7	30.2	25.4
기 타	5.0	4.6	5.4	4.8	5.6	4.4	7.1	7.5	5.1

의 결심과는 달리 오락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학생들이고, 이들은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3~4회 이상 오락을 하는 학생들이므로 추정할 수 있다.

2) 선호 프로그램의 종류

위의 조사(청소년대화의광장, 1993)에서 밝혀진 특이한 사항은 전자 오락실에서 즐기는 게임의 종류와 개인용 컴퓨터에서 즐기는 게임의 종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전자 오락실에서는 주로 격투 게임(전체의 34.5%, 남자의 경우 59.2%)이나, 도형 맞추기 프로그램(17.2%, 남자 5.6%, 여자 30.5%)을 하지만, 게임용 컴퓨터를 통해서는 남여 모두 환상 여행을 하는 탐험 프로그램(전체 32.6%, 남자 41.6%, 여자 22.3%)을 주로 하거나, 선정적인 포르노물(11.5%)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 오락이 보다 은밀하고 환상적인 체험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⁴⁾.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더욱 가속화되며, 첨단 기종이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전자 오락실에서 전자 오락을 즐기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 것이며 자신의 방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 오락을 즐기는 경우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 오락은 보다 은밀하고 환상적이며, 게임을 즐기는 사

〈표 4-11〉 선호하는 전자 오락 프로그램(전자 오락실의 경우)

프 로 그 램	전 체	성 별	
		남	여
격 투	34.5	59.2	5.9
전 쟁	5.2	7.3	2.8
운동경기	4.7	7.8	1.1
도형맞추기	17.2	5.6	30.5
노 림	1.2	1.5	0.8
탐 험	11.7	4.9	19.5
기 타	25.3	13.4	39.0

4) 이 조사수치는 1992년에 행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전자오락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이중에 MUD게임이라고 불리는 격투와 탐험이 결합된 형태가 청소년들 사이에 매우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따라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한다면, 그 결과는 위의 결과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람이 자신이 터한 사회와 더욱 유리되게 만들 수 있다.

〈표 4-12〉 선호하는 전자 오락 프로그램(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프 로 그 램	전 체	성 별	
		남	여
노 름	5.4	7.1	3.4
선정적인 프로	11.5	13.2	9.6
만화주인공사진	3.5	2.4	4.8
국내유명모델	2.1	2.0	2.3
에니메이션영상사진	3.5	3.5	4.0
타 림	32.6	41.6	22.3
기 타	36.8	22.7	53.1

3) 전자 오락에 입문하는 과정

청소년들이 처음 전자 오락실에 가게 되는 경우는 조사 대상의 39.4%가 ‘우연히 친구와 함께 오락실에 갔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 오락에서 **또래 집단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자초등학생(47.1%)과 남자중학생(59.3%)의 경우는 이와 같이 응답한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 오락을 즐기게 된 원인으로 21.2%의 응답자가 ‘친구들과 어울리다보니 자연스럽게 하게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14%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전자 오락을 즐긴다’고 응답했다. 즉, 청소년들이 전자 오락에 입문하게 되는 경위는 친구들과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며, 특별히 대안적인 유희문화가 부재하기 때문에 전자 오락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전자 오락 비용 충당 방법

전자 오락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님께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 오락을 꼭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경우 과반수 이상(55%)의 학생들은 포기한다고 응답했지만, 약 20%의 학생들은 친구에게 빌리거나 학용품 살 돈을 전용하거나, 극소수이긴 하긴 하지만 돈을 훔쳐서라도 하겠다(3.0%)고 응답하겠다고 응답하였다.

5) 전자 오락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 및 태도

전자 오락을 하고난 후의 감정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70% 정도가 ‘그저 그렇다’, ‘시간을 낭비해 후회된다’, ‘부모님에게 죄책감이 든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는 오락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문제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그런 가능성에 대하여 별로 고려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오락 중독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3.2 질적 분석

1) 전자 오락에 빠진 아이들의 특성

전자 오락에 깊이 빠져 있는 아이들에 대한 면접 조사와 상담 사례를 통해 유추된 사실들에 따르면, 전자 오락 중독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첫째, 전자 오락은 **가상을 현실화**한다는 점이다. 즉 전자 오락에서는 직접 자신이 직접 오락 속의 주인공을 움직이기 때문에 주인공과 자신이 일치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프로그램이 세련화되고 게임기기가 개선됨에 따라 점차 현실감을 더해 준다. 이러한 현실감 있는 상황에서 치고, 박고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공격성과 분노를 표출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느낌은 대단한 성취감으로 이어지며, 다른 느낌은 대단한 비참함으로 느껴지게 된다.

둘째, 연령에 따라 오락에 탐닉하는 이유는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오락 자체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주된 이유인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는 오락 자체의 재미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대한 준비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단순한 도피처로 선택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셋째, 초등학생의 경우는 마땅히 친구들과 놀만한 장소도 부족하고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락에 몰두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외로움과 좌절감을 달래는 경향이 있었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또래 집단끼리 모여서 오락실에 다니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오락이 개인적인 유희의 수단인 동시에 **친구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즉, 오락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자신의 오락기 앞에서 개인적으로

빠져든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오락을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이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내세울 만한 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다섯째, 전자 오락에 깊이 빠져 있는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내성적**이고 자기표현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잘 표현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에 만족을 줄만한 무엇인가를 찾다가 전자 오락을 접하여 혼자만의 세계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에 만족을 찾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전자 오락이 주는 만족감이 직접적인 대인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을 상회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전자 오락은 이들에게 단순히 놀이의 차원을 넘어서 습관화 한다. 동시에 오락과 관련된 상황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때문에 일상 생활 및 학교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자신의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지면서 원하지 않지만 다시 오락의 세계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2) 전자 오락 중독의 문제점

첫째, 상습성을 들 수 있다. 전자 오락을 생각할 때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이 **상습성**인데, 이로 인해 오락 행동뿐만 아니라, 도박, 거짓말, 강도, 학업 부진 등의 기타 문제들이 따라오게 된다.

둘째, **대인 관계의 고립화**가 초래될 수 있다. 전자 오락은 오락의 세계 속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얼마든지 기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실제 또래들과의 다른 놀이와 대화를 통한 인간 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락이 이미 상습화된 상태에서는 오락 이외의 다른 활동에 시간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 자체를 갖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은 대인 관계가 서툴어지고 오락 이외의 친구 세계에서 고립되어 간다.

셋째, 오락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의 폭력성과 외설성은 자극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성적 상상**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확률을 높일 것으로 추측된다.

8.4 예방 및 대처 방안

8.4.1 가정적 차원

오락 중독을 보이는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오락’에 빠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왜’ 오락에 빠졌는가 하는 동기

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락 중독을 이해하는 데 있어 오락 중독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무조건 없애야 할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신호로서, 부모와 주위환경에 대한 경고로서 받아들여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이들은 하나의 환경으로서 아이의 중독성에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 환경은 특히 부모는 아이들에게 치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부모들은 아이 양육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아이에게 **준상담자의 역할**을 훌륭히 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를 위하여 부모는 자녀와 대화의 길을 계속적으로 열어 놓아야 한다. 오락이 나쁜 것만이 아니고 잘 즐기면 청소년들의 다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오락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반대만 하는 입장에서 오락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8.4.2 학교·사회적 차원

먼저 청소년들이 취미 생활로 이용할 수 있는 여가 활동 공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오락실을 찾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짬값으로 시간을 보낼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건강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나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취미 생활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둘째, 오락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각 청소년들에 따라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어느 방면으로든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자세를 부모나 청소년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적극적으로 건전하게 오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처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좋은 컴퓨터 오락 프로그램이나 게임기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지나치게 현실과 유리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적으로 적절히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유해한 게임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9. 학업 비행

9.1 청소년 학업 비행의 정의

학업 비행이란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저지르는 학교 생활 및 학업과 관련이 있는 비행을 의미한다. 학업 비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컨닝 등의 시험 부정 행위나 남의 숙제를 베끼는 행위와 같이 학업의 의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비행(학업 관련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와, 무단 결석이나 지각 또는 자습 빼먹고 도망가는 행위, 청소 안 하고 도망가는 행위, 학교에서 금지하는 복장을 하는 것과 같이 학교의 교칙이나 규율을 어기는 경우(학교 생활관련 비행)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사회적으로 범법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정받으려는 문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문제, 학교의 준칙을 거슬리는 반사회적인 행동의 작은 시작이라는 점에서 비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9.2 청소년 학업 비행의 원인

학업 비행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또래 환경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또래 집단이 사회적, 도덕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주변의 친구들이 시험 부정 행위나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등을 저지르는 경우, 자신도 이런 행위들에 대한 도덕적 의식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즉, 자신은 특별히 학업 비행을 원하지 않더라도 비행을 저지르는 또래들과 어울리다보면, 자연스럽게 이같은 비행 행위에 접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런 비행을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허다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 비행은 일반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며, 다른 어떤 청소년 비행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9.3 청소년 학업 비행의 실태

9. 학업 비행

9.3.1 양적 실태

1) 학업 관련 비행

청소년대화의광장에서 실시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실태 조사(1995년)에 의하면, 남의 숙제를 베껴서 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76.2%나 되었다. 즉,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지난 한달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숙제를 남의 것을 베껴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어, 남녀 모두 숙제를 베껴서 내는 경향은 같았다. 특히 거의 매일 숙제를 베껴 내는 학생들은 전체 응답자의 20.5%나 차지하였으며, 주 4~5회와 주 2~3회, 주 1회 정도 베끼는 경우는 각각 14.8%, 25.2%, 25.7%였다. 숙제를 거의 매일 베껴낸다고 응답한 경우는 고등학교의 경우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나는 데, 남녀 모두 25-29% 수준으로 전체 응답비율인 20.5%에 비해 다소 높았다. 즉,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스스로 숙제를 하는 경향이 감소하며, 숙제를 내는 행위에 대하여 큰 학습적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숙제를 베껴 내는 행동에 대하여 해서는 안될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은 22%에 불과하였으면, 올바르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66.7%나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 및 학교에 따라 차이가 없어, 학생들의 숙제에 대한 보편적인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의 수고를 가져가는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 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사회적으로도 저작권이 별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과 일맥상통하는데, 어릴 적부터 남이 애써 해 놓은 노력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빌려 주는 사람도 이에 대하여 친구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은 학생들에게 불공정성과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한편, 숙제 베끼는 행동보다 한 차원 높은 학업 비행이라고 볼 수 있는 시험 부정 행위에 대한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대화의광장의 같은 연구(1995)에서 학생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시험때 컨닝 페이퍼를 만들거나 부정 행위를 얼마나 했으며,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 정도가 경험이 있다고 보고 하였는데, 남학생이 35%, 여학생이 약 25%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응답 결과를 성별, 학교별로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남녀가 모두 여타의 학생들 보다 시험에서의 부정 행위를 하는 경향이 많았다.

한편, 시험 부정 행위에 대하여 학생들은 대체로(76.6%)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양식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정 행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17.3%가 좋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지닌 부정 행위에 대한 태도에 대한 교육 지도자와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2) 학교 생활과 관련된 비행

같은 연구(1995)에서 학교에 무단 결석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의 8%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무단 결석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 1회정도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도 5%나 되었다. 그중에 남자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10% 정도의 학생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 무단 결석을 하고 있으며, 거의 매일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들은 남자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2%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반에 50명 정원인 학급에서 매일 1명 정도는 학교에 안 나온다는 의미이다. 다른 경우에도 대개 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단 결석에 대한 학생들은 약 80%의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나, 해보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도 3.6%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자는 4.7~4.8%, 여자의 경우 4.0~2.5%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9.3.2 질적 분석

무단 결석과 같은 학업 비행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반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가출, 불량 서클에의 활동 등과 같이 앞으로 심각한 비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청소년 비행이다.

1) 무단 결석

학업 비행 중에서 무단 결석이 장기화되는 양상은 서울시보호관찰소

의 보호 관찰 대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들 비행 청소년은 결석 초기 단계에는 본인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자각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어울리던 비행 또래들과의 관계도 외면할 수가 없어 결국 학교출석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수일 가량 경과하고 이 시점부터는 학교출석을 완전히 포기하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청소년들이 무단 결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살펴 보면, 첫째 부모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적절한 가정 훈육과 보호 감독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학교 당국이 문제성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내외 생활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시험 부정 행위

시험에서의 부정 행위는 단순히 혼자서 몰래 컨닝 페이퍼를 만들었거나,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했거나, 누가 누구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돌렸다는 공정성 수준에서만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시험 부정 행위를 주도하는 청소년들은 대개 또래 사이에서 힘이 세고, 주도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험 부정 행위 과정에서 폭력이 개입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9.4 예방 및 대처 방안

학교 생활과 관련된 학업 비행에 관해서는 우선 비행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서의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험 부정 행위나 무단 결석의 정도는 청소년이 비행적 경향을 띠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인 동시에, 보다 심각한 비행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학교 내 또래 집단 내에 진정한 우정의 의미에 대한 건전한 의식이 싹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단 결석이나 시험 부정 행위는 작지 않은 비행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건전한 또래 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식교육을 적절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10. 가족 폭력⁵⁾

10.1 청소년 가족 폭력의 정의

Heide(1992)는 여러 연구를 비교하면서 극단적인 **패륜 행위**의 특성들을 열거하였다. 극단적인 패륜 행위라 함은 부모 살해의 경우를 말한다. Heide는 패륜 행위의 특성을 12가지로 요약하였는데 그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가족 폭력의 한 형태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데에 대한 실패이고 다른 대안으로부터 고립, 가족 상황의 점차적 악화, 절망감의 증가와 함정에 빠진 느낌, 대처 양식의 결여 및 통제 불능, 이전의 범죄 행위가 거의 없거나 전무, 충의 입수,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살해 피해자, 어떤 경우에 있어서 비연합(dissociative)의 상태에 대한 증거, 피해자의 죽음을 가해자로부터 해방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김용태(1995)는 패륜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패륜적 행위란 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기 방어적인 대처 방식**이라고 하였다. 즉 부모 살해의 극단적인 패륜 행위란 아동이 가족체제내에서 극단적인 좌절감, 분노, 복수심, 함정에 빠진 느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족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행위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문용린(1995)은 패륜 행동을 심리적, 경제적인 면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패륜 행동이란 어떤 **심리적 만족감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기대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공격 행동이다. 따라서 패륜 행동은 분명히 자식의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한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 행동이며, 계획된 행동이라고 보았다.

5) 가족폭력은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폭력의 한 형태이다. 가족 폭력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심한 손찌검이나 함부로 매를 때리는 등의 경우,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불만을 품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다룬 가족폭력은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는 경우만을 다루고자 한다. 최근 부모에 대한 자녀의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패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여 인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동안 패륜아에 대하여 발표된 연구물을 기초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한편 홍강의(1995)는 패륜적 살해 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 **무정감 정신 병질**에 의한 패륜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다른 사람과의 애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좋은 인간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배려하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음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패륜 행위이다. 둘째, **반사회적 성격**에 의한 패륜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벌에 의해서도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유형으로 대체로 충동성이 높고 이러한 충동성을 억제하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 경우이다. 셋째, **갈등형 패륜**은 부모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누적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분노와 적개심의 표현으로서 살해가 계획되고 실행되는 경우이다. 넷째, **정신병적 상태**에서의 패륜은 사물의 판단 능력과 현실 검증 능력이 저하되어 특히 피해 망상이나 환시, 환청 등에 의해서 패륜 행위가 저질러지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우발형**은 이상의 네 가지 부류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으로 부모의 언동이 아동의 잠재적 분노와 적개심을 자극하여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패륜 행위이다.

이재창(1995)은 패륜아를 상담할 때 고려해야 할 **패륜아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둘째, 극심한 분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셋째, 심한 좌절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심한 공격성을 보인다. 다섯째, 자기 통제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여섯째,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일곱째, 가치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여덟째,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10.2 청소년 가족 폭력의 원인 및 동기

패륜 행위를 정의하면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문용린(1995)은 패륜 행동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다. 하나는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이다. 여기에서 심리적 만족이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겨누어진 욕구 불만, 적개심, 열등감, 미움 등을 보상하기 위한 심리적 기대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이거나 대인 관계상의 **실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계산된 기대이다. 부모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은 부모가 생존해 있는 한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자식은 부모를 살해하게 된다. 또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돌아온 이득이 적어지거나 장애가 된다고 할 때, 부모를 살해하고자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김용태(1995)는 **가족 역동적**인 면에서 패륜 행위의 원

인을 찾고 있다. 가족 내의 의존적 관계, 가족 폭력, 가족 투사와 희생양, 미분화 현상 등을 들고 있다. 가족의 역동 중에서 서로 의존적인 관계(codependent relationship)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아 정체감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족의 투사는 아동이 가족 체제의 희생양이 되게 하는 요인으로, 가족의 폭력은 아동에게 생존에 대한 심리적인 위협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또 다른 폭력을 하게 하는 교육적인 동일시의 모델 요인으로, 미분화는 아동으로 하여금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각각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서로 체계적이며,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아동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심리적 상태에 이르게 한다. 결국 이러한 극단적인 심리적 상태는 아동으로 하여금 그 가족 체제를 붕괴시키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패륜적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패륜 행위를 살펴 본 강지원(1995)은 패륜 행위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윤리 도덕의 문맹 현상**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윤리와 도덕들이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 본래 윤리와 도덕이 통제하고자 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간의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행동인데 개인적 이기, 욕망 앞에서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이 철저하게 무너진 것이다. 둘째, **윤리관의 뒤죽박죽 현상**이다. 윤리 도덕이 철저하게 무시되어 온 과정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윤리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 왔는데 그 윤리관들이 근자에 이르러서는 극심한 혼돈 상태에 빠져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혜숙(1995)은 패륜적 행동의 원인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의존의 갈등, 참는 능력의 결여 등과 같은 발달적 측면의 특성과 분노 감정, 문제 해결 능력의 결여, 가치관의 혼란 등을 들고, 가족적 요인으로 가족 발달 과업의 결여, 엄격함과 자애로움의 불균형, 일관성 없는 모습, 자녀에 대한 조건부 수용 등과 같은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구성원 간의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인 경계와 가족 구성원 간의 힘의 불균형과 같은 가족 구조적 요인을 들고 있다. 끝으로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치관의 혼란, 효의 개념에 대한 변화, 폭력적 대중매체 등을 들고 있다.

10.3 청소년 가족 폭력의 실태

10. 가족 폭력

10.3.1 양적 분석

청소년대화의광장에서는 1,600여명의 학생과 7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패륜 행동에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특징과 가족의 구조적 특징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언어적 위협적 패륜 행위를 했다고 반응한 비율은 22.5%에 달했으며 조금이라도 부모에게 신체적 패륜 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8.9%에 달하였다. 패륜 행위의 심리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보복, 분노, 좌절, 우울, 불신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각각 23%, 30.9%, 40.1%, 93.3%, 28.3%에 달하였다. 패륜 행동의 구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가족 관계의 상보성, 가족 내 폭력, 가족 구성원의 희생양 취급 정도, 가족 관계에서 투사의 정도, 미분화 정도, 양육 태도의 비밀 관성 정도, 가족 성원의 자기에 경향의 정도를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각각 98.4%, 20.2%, 58.4%, 93.3%, 56.7%, 41.1%, 74.1%에 달했다. 패륜 행동을 유발시키는 가족의 구조적인 특징과 패륜아 심리적 특징간에는 .7392의 높은 상관 관계가 있었다. 위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 사회에서 간혹 일어나는 패륜적인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라기 보다는 일어날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사건의 일차적인 원인 소재는 바로 역기능적인 가족구조에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대화의광장에서 실시한 패륜의 예방과 상담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966명과 학부모, 교사 734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패륜에 대한 생각을 보면, 청소년의 경우 “속으로 부모에게 욕을 한다”부터가 패륜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2.8%, “속으로 부모에게 상해 입히는 생각을 한다”부터가 패륜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4.5%였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장 심한 패륜 행동이 속으로 불평을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3.6%, 속으로 부모에게 욕을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9.9%였다.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패륜이라고 설정한 정도보다 한 단계 낮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 교사들의 경우 응답자의 52.5%가 “속으로 부모에게 상해 입히는 생각을 한다”부터가 패륜 행동으로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속으로

부모를 죽이고 싶다(26.3%)”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의 패륜에 대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청소년은 학부모나 교사보다 오히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자녀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속으로 불평을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1.0%, “속으로 부모에게 욕을 한다” 21.4%, “속으로 부모를 죽이고 싶다” 7.5%의 순이었다. 자녀의 현재상태를 볼 때 학부모, 교사는 청소년들 보다 낮은 단계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응답에서 “속으로 불평한다”를 43.6%로 학부모, 교사의 응답보다 적게 응답을 했고, 반면 “속으로 부모에게 욕을 한다”는 39.9%로 학부모의 지각보다 많은 응답 비율을 보여 부모들의 지각보다 더 높은 단계의 패륜적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감정이 부모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패륜 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을 보면, “눈을 부릅뜨고 부모를 쳐다본다” 32.0%로부터를 패륜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에게 욕설을 한” 32.6%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운순한 행동부터를 패륜 행동으로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현재 상태를 보면 청소년들은 “부모의 의견에 반박하며 자기의사를 주장한다(38.3%), 부모가 말할 때 대꾸를 하지 않는다(18.1%),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14.3%)의 방안을 사용하거나 눈을 부릅뜨고 부모를 쳐다본다(13.7%)” 순이었다.

소극적인 자기 표현을 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많았다. 속으로 생각하는 패륜은 중학생 응답자가 더 심한 데 비해, 겉으로 표현하는 패륜 행동은 고등학생이 강도가 높았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내적 감정과 외적 행동의 중간점을 모색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결과이며,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상태간의 차이를 크게 경험하는 중학생 시기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시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의 패륜에 대한 학부모, 교사들의 견해를 살펴 보면 “눈을 부릅뜨고 부모를 쳐다본다” 46.1%거나 “부모에게 욕설을 한다” 25.8%는 행동을 할 때부터 패륜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전체의 71.9%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패륜행동에 대한 기준이 보다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패륜 행동에 대한 기준이 보다 관대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높은 학부모, 교사의 패륜에 대한 관대한 개념이 자녀들의 경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본 조사의 결과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자녀의 패륜 행동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학부모, 교사들은 부모의 의견에 반박하며 자기 의사를 주장한다 39.6%, 눈을 부릅뜨고 부모를 쳐다본다 15.3%, 부모가 말할 때 대꾸를 하지 않는다 14.8%,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10.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00만원 이하의 가정에서 “부모의 의견에 반박하며 자기의사를 주장한다”는 가장 낮은 비율로 응답했고, “부모에게 욕설을 한다”는 다른 소득층에 비해 응답 비율(8.8%)이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녀에게 제공되는 적극적 의사 표현의 기회가 적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패륜의 근절 방안에 대하여는 청소년들보다 학부모들이 더욱 그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며, 영역별 근절 방안의 순위는 청소년과 학부모 공히 가정 차원의 근절 방안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개인, 학교, 사회, 국가의 순이었다.

패륜의 근절 방안으로는 청소년의 경우 “부부 사이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정 분위기를 화목하게 유지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 부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기 전에 대화를 나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늘린다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폭력문화에 젖어 들지 않도록 분별 능력을 기른다. 아버지도 자녀 교육 및 자녀와의 대화에 참여한다” 였다.

학부모, 교사의 경우 패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다. 아버지도 자녀 교육 및 자녀와의 대화에 참여한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 폭력 문화에 젖어 들지 않도록 분별 능력을 기른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하지 않음을 되새긴다” 등을 지목하였다. 학부모들은 부모의 확고한 역할 수행 및 가족 간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청소년 자신의 자제력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패륜 행위 책임에 대해서 어른들의 행동 변화를 중요한 근절 방안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 자신의 자제력을 청소년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근절 방안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에서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보다 개인,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정 영역에서 근절 방안을 더욱 중요하게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외현적 표현과 내면의 불일치를 보다 심하게 경험하는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보다 패륜적인 행동을 어떤 영역의 방안으로든 근절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10.3.2 질적 분석

홍강의(1995)는 청소년 대화의 광장에서 실시한 패륜아 사례 연구에서 발표된 패륜 행동에 관한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패륜 행동 사례의 공통점**을 제시하였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 1) 내담자는 부모의 마음에 차지 않는 장남이다. 내담자들은 모두 집안에서 받는 기대가 컸고 특히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 2) 내담자에게는 부모가 원하는 대학과 직업을 가진 동생이 있다. 이러한 동생으로 인하여 내담자는 열등 의식을 느끼게 되고 동생과 비교가 되면 모욕감을 느끼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감정은 분노감으로 발전한다.
- 3) 검사상 또는 지금까지의 행동 양상으로 볼 때 내담자들은 평소에는 정상인이었다. 오히려 모범적이고 암전한 학생들이었으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문제시되지 않았다.
- 4) 아버지들이 모두 자수 성가하신 분이시다. 자수 성가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한 아버지는 자신감과 도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장남에게 높은 수준의 능력 발휘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아들에 대해 불만과 창피감만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아버지에게 대하여 아들들의 입장으로는 열등의식과 죄책감, 파생되는 분노감이 자라났을 것이다.
- 5) 패륜 행동의 유발 인자로서 아버지가 자식을 심리적으로 거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심리적 유기 상황이 작용하였다.
- 6)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기 보다는 감정이 배제된 계획적이고 냉담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후회스러운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문제 행동이 충동적이거나 무계획적으로 자신들의 감정의 촉발되었다기 보다는 일생을 통해 쌓여진 분노, 적개심 등이 쌓이고 쌓여서 일어났으며, 그 행동에 대한 정당성과 확신성이 있었음을 얘기해준다.

10.4 예방 및 대처 방안

청소년의 패륜 행위 예방을 위한 방안과 대처 방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문용린(1995)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다. 첫째, **가정 양육을 민주화**함으로써 부모, 자식간에 누적된 감정적 왜곡을 최소

화하여, 패륜 행위의 소지를 줄여야 하며, 둘째, 자녀에 대한 도덕, 인성 및 정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서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존경심을 북돋우고, 부모에 대한 감정과 정서의 통제 능력을 높이며, 끊임없이 올바른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 애쓰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 패륜 행위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셋째, 패륜 행위의 상당수가 경제적 욕구의 충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경제 생활 태도와 금전 관리 능력을 높여 줌으로써, 패륜 행동의 소지가 되고 있는 금전적 문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해 주어야 한다.

윤리적인 면에서 패륜 행위를 보았던 강지원은 두 가지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윤리 도덕 교육**을 통해 윤리 문맹 상태를 시급히 탈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윤리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집행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윤리 실천을 위한 심리적, 정신적 지도 방법도 구체화되어야 하고 갈등 해소법에 관한 체계적 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윤리관을 시급히 정립하는 일이다. 윤리관의 혼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 일을 시급히 해결하지 않는 한 윤리 붕괴의 현상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연문희(1995)는 네 가지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연 보호, 자연사랑,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시급하다. **생명의 존엄성**을 자연에서 배워야 한다. 무위자연하는 삶의 철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자연 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균형 및 조화를 강조해야 한다. 둘째, 자유 경쟁과 더불어 상호 부조하고 협력하는 삶을 강조해야 한다. 이기주의적인 생활 태도는 자유경쟁을 지나치게 부채질하는 풍토에서 조장된다. 불필요한 경쟁을 지향하고 상호 부조하고 공존하는 생활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 낙오자를 예방하고 빈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사회 지도자와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수완이 좋고 유능한 지도자”는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윤리 도덕적으로 숭선 수범하는 어른들이 늘어나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의 인간화이다. 학교 교육, 가정 교육, 사회 교육이 지식 전달에 급급하고, 경쟁 위주의 교육 방법과 대량 생산을 일삼아 바람직한 인간성 함양을 소홀히 하고 있다. 지덕체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태도나 가치관 교육 등 정의의 영역에 대한 교육 목표를 중시하여야 한다.

위의 실태 조사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나라의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들은 패륜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부부 사이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정 분위기를 화목하게 유지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 부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기 전에 대화를 나눈다. 부모 자식간의 대화를 늘린다.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폭력 문화에 젖어 들지 않도록 분별 능력을 기른다. 아버지도 자녀 교육 및 자녀와의 대화에 참여한다” 등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학부모, 교사의 경우는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아버지도 자녀 교육 및 자녀와의 대화에 참여한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 폭력 문화에 젖어 들지 않도록 분별 능력을 기른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하지 않음을 되새긴다”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이재창(1995)은 패륜아의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면서 패륜아에 대한 상담을 할 때는 이들의 특성을 감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내담자에 따라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패륜 행위 상담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다루는 데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패륜아들의 몇 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상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인 상담의 틀은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내담자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지지적 태도**를 가지고 상담에 임하며, 내담자가 패륜 행위를 하게 된 내적 동기나 욕구 등을 탐색하고, 내담자가 보이는 여러 가지 부정적 행동 즉 그 동안 잘못 학습된 행동들을 적절히 교정하고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

비행 청소년 상담

1.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2. 비행자의 심리적 특성과 주요 상담 과제
 3. 상담 개입전략
 4. 일반적인 상담 방법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목표지향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 상담이란 곧 비행 청소년들의 비행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한다. 즉 상담은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이 비행 행위를 줄여나가 궁극적으로 비행을 하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비행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비행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변화를 위한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행은 비행자나 비행 이유에 관계없이 비행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특성에 따라 통합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비행 청소년들의 특성 중 공통적인 심리적 특성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비행을 교정하거나 줄이기 위한 방법들은 비행의 원인(비행자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연구들이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교정적 노력이 서로 일관성이 결여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Quay, 1984). 이러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비행 청소년들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비행을 줄이거나 교정하기 위한 상담은 비행의 원인을 중심으로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같은 비행이라할지라도 그 원인이 다르면 다른 상담 방법이 요구되고, 서로 다른 비행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의 원인이 동일하면 같은 상담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행 청소년을 상담하기 위한 상담 방법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행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비행의 원인별 유형을 살펴 보는 것이 유익하다. 비행 청소년을 심리적 원인에 기초하여 유형화하고 그 특징에 맞는 교정적 접근, 교정 기간, 교정 내용을 달리하려는 시도가 증가되고 있다. 즉 비행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 교정 내용, 방법,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비행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에 따라 비행의 원인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고 이러한 비행이 지속되어 소위 비행 청소년이 되어 가는 과정은 상담 과정과 전략을 계획하는 데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나름대로의 독특한 적응 기제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을 상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담자들은 비행 청소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상담 과정에서 적절히 변화 혹은 차단시킬 수 있는 개입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1.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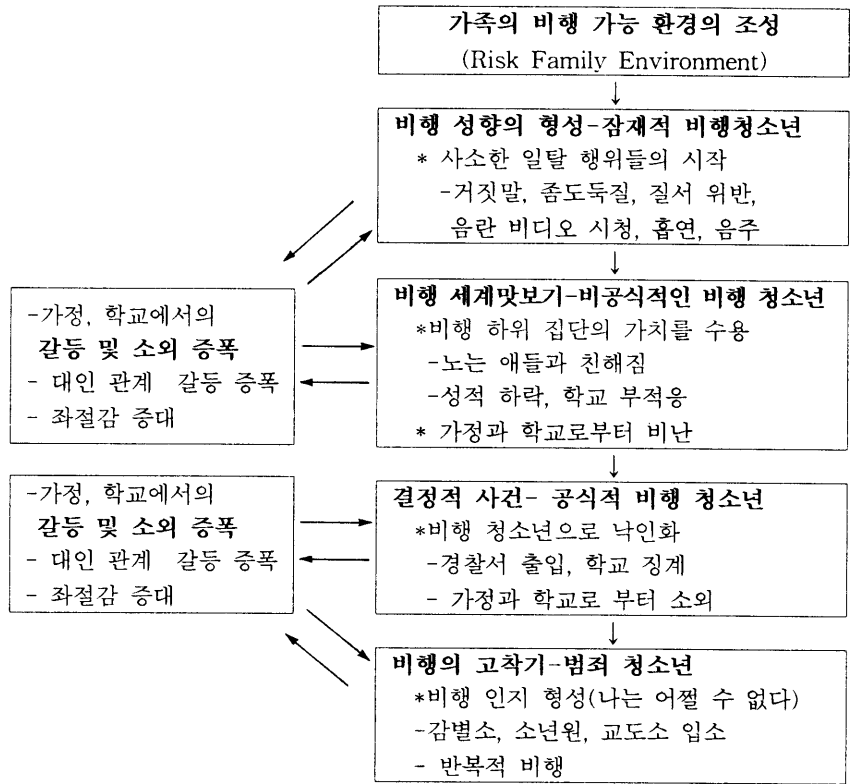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비행은 그 원인이 한가지 이상 중복된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비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게 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진다. 즉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야기된 비행은 반복되면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 양식을 변화시키고 점차 개인의 성격 구조를 파괴시키며, 나아가 정신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비행 원인이 중복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별 유형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명희, 오익수, 김진희(1995)는 비행 청소년들의 비행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되는 과정에는 비행 가능 환경을 조성하는 가족 환경이 존재하며, 이러한 가족 환경속에서는 잠재적 비행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훈육이 제공되지 못하여, 청소년들은 사소한 비행으로 부터 점차 습관적인 비행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몇 단계를 거쳐 일어나게 된다.

첫 단계에서는 부모의 적절치 못한 양육 방식이나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는 가족 구조가 자녀들의 비행을 유발하는 성격 형성이나 욕구 충족의 방법 등의 삶의 방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거나 비행 문화에 참여하도록하는 데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가족의 구조적·기능적 특성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실험적 비행을 하게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실험적 비행에 대한 적절한 지도 감독이나 훈육의 부재는 비행 억제력을 상실케하며 비행을 통해 얻게되는 만족감이 비행을 지속시키는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비행이 점차 고착화되기 시작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비행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되어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포 자기의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 상담에서는 비행의 원인 및 비행이 고착해 나가는 과정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비행과 관련하여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평가하여 적절한 개입방법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1〉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 과정(전명희 등, 1995)

2. 비행자의 심리적 특성과 주요 상담 과제

Weiner(1982)는 비행 행위자를 그 심리적인 조직에 따라서 **사회적인 비행자와 심리적인 비행자**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비행자들은 비교적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비행을 요구하는 하위 문화적 특성에 동조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칭한다. 반면 심리적인 비행자들은 심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탈 행동을 보인다. 심리적인 비행자들은 다시 세 집단-**성격적 비행자**, **신경증적 비행자**, **정신병적** 혹은 **기질적 비행자**-로 구분된다. 성격적 비행자는 만성적인 무책임성, 공격성, 무분별한 행동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신경증적 비행자는 인정 및 수용 욕구, 관심 추구의 욕구 등과 같은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행은 저지른다. 정신병적 기질적 비행자들은 판단 능력의 손상, 충동 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비행을 저지른다.

2. 비행자의 심리적 특성과 주요 상담 과제

이러한 맥락에서 Weiner(1982)는 비행의 원인에 따라 사회문제에 의한 비행(Sociological delinquency), 성격 문제에 의한 비행(Characterological delinquency), 신경증적 비행(Neurotic delinquency), 정신병적 혹은 기질적 비행(Psychotic and Organic delinquency)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비행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은 비행자에 대한 상담 전략이 상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상담은 내담자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 상담 시에는 우선적으로 비행의 원인(비행자의 심리적 특성)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비행 청소년 상담 방법과 전략이 비행 원인 유형에 따라 근본적으로 상이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중요하게 고려되거나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비행의 경우에는 비행 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체계의 정립이 중요한 반면에 신경증적 비행의 경우에는 내적 갈등의 해소 혹은 적절한 해소방법을 습득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성격적 비행의 경우는 도덕성 발달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상담과제가 된다. Weiner(1982)는 비행 청소년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비행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1 사회적 비행

2.1.1 특성

사회적 비행은 반사회적 행동 기준을 부과하는 하위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집단 문화에 동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행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비행은 행위자의 편에서 볼 때, 적응적인 행동으로서 욕구나 태도를 비행 집단 내에서 인정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비행은 단독으로 저질러지기보다는 집단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비행자의 경우 비행 행위를 통해 정상적인 문화규범을 통해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자아 존중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들의 비행을 “반사회적(antisocial)”, “정상적인(nomal)” “사회화된(socialized)”, “하위 문화적으로 이탈된(subculturally deviant)” 비행으로 보는 것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라고 하겠다.

사회적 비행자들은 대인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이것은 비행자들의 성장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의 성장과정을 살펴 보면, 유아나 아동기에는 적절한 양육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가족 관계에서 적절한 판단 능력, 자아 조절 능력, 대인 관계능력 등을 배우고 익힌다. 그러나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적절한 부모의 보호와 훈육 혹은 감독을 받지 못하는 반면, 반사회적인 동료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 비행 문화를 접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런 사회적 비행을 저소득층의 산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연구들은 이런 사회적 비행이 저소득층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적 비행자들 중의 많은 비율이 중상층의 가정 출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비행은 특수한 계층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가지는 열망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부조화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즉 사회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수단에 의해서 자신의 자존감, 소속감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 자신들의 자존감 및 소속감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하위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집단 중에 비행문화를 지니고 있는 집단을 사회적 비행 집단이라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행 문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이 나, 삶의 방식, 생활태도 등을 습득하지 못하고, 비행 행위가 지닌 왜곡된 가치 체계, 신념, 행동 양식 등을 학습해 왔으며,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 보상(수용, 인정, 자부심, 소속감)을 통해 강화되어 간다.

2.1.2 주요 상담 과제

사회적 비행자에 대해서는 비행 집단 이외에서 재미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상담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Amos, Manella, & Southwell, 1965 ; Eldefonso, 1973).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비행 청소년의 현재 행동이 자신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점의 인식, 학교에서나 직업 세계에서 비행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욕구와 바람을 성취할 수 있음에 대한 확신과 그 방법의 습득, 비행 집단의 압력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 소속감과 정체감을 제공해주는 비행 집단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지지체제의 형성, 이웃시민 위원회의 조직, 직업 증진 계획, 또래 대화 집단, 운동 집단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비행 청소년들이 현실 생활에서 청소년으로서의 합당한 지위를 새롭게 획득할

기회가 있음을 인식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소년원 등의 시설에 감금된 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 외부 세계에서의 삶과 직업적인 준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후 범죄를 예방한 실험적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Miller, 1965 ; Persons, 1967). 상담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출소이후에 사회에 나와 새로운 지위를 얻거나 고용의 기회와 연결되어야 한다(Weiner, 1982).

결론적으로 사회적 비행은 그 원인적 특성에 따라 비행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 체계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즉 이들에게 사회에서 인정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정체감을 확립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와 행동 양식 등을 교육시킴으로써, 이들이 새롭고 적절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사회 체제 속에서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목표(문화목표)를 재정립하고 이들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2. 비행자의 심리적 특성과 주요 상담 과제

2.2 성격적 비행

2.2.1 특성

성격적 비행은 비행자의 **비사회적(asocial)** 혹은 **반사회적(antisocial)** 성격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성격적 비행자들은 타인의 권리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타인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공격적인, 쾌락 추구적인 충동을 즉각적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이들의 행동은 “**비사회적(asocial)**”, “**미사회화(unsocialized)**”, “**부진된 사회화(undersocialized)**” 비행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성격적 비행자들의 주요 특성은, 타인에 대한 **동일시 능력**이 부족하며 기본적으로 **양심**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나 감정을 짓밟으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점이다. 즉 기본적으로 사랑이나 인정 등의 정서적 측면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나 친지를 비롯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특성은 성격적 비행자들의 성장과정과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다. 성격적 비행자의 많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부모 및 의미있는 타자로부터 거절을 경험했거나 애정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타인의 감정이나 권리를 공감하거나 대인 관계에서 온정과 동정을 경험

할 수 있는 정서적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성격적 비행자들은 충동적이며 쾌감을 추구하며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지향적인 행동에 대한 제한된 능력을 보인다(Jenkins, 1960 ; McCord & McCord 1964 ; Schalling, 1978). 즉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지연하거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자아 통제능력의 부족, 장기계획 능력의 부족, 경험으로부터의 배울 수 있는 능력의 부족 등의 특징을 보인다(Cloninger, Reich & Guze, 1978 ; Hare & Cox, 1978 ; Robins, 1978).

성격적인 비행자들의 경우 아동기의 부적절한 양육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아동후기나 청소년기의 부적절하거나 비일관적인 부모의 훈육과 감독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문제시되는 훈육의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덕목에 대해서 불일치할 때, 혹은 부모 내에서 훈육하고자 하는 덕목에 대해서 혼란이 있거나, 덕목을 혼용함에 있어서 비일관적인 경우 등이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훈육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아이들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처벌에 있어 지나치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경우나, 과도하게 자녀의 권리를 박탈하여 훈육이 교육적이기보다는 처벌인 경우이다. 이러한 방식의 훈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공격적이고, 쉽게 발작하게 하며, 그들의 행동을 내적인 통제보다는 외적인 통제에 의해서 규율하게 된다(Elkind & Weiner, 1978 ; Hoffman, 1977, 1980 ; Jurkovic & Prentice, 1977).

2.2.2 주요 상담 과제

성격 비행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반사회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치료적인 접근이 쉽지 않으나, 이들에게 개인적인 충성심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것이 치료의 핵심을 이룬다. Aichhorn(1925)은 아동 초기의 장기간의 감정적 유대의 박탈을 보상할 정도의 철저히 허용적 분위기의 제공이 치료의 핵심을 이룬다고 하였다. 신체적인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 공격성을 억제하기 위한 놀이를 하면서 지속적인 개인적 대화를 통해서 치료에 성공할 수 있다.

성격비행자들을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진단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Cleckley(1976)가 정의한 **반사회적 성격장애증후군**의 다음 증상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MMPI, CPI, EPI 등의 검사 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성격 비행자를 변

별할 수 있다.

2. 비행자의
심리적 특성과
주요 상담 과제

Box 5-1. 성격적 비행자의 특성

- 1) 피상적으로 상당한 매력과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지능
- 2) 망상 또는 기타 비합리적 사고가 많음
- 3) 불안이나 다른 '신경증' 증상이 없음 : 상당히 침착하고 말이 유창함
- 4) 신뢰롭지 못하고 책임을 등한시 함
- 5) 진실되지 못하고 성실치 못함
- 6) 자책이 없고 수치심이 없음
- 7) 적절한 동기가 없고 잘 계획되지 못했으며 불가해한 충동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반사회적 행동
- 8) 판단력이 빈약하고 경험을 통해 학습하지 못함
- 9) 병적으로 이기적이고, 완전히 자기 중심적임 : 참된 사랑과 애정을 나눌 능력이 없음
- 10) 깊고 지속적인 감정이 일반적으로 빈곤함
- 11) 참된 통찰력이 부족하고 제3자의 안목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능력이 없음
- 12) 특별한 배려, 친절 및 신뢰에 대해 배은망덕함
- 13) 천박하고 무례하며, 기분이 자주 바뀌고 잦음

성격 비행자들이 변화에 저항적이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의 **도덕판단능력의 발달이 지연된** 결과다. 따라서 성격적 비행자들은 도덕성 발달의 지체가 비행의 한 원인이 된다. 즉 이들은 미성숙(immature)하거나 혹은 피상적인(superficial) 도덕적 판단 수준에 머물어 있거나, 사고 구조가 현저하게 **자기 중심적 편파성(egocentric bias)**에 기초한 나 중심(me-centeredness)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Likona, 1983),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사회적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물론 도덕적 판단수준의 향상이 곧 바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줄이는데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나 중심성에서 오는 자기

중심적 편견(egocentric bias)이나 혹은 인지적 왜곡(cognitive distortion)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Gibbs, Potter, & Goldstein, 1995). 인지적 왜곡이나 자기 중심적 편견은 자신의 행위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거나 비행에서 오는 불안이나 죄책감 등을 방어하기 위해 형성된 독특한 인지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구조는 타인들(상담자)과 신뢰롭고 개방적인 관계 속에서 타인들의 비판적 수용 자세를 통해 교정될 수 있다.

따라서 성격적 비행자 즉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치료하거나 교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발달이 지연된 도덕판단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령수준에 적절한 도덕성 발달의 향상을 위해 사회적 조망을 획득(social perspective-taking)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고도 집중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Gibbs, et. al., 1995).

성격적 비행자들에 대한 상담은 이들의 도덕성 판단 능력의 발달이나 자기 중심적 사고 혹은 인지적 왜곡의 특성을 변화시켜 주기 전에는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상담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3 신경증적인 비행

2.3.1 특성

신경증적인 비행은 비행자가 자신의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저질러지는 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신경증적 비행은 주로 단독으로 저질러지는 경향이 있으며, 만성적이지는 않고 급작스럽게 일어나며, 상황적으로 결정되는 범칙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런 비행의 시발은 개인의 긴장, 분노, 낙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다가 즉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비행은 “급작스러운(acute)”, “불안한(anxious)”, “돌발적인(accidental)”, “상황적으로 촉발된(situationally provoked)” 비행이라고 한다.

신경증적 비행자들은 이전의 생활에서는 동조적이고 잘 통제되는 청소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주변의 사람들은 청소년들의 돌발적인 변화를 보고 대개는 놀라게 된다. 신경증적 비행은 일련의 거절, 거부, 상실, 낙담 끝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쉽게

확인되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비행은 장기화되어 사회적 비행이나 성격적 비행자가 될 수도 있다.

신경증적 비행자들 중에는,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두렵고 당혹스러운 문제를 경험하거나 자신들의 도움 요청이 번번히 무시될 때,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극적인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비행자의 행동은 주변인에게 문제가 있음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비행은 간과되거나 무시받아 온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 이런 욕구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욕구는 타인의 인정, 찬탄, 조력받고 싶은 마음이다(Weiner, 1982). 관심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비행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 데, 비행이 발각되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비행이 발각되어, 부모, 교사, 경찰, 친구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무모하고도 대담한 행동들 즉 가게 주인 앞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나 경찰 차를 앞지르는 행위 등은 이런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친 경우에 그 물건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 아님에도 훔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신경증적 비행 청소년이 되는 여자 청소년들 중에는 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종종 인정에 대한 욕구가 표현되는 데, 이성과의 인관계를 형성하고 임신하는 것은 동료 집단에서 주의를 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Gottschalk, Titchener, Piker & Stewart, 1964 ; Visotsky, 1966). 한편, 자신들을 적절하게 돌보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반항과 복수심이 초기 임신의 동기라는 주장도 있다(Barglow, Bornstein, Exum, Wright, & Visotsky 1967 ; Meyerowitz & Malev, 1973 ; Roberts, Abrams & Finch, 1973). 성적인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접촉을 통해 사랑과 인정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성적 관계를 시도하는 것이다.

신경증적 비행 청소년의 가족 관계를 살펴 보면, 이들의 행동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신경증적 비행 청소년의 가족들은, 성격적인 비행자들의 가족들과는 달리, 상당히 안정적 분위기 속에서 상호 애정적이며 법을 준수하는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의 성장이나 가족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애정과 관심이 변질될 때, 신경증적인 비행이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는, 자녀들의 학력이 상승함에 따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제공하기보다는 성적에 의해서 자녀를 평가하

2. 비행자의 심리적 특성과 주요 상담 과제

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자녀가 원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제공되지 못하여,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항하고 불만을 갖게 되어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

2.3.2 주요 상담 과제

신경증적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는 흔히 이들에게 **심리적 갈등**이 있거나, 혹은 좌절을 겪게하는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좌절감이나 불안감 등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을 상담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내면적인 갈등이나 불안의 원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나아가 자신의 부적절감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학습케 할 필요가 있다.

Weiner(1982)는 신경증적 비행 청소년의 치료를 위한 과제로 인정과 존경을 경험할 수 있는 **상담관계의 형성**, 비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의 자각, 비행이 궁극적으로 자기 패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의 강구 등을 들었다. 특히 신경증적 비행의 경우에는 그 주요 원인이 적절히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갈등, 좌절감, 분노 등의 부적절한 정서 등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에는 갈등과 불만 요소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함양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4 정신병적 기질적 비행

2.4.1 특성

정신병이나 기질적 뇌 이상은 일부 비행을 설명할 수 있다. 정신병적 비행의 경우, 환경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지각하고, 행동의 결과에 대한 손상된 판단 능력,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의 부족을 보이는 정신분열증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한편, 기질적 비행의 경우, 미소뇌장애, 주의집중장애, 충동조절장애,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특징을 보이는 청소년이 나타내며 갑작스럽게 화를 폭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정신병이나 기질적 뇌 이상으로 인한 비행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여년 동안 소년 비행으로 입상실에 의뢰된 아동들에 대한 한 연구에서, 1/3이 중추 신경 체계의 손

상이나 정신병 혹은 양자의 특징을 모두 보였다(Lewis, 1976a ; Lewis & Balla, 1976).

2. 비행자의 심리적 특성과 주요 상담 과제

2.4.2 주요 상담 과제

정신적 장애(정신분열증 등)에 의한 비행의 경우에는 의학적 처치와 더불어 매우 지지적인 심리치료가 병행되어 자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현실을 올바르게 지각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현재의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적 과업**(학습, 대인 관계 등)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청소년 비행자들을 환경적 특징, 심리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심리적 구조 혹은 특성과 상담 과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은 이론적인 구분이며,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 비행자들은 위의 4가지 혹은 3가지 혹은 2가지 유형이 복합되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행 청소년의 유형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아동들이 청소년시기에 다양한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신경증적인 비행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반면,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들을 적절히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소외시킴으로서 그들끼리 모여 비행 하위 집단을 형성하고 유지시킨다. 우리 나라 청소년 비행 중에서 **지위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위와 같은 신경적인 비행과 사회적 비행이 복합된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다.

비행자의 특성이 복합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 비행 청소년이 보이는 주요한 특성이 무엇이나에 따라 상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요인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의 비행행위를 통해, 그의 개인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담자의 우선적인 임무라 할 것이다. 즉 비행 청소년의 특성이 성격장애가 근본적인 원인라면 무엇보다도 도덕 발달을 촉진시키고 인지적 왜곡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행자의 특성이 내적 갈등과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원인이 된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평가하여 이에 알맞는 상담의 방법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비행의 원인 유형과 주요 원인 및 비행을 통해 추구하는 것을 중심

으로 보면 <표 5-1>과 같다.

<표 5-1> 비행 원인 유형별 비행 주요원인 및 주요상담 과제

비행 원인 유형	비행의 주요 원인 및 과정	주요 상담 과제
사회적 비행	비행 가치 체계, 신념 체계 · 비행 하위 문화 · 사회 학습 · 청소년기의 가정의 감독 부재	· 적절한 가치관, 신념 획득 · 적절한 인정과 수용을 받을 수 있는 행동 습득 · 사회적 목표의 재정립 · 목표 성취 방법 교육
성격적 비행	성격장애 · 양심과 수치심의 결여 · 이기적이며 지나친 자기중심성 · 타인에 대한 인간적 신뢰의 결핍 · 진실성, 성실성의 결여 · 깊고 지속적인 감정의 빈곤 · 자기 자각과 참된 통찰 결여 · 좌절에 대한 인내력 결핍 · 낮은 자성 수준	· 도덕성 발달 · 자기 중심적 편견의 교정 · 왜곡된 사고의 교정 · 타인의 조망획득 · 공감 능력의 함양 · 사회적 기술 습득
신경증적 비행	심리적 좌절 및 갈등 · 좌절, 분노, 거부, 낙담, 심리적 갈등 · 문제해결능력의 결핍 · 타인의 인정과 수용의 결핍 · 가족의 조건적 거부	· 갈등의 원인 통찰 · 행동결과 통찰 · 부정적 감정의 해소 · 새로운 행동 전략 습득
정신병적 기질적 비행	· 정신병 · 뇌의 기질성 손상 · 염색체의 이상	·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지각 · 자아의 회복 · 불안이 감소 · 지지적 관계 형성 ·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 제시

3. 상담 개입전략

3.1 비행 청소년 평가

비행 청소년 상담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현재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는 심리적 구조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된 비행 원인 유형을 밝혀 이에 적합한 상담 목표와 전략을 계획할 수 있다.

비행 청소년의 원인 특성을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검사가 활용된다. 성격적 비행을 진단하기 위하여 MMPI, CPI, EPI, POS 등이 검사도구가 활용된다. 특히 성격적 비행을 변별하기 위해

MMPI의 임상 척도중 반사회성(Pd) 척도와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의 사회화(So)척도, 공감 척도 등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CPI는 사회화척도와 더불어 자기-통제척도(SC), 책임감척도(Re) 등이 비행과 관련된다(Hindelang, 1972).

한편 Eysenk와 Eysenk(1975)에 의해서 개발된 EPI(Eysenk Personality Inventory)는 신경증 척도(N), 외향성 척도(E), 정신 병리 척도(P), 거짓말 척도(L), 범죄 경향 척도(C) 등으로 구성되어 특히 N, E, P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범죄 경향과 관련된다.

10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POS(Personal Opinion Survey)는 성격적 비행, 신경증적 비행, 사회적 비행에 대한 변별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척도가 비행의 3가지 유형을 분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는 있지만 다른 검사 도구들의 결과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다(Quay & Parson, 1971).

이러한 검사 도구와 면접 자료 등에 기초하여 비행 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이 되는 특성을 평가하고, 현재 중요하게 기능하는 개인 내적 특성 유형에 따라 상담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2 사회적 도덕성 발달의 지연

비행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도덕성 발달의 지체 즉 미성숙이다, 인지이론가들에 따르면 반사회적 행동은 적어도 두가지 측면의 **사회 도덕성 발달**에서의 지체와 관련된다. 즉 비행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거나 피상적인 도덕 판단과 현저한 정도의 **나 중심성**(me-centeredness ; Likona, 1983), 혹은 **자아중심적 편견**(egocentric bias)을 지니고 있다(Gibbs, et al., 1995). 이러한 인지구조의 특성은 비행 청소년들이 타인의 조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켜버린다. 이러한 수준에서는 처벌과 복종(1수준)과 소박한 수단적 쾌락주의(2수준)가 특징적이다.

비행의 원인이 도덕성 발달의 지체에 있다는 주장은 치료적 개입의 전략을 분명히 해 준다. 즉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치료는 **발달 지체**를 교정하는 것이다. 이들의 사회적 도덕성 발달을 자신들의 연령 수준에 적절한 수준까지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사회적 조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고도 집중적으로 제공해야 한다(Gibbs et al., 1995). 이를 위한 상담 과정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방법과 미시적 차원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거시적 방법으로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비행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자신이 속한 학교나 가정 혹은 집단의 운영규칙을 스스로 제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예, Duguid, 1981 ; Higgins, 1995 ; Higgins & Kolberg, 1989). 미시적 방법에서는 상담자가 타인의 조망을 획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적절한 **사회 도덕적 딜레마상황**이나 **사회적 문제상황**을 주고 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토론을 한다. 이러한 활동이 소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다.

아래에 제시되어있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 철수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가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타인의 조망 체계를 수용할 기회를 얻거나 보다 성숙한 도덕판단기준을 지닌 상담자의 조망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상담자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보다 성숙한 타인의 조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의 미성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지 발달의 단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ox 5-2. 사회 도덕적 딜레마 상황

철수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와서 오랫동안 혼자 외롭게 생활을 했다. 철수에게 이러한 생활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용호가 그에게 다가와 자기를 소개하면서 함께 농구할 것을 권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친해졌고 때때로 방과 후에 함께 농구를 하곤 했다. 철수는 용호와 친해지면서 새로 전학온 학교에서 즐겁게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에 철수는 혼자서 농구를 하게 되었고, 그가 농구를 하는 모습을 지켜 본 학교 농구팀이 함께 농구를 할 것으로 권했다. 철수는 농구팀에 가입을 했고, 방과 후에 주로 이들과 어울려 농구를 하였다. 농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팀원들과 어울렸고 여행도 함께 하곤 했다. 철수는 자연스럽게 용호와 멀어졌다.

하루는 용호가 철수를 자신의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 그는 그동안 다소 외롭게 학교생활을 했다. 철수는 용호에게 가능하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나 농구팀원들이 주말에 함께 대단히 즐거운 곳으로 놀러 가자고 했다. 그들은 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함께 갈것으로 믿겠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그 날은 용호로부터 생일 초대를 받은 날이다.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철수는 팀과 함께 가야하는가?
 - 1) 그렇다
 - 2) 용호의 생일 잔치에 가야 한다
 - 3) 결정을 못하겠다
2. 철수는 용호에게 함께 갈 것을 권했으나 용호는 싫다고 했다. 그렇다면 철수는 팀과 함께 가야하는가?
 - 1) 그렇다
 - 2) 용호의 생일 잔치에 가야 한다
 - 3) 결정을 못하겠다
3. 철수는 자신이 팀과 함께 가지 않아 팀원들이 자신이 팀원으로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실망할 경우, 철수는 팀을 따라 가야 하는가?
 - 1) 그렇다
 - 2) 용호의 생일 잔치에 가야 한다
 - 3) 결정을 못하겠다
4. 한명의 옛 친구와 팀의 친구들과 누가 더 중요한가?
5. 만일 철수와 용호가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용호는 팀을 따라 가야하는가?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수준이 자신의 연령에 맞는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해도 곧 비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도덕 발달수준을 끌어 올리긴 했지만 비행 청소년의 자기 중심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비교적 성숙한 수준의 도덕발달수준에 올라 있는 청소년들 중에 비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는 이들의 자아 중심적 사고가 아직도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 중심적 사고와 이와 관련된 왜곡된 인지는 사회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적절한 기대를 고려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경우에 적절한 수준의 도덕성 발달수준에 도달한 청소년들도 비행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비행 청소년들의 사회적 도덕성 발달에 조력할 뿐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상담자와 비행 청소년 간의 치료적 관계형성이 주요한 기

능을 한다. 상담자와 비행 청소년 사이에는 개방적이고 신뢰로우며 응집력있는 관계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경청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회적 딜레마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Arbuthnot & Gordon, 1986). 이 과정에서 역시 사소한 다른 생각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의 훈련이 개입될 필요가 있다.

3.3. 왜곡된 인지적 특성

아동들이 자기 중심적 편견을 지닌 채 성장하게 되면 그러한 편견은 **일차적인 인지적 왜곡(primary cognitive distortion)**으로 굳어진다. 인지적 왜곡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관한 부적절하거나 합리화시킨 태도, 사고, 신념 등을 의미한다(Beck, 1976 ; Ellis, 1977 ; Gibbs, 1993). 일차적인 인지적 왜곡은 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게 된다.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인지적 왜곡이나 **사고의 오류**를 지니는 특성이 있다.

자기 중심적 사고오류(self-centered thinking errors)는 자기 중심적 사고나 일차적인 인지적 왜곡으로부터 파생된다. 자기 중심적 사고는 타인의 적절한 기대나 견해가 고려되지 않거나 전적으로 무시되면서, 자신의 견해, 기대, 욕구, 권리, 감정 등에 맞추는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사고의 특성으로 인해 타인의 조망을 고려할 수 없게 하고 자기 중심적 편견을 지속적으로 지니게 한다. 예를 들어 “나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자격이 있다”는 식의 사고체계이다. 또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뿐이고 규칙이나 규범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과 같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청소년들은 마땅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어, 그러한 욕구가 좌절될 때 저항이 매우 강하고 그러한 상황을 매우 불공정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Gibbs, 1994).

자기 중심적 편견과 일차적 인지왜곡은 충동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이러한 경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되면 가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나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공감능력**(Agee, 1979 ; Henggeler, 1989)과 일관성있는 자아감을 유지하거나 행동과 자아 개념간의 불일치 혹은 **인지불협(cognitive dissonance)**을 피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필연

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Blasi & Oresickm 1986). 특히 타인에게 준 해가 분명하고 무시하기 어려울 때 반사회적 행동을 한 청소년들은 가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 야기된 죄책감(Miller & Eisenberg, 1988)과 타인에게 정당치 못하게 해를 입힌 행동과 자신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아 개념 사이에 파생된 인지불협으로 커다란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일종이 방어기제처럼 이차적 인지왜곡현상이 나타난다. 즉 세상을 가장 나쁜 상황으로 왜곡하여 지각(assuming the worst : 자신의 비행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자신으로서도 불가항력적이다, Dodge, 1980)하거나,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그 사람은 그런일을 당해 마땅하다. 이번 경험은 그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 Skyes & Matza, 1957),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의 결과를 최소화하여 지각하려는 **이차적 인지왜곡**(secondary cognitive distortion)을 초래한다. 이러한 이차적 인지왜곡은 비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도덕적 자기 평가의 힘을 무력화시킨다. 즉 이차적 인지왜곡은 죄책감을 줄이거나 인지불협을 정도를 줄여 상대적으로 죄책감을 적게 느끼게하여 도덕적 판단의 비행 억제기능을 약화시킨다(Bandura, 1991).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자의 개입은 이들에게 행동을 하기전에 사고하는 능력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인지적 결핍이나 왜곡을 감독하고 교정해 주는 기술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비행 청소년의 사고오류를 교정하기 위해서 분노의 부절한 폭발상황을 고려하여, 분노가 폭발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기능하고 있는 사고의 오류를 찾아내어 논의하면서 교정해준다.

“미숙이는 자신의 아파트 주방에 있었다. 그녀의 친구 영숙이가 미숙이에게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며 그녀의 어깨를 밀어 제쳤다. 미숙이는 화가 났고 급기야는 영숙이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화가 난 영숙이는 주방에 있던 칼을 들어 영숙이를 찔러 심한 상처를 입혔다”

이러한 상황(분노의 감정을 부적절하게 폭발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상담자와 청소년은 그 상황에서 가해자인 미숙이의 생각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생각에서의 인지적 오류를 밝히고 사고의 오류를 확인한 후에 행동 특성을 논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논의될 상황은 내담자의 실제 상황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3.4 사회적 기술의 결핍

비행 청소년들의 또 다른 특성은 사회적 기술의 부족이다.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이란 곤란한 대인관계상황에서 보이는 균형있고 건설적인 행동을 의미한다(Gibbs et al., 1995). 예를 들면 반사회적 행동을 강요하는 또래들의 압력에 정상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압력을 극복하는 행동이나, 자기 때문에 화가 난 사람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행동, 혹은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완화시키는 행동을 의미한다.

건설적인 사회적 행위는 타인의 조망을 획득하였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 중심적 편견을 벗어날 수 있고,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사고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술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적절한 기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관점이나 감정 혹은 적절한 기대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의 권리, 기대, 느낌 등을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와 기대, 느낌 등을 존중한다. 따라서 이들은 공격적이지도 복종적이지도 않다(Carducci, 1980).

청소년들에 사회적 기술을 학습시키는 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성되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행동 특성을 밝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담자나 훈련자가 바람직한 사회행동을 시범보이고, 세 번째단계에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시도해 보게 한 후, 네 번째 단계에서 그러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새로 습득한 행동을 일상 생활에서 시도해 보는 것이다.

사회적 기술에는 주장적 자기표현,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갈등 관리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국내 프로그램에는 홍경자(1988)의 “자기표현 및 주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최웅, 유재만, 홍경자(1980) 등의 “자기 발표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변창진, 김성희(1980) “주장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수원, 박광엽(1992)의 “갈등관리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의사 소통 기술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는 이형득(1984)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3.5 분노 혹은 좌절감의 관리

분노는 고통스러운 자극이나 목표행동이 좌절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Izard, Hembree, & Huebner, 1987). 분노의 감정이 자기

를 방어하거나 적절한 자기주장을 하거나 혹은 장애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한, 이는 매우 적응적 반응이다. 그러나 분노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정당하지 못한 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된다면, 이는 부적응적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표현이다. 비행 청소년들 특히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이들에게 자기 통제 능력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분노 통제 훈련에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자기-교수훈련(self-instructional training)에 근거해서 개발된 것이다(Novaco, 1975). 자기-교수훈련이란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능력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사고 과정” 또는 “내재적 진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비합리적인 자기 진술을 합리적인 자기 진술로 바꾸어 사용하게 하는 훈련이다(Meichenbaum, 1977). 이것은 행동이란 내적 인지 요인인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근거에서 출발한다(Luria, 1961).

Luria(1961)에 따르면 자기 교수 훈련 방법은 5단계를 거치는 데, 첫째는 인지적 모델기법으로써 어린이는 성인모델이 소리내어 혼잣말(자기 교수)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관찰한다. 둘째는 외적 지도인데 어린이는 성인모델이 말하는 자기교수 내용을 그대로 따라 말하면서 동시에 성인모델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과제를 수행한다. 셋째는 외적 자기 지도이며, 이것은 어린이가 모델의 시범없이 혼자서 큰 소리를 내어 모델이 한 것과 꼭 같은 자기교수를 하면서 과제를 수행한다. 넷째는 외적 자기 지도의 강화 기법으로써 어린이는 자기 교수의 내용을 중얼거리면서 과제를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적 자기 교수로 어린이가 내적 언어를 통하여 자기를 지도하면서 과제를 수행한다.

Novaco(1975)는 자기-교수훈련 방법을 분노 통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가 적용한 자기-교수훈련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인지적 준비 단계로써 피훈련자는 분노의 인지적, 생리적, 행동적인 면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기능과 특히 그것의 선행 조건에 관해 훈련받는다. 제2단계는 기술 습득 기간인데, 피훈련자는 분노 자극의 반응에 이용할 대처 기술을 배운다. 세 번째 단계인 적응훈련은 습득한 대처 기술-특히 자기 지시의 기술-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분노를 상상하여, 그러한 상황에서 대처기술을 활용한다. 이러한 자기교수법으로부터 출발한 분노 통제 훈련은 인지-행동적 접근을 활용한 기법(김용태, 박한샘, 1995)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원리는 비행 청소년의 불안감 소나 충동조절을 위한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3.6 기 타

비행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 인지적 왜곡, 사회적 기술 습득을 위한 상담전략과 더불어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정체감 확립이나, 안정적 자아 개념의 형성, 심리적 갈등의 원인과 대처행동의 적절성에 대한 통찰,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실행계획수립 등을 위한 상담자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특히 비행 청소년들은 비행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장기적인 부적응으로 인하여 가족 관계, 동료 관계 등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지닐 수 있고, 학업 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과도하게 겪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상담하고자 할 때는 가치관 정립, 정체감 확립, 학습 능력의 향상, 적절한 목표 수립과 계획 등을 위해 조력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인 상담 방법

비행 청소년이 현재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지니도록하는 데는 개인적 특성과 가족의 양육 배경들이 상호 작용을 한 결과다. 그러나 비행 청소년 상담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은 물론, 이러한 특성을 유지시키는 환경적 요인 특히 가족관계, 교사와의 관계, 대인관계 등을 고려한 상담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비행 청소년 개인에 대한 상담적 노력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을 변화시켜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4.1 부모 및 가족상담

비행 청소년 상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누구를 내담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내담자는 정신 병리나 심리적 문제를 지닌 개인이 내담자가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모나 교사 또는 친구들과의 면접을 통해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는 하나 직접적인 상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상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이들은 주변 성인

들과의 관계가 부정적이면서도 아직도 발달 특성상 이들에 대한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성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이들의 사고나 행동이 부모에게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에 조력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을 통하여 이들의 **심리적 환경**을 변화시켜 주려는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구본용, 1993). Caplan(1964)은 이러한 상담 활동을 2차적 예방 활동이라 하였다. 즉 학교나 가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어 문제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특히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는 부모와의 상담이 더욱 요구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의 비행은 부모의 적절치 못한 양육 과정에서 파생되고, 또한 비행을 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절치 못한 대응 방법이 이들의 비행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비행 청소년을 상담하는 과정에서의 그들의 부모를 지원세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행 청소년들의 부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점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 내담자는 청소년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에 비행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탈로 신체적·심리적으로 피해를 겪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상담자가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을 우선적으로 탓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상담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 부모들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포기하고도 싶은 현 상황을 수용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상담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상담자는 부모와 협조적이고 촉진적인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의 비행과 가족 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자녀의 비행의 원인이 전적으로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을 주어 부모가 과도한 죄책감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들이 가족의 양육 방식과 자녀의 비행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면 자녀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행 자녀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의 단순한 충고나 조언 등의 교육만으

로 부모가 새로운 양육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부모 자신에 대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상담자의 중요한 능력이다. 왜냐 하면 부모들이 내면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교육 등으로 새로운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넷째, 부모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상담자가 부모나 자녀 사이에서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제3의 상담자에게 부모나 청소년을 의뢰하여 두 명의 상담자가 협조적인 관계에서 상담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상담자는 부모 또는 청소년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들은 서로의 양해가 없으면 부모나 청소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아 상담 과정의 중요한 원칙인 비밀 보장 문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비행은 쉽게 교정되거나 제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그들의 비행이 나름대로 어떠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비행 청소년들은 가족들로부터 끊임없는 갈등과 압력 혹은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비행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행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 가족이 개입되는 가족상담이 효과적이다.

4.2 개인 상담시 고려 사항

비행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담의 과제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관계의 형성,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의 문제 및 자신의 특성 지각, 예측 및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 삶의 희망 및 목표의 제시, 지속적인 유대 관계의 수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관계의 형성

흔히 관계의 형성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적 유대감을 기초로하여 공통적인 목적을 향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어떤 상담이든 그렇겠지만, 비행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는 정서적 유

대감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비행 청소년들은, 그 유형, 수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관계형성에 문제가 있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비행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해 타인과의 신뢰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타인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타인의 양육 및 돌봄을 신뢰하거나 기대하지 않으며, 타인의 선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비행 청소년들의 일부는 관계의 상실을 경험하였는 데, 예를 들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혹은 부모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 타인과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타인과의 안정적이고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게 되면 다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비행 청소년들의 일부는 관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 그것은 훈육의 과정에서 많은 신체적 처벌, 인격적인 모독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곧 그들에게 복종하거나 얹매이는 것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권위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힘있는 집단과의 관계 형성 자체를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경험하게 된다. 또한 비행 청소년들의 일부는 관계 맺는 것을 손해보는 것, 혹은 피해보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는 데 이것은 다양한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에 심각한 손해 혹은 피해를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비행 청소년들의 일부는 진실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관계를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즉 진실한 관계에서 타인을 만나는 경험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얻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 욕구나,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비행 청소년과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담 초기 뿐만 아니라 상담 과정 내내 주의해야 할 것이다. 비행 청소년들과 효과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상담자가 제공해야 하는 태도와 활동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무조건적 긍정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행동 여하에 관계없이 비행 청소년을 하나의 인간으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긍정적인 관심, 배려, 따뜻함**, 최고로 대우받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 긍정적**인 대우이다. 이를 위해서

상담자가 다음과 같이 활동할 필요가 필요하다. 먼저 따뜻하고 정중하게 맞이할 필요가 있다. 상담 시작 전에 미리 기다려면서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 프로그램 시작 전에 차를 함께 마시는 활동 등도 도움이 된다. 상담 과정 중에 적절한 존대어 등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계가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형성

비행 청소년들의 많은 경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다른 제도권에서 항상 억압되었고, 제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내기 보다는 숨기고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억압된 감정이나 욕구가 적합하게 표출되기 위해서는 비행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행 청소년들은 먼저 반항, 저항, 위협조, 수동성, 분노, 좌절 등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먼저 보이게 될 것이다. 상담자들은 이들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 이면에 내재된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할 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시킬 필요가 있는 데, 특히, 집단 상담의 경우, 비행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감정, 욕구 뿐 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의 욕구가 동시에 존중되어야 함을 설명함으로써 한계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비행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가 자동적으로 억제하는 경향으로 인해, 상담 초기에 관계 형성 및 감정이나 문제의 탐색을 위한 언어적인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비행 청소년들이 참여자 간에 혹은 참여자와 상담자간에 인간적인 교류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오락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상담 초기에 관계 형성을 위해 운동을 같이 하거나 노래를 같이 부르는 활동 등을 통해 상담자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4) 상담 과정에서의 책임감의 강조

비행 청소년들과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비행 청소년들로 하여금 상담의 목적을 향해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은 비행 청소년들이 상담 과정에 자발적으로 찾아오기 보다는 강제적인 권유를 받아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참여의 동기가 그렇게 높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은 문제상황이 부모나 교사 혹은 사회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문제해결은 자

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좌절하는 경향으로 자신이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이 변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상담자 혹은 집단 상담 리더는 비행 청소년들로 하여금 현재의 문제상황, 혹은 곤경에 대해서 비행 청소년 자신이 공헌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며, 자신들이 변화됨으로써 문제상황이 개선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문제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잠재적인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와 의의를 가지는 지를 경험하게 하고,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가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게 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인 기술의 교육

비행 청소년들의 경우 행동의 절제, 행동에 대한 자기 책임감, 타인의 감정이나 권리의 존중, 타인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시간의 엄수, 동료에 대한 배려,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완수하는 것 등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 태도와 행동 등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의 상담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타인과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다양한 규칙과 사회적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비행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은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에 직접 포함시킬 수 있으며, 집단 상담의 규칙을 설정하는 과정과 집단 상담 내의 규칙을 준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킬 수 있다. 집단 상담자들은 초기 과정에서 집단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참석자들 집단 상담이 즐겁게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규칙들이 있고,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그것이 지켜졌을 때에 어떤 혜택이 있고, 그것이 위반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집단 상담 내내 이를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인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습득하도록 도울 수 있다.

집단 상담에서 규칙의 준수 훈련 과정은 엄격하되 수용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상담자는 집단원이 규칙을 잘 지키도록 관찰하되, 위반자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위반자가 왜 처벌

4. 일반적인 상담 방법

받을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탐색하고, 처벌받는 행동을 하게 된 집단원의 심리 역동을 이해하여, 집단원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비행 청소년 상담에서 집단 상담 규칙으로 포함해서 교육시켜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시간을 지키는 것

- * 집단 시작 시간 지키기 : 집단원은 집단이 시작하는 시간을 엄수한다.
- * 집단시간 지키기 : 집단원은 집단 상담 스케줄에 따라서 행동하며, 집단 상담 시간에 허용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 휴식 시간 지키기 : 집단원은 집단 상담 스케줄에 따라서 휴식 시간을 엄수한다.

- 타인의 감정 및 권리를 배려하는 것

- * 타인이 말할 때 경청하기 : 타인이 말할 때,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적절한 경청 반응을 보인다.
- * 타인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기 : 타인이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않도록 한다.
- * 타인의 말에 끼어들고 싶을 때는 적절한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허용하면 이야기한다.
- * 타인의 말에 비난이나 비판하기 않기 : 타인의 감정이나 경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 * 타인의 외모 등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놀리지 않기

-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기

- *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경험한다.
- *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언어적으로 표현한다.

3) 문제 해결 능력 증진

많은 비행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친구, 학교, 사회 등의 주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신과 주변 환경을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형성하게 되어 비행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의 상담 과정은 비행 청소년들이 다루어야 할 주변 환경과의 문제들이 무엇이 있으며, 그 문제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인식하게 하며, 그 문제상황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행 청소년들이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 영역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족

가) 가정내 폭력 상황에 대처하기

많은 비행 청소년들은 부모 및 형제에 의해서 신체적, 정서적, 인격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비행 청소년들은 대체로 이러한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함으로써 가정내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비행 청소년들이 가정내 신체 폭력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그 결과를 인식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한다. 즉 가정내에서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폭력을 경험하는지를 인식시켜 폭력적 상황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폭력, 인격적 폭력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그 결과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돕는다.

나) 긍정적인 감정, 욕구의 표현하기

비행 청소년들은 가족들과의 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긍정적인 감정과 욕구를 가지는 반면, 그러한 감정들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행 청소년이 자신들의 긍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수용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가족들로부터 소외감과 거부감을 깊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이 가족들에게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자각하고 수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적합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부모 및 형제를 수용하기

비행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부모 및 형제에게 분노, 적대감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부모나 형제들을 모순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이들이 바라는 부모상 혹은 부모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만 부모를 바라보기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비행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여러 가지 약점과 모순을 가질 수 있는 인간으로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모를 용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가족의 긍정적인 욕구에 반응하기

부모 및 가족들이 자신에게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기대, 욕구를 인식하고 수용하고 적절히 반응하도록 훈련시킨다.

학 교

가)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비행 청소년들은 학교 성적의 저조, 교사와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학교 생활에 흥미와 의미를 경험하지 못한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학교성적의 저조 이유, 학교 성적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 그리고 학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정도, 학교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탐색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에 대한 흥미와 의미를 경험하도록 한다.

특히, 비행 청소년에게 교사와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계기,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그 결과를 인식하고, 교사와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대화 기술, 갈등 해결 기술 등의 측면에서 돕는다.

나) 학교에서의 적응전략 개발하기

비행 청소년이 공부나 성적,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인식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돕는다.

또래 친구

가) 친구들의 비행 유혹 거절하기

많은 비행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비행 유혹에 거절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친구들에게 거절 당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행 청소년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대한 자신들의 반응과 결과를 단기,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적절한 자기 주장이나 자기 통제 능력 등의 훈련을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친구들을 돕기

비행 청소년들은 같은 비행 친구들이 문제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고 싶어하나 친구를 적절히 도와줄 수 없어 고민스러워할 때가 많다. 친구들이 이성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 문제 등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비행 청소년들이 이들을 적절하게 도와줌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새로운 친구 사귀기

비행 청소년들은 같은 비행 청소년보다 일반 청소년에 대해서 더 많은 애착심을 느끼고, 일반 청소년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한다. 한편, 일반 청소년과 사귀려고 할 때, 낮은 자아 존중감, 일반 청소년의

편견이나 낙인, 공통의 흥미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과의 사귀기를 피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에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될 때,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을 인식시키고, 이런 정서적 반응을 극복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성공적으로 사귀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4) 여가활동 영역

많은 비행 청소년들은 여가 시간을 적절하게 보내지 못하여 노래방, 오락실, 비디오방, 약물 오남용 등 감각적이고 단순한 시간 허비적 오락으로 시간을 주로 보내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여가를 즐기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은 비행 문화에 더욱 더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 비행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유익하며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소개하고, 그런 활동들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런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연마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놀이와 관련된 비행 청소년들의 만족 지연이나 분노나 공격성 등의 자기 통제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한 상담 과제가 될 것이다.

여가활동 영역과 관련하여 상담자를 비행 청소년들에게 일탈된 활동을 조장시키는 유해환경을 정화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자가 직접 활동할 수도 있겠으나 학교나 지역사회와의 자원 인사를 활용할 수 있다.

5) 진로 영역

비행 청소년들 중에는 통상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진로를 설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혹은 부모의 비협조로, 혹은 청소년 자신의 지적,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통상적인 교육 과정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행 청소년들에게 대안적인 교육 과정, 대안적인 진로 및 직업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현실적인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 자기 책임감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비행 청소년 상담 사례

1. 성 폭력 사례
2. 절도 사례
3. 비행 청소년들의 가치 재정립을 위한 단기 집단 치료 사례
4. 등교 거부 사례
5. 도박 사례
6. 자살 사례
7. 폭력 사례
8. 사례에 대한 제언
9. 사례를 통해서 본 비행 청소년 상담의 유의점

본 장의 사례들은 청소년 비행의 대표적인 유형들에 개입한 사례로서 개별상담 및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은 성 폭력 문제로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개입 사례이다. 강간 미수로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18세 청소년이 수강 명령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인 희망 교실 수강중 희망 교실을 주관하는 상담소의 단기 과업 중심 모델 상담 계획에 대한 안내를 듣고 상담을 희망하여 접수된 사례이다. 총 9회에 걸친 개별상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례2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17세 소년이 서울 가정 법원 소년 심판부에서 1호 처분을 받고 의뢰된 경우이다. 1989년 10월 10일부터 1990년 9월 13일까지 1-2주일 간격으로 소년과의 개별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6회의 가족 상담이 있었고 소년에 대한 심리 검사가 실시되었다. 사건 후 서울 소년 감별소에 수용됨으로써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된 소년의 학업 및 생활 지도 상담이 중심이 되었다.

사례3은 비행 청소년들의 가치 재정립을 위한 단기 집단 상담 사례이다. 5일간의 일정 동안 참가자들로 하여금 강한 체험을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입하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동적인 프로그램과 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는 데 몸으로 부딪치는 동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놀이(체육),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등산, 역할극 등이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정적인 프로그램은 나눔, 시청각 교육, 심리 검사, 강의, 수료식 등으로 구성된다.

사례4는 등교거부로 의뢰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가족 상담 사례이다. 한 달에 한 번씩 8회에 걸친 가족 치료가 실시되었는데 이들 가족과 만난 치료자는 남녀 2명이었으나 일면경 뒤에 있는 관찰실에는 그 외에도 3명의 치료자가 더 있어서 함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시로 치료 과정에 개입하는 team approach였다.

사례5는 도벽 및 거짓말을 일삼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의뢰된 사례이다. 상담자가 만난 횟수는 총 9회로서 온 가족 중 장남을 빼고 2회, 차남과 모가 2회, 모와 두 자녀 2회, 부와 전체 1회, 부 1회 상담하였다.

사례6은 자살 문제를 가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학교의 진로 상담교사로부터 의뢰받아 내담자 중심 이론에 기초하여 상담한 사례로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8회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사례7은 폭력 문제를 가진 15세 남자 청소년의 상담 사례로 어머니가 청소년대화의광장에 전화하여 전화 상담, 접수 면접을 거쳐 총 9회의 상담 후 종결한 사례이다. 내담자 어머니의 상담은 계속되고 있다.

1. 성 폭력 사례

1.1 사례 개요

1.1.1 내담자 소개

고등학교를 자퇴한 18세의 남자로 가족 내에서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으며 소심한 측면도 있지만 누나들 못지 않게 어른스러운 성격도 가지고 있다. 가족원 개개인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 없이 지내 왔고 현재도 원만하게 지내는 편이라고 한다. 부의 사망이 내담자가 감별소 생활 중에 발생하여 "큰일이 있을 때마다 뒷처리를 다 해 주시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막연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 시절 : 1학년 때까지 순진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담임 선생님을 잘못 만나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 학교에 불성실해 지기 시작하였다. 2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학교 대표 폭력단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매일 싸움을 하고 다녔다. 3학년 때 본드를 하다 경찰에 잡혔으나 곧 훈방되었다. 좋은 담임 선생님 덕분에 졸업은 하였고 어울리던 친구 집단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다른 학교 선배 깡패들이 추근덕거리고 귀찮게 굴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하였다.

고등학교 시절 : 1학년 입학식 날 특수 강간 혐의로 구속되어 감별소에서 2개월을 보냈다. 이후 가족들의 권유로 학교에 다시 복학하였으나, 다닌지 며칠 안된 어느날 선배들이 하교 길에 시비를 걸어 한 차례 싸움 후 고 1때 자퇴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자퇴 이후 : 강간 미수로 다시 한번 감별소 생활하였다. 감별소에 있는 동안 부가 사망하였다. 동대문 커튼 가게에서 일을 조금 하였으나 동료와의 말다툼 이후 그만두었다.

현재 : 수강과 봉사 명령 이행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모의 소개로 전에 일하던 커튼 가공소에 다시 들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상담 시작 당시 : 어울리던 친구들이(주로 전 사건 공범들) 「오렌지족 행세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사건 가담자 1명은 내담자와 함께 커튼일을 같이 시작하려고 내담자 집으로 데리고 있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이 때 내담자도 붙들려 갔다가 특별한 혐의 없이

풀려 나왔다. 공범들 중 한 명이라도 거짓으로 진술하면 내담자도 잡혀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불안한 상태였다.

1.1.2 의뢰 과정

강간 미수로 보호 관찰 대상 청소년(1.3호 처분, 수강 봉사 명령 각 100시간씩)으로 수강 명령 집행을 위한 희망 교실 수강 중 단기 과업 중심 모델 상담 계획에 대한 안내를 듣고 상담을 생각해 본 후 자발적으로 상담 의사를 밝혔다. 상담은 희망 교실 일정이 모두 끝난 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1.1.3 제시된 문제(문제력)

- 중 3때 처음 「유해 화학 물질」로 경찰서에 잡혔다 풀려났다.
- 고 1때 학교 자퇴 후 「특수 강간」으로 걸려 2개월의 감별소 생활 후 풀려났다.
- 같은 해 「강간 미수」로 또 다시 감별소 생활 후 금년 초에 풀려났다.
- 보호 관찰 처분(1, 3호) 이후 94년 5월 9일~13일
 **사회 복지관 건강교실 수료
- 보호 관찰 처분(1, 3호) 이후 94년 5월 23일~27일
 본 상담소 희망교실 수료

1.1.4 가족 관계

- 1) 부 : 2년전 교통 사고로 사망. 프레스 공장을 하다 그만둔 후,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만들었었다. 성격은 엄하였으나 내담자와의 관계는 원만하였다고 한다.
- 2) 모(40세) : 내담자와 가장 밀착되어 있는 관계이며 자상하고 꼼꼼한 성격. 내담자가 중학교 시절부터 사고치는 것들을 뒷바라지 해 주고 주변 친구들까지 모두 챙기는 등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한다. 현재 음식을 해서 사무실에 배달하는 일을 한다.
- 3) 큰 누나(22세) : 의류업 계통의 일을 하며,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가계에 원조. 성격은 솔직하고 기분파이며, 마음에 안 드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표현을 하므로 내담자와 가끔 충돌하기도 한다.
- 4) 작은 누나(20세) : 어머니 다음으로 내담자와 친한 사이. 고등학교 졸업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 화끈한 성격인 반면 동생인 내담자에게는 잘 해 주어 친구처럼 지낸다고 한다.

1.2 문제 평가 및 상담 계획

1. 성 폭력 사례

1.2.1 문제 평가 과정

- 내담자의 문제력, 가족 관계, 개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1차 상담에서 실시하였다.
- 내담자가 제시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2차 상담에서 추가로 실시하였다.
- 제시된 문제들을 가지고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합의하에 목표를 설정하고 계약을 하였다.

1.2.2 문제 평가 내용

- 문제력, 가족 관계, 개인력에 대한 평가
- 제시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평가

1.2.3 목표 설정 및 계약

1) 상담 문제 설정

처음에 내담자가 제시한 문제는 불필요한 친구 관계를 단절하지 못한다,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다의 3가지였다. 문제에 대한 평가와 상담자와의 상의 후,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는 문제는 다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아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상담 목표를 정하였다.

- ① 친구 관계를 잘 정리하지 못한다.
- ②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다(2갑 정도)

2) 목표 설정

- ① 불필요한 친구와 연락을 줄이고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늘린다.
- ② 담배를 지금의 반으로 줄인다(1갑 정도).

3) 계 약

(1) 상담에 대한 동기 확인

희망 고실 교육 기간 중 기본적인 rapport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자발적으로 상담을 의뢰한 경우였다. 친구들의 검거와 관련하여 특

별한 신상의 변화가 없는 한 상담 지속에 동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상담 시간, 시간에 대한 계약

6월과 7월에 거쳐 매주 화요일 오후 1시간씩 상담을 하고, 필요하다 외부에서의 자원 탐색 및 기관 방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이에 서약하도록 하였다(합의후 서명함).

(3) 목표와 과업 수행에 대한 계약

내담자가 제시한 문제를 중심으로 평가 후 2가지의 목표 설정과 이에 따르는 과업을 수행할 것을 계약하였다.

4) 상담 계획

제 1 단계 : 목표의 확인

제 2 단계 : 계약

제 3 단계 : 중간 단계-과제의 달성, 문제의 해결, 문제해결의 측정

제 4 단계 : 종결 단계-종결, Follow-up 여부 결정

1.3 상담 과정

상담 내용은 목표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룰 것이며, 과제로 내 준 일과표 정리 위주로 정리하였다.

1) 제1차 상담

(1) 상담내용

- ▷ 문제력, 가족 관계, 개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였다.
- ▷ 문제력을 중심으로 자신의 비행 원인을 함께 생각해 보았다.
- ▷ 상담에 대한 취지 설명과 함께 동기 확인과 날짜, 시간 등에 대한 계약을 하였다.
- ▷ 지난 번 과제인 “자신의 변화되고 싶은 문제”를 확인하였다. -「친구 관계를 잘 단절하지 못한다,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다」의 문제를 놓고 야기되는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 ▷ 과제 설정 : 위의 3가지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한 상담자가 도와 주기를 바라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 오기

(2) 상담자의 의견

첫 상담에 내담자는 차분하고 솔직한 태도로 성실히 임하였다. 태도도 긍정적이고 자신에 대한 신중성도 있었다. 친구 관계 단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상담자는 내담자가 친구를 딱히 끊고 싶어한다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같이 이끌어 가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제2차 상담

(1) 상담내용

내담자가 커텐 가공소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 문제에 대한 평가

- ① 친구 관계에 대한 평가 : 친구를 중심으로 내담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본 결과,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안 좋은 친구는 2명이었고, 그 이외 술자리에서 알고 지낸 아저씨들 2명 역시 관계 유지를 바라지 않았다.
- ② 담배에 관한 평가 :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많이 피우는 것 같고,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난다고 한다.

▷ 목표, 과제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

- ① 목표 정의 : 친구 관계를 잘 정리하지 못한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다.
- ② 목표 : 불필요한 친구 관계를 줄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늘린다.
담배를 지금보다 반으로 줄인다.
- ③ 과제 : 전 시간에 내준 과제(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의 점진 결과, 내용을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정의하기 어려워 상담자와 함께 재정리하기로 하였다.

<내담자의 과제>

매일 일기처럼 하루의 일과중 상담자와 약속한 항목에 대해서 체크하는 표를 만들어 표시하기

<상담자의 과제>

금연이나 건강 진단에 대한 정보 얻기
연락 오거나 만난 횟수, 대상, 한 일 적기
연락 오거나 만난 상황 적기
자신이 술선수범한 일 적기
기술적으로 배운 것, 정신적으로 느낀 것 적기
담배 피운 가치수 적기

(2) 상담자의 의견

친구 문제에 관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이 과정이 친구들이나 가까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에 도움이 된 것 같다. 과제 설

정에 있어서 담배 가치수 세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 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현재 직장 생활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새로 배우는 일의 내용 등을 체크해 보는 것 역시 도움이 되고 다른 과업 달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고려되어 과제에 함께 포함시켰다.

3) 제3차 상담

(1) 상담 내용

상담자가 내담자를 찾아갔다.

▷ 지난주 일과표 정리 결과 검토

- ① 친구들 : 보고 싶은 중학교 친구들 몇 명만 만나고 싶지 않은 나 뿐 친구들과는 연락을 끊을 것이고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 ② 아저씨들 :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하지도 않았다.
- ③ 직장 동료 : 신참인 내담자에게 잘 해준다.
- ④ 술선 수범하여 한 일과 기술 배운 것 : 열심히 하였다고만 적었다.
- ⑤ 담배 : 가치 수를 매일 적어 놓았으며, 많이 핀 날은 스스로 자책하는 문구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 이유도 적었다.

<내담자의 과제>

병원에 종합 검진을 받으러 갈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상담자에게 연락해 주기(담배로 인한 신체 증상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하였기 때문).

<상담자의 과제>

병원에 연결, 담배 줄이기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 듣고 알려 주기.

(2) 상담자의 의견

매일 일과표를 성실하게 작성한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아직 내용들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성실도로 보아 구체적이고 자기통찰적인 일과표 작성도 가능하리라 본다.

4) 제4차 상담

(1) 상담 내용

오렌지족 행세 자동차 탈주범 친구들 때문에 형사들이 집에 연락하는 등의 추적을 피해 직장 근처 사장님 댁에 있는 종업원용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 엄마로부터 들은 정보로는, 며칠 전 형사로 보이는 구청 직원이 집에 왔었다고 한다. 내담자의 한 친구가 사고를 쳤는데 지갑

을 놓고 내려 내담자의 전화 번호가 발각되어 추적당한 것이다. 자신은 잘못이 없으나 자꾸 누군가가 뒤쫓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 늘 불안하다.

▷ 과제 점검

- ① 친구들 : 전화 연락처를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보고 싶은 친구 몇 명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을 하였다.
 - ② 직장 동료 : 거래처 사람들과, 다른 커튼 가게에서 알게 된 사람을 적었고 관계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③ 기술 : 미싱, 시루시, 커튼 개는 것 등 새로운 기술들을 잘 정리하여 적었다.
 - ④ 담배 : 평균 30개 정도로 담배를 피우는 것 같다. 현기증이 나는 등 담배로 인한 신체증상이 나타났다.
- * “스스로 변한 것 같다”고 일주일을 정리하는 코멘트를 하였다. 이는 새로 시작한 직장에서 배운 기술들, 거래처 사람들과 친숙해 지면서 오는 만족감으로 보인다. 일과 정리를 착실하게 한 것을 지지해 주었다.

▷ 추가 정보(감별소 경험 이후 생긴 증상들)

감별소에서 나온 이후로, 길을 가다가 누가 뒤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나면 “누군가 잡으러 오는 것 같고, 어깨에 손을 얹는 것 같아서 뒤로 돌아서 주먹으로 갈기곤 하였다.”고 한다. 고등학교때 학교 짱패 형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아서 근 1년 동안 그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도망다닌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밤에 몽유병 환자처럼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잠꼬대를 심하게 하고 욕을 지껄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어머니께 들었다고 한다. 본인은 아침에 일어나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

▷ 목표 달성 과정에 대한 점검

친구 관계와 담배 줄이기라는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거나 다른 목표를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내담자는 다른 욕구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 과제정하기

<내담자의 과제>

- ① 담배를 35개 이내로 줄이는 것 시도하기
- ② 담배 대신에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건전한 여가, 취미, 공부 등에 관한 대안 생각해 오기
- ③ 일과표 항목 중 친구연락 란을 긍정적 친구, 부정적 친구로 나누

어 매일 정리하기-즉 기존의 친구나 새로 만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 부정적인 것을 구분하여 체크해 보도록 하였다.

<상담자의 과제>

감별소 경험으로 인한 불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가르쳐 주기로 하였다.

(2) 상담자의 의견

새로 직장에 취업하고 일을 배우며 지내는 상황인데다 친구들의 유혹이나 형사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내담자는 매우 불안해 보였다. 상담자는 직장 일에 잘 적응하고, 상담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지해 주고 편안한 상담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내담자 현재의 불안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되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일 수 있지만 현재의 생활에 충실하면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사회에서의 성실한 생활이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을 수 있음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5) 제5차 상담

(1) 상담 내용

▷ 과제에 대한 점검

- ① 긍정, 부정적인 친구 관계를 구분하여 척도로 체크하는 것을 상세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에 지지하였다. 그러나 긍정, 부정적인 관계의 이유를 더 상세히 적어보도록 지시하였다.
- ② 담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스스로 가진 듯한 모습이 역력하였다. 20가치에서 30가치를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하였다.

▷ 담배 문제에 대한 평가

담배를 끊기로 설득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은 조금씩 줄여 나가고 싶다”고 하였다. 내담자의 의견 존중 측면과 요즈음 줄어든 담배의 양으로 보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 친구 관계 정리 및 이에 대한 평가

- ① 긍정, 부정적인 친구 관계의 차이와 이에 따른 내담자의 반응에 대한 것
- ② 친구를 사귀는 패턴에 대하여
- ③ 바라는 친구에 대하여
- ④ 친구 관계에서 막상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울리는 친구 집단에서 상황마다 빠져 나오기 힘든 것)
- ⑤ 친구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다는 목표 점검

(새로운 친구보다는 기존관계 유지)

- ▷ 일과표에 대한 목적 정리
- ▷ 분가와 이에 따른 문제점
- ▷ 감별소 생활에 대한 이야기
- ▷ 과제 정리

<내담자의 과제>

- ① 담배 항목 일과표 다른 양식으로 체크하기(특정 요일을 정하여 담배 피는 시간, 상황, 피고나서의 느낌 등을 기록하도록)
- ② 담배 대안 생각해 보고 결정해 오기
- ③ 내담자의 장래 계획 개략적으로 세워 오기(목표에 대한 상담 내용 치중으로 인하여 지루함을 주는 듯하였기 때문에)

<상담자의 과제>

- ① 친구 관계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과제 설정해 보기
- ② 가족과 연결하여,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2) 상담자의 의견

내담자의 전반적인 친구 관계와 현재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내담자도 시원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아 만족스러운 상담이었다.

6) 제6차 상담(중간 평가)

(1) 상담 내용

지금까지의 상담을 정리하고 각기 목표에 대해 내담자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 했다.

① 친구 문제

따로 떨어져 살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관계 정리할 것은 없다고 하였다. 연락하고 싶은 친구들만 가끔 연락하며 지낸다. 구치소에서 이달 말쯤 친구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② 직장 동료

좋거나 싫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구분되고 어느 정도 인간 관계에 적응이 되어간다.

③ 담배 문제

지난 주에 내준 과제 수행이 굉장히 어려웠다. 담배를 핀 느낌은 하나도 못 적었고 핀 시각과 핀 후의 상황만을 대략 적었다. 처음보다는 의식적으로 안 피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

상담자가 제안한 「금연 학교」 참여는, 시간도 없고 아저씨들이나 가

는 데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상담자가 “당장 시급하지 않으면 목표를 정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그래도 그냥 놔 두는 것이 의식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 내담자의 직장내 상황 정리

직장 내에서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에 대해 물었다. “현재는 너무 시간이 없고 불규칙한 데다가 피곤해서 무엇을 해 볼 엄두가 나지 않아 책을 읽는 등의 쉬운 방법을 해 보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 내담자의 삶의 목표에 대한 정리

상담 목표 두 가지 만을 가지고 상담을 지루하게 끄는 감이 있고, 이 시기 청소년이 자신의 장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노력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내담자의 장래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내담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 상담자의 의견

장래 계획이 구체적이고 건실함을 지지해 주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필요한 노력과 준비를 철저히 계획하고 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하도록 하였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 상담 분위기가 조금 신선해 지는 느낌이 있었다.

7) 제7차 상담

(1) 상담 내용

주위가 개방된 장소여서 형식적인 상담 내용이 아니라 편안하게 내담자의 근황을 들어주는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 내담자의 이야기

- 여름 휴가 계획 : 7월말에 중학교 친구들과 설악산으로 휴가를 갈 계획이다.
- 담배 이야기 : 며칠 전에 잠을 자는 데 갑자기 복부가 압박되는 듯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는 못 갈 것 같고 하루 자고 나니 괜찮을 것 같아 참아보기로 하였다.
- 직장 사람들 이야기 : 일 자체나 숙소에서 별 탈 없이 지내고 있다.
- 월급 이야기 : 지난 토요일 첫 월급 50만원을 탔다. 기분이 좋았고 그 길로 엄마를 만나 40만원 적금 들라고 드리고 왔다고 한다. 직장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일과표를 통해 엿보인다.

▷ 일과표 정리

① 친구 관계

지난 주 간의 대인 관계는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하였다고 보이며 특히 관계가 좋지 않았던 재단사 형과의 관계가 친숙해져 가고 있다.

② 담배 문제

지난 번에는 담배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주 일과표 내에서는 담배 끊는 것을 생각해 봐야 겠다고 하였다.

③ 독서

어머니가 사 준 책을 비롯하여 몇 권의 책을 조금씩 읽고 있다.

<과제 정리>

- 계속해서 일과표 작성 하기
- 직장 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체크해 보기
- 내담자의 역할, 각기 대상이 내담자에게 중요한 정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나 관계가 편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 이유 등을 구분 하여 그림으로 나타내 보기.

(2) 상담자의 의견

체계적으로 준비된 상담은 아니었지만, 상담과 관계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나눈 시간이었다. 과제를 명확히 해 주고 상담을 마쳤고 내담자도 만족하였다. 앞으로 공식적인 상담이 2번 남았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8) 제8차 상담

(1) 상담내용

▷ 친구 문제 점검

- 용진이, 윤석이가 얼마 전에 금보석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나오던 날 만나서 여관에서 하룻밤을 놀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말하였다.
- 내담자는 “이제 제 갈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 문제는 그럭저럭 조절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의 통제력이 생긴 것 같다.

▷ 담배 문제에 대한 점검

- 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자의던 아니던 요즈음은 담배를 꺼내려다 “아니지”하고 도로 집어 넣는 경우가 많다. 상담시작 전보다 반으로 줄었다.
- 몸이 안 좋아서 곧 끊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휴가가기 전과

휴가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어렵고 다녀와서 8월초부터
꿈을 것이다.

- 손에 잡히는 대로 쉬운 책들과 흥미 있는 것 위주로 읽고 있다.

(2) 상담자의 의견

지난 주 친구들이 풀려나서 같이 어울리게 되지 않을 지에 대한 걱
정과, 내담자 스스로도 감정이 복잡하였다고 한다. 직장 생활에 적응하
면서 이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 보였고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 상
담이었다. 다음 주에 종결임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다.

9) 종결 상담

(1) 상담 내용

내담자가 상담소에 오자마자 내담자 모에게 전화 연락이 왔다. 내담
자 모에 의하면 내담자가 전에 관련되었던 폭력 사건 때문에 수배권으
로 걸려 있으니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느냐는 자문을 구하는 것이
었다. 모의 말로는 내담자는 그 때 상황에서 “옆에서 맞아가면서 싸움
을 말린 죄”밖에 없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형사들이 사건
을 몰아 붙이는 데 따라서 내담자의 신변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내담자는 며칠 전 집에서 이틀 정도 머물렀고, 어제 숙소에 갔다가
오늘 보호 관찰소를 들러 상담소에 오는 길이었다. 다른 상담자에게 자
문을 구하여 어머니와 통화를 시켜드린 후, 조금 불안해하는 내담자를
안심시키고 상담실로 들어가 종결 평가를 하였으나 내담자의 마음이
좁처럼 가다듬어지지 않아 보였다.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① 친구 관계

표면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친구들을 못 만날 수밖에 없
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직접적인 갈등은 없었다. 하루 이틀 사귀 친구들
이 아니므로 끊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단절하고 싶은 친구의 성
격을 바꾸고 자신의 성격도 바꾸는 것으로 전환하였어도 좋을 것 같다.

② 담배

하루하루 체크하였으므로 이행하는 데에 별 무리가 없었고 자신을
절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③ 기간, 시간 등의 문제에 있어서

1주일에 한 번씩의 기간은 적당한 것 같다. 매주 1시간씩이라는 시간
은 너무 모자란 것 같다. 충분히 이야기 할 시간이 없었다. 내담자가
일을 하다가 빨리 빠져 나오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④ 상담 과정의 주도 여부

일방적으로 상담자에 의해 이끌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내담자가 주도해 나간 것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

담배는 매일 매일 체크를 하고 일과표도 작성하면서 편안하게 일기처럼 써 보기로 하였다. 매달 보호 관찰소 가는 날을 지정해서 월말에 상담소에 들러 사후 상담을 받기로 하였다. 공식적인 사후지도 계획을 짠 것은 아니고 내담자가 직업적, 정서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도에서 이다.

다음 만남부터 장래 목표나 진로에 관해서 좀 더 의논해 보자고 대략적으로 구상을 하였다.

1.4 평가 및 상담 후 상황

1.4.1 내담자의 평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단점을 구체적으로 골라서 고치고자 노력하는 점, 결과를 중요시 한다기 보다는 대화로서 함께 풀어 나간다는 점이 좋았다.

1.4.2 상담자의 평가

수배권 영향 때문에 불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는 침착하게 종결상담에 임하였다. 그동안 수고한 점들을 지지해 주었고, 지금은 때가 아니고 내담자 스스로 바로 선 다음에 친구들도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임을 명심하라고 했더니 수긍하였다.

내담자 모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바로는 아는 형사와 통화를 해서 손을 써 보겠으니 일단 내주까지는 기다려 보아야 겠다고 한다. 상황이 변하는 대로 연락을 주시기로 하였다. 내담자에게는 한번 사회에 대해 죄를 지어 금이 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에 이토록 힘든 과정이 많은 것이니, 앞으로 성인이 될 몇 년간은 조금 더 기다리고 스스로 보상해 갈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다짐을 시킨 후 돌려보냈더니 속소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2. 절도 사례

2.1 사례 개요

2.1.1 내담자 소개

17세의 남자 청소년으로 임신과 분만의 과정은 정상이었으나 어려서 키가 작고 허약하여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으며 주로 형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개근상을 받았으며, 성적은 초등학교에서는 중상이었고 중학교에서는 중하 정도였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신체가 눈에 띄게 성장하였으며 이 무렵부터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였으며,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어울리는 횟수가 보다 많아졌으나 절친한 친구는 없었다.

내담자는 온순하며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성격으로서, 가족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일이 없었으며, 내담자가 요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는 내담자에게 용돈을 주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2.1.2. 의뢰 과정

고교 1학년 재학 중이던 1989년 6월초, 동네 시장에서 친구와 함께 행인의 주머니에 반쯤 나와 있는 돈을 빼내던 중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고 절도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상담기관에 의뢰되었다.

2.1.3. 제시된 문제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이전의 비행력으로 1987년 8월 특수 절도 기소 유예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

2.1.4. 가족 관계

내담자의 가정은 생활 보호 대상으로서 빈민가의 산동네 전세방 한 칸에서 네 식구가 생활하고 있다.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족의 의지가 강한 편이었다. 소비는 최대한 억제해 왔다고 한다. 내담자 이외의 범법 행위에 관련된 가족은 없었다고 한다.

1) 부(62세) : 강박적인 성격의 부 밑에서 외아들로 성장하였다. 10년전

광부로 일하던 중 허리를 다쳐 그후로 완쾌되지 않아 집에서 소일을 하고 있으며 때때로 구청의 취로 사업에 나가고 있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적은 편이나 일상적인 가사에 대한 일방적인 간섭과 잔소리가 심한 편이며, 깔끔하고 꼼꼼한 성격이다. 술을 많이 마시는 편으로 주사가 심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여 가족들이 집밖으로 피신할 정도였으나 1~2년 전부터는 술을 마시는 일이 줄었다고 하였다.

- 2) 모(58세) : 부의 실직 후 모가 생계를 꾸려왔으며, 상담시는 봉제공으로 취업하고 있었다. 정이 많고 온유하며 차분한 성격으로서 자녀들이 잘못하였을 때 꾸짖기보다는 감싸주며 자녀들의 요구는 가능한 들어주는 편이다.
- 3) 형(21세) : 적극적이고 활발하여 의사 표현이 명확하고 대인 관계도 원만하며 부를 대신하여 집안 일을 맡아 하고 있다. 내담자와의 우애가 깊으며 내담자의 보호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 부의 주사와 폭력 때문에 초등학교 재학중 일주일간 가출한 경험이 있다. 공고를 졸업한 후 몇 개의 기술 자격증을 획득하였으며 취업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어왔으나 상담시에는 1989년 12월 23일 군 입대를 앞두고 직장을 쉬고 있었다. 대학 진학을 원하였으나 가정 형편때문에 포기하였고 동생이라도 대학에 진학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4) 누나 5 : 다섯 누나 모두 결혼하였으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때때로 친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내담자의 문제에도 누나, 매형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대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2 문제 평가 및 목표 설정

2.2.1. 문제 평가

내담자의 비행은 가족의 위기에 의한 생활의 변천에 부적응적으로 대응하여 온 가족과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환경이 관련되어 있음이 평가되었다.

- 1) 내담자가 동일시 과정을 통하여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여 나갈 시기에 내담자의 부는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직업을 상실하였으며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였다. 생계 유지자로서의 역할 상실로 인한 긴장을 푸는 폭음으로써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부의 역할과 권위를 상실케 함으로써 긴장은 가중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남성적인 동일시에 혼란을 겪음으로써 자아 기능이 약하며 자신감이 부족한 소년으로 성장하였다.

- 2) 부의 역할 상실에 따른 가족의 역할변화 과정에서 부의 새로운 역할과 지위는 모색되지 않았으며 모와 자녀들이 부가 수행하던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다. 모의 남편에 대한 역할 기대의 상실은 만아들에 대한 기대와 지지로 대체되었으며 내담자의 형은 모와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모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녀로 성장하여 왔다. 한편 내담자의 약한 자아기능에 의한 부적절한 역할 수행은 형의 부모 역할과의 상호 보상을 통하여 강화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부는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찾기 위하여 억압적이고 지시적인 의사 소통 방식을 택함으로써 부부의 상호 지지 능력이나 부모로서의 자녀 훈육상의 정서적 지지와 규범의식 전달에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 3) 부모 역할을 하는 자녀인 형은 모와 형제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게 되며 누나들에 비하여 동생인 내담자는 그러한 가족 구조에 의하여 부모와의 상호 교류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으며, 의사 소통 방식은 부모, 형제들로 부터의 일방적인 의사 소통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같은 방식은 형제 하위 체계에서의 연합력 대신에 내담자의 의존성만을 증가시켜 왔으며 이같은 상호 교류 유형이 내담자의 교우 관계에 그대로 연장됨으로써 비행 현장에 쉽게 합류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 4) 생활 보호 대상자로서 받고 있는 물질 보호와 의료 보호 서비스는 가장의 재활과 역할 수행을 위하여 개별화 하지 않은 채 전달되고 있었으며 지역 사회 내의 기타 사회적 지지 체계와의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2.2. 심리 검사

지능 검사와 인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인성 검사 결과에 의하면, 성격상 소극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의 억제가 심한 경향이 있으며, 흥미나 관심의 영역이 좁고, 사회적 활동(대인 관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아 존중감의 결여와 함께 자신의 남성상에 대한 정체감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었다. 외견상, 자신의 불우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상적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을 강조하고 있으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부족으로 때로 좌절감이나 부적절감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보

여졌다.

지능 검사 결과는 보통 수준(전체IQ : 100)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2.3 상담 목표

1) 가족의 재구조화를 시도한다.

부의 역할 기대를 재정립하고 권위를 찾도록 하며 형은 본래의 자녀의 위치로 되돌아감으로써 형만이 모의 조력자이던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며 내담자의 자아 강화를 도모한다.

2) 내담자의 진로 결정 및 실행 과정을 돕는다.

3) 가족과 사회적 지지 체계의 연결을 가능케 한다.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담자는 형의 역할 중 내담자와 관련된 부분을 분담하여 형이 과잉 역할에서 벗어나 군 입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 내담자와 부모의 직접적인 상호 교류 유형이 정착되도록 변화를 시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 및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본 사례 연구는 상담자의 개입 활동 중 소년의 진로 결정 및 목표 달성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3 상담 과정

2.3.1 상담 전반기(1989년 10월 10일-10월 27일)

접수 면접 과정을 통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행에 대한 도덕적 가치 판단보다는 비행에 이르게 된 상황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내담자가 가정과 학교에서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인정받았던 면들을 되돌아보면서 내담자의 적응력에 초점을 맞추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였다.

내담자는 인문계 고교 진학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중3 기간을 지냈으며 그 결과 원하지 않았던 상고에 진학하게 되자 학교 생활에 흥미를 느낄 수 없었고 좌절과 갈등을 겪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재수하고 싶었으나 가족에게 미안하여 그대로 진학하였고 차라리 취업을 할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 보았다고 하였다.

이즈음은 공부는 계속하고 싶으나 형의 입대를 앞두고 형대신 가족의 생활을 돌보아야 하는 데 공부만 하는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가족 상담을 통하여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내담자의 욕구가 표현되도록 격려하였고 가족들은 내담자가 공부를 계속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내담자의 자립을 위한 준비가 가족의 생활 보조보다 앞서며 내담자의 실제적 도움 없이도 생활이 가능함을 이야기하면서 내담자가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었으며 학교편입과 검정 고시 응시라는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가족들은 고시 학원보다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공부를 계속하기 쉬운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내담자는 “지금 편입할 수 있는 학교들은 다녀도 대학가는 것이나 졸업 후 취직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라며 의견을 표명하였다. 내담자와 가족의 의견이 모아져서 검정 고시를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상담자는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좋은 성과를 올릴 수도 있다고 격려하여 주었다.

한편, 검정고시 준비의 어려운 점으로서 학교 제도와는 달리 강제성이 없으며 스스로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과, 상호 계약에 의하여만이 편성되므로 능동적으로 대인 관계를 맺어야 하며 성실히 생활하여야 만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환기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 이겠지”라고 하자 내담자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라면서 얇은 웃음을 보였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필요한 준비에 대하여 내담자는 몇 개월 간의 공백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잃었다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독서실에 나가겠다고 하였다. 검정 고시 준비는 고교에서 3년간 배우는 분량을 요점 위주로 단기간에 해나가야 하므로 고교 1학년의 1학기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다져 나갈 것을 조언하였다.

초기 상담 과정을 통하여 가족 내의 상호 교류 유형에 있어서 계속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던 내담자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같은 내담자의 반응은 상담자에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되었으며 이와 함께 이전의 의사 소통에서 내담자의 답변을 대신하여 주거나 풀이하여 다시 전달하던 형의 태도도 점차 줄어들었다.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직접적인 의사 소통이 가족에게도 연장됨으로써 가족구성원 사이에서의 직접적인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개입을 계속하였으며 내담자는 이에 적응하였다.

2.3.2 상담 중반기(1989 11월 7일-1990년 4월 2일)

2. 절도 사례

그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였는지 묻자, 형과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50분 공부에 10분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첫주에는 힘들었으나 차츰 적응하고 있다면서 공백기간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 나감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교재 선택에 있어서 빨리 어려운 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심이 앞섰으므로 이해하기 쉬운 책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계획을 재조정하였다.

11월 하순 누나들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내담자는 검정 고시 학원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떤 학원이 좋을지 모르겠다며 상담자의 의견을 물어 왔다. 집에서의 통원 거리와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하도록 격려하자 몇몇 학원을 직접 내방하여 상담한 후 학원을 결정하였다.

가족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에게 용돈을 전혀 주지 않았던 것도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로서 인식되었으므로, 가족 회의를 통하여 학원비, 교통비, 책값, 용돈 등을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내담자에게 주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내담자가 학원을 스스로 결정한 과정을 지켜본 후, 내담자의 형은 자신이 집안 일을 모두 도맡아 했기 때문에 동생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의존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군 입대 후에 대신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걱정이 많았고, 한편으로는 짐을 벗는 기분도 들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상담자는 그의 양자 감정을 수용하였다. 내담자의 형은 자신의 입대 후 소년이 집안 일을 처리해야 할 부분은 미리 맡겨보도록 하겠다며 걱정을 덜고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은 얼굴을 보였다.

학업 계획과 관련하여서 내담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기초 학력이 떨어지므로 단기간의 집중적인 학습을 요하는 계획보다는 여러 번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므로, 가족들이 너무 성급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도록 가족을 이해 시킴으로써 내담자가 공부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내담자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자 수 개월 동안의 소속감 상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공부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와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생활을 평가할 수 있도록 생활 계획표를 작성할 것을 권유하였고, 생활 방식을 정형화시킬 수 있도록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꼭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의 상담에서는

생활 계획표에 따른 실천 여부를 확인하였고 공부하면서 겪는 긴장과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하고 내담자의 노력을 격려했다. 내담자는 호트러짐 없이 생활계획에 따르며 계속 공부에 정진하였으나 시험에 대한 부담감, 낙방에의 불안감 등으로 흔들림도 볼 수 있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장래의 인생 목표와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여 주었다.

2월이 되면서 생활의 틀이 잡혀 갔으며 시험에 대하여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어와 수학의 기초 실력이 부족하여 성적 향상이 부진하자 초조해하였다. 상담자는 어려운 부분을 지도해 주기도 하면서 영어와 수학은 하루의 일과표에 포함시켜 매일 일정량의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조언하였고 모르는 것은 표시하여 두었다가 꼭 다시 복습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2개월 정도 공부하면 자신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하기 쉬우나 막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에게 실망하여 포기하기 쉬움도 경계하도록 도왔다. 공부는 며칠 간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내담자에게 자주 이야기하여 주며 생활 리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또한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책상에 지루하게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잠시 학습 이외의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주말에는 등산, 산책 등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한 번씩 풀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학업 계획표의 실천력 평가에 있어서는 그 실천 결과보다는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성적에 대하여서는 민감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3월 중순의 중간 고사를 본 이후 내담자는 10월부터 꾸준히 다니던 도서관에 1주일 정도 나가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시간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도서관의 학생들이 많아져 한참씩 줄을 서서 기다리다 들어가고 옆에서 떠들어 신경이 쓰인다고 하였다. “그 외의 다른 문제는 없을까?”라고 묻자, 내담자는 “제가 나태해진 것 같기도 해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지도 모르겠어요. 옆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더 자신을 잃는 것 같은 때도 있었어요.”라며 고개를 숙였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기분에 공감하면서 며칠 동안의 생활을 스스로 되돌아보도록 함으로써 주변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 중요한 것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내담자는 다시 도서관에 나갔으며 자신의 일에 대하여 명확하고 자신 있게 임하였다.

2.3.3 상담 후반기(1990년 4월 13일-9월 13일)

내담자는 학원에 결석하는 일 없이 열심히 학업에 임하였으며 점차 자신있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학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회의는 정리된 상태로서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 시간을 신념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히 지냈다는 결심을 보여 주었다.

내담자는 6월이 되고 더위가 시작되면서 “친구가 있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상담자가 “어떤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라며 질문을 구체화하자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어울릴 만한 친구가 없어요. 대부분 나이가 많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울릴 시간도 없고 같은 나이의 아이들은 대개 날라리 같아 보여서 싫어요. 전부터 친한 친구도 따로 없고요. 그래서인지 친한 친구가 있어서 함께 공부한다면 지금보다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 때 용기도 북돋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성적도 더 나아질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상담자는 인간적 애착과 정신적인 공감대 형성에서 비롯되는 청소년기의 교우 관계의 특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자신의 가장 좋은 협력자이며 이해자인 친구를 원하는 내담자의 욕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는 한편 “요즈음 들어 힘들고 자신이 없어지는가 보구나”라며 내담자의 질문 밑에 자리하고 있는 정서에 대하여도 공감하였다.

내담자는 힘들고 외로운 생각도 든다면서, 이전에 어울리던 친구들 가운데 절친한 친구도 없을 뿐더러 다시 만나면 공부도 제대로 안될 것 같아서 연락을 안했었다고 왔다고 하였다. 학원의 또래들 중에 사귀고 싶은 상대가 있어도 어떤 친구인지 의심이 되곤 하여 주변의 친구들과 가까워짐을 피하여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 온 것이 자기 쪽인 것 같다고 하였다.

상담자는 그 동안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실행하여 온 내담자의 자주성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수동적인 위치에서의 교우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독립성을 잃지 않으며 맺어지는 교우 관계의 주체로서의 내담자가 되는 것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격려하였다. 내담자도 이전의 자신은 감정에만 휩싸여 친구들과 어울렸으나 이제는 자

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면들을 조금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밝은 얼굴을 보였다. 앞으로는 '친구이다'와 '친구가 아니다'라는 고정 관념에 따라 상대를 대하기보다는 대인 관계의 폭을 넓히며 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상담자는 친숙하지 않은 사이라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동안 상담자와의 만남을 성실하게 임하고자 하였던 내담자의 자세가 다른 상대에게도 그대로 좋은 대인 관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 내담자는 8월의 시험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미진함과 불만족으로 불안해지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스스로의 힘보다는 외부로부터의 든든한 지원군의 힘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상담자는 이제껏 이루어 온 것의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성심껏 노력하였던 과정에 가치를 두면서 소년을 격려하였고 진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임을 인식하도록 반성적 고찰을 하는 기회를 가지는 한편 내담자를 수용하고 공감하며 상담을 진행시켜 갔다.

7월이 되어 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가고 유난스런 무더위와 피서 열풍이 전국을 휩쓸면서 다시 내담자를 약간 슬럼프에 빠지게 하였다. 내담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누나를 사흘간 방문하여 휴식을 가졌으며 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의 긴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어 주었다. 8월의 시험 직전의 상담에서, 영어 때문에 전과목에 합격할 자신은 없으나 수학은 자신이 붙은 것 같다고 하였다. 이번 시험은 경험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임하겠다고 하며 지금까지의 생활을 되돌아 볼 때 잘 지내온 것 같다고 하였다.

시험 결과, 내담자는 영어 이외의 전과목에 합격하여 예상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고교 1학년을 한 학기만 다녔던 내담자로서는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고 내담자는 한편 아쉬움을 보였지만 가족과 상담자는 그간의 내담자의 노력과 시험 결과를 칭찬하였고 내담자에게서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뚜렷이 얻을 수 있었다.

내담자는 재시험을 위하여 계속 공부하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요청하기로 하고 정기적인 상담은 종료하였다. 종료 1개월 후 학원 수강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내원한 내담자에게서는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안정된 자세를 볼 수 있었다.

2.4. 평 가

본 사례에서 내담자의 비행은 가족의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에서 비롯된 생활의 변천과 그에 대한 가족의 부적응적인 대응 방법이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내담자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 혼란을 주고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며 문제로 표출된 경우이다.

상담자는 부적응적인 면의 재구성에 앞서서 가족의 건강한 적응력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내담자는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면서 안정을 얻어가고 자아 기능이 향상되며 미래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를 향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나갈 수 있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 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며,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폭풍 노도와도 같은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호 교류 양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인으로 성장 발달해 나가는 과정의 적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던 사례이다.

3. 비행 청소년들의 가치 재정립을 위한 단기 집단 치료 사례

3. 비행 청소년들의 가치 재정립을 위한 단기 집단 치료 사례

3.1 집단의 구성과 치료 계획

3.1.1 집단의 구성

〈표 6-1〉 집단원 소개

집단원	형제관계	문 제	부모직업	연 령	학 력
A	독 자	성폭행	상 업	18	고2중퇴
B	3형제중 맏이	성폭행	운수업	18	고2중퇴
C	2남2녀중 둘째	폭 력	회사원	17	중졸
D	3형제중 둘째	환각제(본드)	운수업	17	고1재
E	2남1녀중 막내	성폭행	무	17	중3중퇴
F	1남2녀중 둘째	환각제	자영업	17	중2중퇴
G	2형제중 막내	환각제	노 동	18	고2중퇴
H	5형제중 막내	성폭행	회사원	18	고2중퇴
I	2남1녀중 둘째	도 벽	자영업	18	중3중퇴
J	3남2녀중 넷째	성폭행	무	17	고1재

3.1.2 문제의 원인

- A :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선배 1명과 후배 2명이 처음 보는 여자를 데려 와서 재워 달라고 하였고, 잠시후 선후배가 차례로 관계를 맺고 자신에게도 권유하여 순간적인 성충동을 일으켜 관계를 가졌고, 여자의 신고로 모두 잡혔다.
- B :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여자가 하루는 전화를 해서 함께 있기를 위해 일하던 레스토랑에서 잠을 자다가 관계가 이루어졌고, 여자의 부모가 신고하여 잡혔다.
- C : 친구 집에서 여자 아이들과 놀고 있는 데 갑자기 여자 아이들의 남자 친구들이 찾아와 “왜 내 여자랑 놀고 있느냐”고 시비를 걸어와 싸움이 시작되었고, 상대방에서 너무 많이 맞아 신고하였다.
- D : 동네 아파트 지하에서 친구들과 본드를 흡입하다가 순찰 중인 방법 대원에게 잡혔다. 본드는 심심해서 했다고 한다.
- E :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리던 중 친구는 안 오고 알고 지내던 선배와 후배가 다가와서 여자 3명이 산으로 올라갔으니 산에 가 보자고 제의,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보니 여자 3명과 남자 3명이 있었다. 선배가 다가가서 남자 3명을 때려서 산 아래로 내려 보내고는 여자 아이들만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폭행하였고, 남자 아이들의 신고로 잡혔다.
- F : 친구 5명과 본드를 흡입하고 싶어서 공사 중인 건물에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잡혔다.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본드를 흡입한다고 한다.
- G : 몇 번 본드를 흡입한 경험은 있었지만 별로 좋은 기분을 느끼지 못했는데 친구가 찾아와 환상이 보인다고 공사 중인 건물로 데리고 가서 함께 본드를 흡입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잡혔다. 아무런 이유없이 습관적으로 본드를 흡입한다.
- H : 기말 고사가 끝나 해방감에 젖어 대학로에 갔는데 우연하게 여자를 만났다. 처음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다가 집으로 갈려고 하는 데 여자 아이들이 더 놀다가 가자고 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다. 음주 상태이고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 관계를 맺던 중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 I :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 그들을 따라 다니며 많은 돈을 썼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소매치기하여 생긴 돈이었다. 함께 썼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 J : 친구와 함께 밤 11시경 밤거리를 걷고 있는 데 우연하게 여자를 만

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취기도 있고 성적인 욕구가 생겨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관계를 맺었다. 집에 있다가 경찰에 의해서 연행되었다.

3. 비행 청소년들의 가치 재정립을 위한 단기 집단 치료 사례

3.2 치료 계획

단기 치료 집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의 강압에 의하여 교육을 받게 될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단순히 주어진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여기에서 보다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하는 데 그것은 바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강한 체험을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함께하는 방법을 통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 잡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크게 동적인 프로그램과 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는 데 몸으로 부딪치는 동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놀이(체육),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등산, 역할극 등이며, 자신을 되돌아 보는 정적인 프로그램은 나눔, 시청각 교육, 심리 검사, 강의, 수료식 등이다.

1) 프로그램 진행 순서

(1) 첫째 날

- ① 입교식과 상담소 소개
- ② 나눔 시간 - 첫 만남에서 친근감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의 소개를 하는 '서로를 압시다'
- ③ 중식후 놀이를 통해 서로 좀 더 친숙할 기회를 가짐
- ④ 시청각 교육 - 교재 '나는 이렇게 살아 왔다'
- ⑤ 지점토와 나무를 이용한 만들기 - 동기 유발을 위하여 실시

(2) 둘째 날

- ① 인성 검사 -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집단 상담시 자료로 이용
- ② 사진 말 나누기 -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봄
- ③ 레크리에이션 - 율동과 게임
- ④ 강의 - 나는 누구인가
- ⑤ 시청각 교육 - 성(性) 교육

(3) 셋째 날

- ① 도봉산 등산 - 심신 단련, 의지력·극기력 고양,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교훈

(4) 넷째 날

- ① 시청각 교육 - 환각제 교육
- ② 강의 - 예의와 올바른 가치관
- ③ 생의 전반을 되돌아보는 생의 곡선을 그려 보기
- ④ 역할극 연습 - 자신들의 이야기를 극으로 꾸며 봄

(5) 다섯째 날

- ① 나눔 - 가치관 경매
- ② 강의 - “내일부터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담당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
- ③ 역할극 발표
- ④ 부모 상담
- ⑤ 검사 발표
- ⑥ 교육 소감문 작성
- ⑦ 수료식
- ⑧ 프로그램 평가

3.3 집단 단기 치료의 실제

3.3.1 시청각 교육

시청각 자료는 “무서운 본드와 신나” “이성의 소멸”로 요즈음 청소년 계층에 만연되고 있는 환각제 흡입에 대한 경종을 울려 주고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여 치료해 나가도록 하는 환각제 교육과 성(性)의식의 문란과 무분별한 이성 교제, 그로 인한 피해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 주어 바람직한 이성관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성 교육이 있다.

<성 교육 시청각>

A :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성 교육은 정식으로 받아 보지 않았고 친구나 선배를 통해서 듣고 알았다. 성 경험이 많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경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B : 신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성 교육은 받지 않았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 성관계는 가져 봤지만 임신시킨 경험은 없다.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이성 교제

라고 생각한다.

- C : 낙태는 인간이 할 것이 못된다. 성 교육은 받지 않았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 육체 관계를 맺은 적이 있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것이 올바른 이성 교제라고 생각한다.
- D : 끔찍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고 성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대충 알고 있다. 육체 관계를 맺은 적이 있고 아직도 만나고 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
- E : 무섭다는 생각과 부모님께 고마움을 느꼈다. 감별소에서 성 교육을 받았다. 성적 욕구에 관계를 맺었다. 서로 마음 가짐을 잘 하고 존중해 주면 올바른 이성 교제가 될 것 같다.
- F : 끔찍했고 자신이 태어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학교 때 양호 선생님께 성 교육을 받았으나 더 성적 호기심이 생겼다. 그 시기에 성 관계를 가졌다. 육체적 관계도 진실된 사랑과 마음만 있으면 어떤 상태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G : 낙태 수술이 그렇게 비인간적일 줄은 몰랐다. 성교육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 받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호기심으로 성폭행을 통해 관계를 맺었다. 지금은 이성 간의 사랑이란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H : 낙태에 너무 놀랐다. 성 교육은 받지 않았고 저절로 알게 되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성적 욕구를 채운다. 바람직한 이성 교제란 모든 사람 특히 부모님께 알려서 떳떳하게 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I : 낙태 수술로 이렇게 많은 수의 희생자가 생겨나는 줄 몰랐다. 자신이 태어난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 성 교육은 받았지만 도움이 안 되고 호기심만 생긴다. 여자 친구와 육체적 관계는 없고 건전하게 사귀다. 모두 그랬으면 좋겠다.
- J : 사람의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았다. 태어난 것을 고맙게 여기며 열심히 살겠다. 여자를 사귄 때마다 호기심에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 건전한 이성 교제란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하여 교제를 했으면 한다.

3. 비행 청소년들의 가치 재정립을 위한 단기 집단 치료 사례

3.3.2 나눔

서로의 삶과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행동이나 언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주된 목적은 심성 변화를 유도하며 사고 영역을 넓혀 주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혀 주며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서로를 압시다.

첫시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첫 만남의 어색함을 없애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단의 친분을 다지는 것이다. 서로 자신의 신상, 궁금점, 공통점을 질문하고 나누며 울동을 겸한 노래나 게임으로 끝을 맺는다.

2) 사진 말 나누기

사진 중에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골라 사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즐거운 추억은 간직하며, 현재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A : 과거는 어려움 없이 자라다 언젠가부터 자신도 모르게 악의 소굴로 빠져 들었다.

→ 현재는 어두운 곳에서 빠져나와 빛을 보는 것처럼 비행에서 탈피하여 마음이 후련하다.

→ 미래는 타인의 축복을 받아 새롭게 살고 싶다.

B :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던 시절이 생각난다.

→ 자신의 위치도 모르는 채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순리에 맞게 살겠다.

C : 지금까지 너무 쓸모 없는 인간으로 살아왔다.

→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 앞으로는 주어진 일에 불평 없이 열심히 살겠다.

D : 싸움을 많이 하여 경찰서에만 왔다갔다 했다.

→ 복잡하게 얽혀 풀리지 않는 나의 모습

→ 가능하다면 다시 태어나 후회 없이 살고 싶다.

E : 타인을 괴롭히면서 살았다.

→ 답답하고 짜증스럽다.

→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살고 싶다.

F : 재판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G : 착하고 부족함이 없던 어린 시절이 그립다.

-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서 살고 싶다.
-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다.
- H : 어린 시절 부모님과 평화롭게 지낸 시절이 그립다.
 -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몇몇한 가정으로 살고 싶다.
- I : 일찍부터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 농촌에서 고향을 지키며 농사일을 하고 싶다.
- J : 어린 시절에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중퇴해서 후회스럽다.
 - 마음 자세가 온통 부정적인 생각과 반항심 뿐이다.
 - 막연하지만 탁트인 앞날이 올 것 같다.

3.3.3 성장 곡선 그리기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즐거웠던 일은 상향으로 나쁜 일은 하향으로 곡선상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는 자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긍정적이고 자기 개발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 A : 시골에 살 때에는 재미있었는데 도시로 이사 오고 나서 재미 없어졌고 지금은 성격도 나빠져 좋지 않지만 조금씩 올라 가고 있다. 가장 좋았을 때는 부모님께 첫 월급 타서 드린 일이고, 나쁜 일은 감별소에 있을 때이다.
- B : 단란한 가정이었었는데 부모님이 별거하고 나쁜 패거리와 어울리고 자퇴하게 되었다. 가장 슬픈 일은 중학교 때 다리가 부러진 일이고 기뻐던 일은 여자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을 때이다. 지금은 원점이다.
- C : 시골 할머니에게 자라서 엄마의 정이 그립다. 전과 기록을 남긴 것이 생애 최대 슬럼프지만 앞날을 생각하고 군세에 일어서겠다.
- D : 친할머니의 죽음과 이혼으로 어려웠지만 새 어머니가 들어와 좋아졌다. 그러나 비행으로 힘들어졌다. 앞으로 착실하게 살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보다 많았다.
- E :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나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아까운 시간을 보낸 것이 후회된다. 가장 기뻐할 때에는 내 힘으로 돈을 벌었을 때이고 앞으로 착실하게 살겠다.
- F : 어렸을 때에는 좋은 기억만 있다.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나빠지고 여자와 불량 친구들을 만나면서 더 나빠졌다. 이젠 새롭게 태어나

제6장

비행 청소년

상담 사례

려고 노력 중이다.

G : 초등학교때 담임 선생님과 좋은 추억도 있는데, 조금 성장하면서 경찰서에 자주 갔고 현재에도 별 변화는 없지만 앞으로 좋게 되려고 노력한다.

H : 13세에 가출을 하면서 많은 일이 일어났다. 그 후부터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났고 앞으로는 모두 잊고 착실하게 살고자 한다.

I : 15세까지는 좋은 일만 있었는데, 중학교를 중퇴하면서 나쁜 길로 빠져들었고 현재는 성실히 살아가려고 한다. 가장 좋았을 때에는 중학교 입학식 때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것이고 나뻐던 기억은 비행으로 말로만 들던 곳에 간 것이다.

J : 시험을 잘 봤다고 엄마가 칭찬해 주었을 때 가장 기뻛고 그 후로는 오락실에 빠져 비행에 접어들었고 2번의 전과와 여자 친구와 헤어지면서 극도의 방황에 빠졌다. 근래에 행복했던 시기는 여자 친구와 교제 중일 때이다.

3.3.4 가치관 경매

가치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고 가상으로 자기에게 백만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가치 있는 것에 대해 경매를 하게 한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해 보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획적인 생활이 중요함을 인식시킨다.

A와 B : 성실성, 자신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삶,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 평등, 종교, 정직, 자주성, 자유성 등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C : 처음부터 열심히 경매에 들었으나 짜임새 있는 투자를 못해 원하는 가치관을 구입하지 못함

D : 경매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너무 양보해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E : 돈을 다 주고 물질적 부족함이 없는 편안함을 구입했다.

F : 이성과의 진정한 사랑을 많은 돈을 투자하여 꼭 사겠다는 욕구를 달성

G : 많은 돈을 투자하여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개인적인 자율성을 구입하여 만족스러워 했다.

H : 다른 사람의 경매를 열심히 관망, 계획적으로 쓰기는 했으나 눈치를 너무 살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I : 가치 선택을 명확히 하여 진지하게 가치를 구입했고 효과적으로 돈을 썼다.

J : 도전적이고 적극적이었으나 계획성이 없었다.

3. 비행 청소년들의
가치 재정립을
위한 단기 집단
치료 사례

3.3.5 역할극

한 청소년이 가정의 무관심으로 가출했고 불량한 친구를 만나 친구들의 돈을 갈취하다. 경찰에 잡혀 재판까지 받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그 후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학교에 잘 다니는 것을 주 내용으로 A가 연출을 B가 주인공 C가 아버지, D가 형사1, E가 형사2, F가 피해자 G가 친구 H가 판사, I가 변호사, J가 검사역을 맡았다. 역할극 후 부모님과 함께 서로의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들은 솔직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어 고마움을 표했고 이해하였으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청소년들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으니 믿어 주고 함께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을 가져주기를 부탁했다.

3.3.6 등산

대자연을 통한 자기 발견과 인내력, 정상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진정한 승리자의 기분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함

- A : 등산이 힘들어 아무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산을 정복했을 때의 해방감과 성취감은 잊지 못할 것이다.
- B : 정상에 공기가 맑았고, 내려오면서 자신감으로 뿌듯했다.
- C : 산을 오르며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으며, 정상에서 자신의 고민을 소리치며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
- D : 산이 인내심을 길러주는 것 같아 좋았다. 처음에는 실망하였지만 정상에서의 시간은 너무 기뻐다.
- E : 올라가면서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 올라갔다. 정상에 서 있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고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다.
- F : 처음에는 짜증나고 산이 지저분해 화가 났지만 정상에선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산이 그림같이 아름답고 공기도 맑아 붕 뜨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오르고 싶었다.
- G : 막상 도전을 해 보니 그리 어렵지 않았다. 등산 중 서로 짐을 들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정상에서의 기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 H : 등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지금이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처럼 힘든 상황이라 생각했고, 내려올 때 아쉬움이 남듯이 나

이 들어 가며 아쉬워질 일생을 그려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등산하는 것처럼 인내심으로 한발짝씩 인생을 살 것이다.

- I : 등산은 처음이라 힘들었지만 나의 약한 존재를 깨닫고 의지력을 키워야 겠다고 생각했다. 정상에서는 땀의 의미를 만끽할 수 있었다.
J :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여자들이 오르는 것을 보고 오기가 생겼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되뇌이며 한발 한발 올랐는 데, 정상은 너무 아름다웠다. 이제부터는 산에 자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3.7 수료식

촛불 예식으로 초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자신들이 살아온 지난 삶의 이야기를 태운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것에 대한 결심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노래하고 악수와 함께 프로그램을 마친다.

3.4 프로그램 평가

수강명령을 받은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단기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았다. 이들의 문제 원인은 근본적으로 교우 관계에서 벗어진 것이 대부분이고 그 이전에 가정 내에서 바람직한 사회화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치료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는데 그 첫 번째가 동기유발로서 5일 간의 교육 기간 중 첫째와 둘째 날에는 말이 별로 많지 않았고 간혹 교육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등산을 계기로 많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비교적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도록 노력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새로운 모습과 행동을 보였다.

사람에게는 인지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가치관 재정립을 위한 단기 집단 프로그램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고 짧은 시간이나마 참가자들이 많은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변화는 순간에 지나지 않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추수 지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4. 등교 거부 사례

4.1 사례 개요

4.1.1 가족 구성

이 가족의 생활 수준이나 문화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부는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매회 마다 치료에 참가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다. 이들은 전형적인 노동자 계층의 가정으로 언어적 교류는 거의 없었으며 거친 언어나 행동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그런 가운데도 아버지는 설거지나 이불을 정리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할 정도로 가정적인 사람이며 형제 중에서 내담자를 가장 귀여워하였다. 두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렀지만 학교 생활에는 문제를 일으킨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큰오빠는 야간 고등학교 3학년이며, 작은오빠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4.1.2 문제 행동과 발생 과정

현재의 등교 거부는 중학교 2학년 신학기 초부터 시작되었다. 내담자는 유아기부터 이웃에 사는 동년배의 특정한 여자 아이하고만 놀면서 다른 아이가 끼어들면 함께 놀지 못하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2학년 경부터 가끔 학교에 가지 않거나 집을 나서도 가방을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 숨겨 두고 근처의 버스정류장까지 배회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집 안에 숨어 있기도 하였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학교는 갔으나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는 등의 비행 행동이 있었으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학급이 바뀌자 전혀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사회 생활은 미숙하여 혼자서는 전철을 탈 수 없으며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는 등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4.2 문제 평가 및 상담 계획

본 사례의 가정은 등교 거부 아동의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특징은 부모 자녀 관계가 융합(enmeshed)되어 있으며 세대 간의 경계도 애매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서 **의 가족 관계를 추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부의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자세가 부부 관계를 빈약하게 하며 이런 속에서 가정은 모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다. 소극적인 남편이나 거친 두 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한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내담자를 지나치게 과보호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밀착된 모녀 관계는 내담자의 사춘기 적응에 어려움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에 접어든 내담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비행, 등교 거부 등의 형태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된다. 여기에 당황한 어머니는 자신만의 접촉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고 인식하여 처음으로 내담자 앞에 아버지를 등장시키나 지금까지 아버지와 내담자의 관계가 희박했기 때문에 내담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내담자를 더욱 자극하여 사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상담 팀은 본 사례의 가족 역동을 위와 같은 양상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상담 목표를 부모가 내담자를 통제하지 못하는 등의 혼란된 가족 체계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 데 두었다. 즉 내담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상징되듯이 이 가족의 권위 체계는 혼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우선 가족의 현실적 관계를 파악하고 가족 자체가 그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제 4회, 5회에서는 내담자에게 감독과 각본가의 역할을 시켜 상담팀이 배우로서 가정 극을 연기해 보았다. 상담자가 역할을 맡았던 것은 가족이 자신이나 다른 가족의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상 이외의 결과를 얻었다. 즉, 상담자가 스스로 연기하면서 가족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었으며, 내담자도 그전까지 적대적이었던 남성 상담자가 자신의 역할을 맡은 것을 계기로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상담 자체가 연극이므로 가족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지시나 개입을 하기도 쉬웠으며 아버지가 참석한 5회 면접에서는 아버지에게 감독역을 맡기고 내담자가 배우로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 가족 내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극을 통해 특징적인 가족 행동의 연쇄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즉, 그림 5와 같이 내담자가 아버지를 훑끗훑끗 보거나 거친 말로 아버지를 자극하고 아버지는 거기에 편승하여 내담자와 싸우게 된다. 결국 아버지에게 내담자에게 지고 밖으로 나가며 어머니가 아버지를 쫓아가 한참 후에 같이 들어온다. 부모가 친밀하다는 사실은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느낌과 어머니와 계속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양면적인 감정을 지닌 사춘기의 내담자로 하여금 또 다시 반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은 다시 아버지를 자극한다는 연쇄적인 반응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4. 등교 거부 사례

4.3 상담 과정

1) 제1회 : 내담자와 부모

우선 모는 장남은 낮에 일하면서 저녁에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올 수 없었으며 차남에게는 내담자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같이 올 수 없었다는 설명을 하였다. 차남에게 내담자의 등교 거부에 대하여 숨기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모는 “그 애는 화를 내면 얼굴 색까지 변하면서 태도가 굉장해요. 그럴 때마다 **는 무서워하면서 농속에 숨어 버려요. 그래서 나하고 **가 짜고 낮에 학교에 갔다온 것처럼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부는 “오히려 (숨기는 것이) 나쁜데... 가족은 하나니까. 집사람이 **를 감싸고 도는 데 그게 오히려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서”라고 모의 대응 방법에 불만을 나타냈다.

장남은 착실하고 내담자에게 부드럽지만 차남은 난폭하고 식사 때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만들게 하는 등의 가정 내의 폭력에 가까운 상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부모들은 조금 거칠어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차남의 행동은 전혀 문제시 하지 않았다.

상담 중에 내담자는 안절 부절 못하고, 특히 부모가 내담자에 대하여 언급할 때는 다리를 떨거나 화난 표정 등의 신체적 긴장을 나타내며 여성 상담자와 개별 상담을 요구하였다. 상담은 내담자의 거부 반응과 일시적인 개별 상담으로 소란했으며 부모로부터 얻은 정보도 산만하였다. 그러나 내담자의 유치한 태도와 난폭한 언어 사용으로 가정은 지적으로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상담 개입은 내담자의 등교 거부를 가족 전체가 면접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였으나 모로부터 어렵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들었다.

2) 제2회상담 : 내담자, 내담자의 모

내담자는 개별 상담을 할 생각으로 상담실에 들어 왔는데, 상담자가 함께 상담할 것을 제안하자 마지 못해서 동의였다. 그러나 10분이 지나도 상담의 방향을 찾지 못하여 상담자들은 관찰실의 상담팀과 앞으로의 방침을 재검토 하기 위해서 잠시 상담실을 나왔는데 이 때 내담자

는 상담실에 있는 마이크를 통하여 “나쁜 놈, 뭐라고 지껄여. 잘난 척 하지마”라고 외치는 등 남성 상담자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상담팀은 내담자와 여성 상담자, 어머니와 남성 상담자가 나뉘어 개별 상담을 한 후, 나중에 함께 상담을 실시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모와의 개별 상담에서는 부와 장남은 바쁘고, 차남은 내담자에게 호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올 수 없다는 이유서를 꺼냈다. 또한 내담자는 일주일에 두 번쯤 학교에 가기 시작했지만 교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보건실에서 지내며 점심도 그 곳에서 혼자 먹는다고 전했다.

약 40분 후 합동 상담을 실시하였다. 내담자는 사사건건 모에게 반발하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면 모 : **는 친구에게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요.

내담자 :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건 당연해. (상담자에게 동의를 구하듯)

그렇죠?

모 : 굉장히 소심해요. (친구에게)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내담자 : 그런 적 없어요.

모 : 그전에도...

내담자 : 틀려, 또 말대꾸 할거야.

모 : 이 상태로 그냥 있어도 좋은지, 벌써 일년이나 계속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과 만나야 할 텐데.

내담자 : (히죽히죽 웃으면서)뭐가 어때서. 시끄러워, 친구는 많아.

하하.

가족에게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상담실을 나와 있는 동안, 내담자는 마이크에 “바보”라고 외치거나 일면경을 통해서 상담팀이 있는 관찰실을 엿보려고 하는 등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 모의 주의를 무시한 채 칠판에 장난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 봐, 내가 쓸께”라고 모를 못 살게 굴었으며 모 역시 유치원 아동과 노는 것처럼 내담자에게 지시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개입 단계에서 모는 학교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 좋고, 지금은 내담자만 곁에서 지켜 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례적인 개입만을 하였다. 그리고 상담자는 다음 상담에서는 가족원 전체가 오도록 요구하자 모는 부가 일당제로 일한다는 이유로 가족 상담에 난색을 나타내었고, 내담자 역시 개별 상담을 희망하였다.

3) 제3회 상담 : 내담자와 모

4. 등교 거부 사례

상담을 하기에 앞서 상담팀이 오늘의 상담 방법을 토의하였다. 이대로 개별 상담을 계속하는 것은 뚜렷한 목표도 없고 함께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즉, 개별이라는 상담 구조는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보건실에서 혼자서 수업을 받게 하는 학교에서의 상황과 꼭 같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담을 통하여 모는 내담자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듯한 언동을 반복함으로써 내담자는 모의 그런 태도에 화가 나서 더욱 강하게 반발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상담을 할 때 계속 이러한 양상이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상담팀은 내담자를 자극할 수 있는 언어적 의사 소통보다는 비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을 촉진시키기로 하고 우선 가족 그림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각각의 도화지에 가족의 얼굴을 그리도록 지시하여 내담자는 모, 부, 작은오빠를 그렸으며, 모는 내담자와 내담자가 그리지 못한 큰오빠의 얼굴을 그렸다. 그리고 나서 칠판을 자신들의 가정이라고 본다면 각각의 얼굴 그림을 어느 위치에 붙이겠는가라고 질문하면서 붙여 보도록 지시하였다. 내담자가 붙인 것은 그림 1이며, 내담자가 붙인 다음 모에게 다시 붙여 보도록 지시하여 그림 2가 완성되었다. 모는 “**는 언제나 모에게 찰싹 붙어 있고, 엄만 아빠와도 사이가 좋지않아”라고 하면서 내담자의 얼굴을 모에게 겹쳐서 붙이고 부의 얼굴도 모와 가깝게 붙였는데 내담자는 “그만 뒤”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제2단계로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었으면 하는 이상형의 가족 모습으로 바꿔 붙일 것을 지시하였는데, 내담자가 작성한 것이 그림 3, 모에 의한 것이 그림 4이다. 칠판에 가족 그림 붙이는 작업을 마친 후, 그런 작업 속에서 얻어진 정보를 확인해 봤는데 내담자는 “작은 오빠가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모도 “차남은 장남보다 힘이 있어서 의지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1회 면접에서 얻었던 장남은 착실하며 내담자에게 친절하고, 차남은 문제라는 정보와는 상당히 상반된 것이다.

내담자는 이러한 가족 그림에 대해서 “재미 있었다”고 느낌을 말하여 상담자가 다음에는 아버지와 오빠들에게도 그리게 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모는 “역시 가족이 변화하면, 아이가 하루쯤 학교에 가지 않아도 조금씩 움직여 주지 않는가 생각되네요. 가족이 달라지면 부가 싸우지 않게 돼서 집안 분위기도 바뀌고 나도 화난 기분이 아니고, 아이에

게도 이런 저런 잔소리도 안 하게 되고요”라고 말했다. 내담자 역시 “(집이)변했다. 싸움이 없어졌다. 그리고 잉키(강아지)가 새로 들어왔다”고 가족의 변화를 인정하였다.

4) 제4회 상담 : 내담자와 모

상담 전의 상담 팀의 토의에서는 이 가정의 지적 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하므로 역할극 등을 사용하여 학습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춘 개입을 하기로 의논하고 가정에서의 한 장면, 즉 저녁 식사의 장면을 재현시켰다. 가정 극을 할 때는 내담자의 가족은 5명이기 때문에 관찰실에 있는 상담팀의 한 명이 상담실에 와서 함께 참가하였다.

내담자와 모에게 저녁 식사 장면의 연기를 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들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얼마되지 않아 역할 극은 중단되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무대 감독으로 명명하고, 상담팀과 어머니가 배우가 되어 내담자에게 대사나 연기를 지도 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담자는 감독역에 만족하면서, 서서 적극적으로 상담팀에게 대사와 움직임을 지시하였다.

개입으로는 관찰실에 있는 상담팀의 평가로서 지금의 가정극에서 내담자의 감독역은 훌륭했다고 전했다. 다시 가족 전원이 참석하도록 권유하자 모는 이전과는 달리 부의 참석에 대하여 한나절 정도는 일을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5) 제5회 상담 : 내담자와 부모

내담자는 오전에 학교에 가기는 하나 아직 교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보건실에서 따로 수업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제3회의 가족 그림과 제4회의 가정 극을 부의 협력을 얻어 다시 한번 해 보았다. 가족 그림에서는 “**는 변했어요. 나를 이해해 줘요”라고 하면서 내담자는 작은 오빠의 그림을 다시 그렸다. 가정 극에서는 내담자에 이어 부의 감독역을 맡고 상담자와 가족이 각각의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게 되었는데, 내담자가 부의 지시에 좀처럼 따르려 하지 않았으나 내담자에게 배우는 감독에게 반항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어서 겨우 배우의 입장을 지키게 하였다.

상담자가 개입 방안을 의논하기 위하여 잠시 상담실을 비우자 내담자가 실내를 걸어나다니면서 부산하게 장난을 치기 시작하였고, 부모들은 그런 내담자의 행동에 주의를 주었다. 내담자는 부모의 주의에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오히려 “뭐야, 그 눈초리가!”라고 부에게 버릇 없는 태도

로 계속 반항하였다. 일면경 뒤에서 버릇 없는 태도로 계속 반항하였다.

4. 등교 거부 사례

일면경 뒤에서 이러한 과정을 관찰한 상담자는 상담실로 돌아와 부에게 내담자에게는 화를 내지 못하는가라고 문자 부는 “조용히 해, 그럼 안 돼”라고 내담자를 야단쳤지만 내담자는 “시끄러워, 잠자코 있지 않으면 집에 가서 없어”라고 하면서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상담자는 이 자리에서 부모가 협력해서 내담자를 야단치도록 지시하였다. 부는 필사적으로 야단을 쳤으나 내담자는 “집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여기니까 말하면서”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모는 말하지 않는 게 역시 낫겠다며 남편을 제지하였다.

그러나 부는 내담자의 행동에 화가 나서 일어서서 내담자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화가 난 내담자는 “이건 아무 것도 아니야. 바보, 나중에 두고 보자”라는 등의 거친 말을 쏟아내었다. 상담자는 연기는 여기서 끝내자고 개입했지만 내담자는 “화가 나서 미치겠다. 학교에서 더 말썽을 떨 거야”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부는 “연기였어. 이제는 끝났어”라고 냉정하게 말했지만 상담자는 “나중에 이 일로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와 해결을 하라”고 개입하였다. 그러자, 내담자는 상담자의 허락을 구하고 나서 부를 한 대 때렸는데 부는 내담자가 하는 대로 놔 두었지만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부는 내담자의 등을 때리면서 내담자를 야단쳤다.

개입으로는 꼭 한 달 뒤가 내담자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생일 축하를 모두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다. 생일 축하는 부모와 내담자가 선물 교환을 하는데 상대가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선택하지만 그 내용은 올 때까지 절대 비밀로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6) 제6회상담 : 내담자와 모

부는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모는 집에 돌아간 후 부가 “그래도 괜찮아. 우리 집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아”라고 개의치 않았다고 그 후의 평가를 전해 주었다. 또한, 내담자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6번밖에 학교를 빠지지 않았고, 일주일 전부터는 교실에 들어간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생일 선물로는 모가 내담자에게 강아지의 봉제 인형을 주었다. 이 선물은 부가 골랐는데, 내용은 지시대로 내담자에게 비밀로 하였다. 내담자는 봉제 인형을 상당히 맘에 들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붙였다. 내담자는 부모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서 상담자가 그 자리에서 부모에게 무엇인가 주도록 지시하자 도화지에 “선

물이 귀여운 인형이군요”라고 썼는 데 상담자는 받을 사람의 이름이 없음을 지적하고 내담자가 항상 부르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로 적도록 지시했으나 내담자는 반항없이 순순히 적었으며,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내담자가 직접 전해 주기로 하였다.

개입으로는 5회의 상담 때처럼 단호한 부모들의 야단치는 태도는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과제로서 내담자는 부모들이 혼을 내도록 일부러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며 부모는 내담자의 그런 행동을 단호히 꾸짖도록 지시하였다.

이 상담부터 상담을 방해할 정도의 기분 나쁜 내담자의 바보스러운 웃음이나 상담자가 없는 동안 실내를 배회하는 내담자의 문제 행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상담자에게도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부언해 준다.

7) 제7회 상담 : 내담자

어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내담자 혼자서 전철을 타고 상담실에 왔다. 내담자는 지금까지 같이 편하게 지내온 초등학교 때부터의 여자 친구와 싸움을 하여 놀지 못하고 학급의 다른 친구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중3이 된 최근 한달 동안은 학교를 빠지지 않았고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그리고 내담자는 최근에 어릴 때 썼던 일기를 읽었는데 그 일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등교 거부 역사의 서술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에 따르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등교 거부가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열을 재고 열이 높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았던 일, 학교에 가도 보건실로 달려가 열이 높다는 핑계로 교실에 들어가지 않았던 일, 담임 선생님의 친절할 말은 역효과가 나서 중학교 1학년 때에는 학교에 갔지만 나쁜 친구를 사귀었던 일, 중학교 1학년 2학기에는 또다시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다시 학교에 가게 된 것을 가족은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 놀라고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상담자가 지난 상담의 과제를 수량화해 보도록 지시하자 모의 야단치는 방법은 30점에서 50점으로, 부의 야단치는 방법은 10점에서 20점으로 향상되었고, 내담자의 화를 내게 하는 방법은 20점에서 5점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모와의 싸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어머니는 요즘 기분이 나빠서 네(내담자)탓이라고 자주 꾸짖는다. 어제 또 작년 12월부터 사주기로 약속한 물건을 사 주지 않아서 싸움을 하

게 되었는데 작은 오빠도 내담자의 편을 들어 주었다.

4. 등교 거부 사례

화가 난 내담자는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로 의논을 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일까지 선생님에게 말한다며 상당히 화를 내었다. 아버지는 사 주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술만 안 마시면 이야기가 통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평가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어머니가 늦게 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을 알고 함께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모는 “가족에 관한 것에 관해서는 더 이상은…”이라고 상담하기를 거부하여 강요하지 않았으나 상담을 종결하더라도 다음 상담 일자를 약속하였다. 상담 팀은 이러한 모의 상담 거부하는 내담자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친구, 선생님 등 내담자를 도와주는 지원 체계의 확대가 어머니를 고립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감이 증대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8) 제8회 상담 : 내담자와 모

상담을 하기에 앞서서 상담 팀은 내담자의 급격한 개선 뒤에는 반드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상담실에 온 모는 지난번 상담과는 달리 활기에 차 있었으나, 반대로 내담자는 계속 아래만 보며 시무룩한 듯 보였다. 그러나 복장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자 아이다운 차림이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내담자는 한 2주전부터 학교에 가지 않는 일이 자주 있으나 일주일 전에 있었던 2박 3일의 졸업여행 참가를 계기로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다.

모는 “봄이라서 다시 흔들리는 것 같아요”라고 마치 기대했었다는 듯한 밝은 표정으로 말했으며, 내담자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짓고 앉아서 말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다. 또한 모는 “여기서는 가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묻거나 가족이 함께 오라고 했는데, 이건 내가 지금까지 듣던 라디오의 교육 상담과는 달리 “이렇게 하면 좋다”는 조언을 듣지 못했다”라고 지금까지의 상담에 대한 불만을 언급하였다. 상담자의 구체적으로 원하는 조언이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모는 “지금 이대로의 가정으로 좋은가요? 나는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와 아버지 사이가 나빠요. **가 자꾸 피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하였다.

이번 상담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모의 불만이나 불안을 들어 주는 것으로 할애하고 난 후 상담자가 개입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나왔다. 이전 상담과는 달리 내담

자는 어머니에게 떼를 쓰지도 않았으며 의자에서 일어나 배회하지도 않고 조용히 상담자를 기다리는 차분한 태도를 보였다. 상담자가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가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물자. 내담자는 “아버지는 시끄러워 졌고, 그 반대로 어머니는 조용해졌지만 부부 싸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상담자는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작년과 어떻게 다릅니까? 가족의 좋은 점을 들어보세요”라고 묻자, “큰 애는 어른이에요. 자립하고 있어서 나 자신도 믿음직스럽게 보고 있어요. 둘째 아이는 요즘은 반찬을 다시 만들라고 하지 않아요. 나 자신도 소리지르지 않게 되었고, 저 아이(둘째)도 힘들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그 애는 확실하니까 좋아요. 남편은 집안 일을 도와 주고, 부엌을 두 시간이나 닦아 줘서 반짝반짝해요. **는 내가 아플 때 집안 일을 해 줬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개입으로서는 상담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가족이 상당히 변했다. 내담자가 부를 피하는 것은 사춘기의 여자 아이로서 당연한 것이므로 어머니는 이 시기에 동성으로서 좀 더 내담자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다. 또한 내담자의 학교 문제는 차츰 좋아질 테니까 끈기를 가지고 지켜 보며, 3개월 후에 다시 만나자고 요청했다.

3개월 후의 추후 상담에서 내담자와 어머니 모두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 내담자는 결석없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어머니도 지금까지 일하던 시간제의 일을 그만두고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다는 근황을 알려 주었다.

5. 도벽 사례

5.1 사례 개요

5.1.1 내담자 소개

중 1이며 행동 상으로 불안해 보이며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한다. 수시로 눈을 굴리며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을 놀리며 말도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늘 외로움을 느끼며 그래서 밖으로 나돈다고 한다. 서울 시내를 어려움 없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 3~4세때 부모와 별거하고 할머니와 산 적이 있고 그 뒤에 모와 함께 살다가 부모가 다시

결합하면서 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5. 도벽 사례

5.1.2 의뢰 과정

도벽과 거짓말을 일삼는 자녀의 문제로 부모가 상담소에 오게 되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5.1.3 제시된 문제

도벽과 거짓말

5.1.4 가족 관계

- 1) 조모 : 부유한 가정에서 6남매의 장녀. 결혼 후 내담자의 부가 돌이 되기전 남편이 사망하여 그 후로는 친정에서 살았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해야 하는 성격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개의치 않는다. 며느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돈벌어다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현재도 집안 살림보다는 밖으로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고 낭비벽이 심하다. 집안에서 세도가 당당하다.
- 2) 부 : 어려서부터 외조부의 보호 아래 자랐다. 대학을 다녔으나 졸업장을 받지 못한 것이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1차에 지원한 학교에 떨어져 2차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 때문에 교류도 하지 않았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으며 학교 성적도 나뻐다.
대학의 학사 학위를 받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신학 대학을 졸업, 전도사가 되었고 88년 1월 현재 모교회의 전도사로 월 33만원을 받고 있다. 내담자의 조모에 대해서는 이지적이라고 표현하였으며 큰사랑은 받지 못한 것으로 느끼고 오직 의무감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성격은 모의 이지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닮은 것 같다고 하였다.
- 3) 모 : 상고 졸업, 어릴 적부터 경제·생활 분야에 눈을 떠서 적극적으로 생활하였다. 결혼해서 오히려 활동 능력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하는 행동파이다. 가게 운영을 통해 이 가족의 생계를 주로 담당하였다.
- 4) 장남 : 고1이며 내성적이다. 부는 모두가 문제가 없는 착실한 모범생이라고 표현한다. 친구가 별로 없고 집에서 라디오를 즐기며 음악 감상이 취미이다. 책상에는 늘 앉아 있으나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가정에서는 인정을 받는 편이다.

5.2 가족 체계 특성에 대한 평가 및 상담 계획

5.2.1 부부의 결혼

내담자의 부가 23세 되던 해 대학 4년 재학 중이고, 내담자의 모는 25세로 경리사원일 때 양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애 결혼하였다. 아내는 외갓집 식구와 시어머니가 신부의 나이가 많고 집안도 가난하다고 하여 결혼을 반대하였으나 남편이 자기만 좋으면 된다고 고집하여 결혼하게 되었다.

남편은 아내가 수완이 좋을 것 같아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면 여자가 공부를 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런 약속 하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5.2.2 결혼 생활 및 가정내 사건

처음에는 남편 외갓집의 도움을 받고 생활하였으나 그 후로부터는 아내의 경제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시모는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요구했다. 남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외갓집 빌딩 관리 업무만을 하였고 어릴 적 죽음을 많이 보았던 경험으로 종교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목회를 결심하였다. 그러므로 본인은 늘 공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가정 생활에 무관심하기 시작하였다. 76년도 아내가 부도를 내자 별거를 하였다. 별거 초기 시모는 남편과 아들과 동거하였고, 내담자가 초등학교 2학년때 합류하게 되었으며 87년 3월에 부부가 재결합하면서 내담자는 부모와 함께 살고, 형과 시모는 주택 관계로 별거하게 되었다. 88년 1월 교회 안에 사택이 준비되면서 온 가족이 같이 살게 되었는데, 현재도 생계 문제는 아내의 책임이며 불만이 많았고 시모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 드려야만 하는 상황에서 아내는 시모의 경제적 낭비에 불만이 많았다.

남편은 아내가 집안 살림은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하며 또 빛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물어 보지도 않고 회피하고 있다.

5.2.3 의사 소통 유형

내담자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나 부부가 함께 심각하게 의사를 교환한 적이 없으며 서로의 책임으로만 전가시키는 유형이다.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시모의 낭비벽 등에 대해 협상을 위한 의사 소통을

해 본 적이 별로 없고 대화가 단절된 가족이다.

이 가족의 특징은 가족 간에 의존적이며 책임 전가가 심하며 솔직하게 감정표현을 하지 못한다. 자부심이 낮고 따라서 열등감이 심하며 외부 체계와도 단절되어 있다.

5.2.4 상담 계획

- ① 문제의 초점을 내담자에게 가족 생활 환경으로 바꾸고,
- ② 부부 간의 대화의 단절을 기능적 의사 소통으로 바꾸며,
- ③ 자녀에 대하여 역기능 의사 소통이 있음을 인식시켰다. 부모 모두 자녀에게 독재적이고, 비언어적 의사 소통의 불일치가 이루어져 자녀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러므로 의사 소통의 일치성을 인식시키고 의사 소통 기법을 활용해 보았다.
- ④ 가족 규칙에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는 부부의 언급이 전혀 없고 수입과 지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사 결정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이다. 가족 규칙을 명확히 세우며 또한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5.3 상담 과정

5.3.1 초기 접촉 및 계약 단계

이 단계에서는 주로 가족 생활 연대표 작성에 의한 가족 역사 및 문제점 등을 알아보았으며 상담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문제를 보는 관점,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 단계에서는 장남을 제외한 모든 가족과 1회, 모와 내담자가 1회, 모 1회 등을 상담하였다.

최초의 상담에서 차남의 문제에 대해 타기관에 찾아갔다가 그곳 상담자의 소개로 본 상담소에 의뢰되어 전화로 약속하였고, 88년 1월 12일 장남을 빼고 온 가족이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담자는 중1(14세)의 남아로 부산한 행동을 보였으며 눈을 굴리며 이야기를 하였고 불안해 보였다.

초기 단계에 있어서 가족이 서로 느끼고 있는 점을 요약, 서술하면 남편은 아이들을 엄하게 해서 차남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내담자가 잘못하였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남편은 술 담배도 안 하고 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아내는 그렇지 못하다고 불만을 품고 있으며, 아내의 밖에서의 활동은 원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아내가 남편의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새벽 기도와 교인 심방에 참여해야 한다고 내심 원하고 있다.

내담자는 모에게 화내거나 짜증내지 말고 웃으면서 말하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봉건적이고 율법적이며 전후 자기 입장만 내세운다고 느끼고 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원치 않으면서도 남편 자신이 가족의 생계 유지 책임은 회피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대화를 피하지 말고 의견을 나누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취미 교육을 시키는 등 남 부럽지 않게 뒷받침하고 싶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초기 단계에서의 가족 상담자의 문제 진단에서 상담자는 이 가족이 원하는 상담 목표는 내담자의 도벽, 거짓말을 고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기독교인답게 살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서 상담자는 다음 단계를 위한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세웠다.

5.3.2 절정 및 혼돈 단계

초기 단계에서의 가족 생활 연대표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가족에게는 역기능적인 의사 소통이 존재하고 있었다. 제2단계로 접어들면서 상담자는 전체 상담 1회, 장남과 조모를 제외한 가족 1회, 모와 내담자 1회를 상담하였으며 조모는 참석하지 못했다.

상담자는 1단계에서의 직접적인 개입을 회피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다음의 전략과 상담 기법을 활용하였다. 문제의 초점을 내담자의 도벽, 거짓말에서 가족 생활 환경의 문제로 관심을 유도하였다. 즉, 내담자의 도벽, 거짓말 등의 역기능적 행동을 가족이 다른 측면에서 보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과 용돈을 안주었고, 집에 오면 TV도 없었고, 문밖에는 기다리는 친구도 없고, 때문에 오락장에 출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족원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하게 되었을까에 대해 상담자는 가족원들을 심리적인 상황으로 유도 하였다.

부부 간의 의사 소통에 있어서 상담자는 부부 간의 의사 소통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부부가 인식하도록 하였다. 부부 간에 불분명하게 상호 의사 소통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점점 대화에 거리감이 생겼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주고 받는 게 없게 되었으며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태도도 없었다. 생활과 주위에 대한 체면 때문에 부부 생활을 유지하려는 느낌을 주었으며, 상호

지지해 주는 대화가 전혀 없었다.

상담자는 의사 소통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하도록 의사 소통 문장 완성 기법 등을 활용하였고, 죽음의 게임(lethal game)을 통해 무조건 상대방에 항상 일치하는 경험을 시켰으며, 성장 게임(growth vitality game)을 통해 생활에 대해서 자기 의견 및 감정을 생활에 대해서 자기 의견 및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도록 지지하여 어떤 것이 성장 지향적인 가족 인지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자신의 욕구를 숨기고 그냥 일치하고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 직접 남편에게 이야기해 보세요”하고 솔직한 느낌을 전달하고 또한 설명보다 실연하도록 하고 상호 의사 거래 수준을 향상시켰다. 또한 상담자는 조각 기법을 사용하여 언어적인 설명보다 가족이 전부 모였을 때의 친밀 관계를 시범하도록 하였으며 상담자가 할머니의 역할을 하는 한편 가족을 관찰하였다.

차남은 주로 다른 곳을 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부의 친밀도는 거의 없어 보였다.

이때 상담자는 재구조화(refram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남편이 모에 대해 잔소리가 많다고 비난하는 때가 많은 점에 대해 상담자는 관심을 갖고 자식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재정해 주었다. 상담자는 이 단계에서 의사 소통 영역과 가족 규칙에 대해 개입을 하였으며,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에게 묻는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하여 증상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상담자는 관계 형성이 잘된 것으로 보고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라는 제목의 글을 써 볼 것을 과제로 주었다. 가족이 내담자의 역기능적 행동에 대한 관심이 적어져감에 따라 내담자의 눈을 굴린다면, 손을 놀리는 행동은 더욱 줄어들었다.

5.3.3 통합 및 종결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와 모 1회, 모와 두자녀 1회, 부 1회 상담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 남편이 말로는 자신의 월급으로 그 수준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아내는 비언어적으로 경제 활동에 대해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다. 현재의 수입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함을 인식시키고 할머니의 용돈을 줄여 보도록 노력하고 가정 생활이 많이 침해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가족이 느끼는 공통점으로서 집안이 너무 쓸쓸하다고 한 점에 대해서 상담자는 가족이 외식을 할 기회를 가져 가족의 느낌 및 바람을 구

체화하도록 하였다.

의사 소통 기법의 재반복 실시를 권유하여 초기에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점들이 줄어들자 내담자의 거짓말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부부 간에 혹은 가족원 간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면서 상담자는 가족원 간의 대화나 의사 교환이 증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녀의 개학이 다가옴과 동시에 가족과의 상담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의사소통 기법의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5.4 종합 및 평가

이 가족의 상담 과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문제의 초점을 가족간의 문제, 부부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의사 소통 기법을 활용시키도록 돕는 과정에서는 매우 협조적이었으나, 조모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는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내담자에 대하여 가족원이 대하는 태도 또한 많이 변화되었고 집단 활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자살 사례¹⁾

6.1 내담자 기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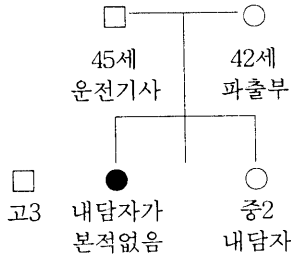
6.1.1 내담자 인적 사항 : 중학교 2학년 여학생

* 내방경위 : 교내 진로 상담 주임 교사의 의뢰. 금년 4월 말(약 7개월 전) 본 원 전화 상담실로 진로 상담 주임 교사가 응급 위기 상담을 요청하였다. 2일 전 교내에서 한 여학생이 연예인을 따라 죽는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였고, 학교 측이 전교생들에게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글을 쓰도록 하였다. 그때 수거한 글들을 검토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입해 줄 것을 본 원에 요청하였다. 본 원에서는 3명이 한 팀이 되어 출장 상담을 2회 실시하였다. 집단 상담과 접수 면접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본 내담자 스스로도 상담을 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본 상담자에게 의뢰되었다.

6. 사실 사례

6.1.2 내담자의 가족사



- 1) 아버지 : 버스 운전기사. 중졸. 날마다 소주를 한 병 정도씩 마시며 주사가 심함. 부부 간에 충돌이 심하고, 가족을 구타한다. 내담자와 가장 친밀하면서 장난도 많이 친다. 내담자와 상호 관계 중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너 아빠 사랑하니?” “아빠 죽어버릴 까?”). 내담자로 인해 자존심이 상했을 때는 심하게 구타하고 2주 이상 시선도 마주치지 않으며 내담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골라서 한다.
- 2) 어머니 : 파출부. 고졸. 내담자의 표현에 따르면 내담자의 오빠와 정서적인 유대가 강하다. 남편의 구타에 반항을 하지 않는다. 가끔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잘 해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데, 내담자는 어머니의 이런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담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보고 통곡을 하였다. 그 뒤로 내담자에게 친밀감을 보인다.
- 3) 오빠 : 고3이지만 입시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때는 모범생이고 성적이 좋았으며 집안 어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중학생이 되면서 반항과 가출을 일삼고 있다. 내담자가 보기에는 장래에 소년원 내지 감옥소를 드나들 것으로 보인다. 어릴 때는 내담자를 무척이나 때렸고, 집안 형편과 관계없이 메이커 옷을 여러벌 갖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한다.
- 4) 언니 : 내담자의 기억에는 없다. 부모님이 화 나셨을 때 표현하기로는 딸인데다 장애인이라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데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6.2 상담 문제와 배경

6.2.1 접수 문제

1) 주문제

- ① 자살 시도 가능 - 본인이 보고하기에 4회의 자살시도 경력이 있다. 줄자로 목을 메었을 때는 끊어진 줄자를 어머니가 발견하였는데 이 때 얼굴에 반점이 생겼었다. 나머지 세 번은 수면제를 과다복용(두 번째 20알, 세 번째 15알, 네 번째 20알) 했는 데 잠만 싹틔 자고 일어나 보니 살아 있었다.
- ② 관계 상의 문제(가족 관계/교우 관계) - 가족 중에는 특히 아버지와 잦은 트러블이 있다. 아버지와 밀착된 관계 속에서 농담을 하다가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신체나 언어 폭행으로 보복을 당하며 괴로워한다. 친구들 중 내담자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없다. “이 아이는 나에게 헌신적이지만 계산이 흐려서 싫고, 이 아이는 정확하고 경우가 밝지만 인정이 없다”는 식의 해석을 한다. 친구들과 친해지면서는 예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잦다. 거만해 보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대인 관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내담자는 친구들과 소원해지는 문제를 자신의 성적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 ③ 성적 하락 -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1등만 했었다. 중학교를 전교 4등으로 입학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된 지금에는 반에서 7~8등 정도를 하고 있다. 특히 영어 과목이 전체 평균을 많이 내려가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단어를 외는 게 제일 싫어서, 단어를 외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한다.

2) 문제 발생 배경

- ① 열악한 가정 환경 -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남녀 차별이 심해서 어린 시절에는 오빠에 비해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다. 오빠가 중학생이 되면서 빚나가기 시작하자 관심의 초점이 내담자에게로 옮겨지고 현재는 ‘내가 우리 집안을 빛내라’는 식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아버지의 주사로 어머니와 오빠가 거의 매일 매를 맞는 것을 지켜보고 자랐으며, 본인도 많이 맞았다. 스트레스 쌓인 오빠에게 매맞은 적도 많다. 어머니는 온정적이기는 하지만 표현하지 않고 있다가 중학교 1학년, 내담자가 줄자로 자살을

시도한 이후부터 애정을 보이고 있다. 충돌로 인해 위협을 받거나, 술마신 아버지가 귀찮게 굴거나, 학업 성취에 대한 압력을 받거나 등의 이유로 집에 들어 가면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한다.

- ② 좌절 - 내담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현재의 가정 환경은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부정적인 요인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한 수치심과 가족들에 대한 분노, 적개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빠가 비행을 저지르지도 모르는 데 차후로 좋은 직업을 얻을 때 오빠의 행적이 방해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안고 있다. 가족들이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을 할 때도 많기 때문에, 내담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하여 본인이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열악한 환경과 좌절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는 대인관계에서 공격과 의존의 극단을 치달르면서 관계 상의 문제들을 겪고, 더욱 더 좌절하여 자살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격동 속에서 성적은 점점 하락하고 있고 성적의 하락 또한 내담자에게 크나큰 좌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사고(낮은 자아 개념, 피해 의식)

내담자는 가족들에게서 어린 시절부터 수용이나 배려보다는 차별과 성취 압력을 주로 경험하면서 살아왔다. 딸이라고 차별 받으면서도 성취의 측면에서는 더 나은 성취를 향한 압력을 받고 있다. 내가 끊임없이 현재보다 나은 성취를 이룩해 내야만 집에서 어깨를 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에게서는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비교를 받으면서 하급생들조차 자신을 야유한다고 지각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내담자를 쳐다봐도 저 사람이 나의 옷차림과 뚱뚱한 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담자가 보기에 내담자의 외모는 깔끔하고 보통체구라고 느껴짐)

4) 감정(수치심, 분노, 죄책감)

딸이라고 오빠나 엄마가 입던 옷을 주로 물려받아 입으며 자라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차별을 받고 있음에 대하여 분노를 느낀다. 특히 돈 없다고 하면서도 오빠에게는 메이커 티셔츠와 바지를 몇 장씩이나 갖고 돌려 입게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많이 난다. 가정 환경에 대한 수치심과 성적 하락으로 인한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 있다. 가족에 대한 증

오를 하고 나서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5) 행동(방어적, 공격적)

내담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남을 협력자로서 생각하는 행동 양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항상 인식하면서 방어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남이 보기에는 예의가 없고 거만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을 상황에 관계없이 표현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조차도 ‘무슨 아이가 저렇게 기분 나쁘게 행동해!’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양팔을 깎지 끼고 턱을 약간 올리며,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듯한 표정으로 깔아뭉개려 한다.

6) 질병이나 기타 의학적 진단

없음.

6.3 상담의 방향 및 과정

6.3.1 문제 진단

- ① 성적 하락 - 현재 성적이 떨어진 주된 이유는 영어 점수의 하락이다.
- ② 자기 인식 능력 부족 - 자신의 감정과 사고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어서 대인행동에 대한 자기 검열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친구들로부터의 소외로 표현된다.
- ③ 도구적 대인 관계 - 서로의 가치나 욕구를 존중하는 태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지 못한 대인 관계, 상대방으로부터 ‘웬지 기분 나쁜 아이’라는 평을 받을 때가 있다.
- ④ 대인 관계 기술 부족 - 상대방을 방어적/공격적으로 대한다. 이 문제는 친구들과의 충돌로 표현된다.
- ⑤ 의존성 - 열악한 가정 환경 및 부모에 대해 심리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6.3.2 상담 목표

- ① 자기 인식 능력 향상 -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행동을 스스로 검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가정의 불화나 가족 성원과의 충돌에서 빚어지는 부정적인 감정 및 모델링이 자신의 대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자기 행동에 대한 이해도의 향상을 목표 달성의 증

거로 삼는다.

- ② 목적적 대인 관계 형성을 위한 태도 수립 - 자신과 타인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성적, 외모, 경제 환경이 좋지 않고 할지라도 존재의 가치 자체는 떨어지지 않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존재 자체는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내담자가 상대방을 욕구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동을 줄이는 것으로 목표 달성의 증거로 삼는다.
- ③ 대인 관계 기술 향상 - 자기 인식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일어날 변화이며, 상대방을 진솔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도록 한다. 친구들과의 충돌이 줄어드는 것을 목표 달성의 증거로 삼는다.
- ④ 독립성 증진 - 가정 환경이 열악하고 부모들이 처벌적/도구적 양육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가치 높음을 확신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가도록 한다. 내담자의 감정 언어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 달성의 증거로 삼는다.

6.3.3 상담 전략

- ① 자기 인식 능력 향상을 위해 - 내담자의 말속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내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을 반영하며, 내담자의 대인 행동을 해석한다.
- ② 목적적 대인 관계 형성을 위한 태도 수립을 위해 -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존중함으로써, 내담자가 먼저 경험하도록 하고, 존중받는 체험을 통해 얻어진 자원을 생활상에 적용하도록 한다.
- ③ 대인 관계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 상담 상황에서 상담자에게 보이는 내담자의 행동을 즉시적 자료로 이용하여 대인 관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내담자가 가져온 대인 관계 자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도록 하며, 역할 연습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하도록 한다.
- ④ 독립성 증진을 위해 - 적절한 시기에 내담자의 가족 역동과 자신의 행동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통찰을 통해 독립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상담 과정에서 얻은 심리적인 힘이 독립성 증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격려한다. 현재 성적이 하락하는 데 주된 영향을 미치는 영어 학습 방법을 논의한다.
- ⑤ 위기 개입을 위해 - 일단 자살을 시도한 경력이 있는 내담자이므로 매회 상담이 끝날 때마다 죽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

6.4 상담 과정

6.4.1 초기 상담(1-3회까지, 1996년 6월, 상담 구조화 시기)

- ① 구조화 과정 : 1회부터 3회까지는 교내 진로 상담 선생님이 본 원으로 내담자를 데리고 와서 내방하였다. 이 내담자가 처음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내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자살을 하게 되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학교 상담실에서 학생들에게 힘든 점을 적도록 하고 수합하게 되면서였다. 이 내담자가 적은 글 속에 4회의 자살 시도 경험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원의 팀이 학교에서 출장 상담을 실시할 때 이 내담자를 만나게 되었다. 지속적인 개인 상담이 필요할 듯한 학생들 중에 이 내담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내담자 자신도 상담을 원하였으므로 3회까지 진로 상담 선생님의 인도를 받아 본원에서 상담을 실시하였다.

학교와 본원의 거리가 2시간 정도 걸리므로 처음 올 때에 진로 상담 선생님은 하교 후에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 내방부터는 학생들만이 오게 되었고 이 내담자들이 왔을 때는 지쳐보이는 데다 첫 회 때의 경험이 있어서 본 상담자가 다과 및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별 대우’가 상담 관계를 사교적 모임으로 이끄는 경향이었고, 그리고 내담자의 의존성 및 도구적 대인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상담 세팅을 새롭게 구조화하게 되었다.

이에 4회부터는 본 상담자가 2주마다 1회씩 내담자가 다니는 학교로 출장 상담을 나가게 되었다.

- ② 상담 내용 : 자살문제에 관하여 - 나는 또 자살 시도를 할지 모른다. 나 죽었을 때 누가 울어줄 것인가? 상담 선생님이야 전문가로서의 명예에 손상이 가니까 울겠지. 학습 문제에 관하여 - 초등학교 때는 1등만 했었다. 중학교 입학시험도 전교 4등으로 들어왔지만 점점 떨어져서 현재는 100등 정도가 된다. 영어단어 외는 것이 무의미하게 보인다. 영어가 50점 대라서 평균 점수를 많이 잡아먹는다.
- ③ 상담자 인상 : ‘보이기 위한’ 자살 시도 가능성도 있어 보였고, 상담자가 얼마 만큼 자기를 받아줄 것인지 시험하고 있는 듯하다. 어렵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하는 데, 뭔가 피상적인 소재들을 고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

내1 : 지난 주에도 죽고 싶었어요. 시험은 다가오는 데 공부에 자신은 없고...

상1 : 그래. 시험 때문에 많이 힘들구나

내2 : 내가 죽으면 누가 울겠어요? 엄마, 아빠야 많이 울겠죠. 자기네들이 부모 노릇 잘못해서 자식 죽었다고 생각하니까는요.

상2 :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구나.

내3 : 선생님은 뭐 울겠어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상담 선생님 이야 자기가 상담해 주던 아이가 세상 뒤흔으니까 좀 실망하겠죠. 명예도 깎이고...

상3 : **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외롭겠다. 누군가 **를 진심으로 사랑 하기 때문에 **의 죽음을 두려워해 주고, **의 존재를 귀하게 생각해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좋을 텐데...

.....

상4 : **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확답할 수는 없지만 왠지 우리가 계속 만나면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런 게 생길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하는 데 우리 한가지 약속하자. (뭔데요?) 다음 시간에 죽지 않고 상담실에 오는 것!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음. 상담자는 손을 내밀고 기다림. 한참 후에 멍쩍게 약속을 함.)

내4 : 죽지 않고 와 주죠 뭐.

.....

내5 : 배가 너무 너무 고파요. 만두는 절대로 사주지 마세요. 너무 맛있어서 겨우 먹었어요. 오늘은 다른 걸 사주세요. 너무 멀고 힘들어요. 상담실에 오는 게.

상5 : 그래, 힘들고 배고플 만 하지. 그럼 잠깐 생각해보자. 어차피 ○○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여기 잠깐 있어 봐.

축어록(3회상담)

내1 : 아휴 힘들어!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더워요? 지하철에 사람은 많고...

상1 : 그래. 자기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너무 멀다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도 생각을 해봤는 데 **도 힘들 것 같아 이제부터 학교로 선생님이 **학교로 가면 어떨까?

내2 : 학교로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6장

비행 청소년

상담 사례

.....

내3 : 지난 주에 죽을 생각 한 번 했었어요.

상2 : 무슨 일이 있었나?

내4 : 글썸, ○○이가 절교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랄이야”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 말 했다고요. 개는 좀 사람을 귀찮게 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죽을 생각할 때 개가 시간 맞춰 전화해 준 적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떠돌고 집에 가서 오빠한테 매맞고 공부도 안되고, 잠도 안 와서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생각할 때 아주 늦은 시간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더라고요.

상3 : 그러니까 ○○가 참 결정적인 순간에 **를 생각해주는 친구인데 말 잘못해서 절교할 처지가 됐었구나.

내5 : 그 기지배는 가끔 웃기기도 해요. 돈 꾸가고는 갚지를 않아요. 전에 돈 2,500원 꾸갔는 데 갚으라고 했는 데 계속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저한테 옷사러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따라 갔더니 한 벌에 80,000원 하는 바지를 사는 거예요. 난 시장 패션으로 입는데 남의 돈 안 갚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참 화가 나더라고요.

상4 : ○○에 대한 감정이 여러 가지겠구나. 2,500원 안 갚으면서 80,000원 짜리 바지를 사 입을 때는 내가 봐도 화가날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하지 그랬어.

내6 : 막상 그 때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치사한 거 같고○ 그냥 “내 돈 내봐.” 이렇게는 하는 데○ 소용이 없어요.

상5 : 그런 감정이 쌓여있으면 “지랄이야” 이런 표현이 불쑥불쑥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는 **속에 있는 마음들을 알까? 고마우면서도 알뜰기도 하고 그런 마음.

6.4.2 중기 상담

(1996년 7월-9월 : 본 상담은 아직 중기정도로 진행중인 사례이다.

중기를 두 시기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중-전기

(4회~9회 ; 7월, 8월 : 지지 체제 시험기 - 여기서 지지 체제에는 본 상담자와 내담자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진로 상담 주임 선생님이 포함된다.)

이 기간 치러진 기말고사 시험에서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내담자는

기뻐하였다. 영어 점수는 많이 올랐고, 이전에 영어는 정말 하기 싫다는 마음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주요 요인은 영어 단어를 외는 데 가치를 부여하고 문법공부에 시간을 투자한 데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내담자는 자신의 지지 체제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었다. 시험의 유형은 상담에 오는 댓가로 구청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이 힘을 써 달라는 것과, 산부인과 질환이 있어서 병원을 가야겠는 데 어머니가 데려가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병원에 데려가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 등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진로 상담 선생님과 본 상담자가 여러 차례 의논을 하였고, 내담자가 뭔가 특별히 대우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선생님들을 이용하려 하는 것 같을 때는 그 욕구 자체는 충분히 인정하되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의논 결과는 진로 상담 선생님을 통해 담임 선생님에게도 전달되었다. 그 한 예가 다음의 축어록에 제시되어 있다.

축어록(5회상담)

약속 시간이 20분이나 경과되었음에도 내담자가 나타나지 않아 집에 전화를 하였다. 기억하고 있었지만 못 왔다고 하면서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 데 몸이 좀 피곤해서 누운 자세로 전화를 받겠다고 하였다.

.....

내1 : 알고는 있었는 데요. 못 갔어요. 선생님 기관에서 하는 성 폭력 행사는 잘 됐어요?

상1 : 음, 염려 덕분에. 사람들도 많이 왔고,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인사를 좀 받고 있어. 그 일에 관심을 가져 주니까 고마운데. 다음 번에 올 때는 지침서를 갖다 줄게.

내2 : 사실 올림픽을 열심히 봤어요.

상2 : 그래?

내3 : 체조할 때 여홍철 선수가 있었는데... 그거보고 막 울었어요. 선생님도 아시죠?

상3 : 그래, 잠깐 봤다. 착지에서 실수해서 은메달을 땀지

내4 : 네 그런데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거기 알렉세이라고 러시아 선수가 있는데, 금메달을 땀어요. 그 선수도 멋있고... 여홍철 선수보다 그 선수가 더 멋있어요.

상4 : 두 선수가 다 좋은데 러시아 선수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구?

내5 :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그 선수들을 선수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로서. 막 사귀고 싶고... 그런 꿈을 많이 꿔어요. 이런 거 이상하죠?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때 올림픽 비디오 테이프를 사서 간직하려고요. 그래서 얼른 KBS영상사업단인가 어디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되게 비싸대요. 우리 형편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일인데. 저 좀 웃기죠?

상5 : 음... 그러니까 **가 그 선수들을 선수 이상으로 좋아하고, 비디오 테이프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컸구나.

내6 : 네 KBS에 전화는 해놨는데, 어떻게 하죠 ? 값은 비싸고...

상6 : 아이구,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전화 해놓고 나서 부담도 되나보구나.

내7 : 네. 정말 돈이 문제예요. 집에는 이야기 꺼내봤자 혼만 나고...

상7 : ...어려운 상황이네.....

내8 : 에이 뭐. 먼저 입금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넣기 전에는 물건이 안 오겠조, 뭐.

이와 아울러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관계 형성에 몰입할 것인지 아닌지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담자가 자신을 많은 내담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필요해서 상담자에게 전화했을 때 출장중이나 휴가 중으로 인해 자신의 전화를 즉각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감정 처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 한 예가 다음의 축어록에 제시되어 있다.

8월중에 상담자는 1주동안 보급사업으로 지방에 출장 중이었고, 바로 뒤이어 하기 휴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2주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휴가 후 약속된 상담 시간에 학교 진로 상담실에 가 있었으나 내담자는 2회 연속 나타나지 않았다. 3주째 되는 날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축어록(7회상담)

내1 : 지난번에 저 기다리셨어요?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상1 : 음. 무슨 일이 있었니?

내2 : 아버지랑 싸웠거든요. 농담을 막 하다가 아버지가 저보고 “이 유식한 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다가 유식한 년의 반대는 무식한 놈이니까 무심결에 “이 무식한 놈”이라고 말했더니 아버

지가 뒤집어 지시는 거예요.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우리 아빠는 때릴 때 얼굴 등 다리 아무데나 안 가려요. 막 울고나서 두통약을 챙겼어요. 한 열 알쯤 되대요. 물 떠놓고 먹으려고 하는 데 엄마가 달려나와서 등을 치고 막았어요. 제 방에 들어가 한 참 있다가 ○○에게 전화를 했죠. 금방 달려와서 우리 집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언제 다시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랑 그 애 집에 가려고 나오는 데 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막 찾으면서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을 거 같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얼른 도망 나와서 이틀을 ○○에 집에서 잤어요. 한 열흘된 애긴데요.

아직도 아버지랑 말 안해요. 아버지도 날 무시하고 나도 아버지 무시하고요.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서도 서로 모른 체해요.

상2 : 참 큰 일이 있었구나

내3 : 아버지는 싸우고 나서는 나한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해요. 며칠 전에 집에 늦게 가게 되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받길래 “저 오늘 늦어요”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나는 네가 늦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상3 : 저런, 빨리 들어오라고 말해주시거나 차라리 왜 늦느냐고 꾸지람을 하셨으면 덜했을 텐데...

내4 : 아버지는 늘 그래요. 마음에 없는 말인 줄 알지만 너무 화가 나요. 우리 식구들은 다 그래요. 엄마만 조금 덜 그러고 이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박박 상처 주고 풀리면 놀고, 또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청소년대화의광장에 전화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휴가 가셨다고 하대요. 참 세상에 편하게도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대요.

상4 : 아이구 얼마나 좌절이 됐을까. 선생님이 필요해서 전화를 했을 텐데. 이야기 듣고 보니까 참 미안하다. 선생님이 미웠겠구나

6.4.3 중·후기 상담

(8회-계속 : 9월부터 계속-자기개방 및 상담진행기)

이 시기는 내담자의 생명력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상담실에 와서 실컷 토로하고 난 후에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상황을 극복하고 비상하려는 내담자의 의지가 곳곳에서 보였다.

축어록(8회상담)

내담자가 뭔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상담실에 들어서서 털썩 주저앉았다.
.....

상1 :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인데.

내1 : 어휴 재수 없어. 오늘은 자유복을 입는 날이거든요. 이 윗도리는
오빠 것 빌려 입은 거고 오래됐어요. 청바지는 여름에 시장에서 샀거
든요.

사실 싼 옷 입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사람들이 내
옷만 보는 것 같구요. 오늘도 그런 기분으로 오고 있었어요. 앞에 1
학년 애들을 보니까 잘 빼 입었어요. 텍스, 보이런던, 닉스... 머리부
터 발끝까지 딱 달라붙게 입은 거예요. 내 옷은 병병하잖아요. 1학년
애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들으라는 듯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2학년들은 시대를 모르나봐. 우리 뒤에 병병한 거 2학년 맞지?” 그
러는 거예요. 저도 뻘히 쳐다봤죠. 그런데 그 애가 “뭘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저도 크게 소리질렀죠. “요즘 1학년은
나이라도 모르나부지? 왜 이렇게 건방져!”하구요.

상2 : 내가 들어도 속상한데 한 대 패주지 그랬어?

내2 : 사실 제가 뭐 싸우면 누구한테 지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 까짓
것들 이길 수 있어요...

상3 : 그런데 참았던 말이지?

내3 : 싸워봤자 시끄럽기밖에 더하겠어요?(화가 나서 상기된 얼굴 표정
이 가시지 않음)... 선생님은 이런 상담 안하면 모르실 거예요. 왜
TV ‘어른들은 몰라요’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텔레비전 프
로 이야기를 함) 텔레비전 얘기가 아니예요. 우리 반에서도 그런 일
이 있어요.

상4 : 그래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명 메이커를 입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유명 메이커 입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
을 따돌리고 무시하기까지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

내4 : 심하죠.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 비굴한 기분. 아니꼽고, 티끌고
...

상5 : 혹시 메이커 옷 안 입는 아이들은 특성이 어때?

내5 : 물론 학원 가면 메이커 옷들 안 입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우리 집에서
도 오빠는 메이커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티도 몇 벌이나 되고

.....(중략).....

내6 : 물론 제가 메이커 옷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죠. 저
도 옷에 그렇게 메이는 사람이 되기는 싫어요. 메이커 옷이 그렇게
내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상6 : 그래!! **는 가만히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건강
한 결론에 도달하는 힘이 있더라. 지난번에도 느꼈는 데...

내7 :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웃는다)

상7 : **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

축어록(9회상담)

.....

내1 : 선생님, 저는요 커서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상1 : 연구원 좋지. 그래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데.

내2 : 우주 공학이요. 천체를 관측하고 우주선도 띄우는 그런 일이요

상2 : 와 ! 그렇게 멋진 꿈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 천문학을 꾸준히
하다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내3 : 그냥 보통은 말고요. 아주 실력 있는 연구원이요. 미국에 NASA
같은 데 들어가서 첨단적으로 연구하는 거요.

상3 : 결과야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지만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뿌듯한 일일 거야.

내4 : 그런데 걱정이 돼요. 오빠가 혹시 전과자가 되면 빨간 줄이 갈 텐
데...

상4 : 그래?

내5 : 그러면 제가 취직하고 성공하는 데 장애물이 될까봐요. 전과자 동
생이라고... 신원 조회인지 뭔지 하잖아요.

상5 : 뭘 걱정하는지 알겠다. 선생님이 취직을 할 때는 그런 거 별로 못
느꼈는데 혹시 정확한 과정이 어떤지는 우리 같이 알아보고 또 이야
기하자.

.....(중 략).....

내6 : 집안이 가난하고 막나간다고 해서 제 인생까지 포기할 수는 없잖
아요. 아빠가 막 못살게 굴 때는 '나 죽으면 당신은 자식 죽인 애비
요'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아빠는 또 나 죽으면 따라죽을 걸
요. 그러면 엄마도 죽고, 엄마 죽으면 오빠도 죽을 거예요.

상6 : **는 절대로 죽지 않고, 꼭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하
게 담겨있는 말 같다.

.....(중 략).....

내7 : 선생님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해야할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선생님이 내 얘기 쪽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셨잖아요(응, 그랬지)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빠졌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상7 : 어떤 이야기인데?

내8 : 선생님 놀래서 자빠질지도 몰라요. 저,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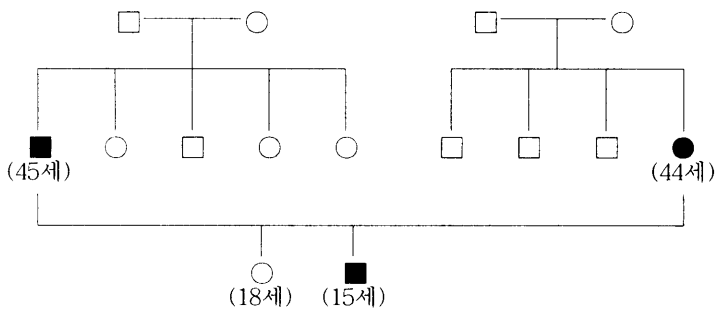
상8 : 불편하면 이야기 안해도 돼. 나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꺼내도 돼.

이후로 내담자가 이야기한 내용은 내담자가 절대 비밀에 부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옮겨 적지 않는다. 내담자는 그 이야기를 상담자에게 하지 않으면 상담자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해놓고 혹시 비밀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토로하였다.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했지만 상담자가 나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다. 진로 상담 선생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내담자를 안아 주고 헤어졌다.

7. 폭력 사례¹⁾

7.1 내담자 기본자료

7.1.1. 내담자 인적사항



1) 구본용(청소년대화의광장 상담조교수)의 사례임

7.1.2 내방경위

내담자의 어머니가 내담자의 문제를 본 기관의 전화 상담실을 통해 상담 받는 과정에서 내방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방하게 됨. 어머니는 전화 상담을 통해 무계획적이고 빈둥거리는 아이의 문제가 아이의 성격, 생활 방식 및 가정 환경 등과 복잡하게 관련이 된다는 것을 알고,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방을 결심 함.

어머니가 전화 상담을 통해 지도 받은 대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주 짜증이 나며,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사춘기를 잘못 보내고 있는 것이고, 이럴 때 너도 속상할 것이니 상담 선생님과 의논해 보자”며 아이에게 상담을 권 함.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했으나 몇 차례의 어머니의 권유로 “한 번 가 보자”라는 식으로 상담에 응함.

7.1.3 호소 문제

1) 어머니

(1) 불만 사항

- ① 내담자가 목표 의식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경향
- ②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옷이나 신발 등 물건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 ③ 신경질을 자주 부리는 것과 학교에서 친구들을 자주 때리는 것 등
- ④ 중학교 1년 중간부터 성적이 떨어지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아진 것

* 희망 사항

- ① 계획적으로 생활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
- ② 공부에 취미를 붙여 중간 정도의 성적은 유지하는 것
- ③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신경질 안 부리는 것과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

2) 내담자

- ① 어머니가 약속을 지켜 주는 것
- ② 애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 ③ 학교성적을 올려 평균 75점(현재 50점대)은 유지할 수 있는 것

- ④ 빈둥거리는 시간을 줄이고 할 때는 열심히 하는 애가 되는 것
- ⑤ 인간성이 좋아지는 것
- * 상담 신청 기록 용지 표시 내용 : 성적 부진, 성적 하락, 교우 관계, 불안/초조감

7.1.4 인상 및 행동 관찰

1) 어머니

보통키(155cm)에 얇은 화장을 한 다소 마른 얼굴에 파마 머리를 한 수더분한 모습. 상담 초기에는 가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절제하는 듯한 느낌을 주나,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아이까지 자신을 힘들게 해서 아이가 원망스럽다는 듯 아이에 대한 원망스러운 말이 많았음. 점차 상담이 진행되하면서 아이 보다는 시집 식구들과의 관계 및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많아졌고, 시집 식구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억울해 하며 자주 눈물을 흘렸음. 이 과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자주 언급하였고, 얼굴 모습이 더욱 피곤해 졌음.

부모 역할과 아이의 행동과의 관계를 명료화한 후에 부모가 변화하면 아이도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상담자의 말에 희망감을 보임.

2) 내담자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는 비교적 큰키(178cm)에 호리호리한 모습. 짧은 스포츠 머리에 가름한 얼굴. 얼굴에는 여드름이 여기저기 나 있었으나 눈에 쉽게 띄지는 않았으며, 주로 청바지에 티를 입고 다녔으며 구두는 성인 단화와 같은 것을 신고 다녀 걸모습으로는 중학생으로 보이지 않고 비교적 어른스러워 보였음. 상담자와의 만나는 과정에서 편안해 보였으며, 상담자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느낌. 상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주제를 자주 바꾸어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이러한 모습은 청소년 초기의 자기 중심적 경향이 대화의 양식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었음. 상담 시간이 모자란다는 듯이 끝나는 시간을 아쉬워했고, 상담 시간이 변경된 후 상담 약속을 지키지 못한 후에는 다음 상담 시간을 꼭 확인하는 경향이 있음.

인사를 잘했고 상담 시간에는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건들건들 혹은

쫄랑쫄랑 걷는 모습이 장난스러워 보이기도 하였고, 상담자에게 기대는 듯한 모습이 큰 키와 대비되어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음.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러한 일들에 대한 내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보였음.

7.1.5. 가족 사항

1) 부(45세)

- 고졸 후에 회사 생활, 대인 관계의 불편감을 이기지 못하고 장사를 하다, 몇 차례 실패를 한 후에 현재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음. 현재는 경제적으로 여유
- 평소에 말이 없으나 화를 내면 무섭고, 심한 경우 부인을 때리기도 했음
- 용돈을 비교적 잘 주는 편이나, 가족들이 돈을 헤프게 쓴다고 불만
- 부인이 자신의 부모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을 괴로워하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
- 아이들이 잘 못하면 심하게 화를 내나,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모른 척하고 피하는 편이고, 자신의 취미 생활(낚시, 여행) 등으로 시간을 많이 보냄
- 특히 내담자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편이며, 내담자와의 관계는 가족들 중에 가장 좋은 편임
-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들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며 내담자의 문제는 결국 부모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상담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부인이 상담 과정에서 들은 말을 전해 주면 주의 깊게 듣고 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상담자의 권유에 따라 실천하려고 애씀

2) 모(44세)

- 결혼 후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시집 식구와 단절하다시피 살고 있음
- 결혼 초기에 남편과 잦은 갈등과 싸움 속에서 화를 무섭게 내는 남편을 겉으로는 무서워 하나, 속으로는 결단력 없는 모습을 무시함
- 아이들에게 짜증을 자주 부리고, 화를 자주 내며, 아이들이 어렸을 때(초등학교)는 자주 때렸음. 아이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고 보고 아이들 보기 괴롭기는 한데 아이들이 잘못하면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함.

- 독실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종교적인 힘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고 함. 그러나 종교인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함.
- 표면적으로는 종교 생활,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적고, 귀가 시간이 불규칙함.
- 상담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비교적 높음. 반드시 이번 상담을 통해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3) 누나(18세)

- 고3,
- 가정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말이 없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일만 하는 비교적 자기 중심적 경향을 지님
- 동생들에게도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듯하고 특별한 관계도 유지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와 도서관 생활 만을 하고 있음
- 집중력이 높고, 학업 성적이 좋음(전교 10등 이내)
-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오거나 전화를 거는 일도 거의 없고, 집에 있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없음. 이러한 경향을 중학교 들어가면서 계속 지속 됨
- 부모들이 어려워하고 있으며, 서로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나 마찰을 겪고 있지 않는 듯 함.
- 내담자는 누나가 부럽기도 하지만 식구들을 무시해 건방지고 자기만 알아 알맴다고 함

7.2 상담 문제 및 상담의 목표

7.2.1 상담자가 생각한 내담자 문제 행동의 발생 과정

1) 직접적인 배경 : 풀리고 싶지 않고, 잘 나가고 싶다

평소에 내성적이었던 내담자는 초등학교 5년때까지는 그리 키도 크지 않았고 다소 조용하고 평범한 학생이었음. 초등학교 6년때부터 갑자기 키가 크기 시작해 중학교 입학하면서 키가 부쩍 자라나면서 주변의 친구들을 지분적거리는 경향이 많아졌음. 처음에 애들이 옆에서 귀찮게 하기에 인상 한번 쓰니깐 찢찢매는 애들의 모습이 신기했고, 그럴 때면 기분이 좋았다고 함. 그러한 경험이 한두번 생기면서 그 동안 무시당했

던 애들에게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친구들이 내담자를 조금이라도 귀찮게 굴면 때려주기 시작했음. 그런데 이상하게 한번 화를 내면 점점 화가 심하게 났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내담자에게 잘못 걸리면 무차별하게 때버렸음. 주로 때리게 되는 아이들은 내담자와 맞먹으려는 애들(영기는 애들), 건들거리는 애들, 잘 나지도 못한 게 잘난 척하는 애들, 꼬장 피우는 애들이었다. 특히 내담자를 비난하는 애들은 그냥 놔두지 않았다. 몇 번 친구들에게 돈도 빼앗아 봤음. 처음에는 애들이 말을 잘 들어 재미있었으나 나쁜 짓같아 그만두기로 했음. 그 사이 애들은 내담자를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친한 애들이 점차 없어졌음. 내담자는 중1년 과정을 외롭게 보냈음. 그렇다고 해서 날라리들하고는 어울리기 싫어서 내담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지금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에는 매우 익숙해졌다 함. 현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음.

점차 신발, 옷, 오락, 만화책(주로 일본 만화책) 등에 애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만화책을 사서보고 애들한테 돈 받고 빌려 줌. 신발이나 옷 등에 관한 메이커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오락은 저본 적이 별로 없었음. 지면 끝까지 하는 경향이 있어 이럴 때 돈을 과다하게 지출 함. 유명 브랜드, 오락 프로그램, 만화 책 등에 대해 정보를 많이 알고 또 잘하는 것으로 친구들에게 으스스할 수 있다. 점차 성적은 떨어지고 중간 성적(평균 70점대)에서 이제는 바닥으로 성적(평균 50점대)이 떨어지게 되었다. 성적이 떨어지면 더욱 공부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못 들어 갈 것 같아 불안해 함.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릴 것 같고, 특히 아버지에게 미안해 함. 점차 학습에 자신이 없어지고, 집이고 학교에서 쉽게 짜증이 남. 특히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금방 화가 남. 돈이 생기면 만화책, 신발, 옷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오락 등에 시간을 보냄. 골치 아픈 일들은 생각하기 싫어짐.

2) 원인적 배경 : 외롭고 화가 난다

내담자의 부모는 결혼 직후부터 모와 시집식구들과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자주 다투게 됨. 내담자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심하게 다투는 날이 많았고, 심한 경우에는 부가 모를 때리기까지 함. 모는 늘 삶이 늘 불만스러웠고 그 화풀이를 아이들에게 하는 편이었음. 모의 표현으로는 특히 큰딸을 쥐잡듯이 잡았다고 함. 내담자가 초등학교 3학년경부터 부의 경제력이 생기면서 심한 싸움은 줄어들었으나, 부가 모와 불편

한 관계일 때 부는 낚시나 등산 등 여행을 떠나 며칠이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음. 모도 점차 밖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짐.

내담자의 누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말이 없었으나 공부를 매우 잘했음. 가족들을 무시했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편이었음. 내담자는 부모들을 무시하는 냉랭한 누이가 싫었음. 내담자는 점차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혼자 있는 시간을 빈둥거리며 지내기 시작 함. 언제 화가 폭발할지 모르고 또한 적절한 생활 지도와 애정을 주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내담자는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 규범을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통제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 듯 하다.

3) 내담자 행동 원인의 종합

내담자는 화를 자주 내고 서로 싸우며 혹은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부모들의 행동에서 불안감을 발달시켜 왔으며, 화를 내면화시켜 왔던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사춘기를 맞은 내담자는 갑작스럽게 커진 키와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어우러지면서 주변 친구들의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음. 이러한 행동들은 생각보다 쉽게 주변 친구들에게 통했고, 자신을 어려워하고 자기 뜻대로 따라 주는 친구들의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더욱 강화되기 시작함. 자신에게 도전한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져 어떻게 하든 힘의 우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이와 더불어 유명 브랜드, 오락 게임등 또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내담자가 부모로부터 적절하게 수용되거나 인정받지 못한 박탈감을 대리 충족하는 기제로 자리잡게 된 듯하였다. 그러나 학교 성적의 저하, 친한 친구들과의 거리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원하는 물건 등을 구입하는 데서 생기는 부모와의 현실적인 갈등 등으로 심정적인 불편을 겪게 됨.

이러한 불편감은 내담자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가 안정감을 되찾고 일시적으로나마 갈등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점차 내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자, 점차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더욱 가중되어 왔음.

7.3 상담 목표 및 전략

7. 폭력 사례

7.3.1 상담 목표

- 1) 친구들과 편안한 관계 맺기
- 2) 생활 계획 세우고 실천하기
- 3) 친구들의 우상되기 : 잘 나가기(성적 등)
- 4) 부모가 약속을 지키게 하기

7.3.2 상담 과정과 전략

제1단계 : 내담자 이해하고 끌어안기

- 상담 회기 : 1~4회기
- 상담 과정 목표
 - 상담자와 친해지기
 - 내담자 자신의 행동 특성 이해하기
 - 자신의 행동 양식의 결과 예측하기
 - 불편감 정리하기
- 상담 전략
 - 긍정화 기법, 참여 행동을 통한 내담자 수용하기
 - 강점 확인으로 내담자 자신 수용하기
 - 역할 연기로 자신의 행동 결과 이해하기 : 당하는 아이, 가족 입장 이해하기
 - 불편감 호소하기
 - 부모 교육 및 부모 호소 수용하기

제2단계 : 내담자가 원하는 것 확인하기

- 상담 회기 : 5~7회기
- 상담 과정별 목표
 - 내담자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확인하기
 - 내담자 자신을 수용하기
- 상담 전략
 - 수용과 공감을 통한 원함을 확인
 - 부모 교육을 통한 부모 역할의 변화와 그 결과 확인하기

제3단계 : 내담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계획 작성 및 실천

- 상담 회기 : 8~9회기
- 상담 과정별 목표
 - 실천 계획과 행동하기
 -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 확인하기
 - 자기 긍정감 확인하기
- 상담 전략
 - 긍정화 기법으로 새로운 행동의 시도(변화가 주는 위험감소)를 지원
 - 강점을 수용 및 확인

7.4 상담 과정 요약

제1단계 : 내담자 이해하고 끌어안기

제1회기(1995년 2월 10일)

<모와 내담자가 함께 내방하여 개별적으로 접수 면접을 실시하였음>

<어머니의 호소 내용>

아이의 사고가 긍정적이고 온순했으면 한다. 불평 불만이 많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신경질을 자주 부린다. 이제는 애가 커서 야단치는 것도 힘들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제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하고 우리 나라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투덜거린다. 한 번 투덜거리면 한 동안 지속되고 옆에서 듣기가 짜증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의를 줘도 별 소용이 없다.

공부에 의욕이 없는 것 같고, 장난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너무 밝힌다. 비싼 옷이나 신발 등을 자주 산다. 남편은 매우 절약하는 편인데 아이가 그러면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남편 앞에서 체면이 안 선다. 남편이 잘 설득해 주면 좋겠는데 남편도 짜증을 내고 화를 잘 내서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공부도 둘째 문제인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밝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본다.

중학교 입학하면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아이들과 자주 싸운다. 싸운다기보다는 때리는 편이고 두 번이나 매맞은 아이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다. 창피했다. 아이의 마음이 부정적이라서 그런 것 같다.

아이를 잘못 키운 것이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 들기도 하지만 아이가 목표 의식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채 살고 있는 것이 화가 나기도 한다. 어릴 때 잘못하면 야단을 많이 치고 때려 주기도 했다. 잘못된 일은 용서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내담자 호소내용>

내가 자주 불평을 하니깐 어머니가 걱정을 하시는 모양이다. 별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나를 잘못 기른 것 같다고 미안해하시지만 난 별로 그렇게 생각 안한다. 내 성격이 무엇인가 한 번 빠지면 미쳐 버리는 특성이 있다. 뭔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마음을 잡으려 해도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조립, 오락, 만화책 등에 집중해 있었고 지금은 오락에 집중해 있어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1학년 성적이 많이 떨어져 2학년이 되면 나아질 수 있는지 걱정이고 하려고 해도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공부를 해야겠다는 것은 생각 뿐이지 실천하려고 애쓰는 편은 아니다.

친구가 별로 없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애들이 까불다가 내가 인상을 쓰면 꿈쩍 못한다.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재미 붙여 자주 그랬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내가 농담을 해도 농담도 받아 주지 않고 점차 벌어지는 것 같아 외롭게 보였다. 내 장난을 안 받아 주니까 나도 신경질 나서 조금만 내 비위를 건드려도 때리거나 인상을 썼다. 학교에서 인상 쓰고 있는 게 많아졌고 그럴수록 애들과는 멀어졌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모르겠고 의논할 사람도 없었다.

상담을 통해서 2학년때 성적을 끌어올리고(현재 50점대에서 70~80점대로)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한다.

제2회기(1995년 2월 17일)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미워 공부가 더 안된다. 떠들면 나만 혼난다. 여선생님이 오실 때는 개긴다. 뭐라 고해도 탄청 피우고 선생님이 우신 적도 있다. 주로 나와 다른 애 3명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런다. 학원은 정말로 비싼 놀이방이다. 좋아하는 선생님은 때려도 섭섭하지 않다. 그런데 자기만 잘난 척하는 선생님들은 밉다.

학원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옮길 수도 없다. 그 동안 엄마가 결정해줬는데 처음으로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초등학교 친구들은 모두 공부를 잘한다. 그들을 만나면 기죽고 신경질 난다. 학기말 고사 때는 마음먹고 열심히 해 봤는데 오히려 성적이 떨어

졌다. 자신이 없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서 갈피를 못 잡겠다.

제3회기(1995년 2월 24일)

학원에서 시험 개졌다. 시험보는 것 나만 몰랐다. 알려주는 놈이 없었다. 듣기는 들었는데 언제 보는지 자세히 몰랐다. 나만 개졌다. 그냥 찍었다 애들도 다 그런다. 어떤 애는 공부 시간에 라디오 듣는다. 나도 가끔 그런다. 학원 선생님은 우리가 틀리면 막 화낸다. 몰라서 돈주고 배우러 온건데 알면 왜 오나... 개길 때 재미있다. 선생님 얼굴 파래지고 애들은 키득거리고... 선생님 당황해 하는 모습 더욱 재미있다. 내가 제일 그럴거다.

충을 가지고 학원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하시더라. 열 받더라. 내가 가지고 놀던지 무슨 관계야... 내 마음 대로 안되면 친구들한테도 막 신경질 난다. 1학년때는 참지 않았으나 지금은 참으려고 노력한다. 잘난 체하는 놈들, 비겁한 놈들, 뒤에서 씹는 놈들, 엉기는 놈들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요즈음 많이 참으니깐 작년에 비하면 참 신사가 됐다. 내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애들은 안 건드렸다.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볼펜 등으로 뒤에서 찌르기도 하고 좀 괴롭혔다.

집에서도 열 받았다. 엄마가 옷 사주시기로 하고 막상 가자니깐 바쁘다고 나중에 하라고 한다. 한 두번이 아니다. 나중에 되면 약속이 사라진다. 포기하는 게 낫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부모님이 약속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 뭐하나 사려면 입버릇처럼 말해야 한다. 치사하다. 다시는 안 사 달래야겠다고 하면서도 또 욕시나 한다. 나도 한심하다. 어쩔 수 없다. 엄마는 화를 내야만 들어준다. 어른이고 애들이고 화를 내야만 말을 잘 듣는 것 같다. 약속해서 친구들한테 뭐 산다고 얘기했다가 바람 맞고 친구들은 뽕이나 깐다고 그럴 것 같아 쪽팔린다.

제4회기(1995년 3월 3일)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귀여워하시는 것 같다. 내가 원래 인사를 잘한다. 만화 이야기 오락 이야기...

친구들과 만화를 구하러 가기로 했는데 숙제를 다 못했고 돈도 오락하다 날려 버려 못 갔다. 속상했다. 옷 사입는 것도 요즈음은 필요한 것만 사 입으려 하는 데 돈이 없다. 엄마는 99%가 뽕이다. 엄마가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원래 약속을 잘 안 지킨다. 누나만 빼 놓고 우리

집 전통이다.

용돈을 한 달에 2만원 주시는 데 친구들에 비하면 1-2만원은 적은 것 같다.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그래야 필요한 것(만화책, 오락기, 옷, 운동화 등)을 살 수 있다. 엄마가 반대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엄마랑 싸우고 집 나갔다. 걱정 안한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돌아오신다. 그런 일 자주 있었다. 아마 낚시 가셨을 것이다. 아빠 안 계시니깐 용돈 쓰는 데 지장이 있다. 비상 출구가 없다. 아버지 안 계시면 만화보기, 만화 그리기, 오락하기 등이 쉽다. 좋은 점도 있다. 애들 괴롭히는 것은 괴롭힌다는 생각을 별로 안했다. 기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좀 튀어 보려고 그랬던 것도 있다. 인간성이 좋아야 한다.

<상담자 역할>

1. 내담자 특성 긍정적 수용

- 한 번 빠지면 미쳐 버리는 것은 좋은 특성이다. 잘 활용하면 네가 진정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싸움 잘해서 좋겠다. 애들 앞에서 빌빌거리는 것 보다 당당한 것이 좋아 보인다.
- 화가 나도 참으려고 노력 많이 했다.
- 애들보다 잘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다. 공부만 빼고 만화, 오락, 싸움 등은 다 수준급이다. 멋있다. 공부만 잘했더라면 완벽했을 텐데 그건 아쉽기는 하지만 잘 나가 보려고 애썼다.
- 집에서 신경질만 내고 화풀이 안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 공부 해보려고 하지만 안되는 것 당연하다. 그렇게 쉽게 되면 누가 못하냐. 해 보려고 했던 것이 중요하다. 이제 시작인 듯 싶다.

2. 감정 수용

- 모처럼 스스로 결정한 것이 실패했을 때(학원 선택) 난처함
- 학원에서 애들 장난칠 때 선생님이 너만 찍었을 때, 엄마가 약속 안 지켰을 때 억울함
- 애들 꿈쩍 못할 때 삼삼함.
- 오락에 무적이고, 만화에도 일가견 있고, 신발을 많이 가지고 있어 품잡을 수 있을 때 자랑스러움
- 성적 자꾸 떨어져 불안하고 친구들 앞에 쪽 팔리는 심정
- 잘해 보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될 때 신경질 남
- 애들이 멀리할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움

3. 역할 연기를 통한 자신의 행동 결과 이해하기

- 맞는 애들과의 입장 바꾸기 역할연기 :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죽고 싶겠다. 미안하다. 그런 나 애들이 멀리할수록 딴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더 때린 것 같다.
- 아버지가 나가신 것에 대한 무관심 : 그런 아들 때려 주겠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는 잘 한다.
- 선생님 : 나 같으면 몽둥이로 부셔 버리겠다. 특히 여선생님에게 미안하다. 그러나 잘난 체하는 선생님들은 이해가 잘 안 된다.
- 옷 자랑, 만화 자랑 등 : 친구들이 나보고 잘난 체한다고 그럴 것 같다. 사실 나도 그런 옷을 통해 튀고 싶었다.

4. 부모 교육

- 아이의 행동에 대해 잘 못한 것은 못 본 척하고, 잘해서 칭찬한 것 일주일에 10가지만 적어 올 것
- 어머니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아이들과 규칙을 지킬 것
- 남편과 싸울 때 애들 없는 데서 싸울 것

제2단계 : 내담자 원하는 것 확인하기

제5회기(3월 7일)

상담 약속 시간을 변경했으나 내담자가 잊어 버려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함. 다음 날 집으로 전화 걸고 다음 상담 일 약속. 미안하다고 함.

제6회기(3월 14일)

옷은 필요한 것만 사 입기로 했다. 만화책은 계속 사 봐야 한다. 그래야 애들한테 폼잡을 수 있다. 오락도 남들한테 끌리고 싶지 않다. 그러려면 오락기가 있어야겠다. 프로그램이 새로운 것이 나와 따라가기가 힘들다. 계획적으로 살아야 하는 데 난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더욱 그런 것 같다.

성적을 올려야 할 것 같다. 제1단계로 평균 75점대, 2단계로는 평균 80단계, 3단계로는 평균 90점대. 점수가 잘 나오면 죽어라 하고 노는게 내 특징이다. 우선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는 게 목표이다. 물론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가 잔소리를 적게 한다. 난 잔소리하면 계획적이지 못해진다. 아버지하고 잘 안 싸우시는 것 같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여전하다. 돈을 잘 안 주신다. 싸고 튀는 것을 사 입어야겠다. 그러려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용산 전자상가, 이태원 등에 가서 오락프로그램, 운동화,

티셔츠, 만화 등을 구입한다. 만화는 애들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아 손해는 안 본다. 돈을 더 받아 챙기는 놈들도 있다. 치사한 놈들이다.

숙제 : 생활계획표 짜보자

제7회(3월 21일)

계획표를 짜 옴. 월-수는 숙제 중심 목-토 학원 공부 중심, 일요일은 놀기 등을 짜 옴.(화요일 상담 시간까지 공부 시간으로 적어 놓아 다소 급하게 짰 듯 했음). 상담자와 수정

학원에서 어떤 애가 다른 애들한테 나를 이긴다고 해서 버르고 있다가, 수업 시간에 내가 장난치자 야유해서 남으라고 했다. 싸우려고 했는데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 치사한 놈이다. 뒤에서 씹는 놈들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싸우면 더 화가 난다. 아예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조용히 있으려면 애들이 깔보는 것 같다. 내가 중학생 같지 않은가 보다. 학원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하고 발이 걸려 넘어질뻔 했다. 내가 찌려보니깐 미안하다고 하더라... 기분이 좋았다.(진정 맛있는 사람이란 어떤 애인가?) 우리 학교에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멋있다. 나도 그렇게 되어야 겠다. 만화를 잘 그림. 아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남보다 그림에 섬세하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그러나 분명하지는 않다.

<상담자 역할>

1. 원함 확인

-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주 잘 나가는 애, 공부도 잘하고, 오락도 잘하고, 튀는 애
 -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만 끌어올리면 된다.
 - 학원에서 공부를 안하고 장난만 치게 되니 과감하게 집에서 과외공부를 하기로 함.
 - 누나처럼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다
- 집안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 만화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 애들하고 친하고 싶다
 - 애들은 어떤 애를 싫어하는가? 장난척 하는 애들, 병신처럼 빌빌거리는 애들
 - 애들은 어떤 애를 좋아하는가? 착한 애들(돌보아 주는 애들), 잘난 체 안하는 애들

2. 원함을 지지하고 실천 계획 짜기(교육 및 의논)

제6장
비행 청소년
상담 사례

- 공부가 계획대로는 안되지만 숙제는 빼껴내지 않고 열심히 내손으로 함
- 만화를 보는 섬세함. 컴퓨터 오락에 정통함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 힘을 통한 자기과시는 애들이나 동물 혹은 무지한 사람들의 방법임
- 화가 나서 적절히 화를 관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힘이 있는 사람
- 시급한 것은 공부를 하는 것, 잘 안 돼도 실망하지 말자
- TV시청 시간, 오락 시간, 공부 시간 등 조절, 학습 방법 의논
- 3. 부모 교육
- 부모의 짜증과 화내는 방식을 아이들은 쉽게 모방함
- 남편과의 불편함을 참아 내는 모의 노력 지지
- 대화 방법 논의
- 아이들에게 짜증 안 부린 결과 논의 : 다소 자신감을 얻음
- 모가 상담자에게 들은 내용 부에게 전달. 부가 모의 말을 비교적 수용하고 실천하려고 노력, 서로 비난하는 대화 자제

제3단계 : 계획 실천 및 불편감 호소 듣기

제8회기(3월 28일)

학교에서 선생님과 장난친 일, 일주일 간 오락실 안간 것, 만화 그림 이야기하기...

함께 피자먹고 탁구침

제9회기(4월 4일)

중간 고사 임박,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음. 잘 안됨. 아이들과는 싸우지는 않음. 상담의 전과정 요약하고 내담자에게 잘하고 싶고 잘나고 싶은 마음은 매우 좋은 것이라고 설명. 어떻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중요함. 내담자의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 칭찬

학교에서 짜증나는 아이 때려 주려고 하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 참았음. 책상만 발로 찼음. 화를 참는 모습 어른스럽다고 칭찬.

상담 종결 권함. 내담자는 어려울 때 찾아오겠다고 함.

어머니 상담 지속

<상담자 역할>

- 노력하는 모습 지속적인 지지, 생각 대로 안되는 것은 당연함.

8. 사례에 대한 제언

사례별로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례1은 전반적으로 침착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례로 상담자의 노력도 물론이지만 내담자가 동기화되어 있었던 점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회 상담에서 장기적인 인생계획을 이야기 한 것은 내담자가 18세 남자로서 이제 독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였다. 그러나 본 내담자는 중3때부터의 문제력으로 보아 보다 내적 문제에 대한 역동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례2는 인본주의 이론에 근거하고 상담의 기본 기술인 적극적 경청과 반영어구 등을 사용한 그리고 자연 인과망(natural network), 특히 가족 지지 체계를 적절하게 사용한 사례이다. 개입기간도 거의 1년으로 적절하였다고 보아지며, 평가 및 개입 목표도 비교적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단, 상담자가 보는 문제는 무엇이며, 내담자와 합의한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접근 이론이나 모델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또한 평가 부분에서도 앞에서 제시된 상담 목표에 비추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사례3은 가치 재정립을 목표 단기 집단 상담을 한다고 하였는 데 구체적으로 상담문제가 무엇인지, 만일 의뢰된 문제를 초점으로 하였다면 그것이 프로그램의 전체 목표나 각 회기별 목표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 또 왜 단기 집단 상담을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며 단기 개입이므로 전체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면 가치 재정립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고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4는 전체적으로 상담자 태도는 성실하였으나 체계성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상담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상담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평가도 설정된 목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결 상담도 전혀 무계획하게 이루어진 듯이 보인다.

사례5는 사례 개입 과정을 제시하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므로 다시 조직화할 것이 요구된다. 내담자 개인의 문제에서 가족 체계의 문제로 관점을 바꾼점은 좋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상담 첫 단계인 초기 접촉 및 계약 단계에서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제6장
비행 청소년
상담 사례

잘 나타나 있지 않고 절정 및 혼돈 단계와 통합 및 종결 단계에서의 진행 과정에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결에 대한 준비 없이 너무 갑자기 종결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평가 역시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사례6을 상담 목표와 대비하여 현재까지 성취된 상담 결과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자기 인식 능력 향상 - 아직 뚜렷한 향상의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상담 중기이므로 좀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상담자가 꾸준히 개입해 나가야겠다.
- ② 목적적 대인 관계 형성을 위한 태도 수립 -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일단 성공적으로 보인다. 7 회상담 이후부터는 상담자를 조종하려는 움직임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얼마나 지속될 지 계속 지켜봐야겠고, 알맞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해석을 통해 명료화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 ③ 대인 관계 기술 향상 - 친구들과의 충돌을 덜 호소하게 되었다. 메이커 옷을 입은 후배의 놀림에 그다지 공격적이지 않은 언어로 대처하였고, 상담자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진 점을 들어 이 점이 강화되고 일반화될 것을 기대한다.
- ④ 독립성 증진 - 가정 환경이 열악함에도 자신이 그 속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의지를 적극 보이고 있다. 내담자가 죽으려 했던 것은 더 잘 살아보려는 강력한 의지의 한 단면이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상담자는 한 번 자살을 시도한 내담자는 반복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 ⑤ 성적 향상 -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어 성적을 올려가고 있다. 현재까지 학급에서 3등 정도 석차가 올랐는데, 내담자가 중학교 2학년이며 잠재력이 있다는 점과 직업에 대한 동기가 분명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꾸준한 향상이 기대된다.

사례7은 다툼과 갈등으로 적절하게 생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내담자가 사춘기가 되면서 튀어보고 싶은 생각(인정받고 싶은 생각)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신체적 힘을 중심으로 동료들에게 군림하기 시작했다. 내담자 주변에서 엉기고 함께 힘겨루기를 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아이들에게 힘센 아이로 인정받게 된다.

힘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도 아이들에게 더욱 인정받기 위해 아이들

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두는 오락, 만화, 복장 등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관심이 바뀌고, 아이들과 건들거리는 과정에서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지도를 못 받은 내담자는 학습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기 불안은 더욱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튀는 행동을 하도록 했고, 결국 친구들로부터도 소외되기 시작했다.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강점이 존중되고 튀려는 모습이 수용되고, 진정으로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확인되면서 점차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함. 이 과정에서 모의 변화가 내담자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

마땅히 자기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힘을 남용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 양식은 점차 아이들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청소년기의 상담에서 부모의 적절한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 상담에서 중요한 과정임을 확인 해본 사례임.

9. 사례를 통해서 본 비행 청소년 상담의 유의점

9. 사례를 통해서 본 비행 청소년 상담의 유의점

이상의 사례로부터 비행 청소년 상담시의 유의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의 시작에 있어서 내담자의 동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상담에 대한 내담자와의 합의를 구하는 것은 상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목표 설정에 있어서 내담자의 연령을 고려해야 하며, 현실적인 목표설정과 상담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실행 과정에서는 이론이나 기법에 대한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하며, 진행 단계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고, 목표외에도 심리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가족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다. 가족에 대한 개입은 가족을 지지 체계로서 뿐 아니라 변화의 대상으로도 중요하다.

넷째, 종결에 있어서는 계획성있는 종결이 필요하며, 목표에 비추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록은 조직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1. 정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현황 분석
2.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개선 방안 현황 분석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비행은 이미 4천년 전 함무라비 법전에서 청소년 비행에 관한 유형들을 거론할 정도로 문제시 된 바 있다. 이렇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소년 비행이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청소년 비행 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이며, 국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도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유해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법 제8조에서는 국가가 청소년의 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않는 등 선도 활동과 유익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인간으로서 청소년의 복지권을 인정하고 청소년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 가야 함을 법적으로 강력히 밝히고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 복지 정책은 청소년 복지의 대상인 청소년 문제가 사회 제도의 결함이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며, 그 해결의 책임은 국가나 사회 전체에 있다고 보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접근 방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 심리적 욕구 좌절과 환경에의 부적응에 기인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내면 세계를 탐색하고 이해하며 사회 심리적 욕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원조하는 미시적 측면에서의 전문적 접근 방법도 있다.

이 장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청소년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비행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비행의 교정이나 통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정 위주의 비행 정책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청소년의 비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과 더 적극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비행 청소년 업무와 가장 관련이 많은 부처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상담 정책과 현황을 분석해 보고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위한 개선 방안의 측면에서 그 대책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정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현황 분석

1.1 경찰청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이탈되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비행 청소년으로 되기 전에 이들을 단속, 선도, 보호하는 것은 청소년 비행의 예방에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경찰청의 불량 소년 보호 단속에 의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탈, 비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접하게 되는 공식적인 절차 기관이 바로 경찰이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의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이들의 향후 처리와 진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적절하고 전문적인 개입이 요청되고 있다.

1.1.1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목적

경찰에서의 비행 청소년을 위한 상담 정책은 예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에 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 단속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다른 측면으로는 이미 비행 사건으로 단속된 청소년에게 적절하고 상담적인 접근을 통해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1.2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근거법

경찰청의 청소년 상담 정책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은 **미성년자 보호법, 풍속 영업 등에 관한 규제법**을 들 수 있고, 이 밖에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유해 환경의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청소년 기본법, 경범죄 처벌법, 윤락 행위 등 방지법, 사행 행위 등 규제법, 옥외 광고물 관리법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서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등이 있다.

1.1.3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추진 방향

비행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상담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은 비행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미아·가출인 보호 선도, 학교 폭력 및 청소년 유해 업소 정화 단속, 소년 경찰 전문화 및 육성책 강구 등을 들 수 있다.

1) 비행 청소년 선도 보호 사업

비행 청소년의 선도를 위하여 '사랑의 교실'과 '청소년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 등 6개 도시에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경찰 주관에서 민간 단체 주관으로 전환시키고 경찰과 학교에서는 대상 선발과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또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과 학교 생활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미아 및 가출인 보호

미아 및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182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대상자 영상 시스템을 개발하여 범죄 조회 자료에 연결 사용하며 윤락가 등에 가출인 찾기 활동을 전개하여 발견된 자는 상담을 통한 귀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3) 미성년자 출입 제한 구역 정비 및 지정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검토하고 제한 구역 해체 지역은 선도 보호 구역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다.

4) 학교 주변 유해 업소 및 불량배 단속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주변의 폭력배 및 불량배를 단속하기 위하여 학생 상대 금품 갈취 및 불량 서클을 집중 단속하며, 학교, 학원, 독서실 주변 등지에서 취약 시간에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5) 청소년 상담

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내실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6) 소년 업무의 전문화

청소년 관련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해 나가려 한다.

1.1.4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경찰청에서는 방법국 방법 지도과 소년계에서 비행 청소년 상담 관련 업무를 주로 전담하고 있다. 전국의 비행 청소년 상담 기관으로는

경찰서 산하에 197개의 청소년 상담실이 있으며, 경찰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BBS연맹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지도육성회 청소년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다.

1. 정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현황 분석

1) 사랑의 교실 운영

경찰청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교정·교화·교육을 실시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사전 예방하며, 불량 행위 소년 선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경기, 전남, 대전, 마산 지역에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청소년지도육성회에서, 그리고 지방에서는 BBS연맹과 시·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에서 협력하여 실시 중이다.

2) 범죄 예방 교실의 운영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의 방어 및 제어 능력을 높이고자 1개 학교에 평균 2회씩 청소년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2 법무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우리 나라에서 비행 청소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법무부이다.

법무부에서는 비행 청소년의 선도 및 교정 그리고 사회에의 적절한 복귀를 위해서 보호 형태의 차원에서 교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정 이념 자체가 응보 처벌 중심에서 교정과 교화 및 상담을 통한 사회 재통합의 방향으로 변모 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행 청소년의 예방과 교정 치유에 있어서 상담적 개입과 상담 전문 인력의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1.2.1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목적

비행 청소년 교정을 위한 상담 정책의 목적은 응보와 억제적 차원의 구금, 격리를 통한 처벌이 아닌 청소년 일탈을 조장한 사회적 여건의 개선과 잘못 형성된 그들의 성행을 바로 잡아 주고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교육적, 치유적 측면에 두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적용을 통한 처벌과 통제보다는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치유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 계발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1.2.2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근거법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교정 상담 정책은 소년법, 소년원법, 보호 관찰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1.2.3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추진 방향

법무부에서 비행 청소년의 교정 상담 활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의 적극 활용, 보호선도위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함양, 비행 청소년의 성격과 자질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판별,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 적응력과 전인적인 성장 발달 도모에 힘쓰는 것이다.

1)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의 적극 활용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란 통상의 기소 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 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지방 경찰청 검사장)의 위촉을 받은 민간 소년 선도 위원회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성인과는 달리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것으로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2) 선도위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함양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를 통해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문제가 선도를 담당하는 선도위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함양이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의 보호 및 교정 상담 정책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민간 선도위원을 조직, 관리하는 일이며, 동시에 선도위원에 대한 행정적, 교육적, 지도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3) 비행 청소년의 성격과 자질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판별

비행 청소년의 성격과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비행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단계이다. 뿐만 아니라 소년원 입원 교육 과정에서도 입원한 청소년과 그 환경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통해 각 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 적절한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질 때 교정 처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소년원에 입원하기 전이나 입원 후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조사와 감별, 그리고 합리적 분류 심사를 거쳐 청소년 개인의 개별적 처우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한 진단 결과가 교육, 상담 처우 과정 전반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고 있다.

1. 정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현황 분석

4)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 적응력과 전인적인 성장 발전 도모

갱생보호공단이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갱생보호위원의 도움을 받아 비행 청소년의 사후 보호와 관리를 위한 갱생 보호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비행 청소년의 사회성 강화와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행의 재할 및 상담, 개별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러한 사후 관리 단계에서의 추수지도에 전문 상담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4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 및 서비스 전달 체계

법무부에는 보호국과 교정국에서 비행 청소년 상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보호국의 소년과에서는 전국에 11개의 소년원 상담실과 5개의 소년 분류 심사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찰과에서는 전국에 21개의 보호 관찰실 상담실과 한국 갱생 보호 공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교정국의 교학과 산하에는 2개의 소년 교도소가 있다.

1) 비행 청소년 시설내 처우 현황

(1) 소년원

소년원은 가정 법원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14세 이상 20세미만의 범죄 소년과 12세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성행 교정을 위한 교정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 교육 시설이다.

○ 조직 및 시설

소년원은 현재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안양, 춘천, 대전, 충주, 전주, 청주, 제주에 모두 11개가 있다.

○ 인력

현재 소년원에는 총 711명의 직원 가운데 483명의 보도직 직원이 있다.

○ 교정 교육

소년원의 교정 교육은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보통 교육(학교 교육),

직업 훈련, 심성 순화 훈련(인격 교육), 심신의 보호·지도를 통하여 보호 소년이 사회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담 프로그램

소년원에서는 특수 프로그램으로서 심리 상담 및 정신 수련 과정 야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단학, 마인드 콘트롤, 심리극, 내관법, 감수성 훈련 등을 하고 있으며, 정신 수련 과정, 야영 훈련은 자연 학습과 야영 훈련을 통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성격과 행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2) 소년 분류 심사원

소년 분류 심사원은 소년법 및 소년원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의 자질을 과학적으로 진단, 판별하는 시설이다.

○조직 및 시설

현재 소년 분류 심사원은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의 5군데에 있고, 분류 심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분류 심사 업무를 대신 행하고 있다.

○분류 심사 전문 인력

분류 심사원에는 5급이상의 분류 심사관과 분류 심사원(6급 또는 7급)을 두고 있다. 이들의 전공은 교육학, 심리학, 사회 복지학 등 관련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분류 심사관은 전국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5명을 포함하여 총 32명이며, 분류 심사원은 31명이 있다.

○분류 심사 대상 및 종류

소년 분류 심사에는 법원 소년부에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조사와 심리에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하여 분류 심사토록하는 수용 분류심사와 일반인 또는 학교, 가정에서 의뢰한 문제 또는 정상 소년들에 대해 분류 심사하는 외래 분류 심사가 있다.

(3) 소년 교도소

소년 교도소는 형사 처벌을 받은 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성인 범죄자와 분리 수용 함으로써 청소년에 맞는 교정 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조직 및 시설

현재 천안과 김천의 두 곳에 남자만을 수용하고 있다.

○인력

소년 교도소의 교정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15명의 교화직 공무원

원이 있다.

○ 교육 내용

교정 교육은 인격 도야와 소질 계발,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소자 정신 교육, 학과 교육, 생활 지도, 직업 훈련 등으로 구분한다.

1. 정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현황 분석

2) 비행 청소년의 사회내 처우 현황

(1) 보호 관찰 제도

보호 관찰 제도는 종래의 응보형 주의에 입각한 시설 내 처우를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허용하면서 선도하는 사회 내 처우로 전환한 것으로, 일정기간 보호 관찰 및 보호위원의 지도·감독 하에 교화·개선하여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형벌의 유예나 형집행의 중단을 전제로 하는 비형벌적 처분이며, 형사 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 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전문 지식을 갖춘 보호 관찰관에 의하여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보호가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 조직 및 시설

보호 관찰 행정 조직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 관찰 심사 위원회와 지소 9군데를 포함하여 총 21개소가 있는 보호 관찰소가 있다.

○ 인력

현재 5급 공무원인 보호 관찰관 72명을 포함하여 보호 관찰 직원 290명과 민간 자원 봉사자들인 보호 선도 위원 9,465명이 있다.

○ 보호 관찰 업무

- 보호 관찰자에 대한 지도 상담 : 개별 및 집단적 지도 상담, 보호자 가족 상담

- 선도 교육 : 청소년 토요 교실, 청소년 수강 교육, 사회 봉사 교육

○ 사회 봉사 및 수강 명령 제도

소년법에는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이 단기 보호 관찰의 경우 50시간을, 장기 보호 관찰의 경우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수강 명령 제도는 보호 관찰소 내의 토요 교실과 각 지역의 사회 복지관 또는 상담소 등과 연계를 하여 집단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회봉사 명령은 사회 복지관의 자원 봉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명령 시간을 이수하고 있다.

(2)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란 검사가 18세 미만의 소년 범법자 중 범죄내용이 다소 중하더라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6개월 내지 1년간 소년 선도 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제도이다. 청소년의 경우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에 빠지기 쉬운 반면 개선 가능성도 매우 많다. 따라서 죄질이 중하더라도 개선의 점이 보이는 청소년들에게는 교도소와 소년원에 수용하기 보다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이 많은 선도위원에게 맡겨 선도, 보호케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3) 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 교도소를 출소하였거나 소년원을 퇴원한 비행 청소년들은 가정, 직장 등의 사회 생활에 바로 복귀할 경우 심한 심리적 갈등과 사회적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 보호 및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비행 청소년의 사후보호와 관리를 위해 갱생 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공단이 갱생 보호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1.3 교육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우리 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청소년 상담 정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50년대 후반에 우리 나라에 처음 상담이 도입된 이래 생활 지도와 상담은 교과 지도와 함께 학교 교육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는 상담 활동은 교육 활동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1.3.1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목적

교육부의 청소년 상담 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은 생활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적이며 진취적인 인간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자율과 책임감의 조화로운 신장, 강인한 심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선택 능력,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등을 학생 생활 지도의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내 문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정책 역시 이 범주에서 행해지고 있다.

1.3.2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근거법

교육부에서 청소년 상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교육법 시행령**(제40조, 43조)에 12학급 이상의 중학교, 9학급 이상의 고등학교에 진로 상담 주임 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법**(제79조)에서 교도 교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법 시행령**(제77조)에서 문제 학생의 정학·퇴학 등의 징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3.3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추진 방향

교육부의 학생 생활 지도 계획은 인성 교육의 강화, 진로 교육 및 상담 활동의 강화, 기타 학생 생활 지도의 강화를 포함한다. 학생의 진로 교육과 상담 활동의 추진 방향은 교도 교사 및 진로 지도 주임 교사 제도, 학교 상담실 설치 운영, 학생 상담 자원 봉사제 운영을 들 수 있다. 특히 학생 비행 예방 및 보호 활동 강화 측면에서 상습 가출 학생이나 가출 후 복귀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과 연계하여 상담 지도하고자 하며, 결손 가정 학생을 상담 자원 봉사자 또는 교사와 연결시켜 지도하고자 한다.

1.3.4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교육부에는 중등 장학관실에서 학교 상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단위로는 중등 교육국에서 담당하며,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 연구원에 진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각급 학교별로 12학급 이상의 중학교와 9학급 이상의 고등학교에 학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1) 학교에서의 징계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흡연, 불량한 말, 성인 영화 관람이나 음란 비디오 시청, 가출, 음주, 이성과의 혼숙, 폭력, 무단 결석 등을 들 수 있다. 교육부 시행령 제 77조에서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거나 무단 결석 등을 일삼는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다루는 데 있어서 훈계, 근신, 유기 정학, 무기 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이행하고 있다.

2) 징계의 처리 절차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 학교마다 징계 위원회(또는 선도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중계 징계 사안의 처리는 이 과정을 통하게 된다. 먼저 학생 규칙 위반 행동에 걸렸을 경우 학생들은 훈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다. 보통 처벌에 관한 규정은 학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실제로 이를 처리할 때에도 담임이나 교장 선생님, 학생부 교사의 태도와 걸린 문제 학생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이때 상담 교사의 의견은 문제 행동 학생의 징계 결정에 미미한 영향을 줄 뿐이며, 학생과에서 징계결정 후 상담실에서 사후 지도를 하게 되어 있다.

3) 징계의 내용

(1) 근신

근신 기간은 약 3~7일이며, 근신일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도록 하고 있다. 근신 대상 학생들이 있게 되는 곳은 주로 학급, 상담실, 학생부실, 교무실 순이다.

징계의 주된 내용은 반성문 쓰는 것, 상담, 봉사 활동 또는 사역, 교육 순이다.

(2) 유기 정학

유기 정학의 기간은 보통 7~14일 이내이며, 유기 정학의 징계시 거의 대부분이 학생을 학교에 나오도록 하고 있다. 유기 정학 받는 학생들이 주로 있게 되는 곳은 상담실, 학생부실, 도서실 등 학교의 다른 장소, 교무실, 학급 등의 순이다.

징계의 주된 내용은 반성문 쓰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상담, 봉사 활동, 교육 순이며, 근신에 비해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

(3) 무기 정학

무기 정학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0~15일 정도 또는 그 이상이다. 무기 정학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에 나오지 않게 하는 학교도 있다. 무기 정학 학생들이 주로 있게 되는 곳은 대부분 상담실이고, 그 외에는 도서실 등 학교의 빈 공간, 학생부실, 교무실 순이다.

징계의 주된 내용은 반성문 쓰기와 상담, 봉사 활동 또는 사역, 교육의 순이며, 근신이나 유기 정학에 비해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는 경우가 다소 많다.

1. 정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현황 분석

1.4 보건복지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정책은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여 그들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요보호 아동의 발생 예방, 요보호 아동의 가정 보호 및 자립 지원 강화, 복지 시설의 내실화 등을 통해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상담 기능의 강화, 아동 유해 환경의 제거, 아동 전용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일반 아동의 건전 육성을 조장하고자 한다.

1.4.1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목적

광복 후 고아, 기아 및 부랑아 등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선도 차원에서 출발한 청소년 상담 사업은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그 복지 대상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목적은 요보호 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향상과 일반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가출, 아동 학대 등 사회의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의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 적응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목표로 상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4.2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근거법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요보호 청소년 상담 정책은 **아동복지법**과 **미성년자보호법**, **윤락 행위 등 방지법**, **생활 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1.4.3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추진 방향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요보호 청소년의 보호 및 예방, 정확한 문제 사정을 통한 상담, 그리고 청소년의 복지 증진 등을 중점 방향으로 잡고 있다.

1) 요보호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청소년, 농어촌·탄광촌 미진학 근로 청소년 및 국가 유공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요보호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열등감이나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기 쉬워 심리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일반 청소년들보다 이들에게 일탈이나 비행, 정서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요보호 청소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극복하여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상담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2) 요보호 아동 및 청소년 발생의 예방

최근 핵 가족화,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한 결손 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교육 기능은 약화되고 부모·자녀간의 갈등 심화는 증대되면서 가출이나 비행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기·미아, 가출아 신고 센터 설치 운영, 상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요보호 청소년의 정확한 문제 사정 및 전문적 개입

가출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을 포함하여 요보호 청소년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이들이 처한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합한 도움과 상담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종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분류하여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청소년 상담을 지향하고 있다.

4) 청소년의 복지 증진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일상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내고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달하도록 돕기 위한 청소년 복지 정책의 맥락에서 청소년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1.4.4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 및 서비스 전달 체계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상담 정책은 주로 사회 복지 정책실에서 전담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실의 아동복지과에서는 전국의 52개 아동상담소와 275개의 아동 복지 시설을, 부녀 복지과에서는 122개소의 부녀상담소와 부녀복지관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가

정 상담소를, 복지자원과에서는 전국의 180개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보건국의 생활보건과에서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청소년 상담실(10개)을, 약정국 마약관리과에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실(19개)운명을 지원하고 있다.

1. 정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현황 분석

1)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소는 기·미아나 가출, 아동 학대 등 요보호 아동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대상의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요보호 아동을 예방하고 기 발생된 아동에 대하여서는 신체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역 사회와는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 및 시설

아동상담소는 공립 13개를 포함하여 전국에 총 52개소가 있다.

○인력

전국에 아동 복지 지도원 378명을 배치하여 상담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로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7,112명을 아동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복지 조치와 상담 등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

비행 청소년 상담 관련 활동으로써 아동 보호에 필요한 가정 환경 조사와 기아 및 미아의 발생을 막는 예방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가출 등 문제 아동의 일시 보호나 상담을 통한 행동 수정 상담, 귀가 조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상담실 별로 학생 징계 청소년과 보호 관찰 수강 명령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 부녀상담소

부녀상담소는 가출 소녀, 가출 여성, 미혼모, 윤락 여성, 저소득 모자 가정 등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 및 문제 해결과 선도 보호를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조직 및 시설

전국에 부녀상담소는 시·도, 시·군·구, 여성 회관 등에 122개소(간이 부녀상담소 94개소 포함)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부녀상담소는 특히 가출이나 윤락 등 요보호 여성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 지역인 대도시 주요 역전이나 터미널 등에 설치되어 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력

현재 전국에 376명의 부녀 복지 상담원이 배치되어 상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의 최소 단위 행정 기관에서도 320명의 부녀 전담 요원이 배치되어 상담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군·구 여성회관, 부녀상담소 등에는 35,249명의 상담 자원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

요보호자에 대한 상담이나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 수용 보호 조치하거나 직업을 알선하고, 가족과 연결하여 귀가 조치 시키고 있다.

3)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실

보건사회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사회 내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실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청소년 문제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상담 활동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조직 및 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189개가 설립되어 있는 데, 96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250여개소로 증설될 예정이다.

○인력

종합사회복지관의 상담 인력은 거의 대부분 전문 사회 사업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 사업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하에 보호 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수강 명령 제도의 시행이 대부분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면 지역 사회 내에서 비행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전문 상담실로 확고한 기반을 다져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4) 대한가족계획협회 청소년상담실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는 전국의 공단 지역 내에 10개의 청소년 상담실과 15개 시·도에 청소년 성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은 전

문 상담원과 상담 자원 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며, 청소년들의 각종 성 문제를 상담한다.

1. 정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현황 분석

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실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을 예방하고 상담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상담실(19개)은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상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1.5 문화체육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문화체육부는 우리 나라 청소년 정책의 중추 부처로서 정부의 청소년 업무를 통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제반 청소년 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상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은 일반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 상담 정책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1.5.1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목적

문화체육부의 청소년 상담 정책은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청소년의 수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덕·체를 고루 갖춘 균형있는 성장을 하도록 돕는 청소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 상담 정책의 목적은 전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예방적·발달적 관점에서부터 상담적 관점까지 총망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1.5.2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근거법

문화체육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은 **청소년 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5.3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추진 방향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의 청소년 상담 정책은 청소년 상담 기관의 설립 운영, 청소년 상담 인력의 양성, 청소년 상담 유관 활동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청소년 상담 기관의 설립 운영

문화체육부의 청소년 상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 중의 하나는 청소년 상담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한국 청소년 상담원과 지방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청소년 상담 인력의 양성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상담원 1, 2, 3급을 양성하고, 국가 자격 제도를 실시하고자 한다.

3) 청소년 상담 유관 활동의 지원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문화체육부의 청소년 정책 중 비행 청소년 상담 관련 사업으로는 비행 청소년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 비행 청소년 결연 사업, 가출 청소년의 수용·상담 교화,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사업,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사업 등이 있다.

1.5.4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 및 서비스 전달 체계

문화체육부에서는 청소년정책실의 청소년 지도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 및 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에 청소년대화의광장과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 청소년과를 통해 청소년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행 청소년을 위한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비행 청소년 결연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청소년선도회를 통한 가출 청소년 찾아 주기 운동과 YMCA 등의 청소년 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1) 청소년 상담실

문화체육부 산하의 청소년대화의광장과 전국의 14개 시·도 청소년 종합 상담실은 교육청과 학교, 경찰청, 법무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상담실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일반 청소년 및 비행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청소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전문적 상담과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대화의광장과 시·도 청소년 상담실에서 비행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별 및 집단 상담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담 활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약물 남용 및 비행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② 정학 등 징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③ 지방 경찰청의 협조를 통하여 “사랑의 교실” 운영 등 경찰 단계에서 검거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 ④ 보호 관찰소에서의 수강 명령, 사회 봉사 명령의 방법으로 보호 관찰 대상 청소년들을 위탁받아 교육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 운영.
- ⑤ 인근의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에서 심리극, 집단 상담 등을 통하여 상담
- ⑥ 소년원 입소자, 보호 관찰 대상자 등 비행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현재의 자녀를 이해하고 의사 소통을 증진해 나가는 방법들을 교육하는 문제 청소년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대법원이 비행 청소년 보호자 특별 교육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자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2) 청소년 쉼터

청소년 쉼터는 문화체육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서울의 YMCA, 부산 청소년 종합 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쉼터는 가출 청소년이 일정 기간 숙식 및 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일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 및 집단 상담, 진로 교육, 정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 가출청소년찾기본부

1981년부터 가출청소년찾기운동본부를 운영해 온 한국청소년 선도회는 1993년 부터는 문화체육부의 재정 지원으로 연간 1,000명의 가출 청소년을 찾아 선도·귀가 조치 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찾기본부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역·버스 터미널 등에 가출 청소년 이동 상담·신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2.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개선 방안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도 크겠으나 가정, 학교,

사회 등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 안에서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청소년 역시 **상황 속의 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일탈 행동을 보이는 비행 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서 기존의 상담 정책 외에 전문적 상담 접근 차원을 포함하여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2.1 가정 교육 강화 측면

우리는 청소년 비행의 요인을 다원적·복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그 중 가정적 요인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최초로 갖는 인간 관계 집단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집단으로서, 아동의 성장 발달은 물론 성격 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곳이다. 가정 안에서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보호와 안전을 느끼며 사회화를 배워 나간다. 그러나 가정에 결함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거나 핵 가족 내에서의 부모의 관여 상태가 불균형을 이룰 경우 아동은 인격 형성에 부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에 의하면, 결손 가정이나 빈곤 가정에서 비행 청소년·범죄 청소년 발생률이 높았고, 최근에는 중산층 가정에서도 청소년 비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두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박탈감이나 심리적 박탈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1.1 가정 복지 정책 및 상담 체제 강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가정 복지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소년 소녀 가장 세대, 결손 가정, 빈곤 가정 등에 대한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가정에 대한 **생활 자립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고, **직업 훈련**을 우선 실시하여 취업 알선하며,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사회 복지 전문 요원과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상담 기관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가 필요하다.

2.1.2 부모 교육 강화

아동의 연령별, 성장 단계 별로 올바른 자녀 지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대화의광장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여 왔으며, 내년부터는 문화체육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 부모 교육 교실을 상설 운영할 계획에 있어 이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행 청소년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내년 중에 소년법을 개정하여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는 비행 청소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모 특별 교육 명령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어 비행 청소년의 가정 내 자녀 교육 강화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리라 기대된다.

2.2 학교 상담 강화 측면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서 만족스럽게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은 청소년의 성격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애착과 참여가 낮고 무단 결석이 많을수록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근래와 같이 학교내 폭력 집단 등 불량 교우 집단이 난무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비행화 소지가 많으며, 일반 다른 청소년들도 심리적으로 학교 생활에 불안을 느끼기 쉽다.

2.2.1 학교 환경 및 징계 절차 개선

청소년 비행과 직결되는 학교 내 폭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처벌 위주의 학교 징계를 선도·보호·예방 차원에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는 청소년들을 바로 징계 조치 함으로써 더 큰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국가에서 **징계 조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우위 경쟁 의식에서 벗어나 학생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라도 수업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중·고 중퇴생들을 위한 **대안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징계 제도도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2 학교 상담실 확충 및 기능 강화

일정 학급 이상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는 학교 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능하면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 상담실에는 **학교 사회사업가와 학교 상담 전담 교사**를 함께 배치하여 청소년의 개인 심리적, 가정적, 사회 환경적 요인에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을 가정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 징계나 비행화 소지가 있는 학생들은 징계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사전에 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실의 의견이 문제 학생의 징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징계 절차가 바뀌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비행 학생 청소년을 위한 대안이지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입시 위주의 지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인 교육**으로 학교 교육을 지향해 가야함은 두 말 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2.3 사회적 예방 및 상담 활동 강화 측면

청소년 비행 예방과 상담을 위한 사회적 접근은 청소년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며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의 비행 방지를 위해 지역 사회 중심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 예방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 조직 사업**으로 활발히 전개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나라로 미국을 들 수 있다. 특히 시카고, 뉴욕, 미네아폴리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 사회 조직 사업은 비행 청소년 예방을 위해 학교, 교회, 사회 복지 단체, 청소년 단체, 경찰, 소년법원, 지역 주민 협의회 등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 캠프, 우범 지역 및 지역 사회 내 비행 문화의 개선 등 비행 청소년 예방을 위한 활동은 물론 비행 청소년 및 소년원 퇴소 청소년들의 사회복귀 적응을 위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도 지역 사회내 유해 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 대상의 여가 지도 등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청소년의 비행 예방에 적극 참여하는 곳이 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이미 비행에 빠진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2.3.1 지역 사회 내 비행 실태 진단

지역 사회 내에서 청소년 비행이 발생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청소년 비행을 예방 상담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구조나 청소년의 욕구, 주민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 청소년 비행 관련 제반 제도 및 시설,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비행 통제 활동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2.3.2 유해 환경 정화 및 감시 체제 강화

최근 본드, 가스 등 약물 남용 청소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해 영상 매체, 유해 업소 등 유해 환경이 청소년 비행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문화체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민간이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협조 추진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는 물론 상담 차원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내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재 유해 환경 고발 창구 및 감시 모니터제 운영 중심의 청소년 유해환경민간감시단 운영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비행이나 약물 청소년의 경우 주민이 지역 사회 복지 사무소에 신고하여 선도 귀가 조치 또는 상담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비행 청소년 예방 및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문화체육부에서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선도하기 위해 올해 ‘**청소년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2.3.3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 강화

상담은 청소년의 건전 성장 발달을 도움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청소년에 개입함으로써 비행을 줄이고 재비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비행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길러 주어 다양한 심리적 요인은 물론 변화무쌍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상담이 담당하는 것이다. 현재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찰이나 법원의 위탁을 받아 사후의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상담 기관은 정부 산하의 공공 상담 기관과 사회 단체 상담 기관들을 합쳐 몇 개 기관이 있다. 그러나 이

상담 기관들도 비행 청소년들 대상의 상담 훈련 프로그램이 그 내용이나 프로그램 수 측면에서 미흡하고, 그나마 실시 기관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더욱이 비행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상담 활동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행 청소년 상담 전문 기관**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 문제의 예방·치료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 기관이 지역 사회 내 곳곳에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비행 청소년 상담·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4 국가 제도의 개선 측면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 비행 예방 및 계도를 위해 경찰청과 법무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내무부 등이 합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경찰청과 법무부가 비행 청소년과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도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논하고자 한다.

2.4.1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 보완

우리 나라의 청소년 관련법은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미성년자보호법, 윤락 행위 등 방지법, 교육법, 생활보호법, 소년법, 소년원법, 보호관찰법 등이 있다. 이 법규에 근거하여 비행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비행 청소년이 되기 이전 상태에 있는 잠재적 비행 청소년의 복지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조차도 청소년의 복지권과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이 미미한 상태이다.

청소년의 복지를 다원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잠재적 비행 청소년을 예측하여 선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와 전문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 내용들을 보완하여 청소년기본법을 개정·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4.2 상담 명령제 도입

경찰 단계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1차 소년경찰과의 면담 후 전문 상담 기관에 의뢰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청소년 비행의 요인이 복합적이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 찍히면 재범의 우려도 높고 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

행 청소년들이 재할할 수 있는 기회를 전문 상담적 접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 경찰의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상담 명령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개선 방안

2.4.3 보호 관찰 제도의 개선

보호 관찰 제도는 비행 청소년의 보호 복지적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조사 제도의 미비와 보호 관찰 요원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보호관찰소의 부족 등은 현행 보호 관찰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 가석방, 가퇴원 심사 때 필요한 조사 제도의 강화와 적정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등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며, **사회 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의 내용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대법원의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 절차 및 보호 처분 개선(안)’에 의하면 비행 소년 보호자 특별 교육 명령제와 학생의 학업 중단 최소화 조치, 사회 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 대상자를 현행 16세를 14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 약물 청소년 상담 센터 설립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행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개선안에 사회 봉사 명령제와 수강 명령제와 함께 상담 명령제가 포함되는 것이 청소년의 사회 적응력 향상 및 자아 정체감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2.4.4 사회 재적응을 위한 half-way house 설립

비행 청소년들이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에서 퇴원 후 사회에 복귀되는 과정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갱생 보호 제도이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에서 나온 비행 청소년들의 성인범으로의 전이는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퇴원·출소 후의 비행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적응 훈련 기관**으로서 **halfway house**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갱생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복지적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조치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지원·구본용 외(1996). **웁하다 깨달은 성자**. 서울 : 연봉.
- 구본용(1993). **중고등학생 상담의 이론적 모형 탐색**. **대학생활연구**.
11. 한양대 학생생활연구소.
- 구본용 외(1995). **폐륜의 예방과 상담**.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12. 청소년대화의광장.
- 구본용 외(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
서 15.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
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서울 : 학지사.
-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 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 교
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선애(1994). **아동 및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연구** : 가족요인을 중심
으로 상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 김순진 외(1995). **빚나간 아이들의 세계**.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
서10.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영모(1988). **현대사회문제론**,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소
- 김용태 외(1995). **폐륜아 사례연구**. 제8회 특수상담사례발표회 자
료.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자
녀의 비행과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준호(1990). **사회학 분야에서의 청소년 비행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
청소년연구창간호.
- 김준호(1995). **형평가정책연구**. 6(1).
- 김준호 외(1992).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준호 외(1992). **한국의 청소년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 김준호 외(1994). **음란물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 오익수 · 김광수 · 전명희(1995). **비행 청소년 상담지원정책,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춘식(1990).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림(1995). **가출부랑아의 초기적응을 위한 과제중심모델의 적용 사례연구.**
- 문화체육부(1995). **청소년백서.**
- 문화체육부(1995).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6년도 시행계획.**
-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2(1), 112-124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박광배 · 신민섭(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 박성수(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수 · 박재황 · 황순길 · 오익수(1993). **청소년상담정책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 박재황 외(1995). **청소년의 소비행동.** 제13회 청소년문제토론평장 자료집. 청소년대화의광장.
- 복지연구회 (1984). **현대아동복지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 송근원 · 김태성(1996).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
- 송종용 외(1993). **청소년 자살행동 연구.**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3. 청소년대화의광장.
- 수원보호관찰소(1996). **청소년 비행 관련 보호관찰사례에 관한 자료.**
- 신민섭(1992).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도피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민섭 · 박광배 · 오경자 · 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49-71.
- 심영희 외(1989).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재정(1982). **청소년의 의식과 비행(Ⅰ).** 한국기독교청년선도회.
- 안재정(1982). **청소년의 비행과 실태(Ⅱ).** 한국기독교청년선도회.

- 안형준(1992). **비행 청소년과 사회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익수·김진희·김광수·전명희(1995). **정부의 청소년상담정책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 원호택(1991). **청소년 범죄 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금·박옥임·이경주(199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6-25.
- 이석재(1996). **자기제시책략척도의 타당도검증**. 한국심리학회 : 사회심리, 10. 인쇄중.
- 이석재(1996) **심리학에서 본 비행 청소년 교정방향**. 청소년대화의광장
- 이재창 외(1996). **청소년 폭력 및 성폭력피해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자료**. 청소년대화의광장.
- 이윤호(1991). **한국청소년비행론**, 서울. 법문사
- 장선경·김주희(1989). **비행 청소년의 부모관 인식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23-138
- 전귀연·최보가(1995).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1), 83-98
- 전유자(1982). **한국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우식(1986). **청소년 문제 그 실상과 대책**. 삼성출판사.
- 조귀이(1992). **성 폭력의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체육청소년부(1992). **청소년백서**.
- 최규련(1996). **청소년 상담의 가족학적 접근**.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상담. 청소년대화의광장.
- 최은영 외(1993). **청소년과 전자오락**.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4. 청소년대화의광장.
- 표갑수(1995). **아동. 청소년복지론**. 청주대 출판부.
- Agee, V.S. (1979). *Treatment of the violent incorrigible adolescent*.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 Alchhorn, A. (1925) *Wayward youth*. New York : Viking.
- Alexander, F. and Healy, W.(1935). *Roots of Crime*. New York : Knopf.

- Alexander, J.F. (1973). Defensive and supportive communications in normal and deviant famil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223-23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SM-IV*, N.W. Washington, DC.
- Amos, W.E., Manella, R.S., & Southwell, M.A. (1965). *Action programs for delinquency prevention*. Springfield, Ill. : Thomas.
- Andry, R.G. (1962), Paternal and maternal roles and delinquency. *WHO Publ. Hoth. Paper*, 14, 31-44.
- Arbuthnot, J., & Gordon, D.A. (1986). Behavioral and cognitive effects of a moral reasoning development intervention for high-risk behavior-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5, 1275-1301.
- Arbuthnot, J., Gordon, D.A., & Jurkovic, G.J. (1987). Personality, In H.C Quay (Eds.),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Wilen
- Bandura, A.(1983). *Psychological mechanisms of aggression*.
- Bandura, A. & Walters, R.H.(1963). *Social lear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Y. : Holt, Rinehart & Winstion.
- Bandura, A.(1973). *Aggression : A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In W.M. Kurtines & J.S.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 Vol 1. Theory(pp.45-103). Hillsdale, NJ : Erlbaum.
- Barglos, P, Bornstein, M.B, Exum, D.B, Wright, M.K., & Visotsky, H.M. Some psychiatric aspects of illegitimate pregnancy dying early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7. 266-267.
- Baumeister, R.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aumeister, R.F. (1991), *Escaping the self*, Basic Books.

- Baumeister, R.F. (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 Guilford.
- Baumeister, R.F. (1982). A self-presentational view of social phenomena.. *Psychological Bulletin*, 91, 3-26
- Beck, A.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 Berkowitz, L.(1993). *Aggression :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 MC Grow-Hill
- Blasi, A., & Oresick, R.J. (1986). *Affect, cognition, and self in developmental psychology*. In D.H. Bearison & H. Zimiles (Eds.), *Thought and emotion : Developmental perspectives*, 147-166. Hillsdale, NJ : Erlbaum.
- Button, A. (1973). The some antecedents of felonioys and delinq-yent behaviour. *Journal of Child Clinical Psychology*, 2, 35-37.
- Caplan, B. (1954). Principle of present : Is there a future?.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57, 42-45.
- Carducci, D.J. (1980). *Positive Peer Culture and assertiveness training* : Complementary modalities for dealing with disturbed and disturbing adolescents in the classroom. *Behavioral Disorders*, 5, 156-162.
- Chandler, M. (1973). Egocentrism and antisocial behavior : The assessment and training of social perspective-taking skills. *Developmental Psychology*, 9, 326-332.
- Chandler, M. and Moran, T.(1990). Psychopath and moral development : A comparative study of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boy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277-246.
- Cleckley, H.M. *The mask of sanity*. (5th ed.) St. Louis : Mosby, 1976.
- Cloninger, C.R., Reight, T., & Gure, S.B.(1978). *Genetic-environment interactions and antisocial behavior*. In R.D Hare & D. Schalling (Eds.). *Psychopathic behavior*. New york : Wiley.
- Coleman, J.C. (1971). *Abnormal psychology and modern life*. Scott, Foreman and Company.
- Conklin, J. (1981). *Criminology*, New York : Macmillan.
- Crowne, D.P., & Marlowe, D.A. (1964). *The approval motive* :

- Studies in evaluative dependence*. NY : Wiley.
- Curtiss, G., Feczko, M.D., & Marohn, R.C. (1979). Forschach differences in normal delinquent white male adolescents : A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8, 379-392
- Davison, G.C, & Neale, J.M. (1986). *Abnormal psychology : An experimental clinical approach*. New York : John & Wiley & Sons.
- Davitz, J.R. (1952). The effects of previous training on post-frustration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7, 309-1315.
- Deur, J.L. & Parke, P.D. (1970). The effects of inconsistent punishment on aggression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 403-411
- Dishon, T., Loever, R., Stouthamer-Loeber M., & Patterson, G.J. (1984). Skill deficits and male adolescent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137-154
- Dodge, K.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170.
- Dodge, K.A. (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Eds.),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 Hillsdale, NJ : Erlbaum.
- Dodge, K.A. (1990).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J. Pepler and K.H. Rubin(Eds.). The develop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 Erlbaum.
- Dodge, K.A. (1987).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re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 to the self. *Child Development*, 58, 213-223.
- Dodge, K.A. and Crick, N.R.(1990).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bases of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 8-22.
- Dodge, K.A and Newman, J.P. (1981). Biased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aggressive boys. *Journal of Abnormal Psy-*

- chology*, 90, 375-379.
- Duguid, S. (1981). Moral development, justice, and democracy in the prison.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23, 147-163.
- Durkheim, E. (1987). *Suicide : A Study in Sociology*, Transtide by Spaulding, F.A. and Simpson, G. London, Routledge & Kegna Paul, 1952.
- Earls, F. (1979). *Social reconstruction of adolescence* : Towark an explanation for increasing rates of violence in youth, In H.M. Rose (ed.), *Lethal Aspects of Urban Violence*, Lexington, M.A : Heath Sexington Books.
- Eldefonso, E. (1973). *Law enforcement and the youthful offender*. (2nd ed.) New York : Wiley.
- Elkind, D., & Weiner, I.B. (1978). *Development of the child*. New York; Wiley.
- Ellis, A. (1977). Rational-emotive therapy : Research data that support the clinical and personality hypothesis of RET and other modes of cognitive-behavior therapy. *Counseling Psychologist*, 7, 2-42.
- Empey, S.T. (1969). *Delinquent subcultures : Theory and recent research*. In C.R. Cressey & C.A. Ward (Eds.), *Delinquency, crime, and social process*. New York : Harper & Row, 1969.
- Eysenck, H.J., & Eysenck, S.B.G. (1975). *Manual of the Eusenck Personality Inventory*. San Diego : Educational and Indus-
tuia Testing Service.
- Fagan, J, and S.J. Jones. (1984). *Toward a theoretical model for intervention with violent juvenile offenders*. In R.A. Mathias, P. DeMuro, and R.S. Allison(eds.), *Violent Juvenile Offend-
er : An Antology*, San Francisco, CA :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 Farley, F.h., & Farley, S.V. (1972). Stimulus-seeig motivation and delinquent behavior among institutionalized delinquent girl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39, 94-97.
- Farley, F.H., & Sewell, T. (1976). Test of an arousal theory of d
elinquency. *Criminal Justice & Behavior*, 3, 315-320
- Farrington, D.P. (1991). *Childhood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

- Early Precursors and later life outcomes. In D.J. Pepler and K.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 Erlbaum.
- Feedman, B.J., Rosenthal, L., Donahue, L.P., Schlundt, D.G., & McFall, R.M. (1978). A social-behavioral analysis of skill deficits in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448-1462
- Felson, R.B. (1978). Aggression as impression management. *Social psychology*, 41, 205-213.
- Freud, S. (1961).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London : Hogarth.
- Friedlander, K. (1940), On the Longing to Di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21, 416-426.
- Friedman, C.J., Mann, F., & Friedman, A.S.A profile of juvenile street gang members. *Adolescence*, 1975, 10, 563-607.
- Friedrich-Cofer, L. and Huston, A.C. (1986).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 A rejoinder. *Psychological Bulletin*, 100, 364-371
- Gibbs, J.C. (1993). *Moral-cognitive interventions*. In A.P. Goldstein & C.R. Huff (Eds.), *The gang intervention handbook*(pp.159-185). Champaign, IL : Research Press.
- Gibbs, J.C., Potter, G.B., & Goldstein, A.P. (1995). *The EQUIP Program* : Mc Naghton & Gunn.
- Glueck, S. and Glueck, E.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rden City, NY : Doubleday Anchor.
- Gold, M, & Petronion, R.J. (1980). Delinquent behavior in adolescents. in Joseph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 John Wiley & Sons.
- Gottschalk, L.A., Titchener, K.S., Piker, H.N., & Stewart, S.S. (1964). Psycho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pregnancy in adolescent girls.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38, 524-534.
- Groth, A.N., Burgess, A.W., & Holmstrom, L.L. (1977). Rape :

- power, anger, and sexua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4, 1239-1243
- Halleck, S. (1971). *Psychiatry and the Dilemmas of Crime*. Berke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nson, C.L., Henggeler, S.W., Haefeld, W.F., & Rodick, D. (1984). Demographic in dividual and family relationship correlates of serious and repeated crime among adolescents and their sibling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4), 528-538
- Hare, R.D., & Cox, D.N. (1978). *Clinical and empirical conceptions of psychopathy and the selection of subjects for research*. In R.D. Hare & D. Schalling (Eds.), *Psychopathic behaviour*. New York : Willey.
- Hare, R.D. and McPherson, L.M.(1984). Violent and aggressive behavior by criminal psychopath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7, 35-50
-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ces*, In R. Baumeister (Ed.), *Self-esteem :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87-116. NY : Plenum Press.
- Hendrick, I. (1940), Suicide as Wish-Fulfilment, *Psychiatry Quarter*, 14, 30-42.
- Henggeler, S.W. (1989). *Delinquency in adolescence*. Newbury Park, CA : Sage.
- Hepburn, J.R. (1976). Testing attenerative models of delinquency causation. *Jouu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67, 450-460.
- Hetherington, E.M., Stouwie, R., & Ridberg, E.H. (1971). Patterns of family interaction and child rearing related to three dimensions of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7, 160-176.
- Hetherington. E.M., Stouwie, R.J., & Ridberg, E.H. (1978). Pattens of family interaction and childrearing attitudes related to three dimensions of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8, 160-176.

- Higgins, A. (1995). *Educating for justice and community : Sawrence Kohlberg's vision of moral education*. In W.M. Kurtines & J.L. Gewirtz (Eds.), *Moral development : An introduction*, 49-81, Boston : Allyn & Bacon.
- Hindelang, M.J. (1972). The relationship of self-reported delinquency to scales of the CPI and MMPI.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 Police Science*, 63, 75-81.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rschi, T. and Hindelang, M.J. (1977). Intelligence and delinquency : A revisionist review.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571-587
- Hofman, M.S. (1977). *Moral internalisation : Current theory and research*. In S.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New York : Academic.
- Huesman, L.R. Eron, L.D. Yarmel, P.W. (1987).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232-240.
- Izard, C.E., Hembree, E.A., & Huebner, R.R. (1987). Infants' emotional expressions in acute pai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05-113.
- Jacobs, J. (1971), *Adolescent Suicide*, New York : Wiley.
- Jellison, J.M., & Gentry, R.A. (1978). A self-presentation interpretation of the seeking of social approv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227-230
- Jenkins, R.S. The psychopathic or antisocial personalit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96(131) 318-334.
- Jones, E.E., & Pittman, T.S. (1982). *Toward a general theory of strategic self-presentation*. In J. Sul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1, 231-262, Hillsdale, NJ : Erlbaum.
- Jurkovic, G.J., & Prentice, N.M. (1977). The relationship of moral and cognitive development to dimensions of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 Abnormal Psychology*, 86, 414-420.
- Kande, D.B., Kessler, R.C., & Margulies, R.Z.(1978). *Antecedents of adolescent initiation into stages of drug use : A develop-*

- mental analysis*. In D.B. kandel(Ed), Longitudinal research on drug use : Empirical findings and methodological issues, 73-99, Washington D.C. : Hemisphere Publishing Company.
- Kandel, D.B. (1978) Homophily, selection, and socialization in adolescent friendship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2), 427-436.
- Kolberg, L. (1976).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In T. Lickona (Eds.),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Lavik, N.J. (1969). Future time perspective and adolescent behavior disorder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a*, 45, 153-171.
- Lewis, D.O., & Balla, D. "Sociopathy" and its synonyms : Inappropriate diagnoses in child psychiatr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75, 132, 720-722.
- Lewis, D.O. (1976). Diagnostic evaluation of the juvenile offender : Toward the clarification of often overlooked psychopathology.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6, 198-213.
- Lickona, T. (1983). *Raising good children*. Toronto : Bantam.
- Loeber, R., & Dishion, T.(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1), 68-99
- Loever, R.(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46
- Luria, A.R. (1961). *The Role of speech in the regulation of normal and abnormal behavior*. New York : Leveright.
- Marohn, R.C., Offer, D., & Ostrov, E. (1971). Juvenile delinquents view their impulsiv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8(4), 418-423.
- Mccord, W., & Mccord, J. (1964). *The psychopath : An essay on the criminal mind*. Princeton, N.J. : Van Nostrand.
- Meichenbaum, D. (1977). *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 : An integrative approach*. New York : Plenum.
- Menninger, K. (1966), *Man Against Himself*,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 Meyerowitz, J.J., & Malev, J.S. Puvescent attitudinal correlates

- antecedent to adolescent illegitimate pregna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73, 2, 251-258.
- Miller, D. (1965). *Growth to freedom : The psychosocial treatment of delinquent youth*.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 Miller, P.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 324-344.
- Moffitt, T.E., Silva, P.A. (1988). IQ and delinquency : A direct test of the defferential detection hypothes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330-333.
- Myers, D. (1980). *The inflated self*. NY : Seabury Press.
- Noraco, R.W. (1975). *Anger control : The developbent and evaluation of an experimental treatment*. Lexington. MA : D.C. Heath.
- Olweus, D. (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4), 852-875.
- Patterson, G.R., & Gullion, M.E. (1971). *Living with Children*. Research Press Company.
- Persons, R.W.(1967) Relationship between psychotherapy with institutionalized boys and subsequent community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1, 137-141.
- Quay, H.C., & Parsons, L. (1971). *The differential behavioral classiftcation of the juvenile offender*. Washington, D.C. : U.S.Bureau of Prisons.
- Quay, H.C. (1987). *Intelligence*. In H.C. Quay (Eds.),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 Wiley.
- Quay, H.C. Classification.(1979)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2nd ed.) In H.C. Quay & J.S. Werry (Eds.). New York : Wiley.
- Renzetti, C.M. (1992). *Violent betrayal : Partner abuse in lesbian relationships*. Newbury Park. CA : Sage.
- Richman, N., Stevenson, J., and Graham, P.J. (1982). *Pre-school to School : A Behavioral Study*. London : Academic Press.
- Rotenterg, M.(1974).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notes on affective and cognitive role-taking(sympathy and empathy) :

- An illustuative experiment with delinquent boy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5, 177-185.
- Rotter, J.B. (1954). *Social learning and clinic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Roverts, R.E., Avrams, L, & Finch, J.R. (1973). "Delinquent" sexu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Medical Aspects of Human Sexuality*, 7, 162-183.
- Rovins, L.N. (1978). *Aetiological implications in studies of childhood histories relating to antisocial personality*. In R.D. Hare & D. Schalling (Eds.), *Psychopathic behaviour*. New York : Wiley..
- Rutter, M. (1971). Parent-child separation : Psychological effects on the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2, 233-256.
- Rutter, M. and Giller, H. (1983). *Juvenile Delinquency : Trends and Perspectives*. Harmondsworth, England : Penguin.
- Sadoff, R.S. (1978). "Violence in juveniles" In R.S. Sadoff (Ed.). *Violence and Responsibility*, Flushing, N.Y : Spectrum Publication, Inc.
- Samenow, S.E. (1984). *Inside the Criminal Mind*. New York : Times Books.
- Santrock, J.W. (1983). *Adolesence*. W.C. Brown Company Publishers.
- Sarason, I.G. & Sarason, B.G. (1984), *Abnormal Psychology, the Problem of Maladaptive Behavior* (4th ed.) Englewood Cliffs, NJ : Academic Press.
- Saunder, J.T., Reppucci, N.D. & Sarata, B.P.V. (1973). An examination of impulsivity as a trait characterizing delinquent youth.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3, 789-795.
- Schalling, D.(1978). *Psychopathy-related personality variables and the psychophysiology of socialization*. In R.D. Hare & D. Schalling (Eds.), *Psychopathic behaviour*. New York : Wiley.
- Schoenker, B.R. (1980). *Impression management : The self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terpersonac relations*. Monterey, CA : Brooks/Cole

- Seigman, A.W. (1966). Father absence during childhood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1, 71-74.
- Shoemaker, D.J. (1984), *Theories of Delinquency : An Examination of Explanations of Delinquent Behavior*.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Snyder, J.J. (1977). Reinforcement analysis of interaction in problem and nonproblem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5), 528-535.
- Snyder J.J & Patterson, G. (1987). Family interaction and delinquent behavior. In H.C. Quay(Ed.),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John Wiley & Sons.
- Stanfield, R.E. (1966). The interaction of family variables and gang variables in the aetiology of delinquency. *Socialproblems*, 13, 411-417
- Swann, W.B. (1987). Identity negotiation : Where the two roads me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038-1051
- Tekeschi, J.T. (1981). *Impression management theory and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Toch, H. (1969). *Vioent man : An inquiry into the psychology of violence*. Chicago : Aldine.
- Toch, H. (1980). *Violent men : An inquiry in to the psychology of violence*. washington, DC : Amero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Visotsky, H.M. (1966). A project for unwed pregnant adolescents in Chicahgo. *Clinical Pediatrics*, 5, 322-324.
- Weiner, I.B. (1982).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ew York : John Wiley & Sons
- Wilson, J.Q. and Herrnstein, R. (1985). *Crime and Human Nature*. New York : Simon & Schuster.
- Zuckerman, M., Kolin, A., Price, L., & Zoob, I. (1964). Development of a sensation seeking scale. *Journal Consulting Psychology*, 28, 477-482.

비행 청소년의 법적 처리 절차

1. 개요
2. 경찰 단계
3. 검찰 단계
4. 법원 단계
5. 집행 단계

1. 개 요

1.1 두 가지 처리방식

청소년 비행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넓은 의미로는 모든 문제 행동이나 일탈 행동을 포함한다. 이 경우 청소년 비행은 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는 비행뿐 아니라 단순히 교육, 선도, 상담의 대상이 되는 비행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대체로 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는 비행 행동은 좁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이 된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법적 처리 방식은 2가지다. 그 하나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다.

1.2 연령에 따른 구별

청소년 비행은 연령에 따라 법적 처리 내용과 절차가 크게 다르다.

<20세 이상>의 청소년은 법률상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형사 처벌의 내용과 절차도 성인과 전적으로 동일하다.

<20세 미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여러 가지 법률상 배려가 주어진다. 형사사건으로 처벌함에 있어 사형이 금지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고, 성인에게는 해당이 없는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게 된다.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에서 제외된다. 너무 어려서 형사 처벌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12세 이상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1.3 비행 청소년의 분류

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는 비행소년(20세 미만인 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소년법 제4조).

부록 1.
비행 청소년의
법적 처리 절차

1. 범죄 소년	죄를 범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거나, 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2. 촉법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3. 우범 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다.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1.4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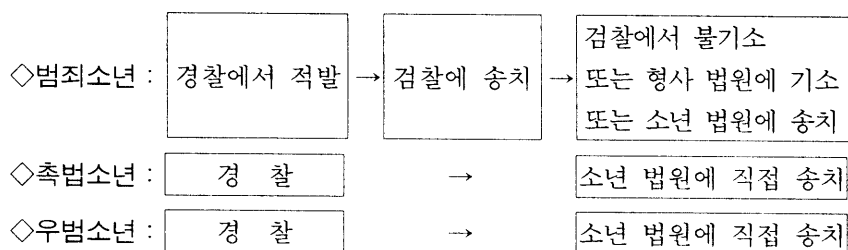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표로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형벌 법령 저촉 행위	형벌 법령 저촉 우려행위
24 20	범죄성인(형사사건)	※ 제재할 수 없음
19 14	범죄소년(형사사건, 보호사건)	우범소년(보호사건)
13 12	촉법소년(보호사건)	"
11 0	※ 제재할 수 없음	※ 제재할 수 없음

2. 경찰 단계

2.1 경찰의 단속

비행 소년이 법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우선 <단속·적발>이 되어야 한다. 비행 소년의 단속 기관과 단속된 비행 소년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또한 위 소년들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 복지 시설의 장은 직접 소년 법원에 통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경찰은 단속 결과,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훈계 방면>하는 경우도 있고, 범죄 소년으로서 벌금 20만원 이하,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정도로 경미한 때에는 지방 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판사에게 <즉결 심판>을 청구하기도 한다.

2.2 경찰의 수사

2.2.1 입건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 어린 <촉법소년>과 단순히 범죄의 우려가 있을 뿐인 <우범소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이 적발 즉시 막바로 소년법원에 송치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특별한 절차는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를 범한 14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 즉 <범죄 소년>은 정식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범죄 소년은 일단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절차를 <입건>이라 한다. 형사사건부라는 장부에 등재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입건된 사람을 <피의자>라 한다.

범죄 소년의 대부분은 경찰에 의해 입건된다. 간혹 중요사건의 경우 검사가 직접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 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95조, 제196조).

경찰은 소년 사건의 처리를 위해 <소년 경찰>(소년계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2.2.2 구속과 불구속

경찰은 소년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를 긴급 체포 또는 체포할 수 있다. 또 경찰은 죄가 중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

사범 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를 검토한 후 이유 없는 경우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 영장의 발부를 청구한다. 판사가 이를 검토한 후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사범 경찰관은 이를 집행하여 신병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한다.

구속 사건은 구속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불구속 사건은 가급적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 송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3 구속 적부심과 수사 단계 보석

피의자가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검찰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피의자측은 구속 적부 심사의 청구를 통해 석방을 요청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이 그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석방을 명하면 즉시 석방되나, 기각하면 석방되지 못한다.

이때 법원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수사 단계까지 확대된 보석 제도이다.

2.2.4 검찰에의 송치

경찰에서 범죄 소년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그 사건은 반드시 검찰에 송치된다. 모든 형사 사건은 구속 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예외 없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에 최종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불구속 처리되었다고 하여 사건 처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된 날 검사의 조사를 받은 후 <구치소>에 이송, 수감된다.

3. 검찰 단계

3.1 검사의 수사

경찰에서 입건, 수사된 피의자(범죄 소년)는 예외없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의 수사를 받고 최종 처분을 받는다. 구속 피의자는 물론 불구속 피의자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직접 인지수사도 할 수 있다. 대체로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 직접수사의 대상이 된다. 구속 피의자의 경우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당일 조사를 마친 후 신병을 <구치소>에 수감한다.

구속 사건은 검사가 송치를 받거나 직접 인지 구속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사 종결하거나 1차연장하여 20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불구속 사건은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수사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2. 검사의 처분 : 불기소, 기소, 소년부 송치

3.2.1 불기소

검사가 사건 수사 결과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한다.

<기소 유예 처분>은 죄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의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처분이다.

기소 유예 처분에는 단순 기소 유예 처분 외에 특수한 기소 유예 처분이 2가지 있다. 그 하나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이다. 이는 일정 기간 범죄 예방 자원 봉사자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하는 처분이다. 다른 하나는, <보호 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이다. 이는 일정기간 보호 관찰소에서 선도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처분이다.

<무혐의 처분>은 사건 수사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가 죄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는 처분이다.

그 외에도 <죄가 안됨 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고, 피

의자가 도주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그 소재 판명 시까지 처분을 중지하는 <기소 중지 처분> 등이 있다.

3.2.2 형사 법원에서의 기소

검사는 사건 수사결과 피의자가 형사 재판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형사 법원>에 회부한다. 이를 <공소 제기>, 즉 <기소>라 한다. 이로써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기소에는 정식 기소 이외에 <약식 기소>가 있다. 이는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고자 할 때 법원이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을 해주도록 검사가 청구하는 제도이다.

3.2.3 소년 법원에서의 송치

검사가 사건 수사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때에는 형사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소년부 송치된 소년을 <보호소년>이라 한다.

4. 법원 단계

4.1 형사 법원의 재판

4.1.1 개요

검사가 범죄 소년을 형사 법원에 공소 제기하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된다. 공판은 보통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리에 진행된다(약식 기소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은 사건에 따라 판사 한 사람, 즉 단독 판사가 하기도 하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관할한다.

4.1.2 범죄 소년에 대한 특별조치

범죄 소년에 대해서는 범죄 성인과 달리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

는 부분이 있다. 범죄자가 소년임을 감안하여 특별 규정을 둔 것이다 (소년법 제59조 내지 제67조).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과 무기형의 부과를 금하고, 모든 소년에 대해 상대적 부정기형 제도를 두며,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환형 유치선고를 금하고 있다. 또한 자유형 집행시 성인과의 분리를 규정하고, 가석방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4.1.3 재판의 종류

법원이 재판을 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한다. 유죄의 판결로서 <실형>을 선고하면 소년 교도소에서 징역형 등을 복역하게 된다.

유죄의 판결을 하면서 <집행 유예>의 판결을 하면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집행을 하지 않게 된다. 구속 사건인 경우에는 신병이 석방된다.

<선고 유예>를 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였다가 2년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구속 사건은 신병이 석방된다. 범죄 소년에 대해 집행 유예나 선고 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보호 관찰을 명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재판을 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할 증거가 없으면 <무죄의 판결>을 한다. 구속사건인 경우에는 당연히 신병이 석방된다. 그 외에 <공소 기각의 판결이나 결정>, <면소의 판결>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제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상고>를 할 수 있다.

4.2 소년 법원의 심리

4.2.1 개요

비행소년 중 <범죄 소년>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와 <촉법 소년> 및 <우범 소년>은 소년법원에서 심리하는 보호 사건의 대상이 된다.

소년 법원이라 함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와 가정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지방 법원 소년부를 가리킨다.

이들 비행 소년들이 소년 법원에 송치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부록 1.
비행 청소년의
법적 처리 절차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①<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하거나 ②검사가 일단 형사 법원에 기소하였으나 <형사 법원>이 재판 중 소년부 송치를 하면 보호 사건이 된다. 촉법 소년과 우범 소년의 경우는 <경찰서장>이 막바로 소년 법원에 송치하면 보호 사건이 된다. 보호자 또는 학교나 사회 복지 시설의 장도 비행 소년들을 발견하면 소년 법원에 바로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
- ②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 ③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하는 것

<소년 분류 심사원>(구 소년 감별소)은 소년부 판사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 심사하는 시설로서 그 분류 심사 결과와 의견을 소년부 판사에게 통지한다.

4.2.2 조사, 심리와 처분

사건이 소년 법원으로 송치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소속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내용과 소년 본인 및 보호자,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년 조사관은 소년·보호자·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 등을 정확히 규명하여 그 결과를 판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소년부 판사는 먼저 소년에 관한 심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사건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리 불개시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이로써 종결되고, 위탁된 소년은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심리 개시의 결정>을 하면 심리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 보호자, 보조인에게 통지한다. 소년부 판사는 본인·보호자·참고인의 소환을 명할 수 있고, 소환에 불응할 때에는 동행 영장을 발할 수 있다.

심리 결과 어떠한 보호처분의 결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때 위탁시설에 위탁 수용되었던 소년은 바로 석방된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 처분>을 결정한다. 보호처분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고, 항고심의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원의 <재항고>가 가능하다.

4.2.3 보호 처분의 종류

소년부 판사는 사건 심리 결과 그 소년의 교화·개선과 보호를 위하여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거나 성행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한다(소년법 제32조).

◇ 1호 처분 : 보호자 등 감호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소년을 종전의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위탁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2호, 3호 처분 : 보호 관찰

보호 관찰관의 보호 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서 단기 보호 관찰(2호처분)과 장기 보호 관찰(3호 처분)로 나뉘어 있다. 단기 보호 관찰 기간은 6월이다. 장기 보호 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처분당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2호 처분자인 경우는 50시간, 3호처분자에게는 200시간 미만의 사회 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 4호 처분 : 소년 보호 시설 감호 위탁

소년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 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위탁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5호 처분 : 병원 및 요양소 위탁

소년을 병원 또는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그 위탁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6호, 7호 처분 : 소년원 송치

시설 내에 수용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절실한 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써 6호 처분과 7호 처분이 있다. 6호 처분은 6개월 미만의 단기간 소년원에 수용하는 것이며, 7호 처분은 수용기간이 결정되지 않은 사실상의 부정기형으로서 소년원법상 23세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이다.

5. 집행 단계

5.1 소년 교도소

5.1.1 개요

소년 교도소는 형사 법원으로부터 실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 범죄자를 성인 범죄자와 분리 수용하여 교정 처우를 실시한다. 현재 소년 교도소는 천안과 김천에 설치되어 있고 남자 소년을 수용하고 있다. 여자 소년은 각 교도소의 분리된 장소에 수용된다.

5.1.2 수용 및 교육

소년 교도소에서는 악성 오염의 방지와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죄질의 경중, 학력 등을 고려, 소년들을 분리 수용한다. 교정 교육은 인격 도야와 소질 계발,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재소자 정신 교육, 학과 교육, 생활 지도, 직업훈련 등을 실시한다. 장기간 격리 수용되어 생활 중인 재소자에게 출소후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해주기 위해 귀휴 및 사회 견학 등도 실시한다. 사업가, 종교인, 법조인 등 덕망있고 교화사업에 열의가 있는 민간 자원봉사자를 종교 및 교화 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소자 교화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다.

5.2 소년원

5.2.1. 개요

소년원은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으로서 소년원 송치 처분(6호, 7호 처분)을 한 비행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전국에 11개 소년원이 설치되어 있다.

5.2.2 보호 및 교육

6호 처분 소년(<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보호소년)은 조기에 사회 내 처우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반개방 또는 개방 처우를 한다. 교육 훈련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집중적인 정신 교육, 체험 교육, 체력 훈련 및

생활 지도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5. 집행 단계

7호 처분 소년의 처우 기간 분류는 1차적으로 비행 사실을 중심으로 하되, 비행의 질이 경미한 자는 7개월~12개월의 <중기>로, 비행의 질이 불량한 자는 13개월 이상의 <일반 장기>로, 비행의 질이 극히 불량한 자는 19개월 이상의 <특별 장기>로 분류하고, 2차 분류에서는 환경적, 심리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한 재비행 예측표를 적용하여 1차 분류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다.

소년원에서의 교육은 입원에서 퇴원에 이르기까지 입원자 교육, 기본 교육, 사회 복귀 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소년원에는 교육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를 두고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4개를 병설·운영하고, 각급 학교 학령 초과자는 검정 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을 취득하게 한다. 그 외에 직업 훈련, 생활 지도, 특별 활동 등을 실시한다. 명칭을 복수화하여 학사 행정 등과 관련해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5.3 보호 관찰소

5.3.1 개요

보호 관찰소는 소년 법원 등으로부터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비행 소년에 대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와주고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해 보호 관찰관이 지도와 원호를 실시한다. 현재 전국에 12개 보호 관찰소와 9개 보호 관찰 지소가 있다. 보호 관찰관은 형사 정책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보호 관찰을 실시하는 국가 공무원이다.

5.3.2. 보호 관찰의 실시

비행 소년에 대한 보호 관찰은 소년 법원의 보호 관찰 처분, 형사 법원의 보호 관찰부 선고 유예·집행 유예의 선고, 또는 보호 관찰 심사위원회의 가퇴원·가석방 결정에 의해 개시된다.

보호 관찰소는 대상 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 상담과 경제적 원호·구호외에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대상 소년들의 건전한 인성 발달, 인간 관계 기술 습득 및 건강한 가족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다양한 심성계발 훈련 및 상담적인 심리·사회적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토요 교실, 보호자 교육 등 집합적인

부록 1.
비행 청소년의
법적 처리 절차

선도 교육 등을 실시한다.

보호 관찰소는 사회 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도 집행한다. 사회 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은 법원이 16세 이상의 소년에게 보호 관찰 처분을 하면서 병과하는 명령으로서 선도 가능한 비행 소년을 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시간동안 무보수로 사회 봉사 활동을 하거나, 정신 교육 또는 준법 교육 등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5.4 갱생 보호 단체

5.4.1 개요

갱생 보호는 일반적으로 형의 선고 유예, 집행 유예,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임의적 보호활동이다. 갱생 보호는 한국 갱생 보호 공단이나 기타 갱생 보호 사업 단체가 담당한다. 한국 갱생 보호 공단은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에 12개 지부와 전국의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 등 52개소에 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인천 지부에는 성인 출소자와 분리하여 비행 청소년들만을 보호하고 있다.

5.4.2 갱생 보호의 실시

갱생 보호는 대상자 본인이 서면으로 신청하나, 출소 전 기관 즉 검사, 교도소장, 보호 관찰소장, 보호 감호 시설의 장, 상담 감호 시설의 장, 소년원장, 소년 감별소장의 알선에 의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갱생 보호는 보호 대상자가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이들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서 무의무탁한 출소자에 대한 6~9개월간의 범위 내에서의 각 지부 생활관 숙식제공, 여비 지급, 생업 조성 금품 지급,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한다.

청소년에 대한 경찰청과 법무부 정책

1. 경찰청
2. 법무부

1. 경찰청

청소년과 관련하여 경찰청이 추진하는 목표는 비행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미아, 가출인 수배 보호,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 업소 정화 단속, 소년 경찰의 전문화 및 육성책 강구 등을 들 수 있다. 소년법 제 4조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을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우범 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법에서는 불량 행위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아동 복지법에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규정이 있다. 사회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소년으로서 보호자로부터 유기되었거나, 이탈원자 또는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한 자로 이른 바 미아, 고아, 가출 아동 등과 같은 요보호 아동과 음주, 흡연, 싸움을 하거나 유흥 업소 출입, 성 도덕 문란 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불량 행위 소년(일명 풍기 사범)은 보다 문제가 심각하거나 죄질이 무거운 비행 소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단속, 선도, 보호하는 것은 청소년 비행의 예방에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경찰청의 불량 소년 보호 단속에 의해 경찰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탈, 비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접하게 되는 공식적인 절차 기관이 된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의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이들의 운명과 진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적절하고 전문적인 개입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상담정책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1 청소년 정책의 목적

현재 우리 나라에서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가장 시급하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단계는 경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경찰에서의 비행 청소년을 위한 상담 정책은 예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 단속하여 청소년들을 이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측면으로는 적절한 상담적인 접근을 통해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1.2 청소년 상담 정책의 추진 방향

비행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 상담 정책을 추진하

는 경찰청의 상담 정책 기본 추진 방향은 유해 업소의 정화 단속, 비행 청소년의 선도, 미아 및 가출인 보호 등의 선도과 정화 정책과 소년 업무 전문화를 위한 소년 경찰 육성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2.1 비행 청소년 선도

경찰청에서는 비행 청소년의 선도를 위하여 사랑의 교실(자선)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 등 6개 도시에서 대전, 마산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경찰 주관에서 민간 단체 주관으로 전환시키고 경찰과 학교에서는 대상자 선발과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또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과 학교 생활에 복귀하여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이루어 나가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 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도 단체를 정비, 보강해 나가고 있다.

1.2.2 미아 및 가출인 보호

미아 및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182 신고 단체를 홍보하여 신고 요령 등을 알리고 전산 입력을 통해 수배하며 특정 지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방법과 형사 합동으로 공조 합심제를 운영하며 전화 및 심방에 대해 수배 실태와 귀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대상자 영상 시스템을 개발하여 범죄 조회 자료에 연결 사용하며 윤락가 등에 가출인 찾기 활동을 전개하여 발견된 자는 상담을 통한 귀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1.2.3 유해 업소 정화 단속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 단속하여 청소년들을 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음란 매체를 강력히 단속하고 학교, 학원, 독서실 주변 취약 시간 순찰을 강화하며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을 정화 단속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출입 제한 구역을 정비 및 지정하고 도박, 사행기구 제작 판매를 집중 추적 수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일탈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기하고 있다.

1.2.4 소년 업무 전문화

청소년 관련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전문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배

치해 나가며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관련학과 출신과 및 지도자 과정 이수자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며 소년계가 부재한 지방경찰청에 기구 부활을 추진하고 시단위 52개 경찰서에 소년계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교 및 전문 단체 등과 협의하여 전문화 교육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려 한다.

1.3 청소년 상담 사업을 위한 근거법

경찰청의 청소년 상담 정책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은 미성년자 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유해 환경의 규제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청소년 기본법, 경범죄 처벌법, 윤락 행위 등 방지법,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옥외 광고물 관리법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서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등이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청소년을 각종 사회적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그들 자신의 일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유해 환경 관련 규제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규라 할 수 있다. 이 법의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의 깽연,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그들을 선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 육성을 위한 상담 사업의 초래를 마련해 주고 있다.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묵인, 주류제공 및 판매 행위, 심야 영업장에서의 음란물 상영 및 변태 영업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건전 육성 차원에서 풍속 영업장의 각종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유해 환경 규제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제와 함께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 육성하는 상담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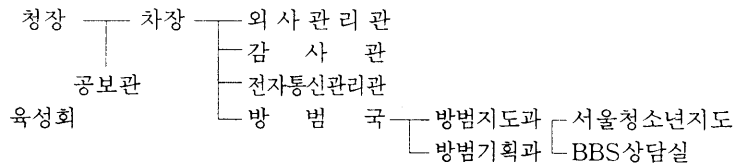
1.4 청소년 상담 사업을 위한 재정

사랑의 교실 운영시 전문 강사(교수, 사회 단체 전문가, 병원 정신과 의료자, 카운슬러 등) 확보 및 심리 검사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정도도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 미아, 가출 청소년 첨단 화상 처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추천 및 설치에 따른 제반 여건 조성 등이다.

1.5 청소년 상담 행정 및 전달 체계

경찰청의 청소년 상담 정책은 방법국 방법 지도과 소년계에서 주관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 관련 행정 체계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경찰청 청소년 상담 관련 행정 체계

방법국 방법 지도과 소년계가 전국 조직을 갖고 있는 BBS연맹과 서울 청소년 지도 육성회의 서울 위원을 중심으로 순회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는 전화 상담 전담 상담원을 두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일반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들 중 검찰에 송치할 대상자에서 제외된 범죄 소년, 가정 법원에 송치할 대상자에서 제외된 촉법 소년 또는 우범 소년, 즉결 처분의 대상이 되는 비행을 범한 13세~18세의 자, 기타 형벌 법규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자기 또는 타인의 위생 또는 덕성에 유해로운 불량 행위를 행한 13세~18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특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서 중등반(13세~15세), 고등반(16세~18세)으로 나누어 대상 청소년 및 보호자를 서울 청소년 지도 육성회 청소년 상담실(부산, 대구, 광주 BBS지방연맹 상담실)의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에 보내거나 BBS와 서울 청소년 지도 육성회의 상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 지도를 받게 하고 있다.

1.6 상담 기관과 상담 활동

전국 가출 청소년 선도 및 비행 상담을 위해 전국 197개소의 경찰서 산하 청소년 상담실에서 청소년 선도 위원 등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관계된 상담 기관으로는 전국 조직인 BBS연맹과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를 들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이 두 기관의 선도위원을 중

심으로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에서는 해당 국번에 7000번 전화를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전담 상담원을 두어 전화 상담에 임하고 있다. 상담 기관과 활동 상황 및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1.6.1 BBS 연맹 청소년 상담실

BBS연맹은 '우애와 봉사'를 이념으로 하는 BBS운동(큰 형제 자매 맺기 운동)의 이념하에 형성된 모임으로 경찰청의 방법 지도과 소년계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 전국 13연맹과 188개 지부로 되어 있고 전국에 약 65,000여명의 회원(자원 봉사자)이 활동을 하고 있다. 소외된 소년 소녀 가장, 영세 가정 청소년, 시설 아동 등을 보호하고 후원하며, 문제,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BBS연맹에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비행 청소년 및 불량 행위 청소년이 더이상 범죄에 빠져 들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특수 교육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이 국고지원 및 자체 조달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1.6.2 서울 청소년 지도 육성회 청소년 상담실

경찰청의 방법지도과 소년계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파출소 단위로 설치되어 약 500여개의 분회와 약 18,000여명의 전체 회원(청소년 선도위원, 자원 봉사자)으로 구성되어 활동한다.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지도 육성회 정관에 명시된 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고 지원과 자체 조달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교육 상담(불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에 대한 고등 공민 교육 실시), 장학 사업, 지도 육성 사업, 청소년 문제 연구 사업, 상담 보도 사업(문제 청소년의 심층 진단과 교정을 위한 상담 보도 활동, 청소년 선도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청소년 지도육성회 상담실에서는 경찰과의 협조하에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의 징계 대상 학생을 위한 집단 상담과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 중 50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3박 4일간의 숙식 프로그램인 “알개교실”을 연간 4회 개설하고 있어서 비행 청소년 예방 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사랑의 교실 운영 -

경찰청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교정 교화 교육을 실시하여 점차

부록 2.
정소년에 대한
경찰청과
법무부 정책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사전 예방하며, 불량 행위 소년 선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사랑의 교실 설치 운영 세부 지침, 치안본부, 1995).

① 일 시 : 연 24회(매월 2, 4주 토요일 14:00~18:00)

② 실시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경기, 전남지역 (대전, 마산에 실시 예정임)

서울은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에서,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등은 BBS연맹이 함께 협력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함께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표 2-1〉 사랑의 교실 실시 현황

사랑의교실 실시현황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남
	3,604	1,449	888	1,149	87	110	321

자료 : 경찰청, '95 청소년 비행 예방 대책, 1995.

③ 사랑의 교실 대상자 및 참석 과정

사랑의 교실 대상자는 검찰에 송치할 대상자에서 제외된 범죄 소년, 가정 법원에 송치할 대상자에서 제외된 촉법 소년 또는 우범 소년, 즉 결 처분 대상이 되는 비행을 범한 13세~18세의 자, 기타 형벌 법규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자기 또는 타인의 위생 또는 덕성에 유해로운 불량 행위를 행한 13~18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사랑의 교실 참여는 강제성은 없으나, 본인과 보호자를 설득, 권유하여,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대상자 참석과정을 살펴 보면 대상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해당 일정과 교육 과정 안내 팜플렛을 배포하여 보호자 양해 하에 참석하도록 한다. 각 경찰서에서는 교육 하루 전까지 사전 조

〈표 2-2〉 사랑의 교실 참석 현황 및 부모 동반 여부

구 분		남	여	계
총계(1994)		1,814명	147명	1,961명
부모 동반 여부	동 반	57명	16명	73명 (3.7%)
	비동반	1,757명	131명	1,868명 (96.2%)
중도탈락자				99명

자료 : 문화체육부, '95 청소년 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1995,

사한(경찰서) 신청 카드, 인성 검사 등의 필요한 자료를 청소년지도육성회 상담실에 제출하여 분반, 등록에 협조하도록 한다.

사랑의 교실 참여시 비행 예측 검사는 소년 경찰이 직접 실시하며, 보호자는 출석에서 귀가까지 가능하면 동행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④ 프로그램 진행 과정 및 내용

교육 실시 횟수는 매주 중등반, 고등반으로 나뉘어서 각 1회씩 수요일 오후 2~6시, 토요일 오후 2~6시에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만남의 시간(안내, 레크리에이션), 자기 체험의 시간(심리극, 약물 남용 예방 교육, 인간 관계 훈련), 정리의 시간(소감 나누기)으로 총 4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내용의 강사는 현재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외부로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

⑤ 사후 지도(follow up)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실 활동을 소개하여 자발적인 내담을 유도하며, 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 팸플릿을 작성, 배포하고 있다. 또한 교육 후 계속적으로 선도가 요망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각 지구별 선도위원과 결연, 지속적인 교정 기회를 갖고, 이와 관계된 활동 상황을 기록, 운영 위원에게 기록을 보관하게 하고 있다. 또한 부모들을 위하여 다루기 힘든 청소년의 이해 등과 같은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⑥ 문제점

현재 사랑의 교실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참석자의 수요 파악 곤란으로 통제 기능 약화
- 참석자가 많을 경우 강사 수가 적어 질적인 교육 저하
- 전문지도 강사 부족
- 전담 직원이 없음
- 교육 시간의 부족

1.7 청소년 상담 인력

〈표 2-3〉 경찰청 산하 청소년 상담 인력

명 칭	인 원 수
소년경찰	763명
청소년 선도위원	5,000명
BBS 연맹회원	65,000명
자원봉사자	18,000명

경찰청산하 청소년 상담 인력으로는 비행 및 범죄 소년을 전담해서 다루는 소년경찰(총763명)과 법무부 장관의 위촉으로 지역 실정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일정한 직업과 시간적 여유가 있고 소년 비행의 예방과 교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청소년 선도위원(전국 50개 지부의 5,000명), 전국 13개 연맹, 188개 지부를 갖고 활동하는 BBS연맹의 65,000명의 회원과 서울 청소년 지도 육성회의 회원 18,000명의 자원 봉사자 상담자가 있다.

2. 법무부

법무부에서는 비행 청소년의 선도 및 교정 그리고 사회에의 적절한 복귀를 위해서 보호 형태의 차원에서 교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 위주의 대응보다 선도와 보호 차원에서 교정 상담 및 상담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교정 이념 자체가 응보 처벌 중심에서 교정과 교화 및 상담을 통한 사회 재통합의 방향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행 청소년의 예방과 교정 치유에 있어서 상담적 개입과 상담 전문 인력의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그 원인과 특성에 있어서 성인범죄와는 상이한 점이 많으며 주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인 범죄에 비해 비행 청소년은 그 처우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교정 상담 및 상담이 비행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비행의 예방 뿐 아니라 비행 발생 후 사후 관리를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격리 구금 시설과 사회의 중간 연결 체계인 보호 관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행 청소년의 교정 상담과 재활, 갱생 등 건전 육성을 위한 전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행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교정 상담 정책이 법무부 보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1 청소년 상담 정책의 목적

법무부에서는 비행 청소년 교정을 위한 상담 정책의 목적을 응보와

억제적 차원의 구금, 격리를 통한 처벌이 아닌 청소년 일탈을 조장한 사회적 여건의 개선과 잘못 형성된 그들의 성행을 바로 잡아주고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교육적, 치유적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은 그 일차적 관심을 청소년 비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반인들에게 있다기보다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개개인에게 두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적용을 통한 처벌과 통제보다는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처우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 계발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청소년의 범죄와 일탈이 감소되어 공공 질서가 안정되는 것보다는 교정상담의 대상이었던 이들의 성행과 성품의 변화와 사회 적응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상담 정책을 펴 나가게 하고 있다.

2.2 청소년 상담 정책의 추진 방향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교정 상담 정책의 추진 방향은 특수 기소 유예 제도의 적극 활용,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함양, 비행 청소년의 성격과 자질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판별,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력과 전인적인 성장 발달 도모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2.2.1 특수 기소 유예 제도의 적극 활용

특수 기소 유예 제도는 통상의 기소 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 소년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지방경찰청 검사장)의 위촉을 받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제도와 보호관찰소에서 일정기관 선도받은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제도의 2가지가 있다. 이 제도는 성인과는 달리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선도하여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청소년의 경우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에 빠지기 쉬운 반면 개선 가능성도 많으므로 죄질이 중하더라도 개선의 점이 보이는 청소년들에게는 교도소와 소년원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이 있는 자원봉사위원이나 보호관찰소에게 맡겨 선도, 보호케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2.2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향상

특수 기소 유예 제도를 통해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문제가 선도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위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함양이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의 보호 및 교정 상담 정책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이들 위원들이므로 이들을 조직, 관리하고 행정적, 교육적 지도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2.2.3 비행 청소년의 성격과 자질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판별

비행 청소년의 성격과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을 비행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단계이다. 뿐만 아니라 소년원에 입원한 청소년과 교육 과정에서도 입원한 청소년과 그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자질 감별을 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통해 각 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 적절한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질 때 교정 처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소년원에 입원하기 전이나 입원 후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조사와 감별 그리고 합리적 분류 심사를 거쳐 청소년 개개인의 개별적 처우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한 진단 결과가 교육, 상담 처우 과정 전반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고 있다.

2.2.4 비행 청소년에 대한 수용 및 보호

소년원의 원생 수용과 교정 교육의 성격에 대해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 처분을 행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소년원이 법원의 보호 처분을 통해서 수용을 확보하고 교정 교육에 의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원론적,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한 때의 잘못으로 범죄하여 사회에서 이탈된 청소년들을 국가의 보호아래 수용하여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 교육, 직업 교육, 심성 훈련, 심신의 보호 지도를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년 수용 및 보호는 소년의 비행을 유발한 인격 및 환경적 요인 즉 보호성을 중시하는 소년의 개성을 중시하여 행위보다는 소년의 인간적인 인식을 통한 보호 조화를 강구하는 개별주의, 비행성을 지닌 행위로서 인성 및 행동, 환경적 제도인의 상담 및 개선을 추구하는 교육주의, 사법적 권위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각계의 참여를 허용하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과 연대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주의, 소년의

명예와 정조 등 인권을 존중하는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여 비행의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배척으로부터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밀행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2.5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내 처우

비행 청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가 낙인화, 악풍 감염, 자유 박탈로 인한 권리 침해 등 청소년의 교정 교화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비행 청소년의 사회내 처우라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자를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지도 감독 및 상담 서비스를 교화, 개선시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도, 선도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8년 12월 보호 관찰법이 제정되어 1989년 7월부터 소년범죄자를 대상을 실질적인 보호 관찰이 보호 관찰소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데 보호 관찰을 받는 청소년은 법원 소년부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보호관찰처분(2호, 3호 처분)을 받는 자나 보호 관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가석방 혹은 가퇴원한 청소년들이다.

2.2.6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 적응력과 전인적인 성장 발전 도모

소년 교도소를 출소하였거나 소년원을 가퇴원 또는 퇴원한 비행 청소년들이 가정, 직장 등의 사회 생활에 바로 복귀할 경우 그 동안의 구금, 격리 생활로 인해 현실과의 괴리를 느껴 심한 심리적 갈등과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무시로 인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 보호 및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비행 청소년의 사후 보호와 관리를 위해 갱생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범죄예방자원봉사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갱생 보호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비행 청소년의 사회성 강화와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행의 재할 및 상담, 개별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추수 지도에 전문 상담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3 청소년 상담 정책 근거법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교정 상담 정책은 법무부 훈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소년원법 등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들 법규는 문제 청소년들의 비행을 교정하고 예방하며, 이들의 재화를 돕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행동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밝힘으로써 비행 청소년에 대한 교정 상담 정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보호관찰 및 갇생보호 등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 관찰법이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 관찰법 제18조에 범죄예방자원봉사 위원은 사회 봉사 정신을 가지고 보호 관찰 대상자의 교화, 개선과 자립을 돕고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직무는 보호 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와 원호, 그리고 교도소, 구치소, 소년 교도소 및 소년원에 수용 중인 자들에 대한 환경 조사 및 개선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 지도방법이 동법 제38조 제2항과 제39조 제1항에 있는데 이는 보호 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을 관찰하는 것, 기타 보호 관찰 대상자가 사회의 선량한 일원이 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규정한 후 이를 위하여 숙소 및 취업 알선/직업 훈련의 기회 제공/환경 개선/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호를 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은 보호 관찰법에 나타난 상담 활동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법무부의 비행 청소년 상담 정책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소년원법 제24조의 “분류심사는 보호소년 등의 신체, 성격, 환경, 학력 및 경력과 그 상호 관계를 규명하여 보호소년 등의 교정에 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소년원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원장 등은 보호소년 등의 지닌 문제와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교정 목표를 조기에 달성 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상담 지도와 심리 상담을 실시한다. 원장 등은 보호자 등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소년원 원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무부의 상담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2.4 청소년 상담 정책을 위한 재정

국가 예산은 약 450억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유 재산 특별 회계라는 국특토회계를 포함하면 사업 예산은 약 550억원 규모 정도이다.

<소년원 및 분류 심사원 포함 예산>

일반 회계 - 271억 5,434만원

국유 재산 특별 회계 - 65억 4,187만원(대전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10개 시설 증·개축)

〈표 2-4〉 소년원 예산

연도 구분	'89	'90	'91	'92	'93	'94
계	12,232,749	14,023,464	16,348,369	19,415,464	21,444,277	23,389,693

<보호 관찰 예산>

일반 회계 - 179억 9,203만원(본부, 상담 감호소, 보호 관찰소, 한국 갱
생 보호 공단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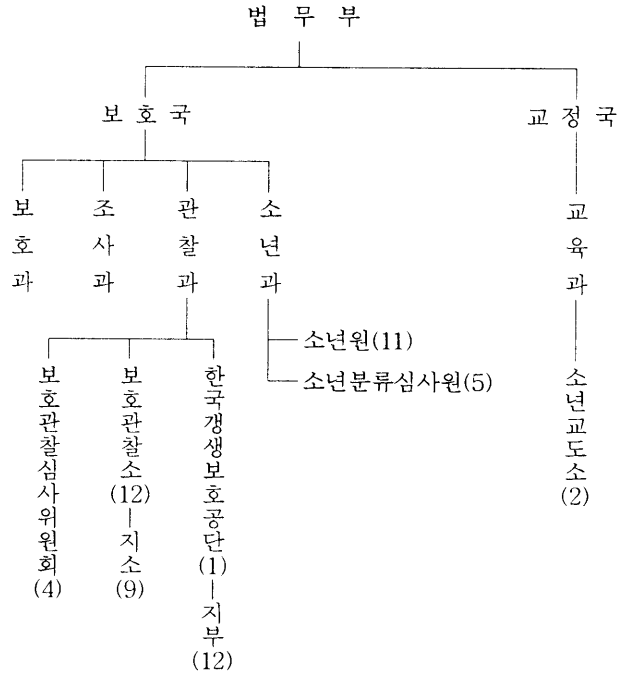
국유 재산 특별 회계 - 32억 5,707만원(광주 보호 관찰소 청사 신축 등
8개 시설 신·개축)

2.5 청소년 상담 행정 및 전달 체계

보호국 관찰과와 소년과에서 21개의 전국 보호 관찰소 상담실, 5개의

부록 2.
청소년에 대한
경찰청과
법무부 정책

전국소년 분류심사원 상담실, 11개의 전국 소년원 상담실 운영하고 있다.



〈그림 2-2〉 청소년 상담 행정 및 전달체계

2.6 상담 기관과 상담 활동

법무부와 관계 있는 청소년 교정 상담 기관으로는 전국소년원, 전국 소년심사분류원, 전국보호관찰소 등이 있다. 각 기관과 활동 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6.1 전국 소년원

우리 나라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 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 1)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 소년,
-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
- 3)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성행

교정을 위한 교정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 교육 시설이다.(소년법 제4조, 소년원법 제2조 제1항)

2. 법무부

1) 소년원의 조직

소년원은 법무부 보호국 소년과 산하의 소년 보호 이념에 입각한 수용 시설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11개의 소년원이 있다.

〈표 2-5〉 전국 소년원 보도직 현황

소년원 보도직 (94년)	총계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안양	춘천	대전	충주	전주	청주	제주
	483명	52명	50명	43명	43명	32명	48명	39명	43명	49명	49명	35명

2) 교육 내용

소년원은 환경의 조성하고 성행의 교정이라는 복지적 기능이 내포되어 있고, 특수 아동에 대한 문화 전달의 매개를 통한 건전 육성은 특수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수 교육 시설이다. 그러므로, 소년원을 정규 학교화하여 자격 교사를 배치하고 학력을 인정하는 등 소년원을 학교화하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원 교육은 소년의 발달 가능성에 착안하여 비행 청소년의 교육 가능성을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비행 소년의 반사회성과 반도덕성을 자주적으로 극복시키고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여 갱생케 하기 위한 제반 교육적 활동이다.

3) 교정 교육 단계

〈표 2-6〉 소년원의 교정 교육 단계

단계	과 정	기 간	내 용
제1 단계	입원자 교육	10일	*분류조사 *기초 교육과 훈련 *오리엔테이션
제2 단계	기본 교육	단기 : 6월 이내 중기 : 6월 이상 13월 미만 일반장기 : 13월 이상 19월 미만 특별장기 : 19월 이상(25월 미만)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 수업 *직업 훈련 *생활 지도 *특별 활동
제3 단계	사회 복귀 교육	10일	*진로 지도 *신상 정리·생활 계획 작성 *퇴원 후 문제 협의 *보호 관찰 준비 지도

부록 2.
정소년에 대한
경찰청과
법무부 정책

소년원에서의 원생에 대한 교정 교육은 소년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담 활동이 전부는 아니다. 상담 활동은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구사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교육 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소년원에서 직원 한 사람이 생활 지도, 교과 교육, 직업 훈련, 특별 활동 지도를 하면서 상담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한 사람의 직원이 교육과 상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담 활동은 극히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에 실시된다. 소년원의 일반 교육은 대부분 집단 지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 활동 중에 상담 작용이 이용되고, 상담적 활동 중에 교육적 활동이 활용되며, 이러한 활동의 폭을 넓혀 교육자, 상담자의 역할을 다할 때만 비로소 교정 교육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

4) 소년원에서의 심리 상담 및 야영 훈련

- 가. 단학
- 나. 마인드 콘트롤
- 다. 심리극
- 라. 내관법
- 마. 감수성 훈련
- 바. 정신 수련 과정 야영 훈련

〈표 2-7〉 심리 상담 및 야영 훈련 실적

연도별	구 분	정신수련과정 야영 훈련	심리극	감수성 훈 련	내관법	마인드 콘트롤	단 학
'90		16회 800명	4회 96명	42회 500명	—	2회 140명	4회 100명
'91		11회 608명	4회 100명	64회 668명	60회 200명	2회 140명	4회 100명
'92		10회 600명	4회 100명	83회 800명	140회 500명	2회 100명	4회 100명
'93		10회 500명	12회 300명	80회 800명	39회 350명	60회 600명	4회 100명
'94		500명 (충주,제주 제외)	300명 (서울, 안양, 춘천)	800명 (11개 소년원)	1,000명 (대구, 안양,춘천, 충주,전주, 청주,제주)	1,000명 (11개 소년원)	200명 (대구, 부산)

2.6.2 전국 소년 분류 심사원

2. 법무부

소년 분류 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그 자질을 판별하여 법원 소년부에 조사 및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 교정 처우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1) 조직 및 시설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의 5군데에 있고, 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분류 심사 업무를 대신 행하고 있다.

〈표 2-8〉 전국 분류 심사원 보도직 인력 현황

분류심사원	총 계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보도직(94년)	236명	85명	37명	33명	48명	33명

자료 : 법무부, 소년 보호 행정 편람, 1994.

2) 분류 심사 과정

(1) 분류 심사 대상

소년 분류 심사에는 수용 분류 심사와 외래 분류 심사의 두 종류가 있다.

수용 분류 심사 : 비행 소년에 대하여 시건의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서 소년을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하게 되며, 소년 분류 심사원에서의 수용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법원 소년부의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소년법 제18조 제3항) 되어 있다.

외래 분류 심사 : 소년법에 의한 수용 분류 심사와 소년원, 보호관찰소, 한국 갱생 보호공단 등에서 의뢰한 분류 심사 외에 일반인 또는 학교 및 가정에서 의뢰한 문제 또는 정상 소년들에 대한 분류 심사를 말한다.(소년원법 제26조)

(2) 분류 심사 과정

분류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표참조)

1. 분류 심사 기능 - 소년 비행의 개체적인 요인 규명, 소년 비행의 조기 발견 상담, 소년 비행에 관한 실질적 원인 고찰,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재비행 방지

부록 2.
청소년에 대한
경찰청과
법무부 정책

ㄴ. 분류 심사 영역 -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환경적 측면, 행동 관찰 측면

ㄷ. 분류 심사 종별 - 일반 분류 심사, 특수 분류 심사

〈표 2-9〉 분류 심사원의 분류 심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년도	계	수용분류 심사	외 래 분 류 심 사				
			소 계	가 정	학 교	사회보호단체	성 인
'89	8,868	8,244	624	17	302	305	-
'90	8,626	8,143	483	29	215	239	-
'91	9,489	8,974	515	10	213	292	-
'92	10,995	9,917	1,078	141	246	116	575
'93	13,461	12,617	844	113	526	152	53
'94	13,171	12,153	1,018	80	389	514	35

3) 분류 심사 처분 현황

아래의 통계를 살펴 보면 보호 관찰이 1989년에 시작된 이래로 보호 관찰 처분을 받는 청소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단기 혹은 정기로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청소년들은 점차로 줄고 있어서 1993년의 경우에는 전체 분류 심사원에 입소한 청소년 11,670명 중 3,538명이 소년원 입소를 함으로서 전체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소년 보호 행정 편람, p.376)

〈표 2-10〉 분류 심사 처분

판 정		연 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계	9,451	8,546	8,244	8,143	8,166	9,279	11,670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	2,116	1,907	1,611	751	401	288	373
2호	보호 관찰관의 단기 보호 관찰	-	-	1,274	1,983	1,984	2,288	2,720
3호	보호 관찰관의 보호 관찰	4,145	3,421	2,323	2,304	2,772	3,454	4,421
4호	아동 복지법상의 아동 복지 시설 기타 소년 보호 시설에 감호를 위탁	270	664	407	310	428	408	615
5호	병원 요양소에 위탁	-	-	-	2	5	1	3
6호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	-	-	776	1,216	1,291	1,528	2,076
7호	소년원에 송치	2,920	-	1,853	1,577	1,285	1,312	1,462

자료, 법무부, 소년 보호 행정 편람, 1994.

1) 조직 및 구성

보호 관찰기관의 구성은 크게 보호 관찰 심사위원회와 보호 관찰소(지소포함)로 이루어져 있다. 보호 관찰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소년법의 가석방, 가퇴원과 취소, 보호 관찰의 가해제, 정지와 취소, 가석방 중인 자의 부정기형 종료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곳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보호 관찰 심사위원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4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호 관찰소는 현재 12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그 아래 지소를 9군데 두고 있다. 보호 관찰소는 총 21개소가 있는 것이다.

2) 서비스 현황

(1) 보호 관찰 대상자

소년 보호와 관련된 보호 관찰 대상자가 되는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다.

- 가정 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 단기 보호 관찰 결정을 받은 소년(6개월), 장기 보호 관찰 결정을 받은 소년(2년)
- 형사 법원에서 : 선고 유예와 함께 보호 관찰 판결을 받은 소년(1년), 집행 유예와 함께 보호 관찰 판결을 받은 소년(유예 기간)
- 소년원 또는 교도소에서 : 가퇴원된 소년(6월~2년), 가석방된 소년(잔형 기간)

〈표 2-11〉 연도별 보호 관찰 대상자 현황

연도별 보호관찰 대상자	89년 (7-12월)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7,964명	19,934명	27,939명	31,787명	38,583명	43,099명

자료 : 법무부 보호국, 보호 행정(교육 교재), 1995.

(2) 보호 관찰 업무 및 서비스의 종류

- 소년원 수용자 등 환경 조사 및 환경 개선 업무
- 법원의 의뢰에 대한 판결전 조사 업무
- 보호관찰 업무
- 사회 봉사 및 수강 명령 집행 업무
- 범죄예방 업무

(3) 보호관찰 업무 및 서비스의 내용

보호 관찰은 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 상담, 선도 교육, 원호 구호의 3가지를 기본축으로 행하여진다. 그 중에서 지도 상담과 관련한 활동을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보호 관찰자에 대한 지도 상담 ; 개별적 지도 상담, 집단적 지도 상담, 보호자·가족 상담
- 선도 교육 ; 청소년 토요일 교실, 청소년 수강 교육, 사회 봉사 교육, 출소 후 사전 교육(보호 관찰 대상자 출소 전 보호 관찰관이 소년원·소년 교도소 등 수용 기관을 방문)
- 원호 구호 ; 복지 차원 대상자의 자립 생활을 위한 지원, 긴급 사유 발생시 응급 구호 비용 지급

2.7 청소년 상담 인력

2.7.1 분류 심사 전문 인력

소년 분류 심사원에는 5급 이상의 분류 심사관(교육학, 심리학, 사회 복지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과 분류 심사 요원(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교육학, 심리학, 사회 복지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두고 있다. 분류 심사관은 전국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5명을 포함하여 총 32명이며, 31명의 분류 심사 요원이 있다. 이 중 5개의 분류 심사원마다 각 2명씩 10명 분류 심사 요원들은 특별히 상담 요원으로 임명하여 특별히 상담자의 역할을 더하도록 하고 있다.(청소년대화의광장, 1994)

2.7.2 소년원 인력

소년원과 소년 분류 심사원의 직원은公安 직군 보도직을 주축으로 하고 의무, 간호 등의 기술직(의무직)과 별정직인 직업 훈련 교사, 교용직(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현재 소년원에는 총 711명의 직원 가운데 보도직이 483명이며, 분류 심사원의 경우에는 236명의 보도직이 있고, 총 322명의 직원이 있다. 즉, 소년들과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담당하는 보도직 공무원은 두 기관을 합하여 719명에 이르고, 보도직 중 일반 담당은 471명, 교사는 248명이다. 소년원은 학교 교육방식을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채, 특채로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수업 담당 교사의 수는 총 206명으로서 전체 보도직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직원대 원생 비율은 1 : 3.6(일본 1 : 1.6, 미국 1 : 1.2, 영국 1 : 1.6)이다.

2. 법무부

〈표 2-12〉 보도직 교사와 일반 학교 교사의 임용기준 비교('94. 12. 31)

구 분	보 도 직		일반학교 교 사	비 고
	공 채	특 채		
대 상	9·7급	7급	초·중· 고등학교	· 보도직 7급교사 특채 시에는 수업 외 수용 관리, 당직 근무등 일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직무의 내용을 고지 · 학교 교사는 '94년부터 국립대 우선조항을 배제, 국·사립대 구분없이 공개 전형
주 관	총 무 처	법 무 부	시·도교육청	
자 격	학력제한 없음	교사자격증 소지자	교사자격증 소지자	
전 형	· 9급 국어등 6과목 · 7급 교육학등 10과목 · 면접 : 공통	· 수업담당 : 교육학 · 감별담당 : 심리학 · 면접 : 공통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 교육학 (전공과목)	

2.7.3 보호 관찰소 인력

보호 관찰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는 크게 보호관찰관과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나뉘어진다. 보호관찰관은 5급 공무원으로서 보호 관찰법 제16조에 의하여 공채로 선발되며, 민간 위원은 ①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는자, ②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자, ③건강하고 활동력이 있는 자 - (보호 관찰법 제20조)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95년 현재 인원 구성은 보호 관찰 직원 290명(보호 관찰관 57명 포함), 민간 위원 9,465명이다.

집필진 약력

姜智遠

서울대 문리대 졸업
제12회 행정 고시 합격
제18회 사법 고시 합격
(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보호관찰소장

金聖二

서울대 문리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사회사업학 석사
미국 유타주립대 사회학 박사
(현)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청소년학회 회장

具本勇

한양대 교육학과 졸업
한양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
한양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
(현) 청소년대화의광장 상담조교수
한양대 교육학과 강사

黃順吉

승실대 사회사업학과 졸업
승실대 대학원 사회사업학 석사
승실대 대학원 사회사업학 박사 과정 수료
(현) 청소년대화의광장 상담조교수

청소년 비행상담

〈비매품〉

1996년 12월 일 인쇄
1996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朴 性 洙**

발행처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광장

주 소 서울 중구 신당6동 292-61
(홍진빌딩내)

전화 253-3811~6

FAX 253-3818

인쇄처 정민사 ☎ 278-0199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음.

ISBN 1 89-8234-037-8 93370

